

정책자료 2008-11-1

##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 수도권·광역시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황조사자료 I**  
-수도권·광역시-

정책자료 2008-11-1

---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11,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6-4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김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목 차

<b>I. 조사개요</b> .....	<b>1</b>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1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	1
3. 조사 방법 .....	3
4. 조사대상자 특성 .....	4
5. 조사문항 .....	7
<b>II. 조사결과</b> .....	<b>12</b>
수급자 01 .....	13
수급자 02 .....	49
수급자 03 .....	104
수급자 04 .....	122
수급자 05 .....	158
수급자 06 .....	189
수급자 07 .....	221
수급자 08 .....	256
수급자 09 .....	310
수급자 10 .....	364
수급자 11 .....	379
수급자 12 .....	401



##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함께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 진행

##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함.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위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2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2008년도에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제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수급가구와 공급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음.
- 질적조사 결과는 녹취록의 형태로 정리하여 동 연구 수행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리된 녹취록 원 자료를 별도로 엮어서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음.
  - 정책자료는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로 구성됨.
  - 본 정책자료는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 수도권·광역시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음.
- 본 정책자료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들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연구자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와 2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함.
  - 면담은 연구진 2명 이상이 방문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함.
  -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 연구메모 등을 사용하였으며, 후에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사용함.
  - 면담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함. 이 과정에서 본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함.
- 면담 장소는 수급자의 경우 주로 조사 대상자의 집에서, 공급자의 경우 업무 공간인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짐.
  -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면접 장소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업무환경, 조직분위기를 볼 수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줌.

4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 면접은 1차 조사의 경우 2008년 8~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조사는 9~10월 까지 실시하였음.

4.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수급자 18가구 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개 사례를 대상으로 함.

- 수급자는 수도권 6가구, 광역시 6가구, 중소도시 5가구, 농어촌 1가구로 구성 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도권 2개, 광역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어 촌 1개로 구성함.

〈표 1〉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지역별, 가구 특성별 배분

구분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조사
	서울 노원	인천 부평	대전 동구	부산 북구	전북 전주	경북 안동	전남 영광	강원 횡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sup>1)</sup>	1	1	1	1	1	0	1	7
①조건부수급			한부모1			단독1	일반1		3
②현재취업창업	한부모1	한부모1		한부모1					3
③가구여건곤란	한부모1				한부모1				2
④환경적응필요			단독1						1
⑤조건제시유예		단독1			한부모1				2
⑥자활특례	한부모1			단독1					2
⑦치료요양필요			한부모1						1
⑧65세이상	단독1			단독1	조손1	조손1			4
계	4	2	3	3	3	2	1		18
비고	장애2 노인1 근로1	장애1 근로2	장애1 근로1	노인1 근로2	노인1 장애2	장애1 노인1 근로1	장애1 근로1		

주: 1) 녹음기기의 문제로 인해 녹취록으로 기록하지 못했음.

가. 수급자 특성

- 조사대상 수급자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1가구, 한부모가구 9가구, 조손가구 2가구, 단독가구 6가구의 분포를 보임.
  - 수도권·광역시 가구유형은 한부모가구 7가구, 단독가구 5가구로 구성되며,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1가구, 한부모가구 2가구, 조손가구 2가구, 단독가구 1가구로 구성됨.
- 가구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구가 8가구, 노인가구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 중 근로가구는 응답자 18가구 중 8가구임.
  - 수도권·광역시는 장애인가구가 4가구, 노인가구가 2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2가구 중 근로가구는 6가구임.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원 특성은 장애인가구가 4가구, 노인가구가 2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가구 중 근로가구는 2가구임.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1	50대	수도권	한부모가구(3)	편모, 아들1 딸1/ 자활근로	자활특례
02	50대		한부모가구(2)	편모/아들1/ 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3	7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장애2급	일반수급 (65세이상)
04	50대		한부모가구(4)	편모/아들3/ 아들이 신장장애인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05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6	50대		단독가구(1)	시각장애 6급	조건제시유예

6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계속)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7	30대	광역시	한부모가구(3)	편모/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8	40대		단독가구(1) * 실제와 다름	근로안함/장애4급 인근 아파트에 이혼한 부인과 자녀2	조건부과제외 (환경적응필요)
09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근로안함	조건부과제외 (치료요양필요)
10	20대		한부모가구(2)	편모가구/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11	60대		단독가구(1)	단독가구/자활사업 참여	자활특례
12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	일반수급 (65세 이상)
13	60대	중 소 도 시	조손가구(3)	부인과 손자1	일반수급 (65세 이상)
14	50대		단독가구(1)	장애6급/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
15	5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호흡기장애 2급	조건제시유예
16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지체장애 1급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17	70대		조손가구(4)	노인과 손자3	일반수급
18	40대	농 어 촌	일반가구(4)	장애 6급 본인과 아들2/자활사업	조건부수급

주: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 나. 공급자 특성

- 총 7개의 사례 중 수도권 2개, 광역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어촌 1개의 지역 분포를 나타내며, 수도권의 경우 면접 중간에 연구 참여자가 교체되어 1개 지역에서 2명이 참여함.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공급자 3명, 여성 공급자 4명이었으며, 모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3〉 조사 대상 공급자의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지역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01	-	남	수도권(서울)	-	사회복지직
02	30대	남	수도권(인천)	2년 2개월	
	30대	여		3년 10개월	
03	30대	여	광역시	약 12년	
04	40대	남	광역시	약 19년	
05	30대	여	중소도시	-	
06	40대	남	중소도시	약 16년	
07	30대	여	농어촌	약 4년	

## 5. 조사문항

## 가. 수급자 조사문항

-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내용은 '기초보장수급자들의 근로의욕 및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자립과 자활 내용' 수립에 관한 것임.

8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 따라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 제도의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룸. 제도의 모니터링 대상인 수급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급여 신청 사유

- 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원인 파악

2) 일상생활의 모습들

- 단순 생계유지에 급급한지, 수급 탈피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내역,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 궁핍의 결과

3) 일

- 직업력,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하고 싶은 일, 현재 하는 일 등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대한 생각

-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지, 수급의 효과 등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 제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

〈표 4〉 수급자용 쟁점 및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일반현황	- 가족상황(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 - 원가족 배경 및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 내용 및 접근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력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 판정과정에 대한 이해 - 수급자 근로 이력 및 근로 의욕
조건부과제의 판정	- 조건부과제의 판정 과정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현재취업창업자: 근로 및 소득은닉 여부와 사유 - 조건제시유예자: 진단서 부정 발급 - 환경적응필요자: 진단서 부정 발급
자활사업 참여 vs 불참	- 자활사업 불참 사유 - 자활사업 한계 및 개선방안 - 조건부과제외자의 비공식 근로 - 자활사업 배치과정 및 현재 근로 실태 - 자활사업 사후관리 실태 -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 일반노동시장과 자활사업 비교
조건부 수급자 근로의욕	- 근로 및 수급탈피 의욕과 원인 - 통합급여체계에서의 근로 의욕 - 취업활동 및 취업환경 - 인적자본개발 활동 및 미래계획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 인식 및 갈등발생 여부 - 조건 불이행 판정 여부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부과 회피를 위한 소득 은닉 여부 - 추정소득부과 회피를 위한 진단서 부정 발급 - 추정소득 부과 경험 및 개선방안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문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요 조사내용은 주로 '근로능력판정 및 자활사업배치, 사후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와 관련됨.

10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제도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근로능력판정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 근로능력 유무 판정관련 업무
-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지침 상 기준의 한계
- 수급자와의 갈등
- 진단서로 인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방안
- 근로능력 판정 체계에 관한 개선사항

2) 조건부과제의 판정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 조건부과제의 판정관련 업무
-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상담과정 대체에 관한 논의
- 진단서 등 제출서류의 신뢰성
- 조건부과제외자 사후관리

3) 조건부 수급자 자활프로그램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 자활프로그램 선정 기준의 적절성
-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 욕구 고려
-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제재
- 자활 초기 목표에 대한 성과 및 한계



## 4)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 부과 기준 및 사례
- 수급자 신고 소득 및 제출한 진단서의 신뢰성
- 추정소득 부과 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갈등 사례

〈표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쟁점 및 질문내용

구분	질문내용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수급가구 수, 수급자 구성, 정서적 특성)</li> <li>- 공무원 주요 업무 및 기초보장제도관련 업무</li> <li>- 관내 조건부 수급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수</li> </ul>
근로능력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 판정과정 및 시기에 대한 수급자 안내</li> <li>-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판정절차 및 업무내용</li> <li>- 판정결과 고지 및 수급자와의 갈등사례</li> <li>- 진단서로 인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방안</li> <li>- 근로능력 판정 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li> </ul>
조건부과제외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과제외 판정과정 및 제출서류의 신뢰성</li> <li>-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상담 대체에 관한 논의</li> <li>- 조건부과제외자 비공식 근로실태 및 조사관리방법</li> <li>- 조건부과제외자의 탈수급 의지</li> <li>- 조건부과제외자의 근로활동 지원 방법</li> <li>- 조건부과제외자 사후관리</li> </ul>
자활프로그램 선정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적절성</li> <li>-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 욕구 고려 여부</li> <li>-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관리</li> <li>- 조건불이행 및 부정수급 제재</li> <li>- 부정 근로 수급자의 소득부과 비율 논의</li> <li>- 자활 초기 목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정도</li> <li>- 현 자활프로그램 내용의 한계</li> <li>- 자활관련 기관 및 담당자 네트워크 실태</li> </ul>
추정소득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소득 부과 기준 및 사례</li> <li>- 추정소득 부과 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갈등</li> </ul>

## II 조사결과

□ 본 자료집(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 · 광역시)은 수도권 · 광역시 수급자 12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1	50대	수도권	한부모가구(3)	편모, 아들1 딸1/ 자활근로	자활특례
02	50대		한부모가구(2)	편모/아들1/ 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3	7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장애2급	일반수급 (65세이상)
04	50대		한부모가구(4)	편모/아들3/ 아들이 신장장애인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05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6	50대		단독가구(1)	시각장애 6급	조건제시유예
07	30대	광역시	한부모가구(3)	편모/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8	40대		단독가구(1) * 실제와 다름	근로안함/장애4급 인근 아파트에 이혼한 부인과 자녀2	조건부과제외 (환경적응필요)
09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근로안함	조건부과제외 (치료요양필요)
10	20대		한부모가구(2)	편모가구/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11	60대		단독가구(1)	단독가구/자활사업 참여	자활특례
12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	일반수급 (65세 이상)

□ 수급자 01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2년부터 약 6~7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55	여	유	유
2	아들	23	남	유	유
3	딸	21	여	유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p><b>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b></p> <p>임대아파트 단지로 지하철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음. 방2개, 부엌, 화장실. 집의 청소상태가 많이 안 좋았음. 바닥에 옷가지나 여러 물건이 널브러져 있어서 조사자가 앉을 만한 자리도 별로 없었음. 귀찮아서 청소를 잘 못 하신다고 함.</p>
---

○ 조사평가

<b>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b>
원래는 이런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는데 자기가 요즘 정신이 없는지 어쩌다가 응하게 되었다고 함. 조사자에게 특별히 속이거나 숨기는 것은 없는 것 같았으나, 말하는 것이나 집의 청소 상태를 봤을 때 별로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보임.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한 후에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은 없고, 남편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서라고 함. 일반시장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면 좋겠지만 고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65세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하심. 현재 아들이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 제대 후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는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임.

Q: 어머님 일하고 돌아오신 거시죠?

A: 어저께, 어저께, 그저께 올라와 가지고 어저께 하루 쉬었다가 오늘 나가서 하고, 막 들어와서 안 그래도 6시, 5시 반에서 오신다고 해서 방을 좀 치워야지 뭐 이러면서 이려고 앉아 있는 중인데 전화가 안 오기에 아 난 힘들다고 날 좀 봐주고 며칠 뒤에 오시려나? (웃음)

Q: 아, 저희는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집에 안 계신가 해서 혹시나 하고 올라와 봤거든요. 저희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야지.

A: 아이고 웃겨.

Q: 서로 막 다른 생각을 하면서.

A: 지금은 이려고 앉아서 아직 6시 안 됐네.

Q: 안 계시면 6시까지 기다려볼까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불이 켜져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A: 이제 앞으로 부지런히 치워놓고 있어야지.

Q: 아니, 어머님 저희 다시 안 올 건데요.

A: 정말 빠져 갔고.

Q: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면 센터에서 일하고 오신 거예요?

A: 네, 복지관.

Q: 아, 복지관에서 일을 하세요?

A: 예.

Q: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A: 청소요.

Q: 복지관, 여기 옆에 월계 복지관?

A: 아니, 저기 노원에...

Q: 아, 조금 먼, 대개 멀다.

A: 거기 걸어서 지금 와 가지고 있느라고.

Q: 그럼 매일매일 거기에 일주일에 다섯 번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A: 한 달. 네, 계속.

Q: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월차도 쓰시고요?

A: 그러니까 저기 월, 일주일에 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안 나가고, 토요일은 나가는 거 있고 안 나가는 거 있고.

Q: 토요일 격주로 나가시거나, 나가실 때도 있으시고?

A: 예.

Q: 일을 하고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어머니?

A: 음. 60 한 2만원인가?

Q: 지금 어머니 자활 특례로 계신 거 맞으세요?

A: 예.

Q: 그럼 생계 급여는 따로 나오진 않는거죠?

A: 안 나오더라고.

Q: 어머니랑 식구가 또 어떻게 되세요?

A: 두 명.

Q: 아들 한명, 딸 한명 있으세요?

A: 예.

Q: 처음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따님 전화번호더라고요.

A: 아.

Q: 따님 핸드폰을 저희 받아서 전화 해갖고, 어머님 연락처를 알려주셔 가지고.

A: 어떻게 우리 딸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Q: 동사무소에 좀 변경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A: 어디에다가요?

Q: 동사무소에다가. 아니면 계속 따님한테 연락이 가니까.

A: 아. 그거를 그 전에 썼다가. 동사무소에 그게 왜 올라가 있죠?

Q: 수급을 받으시니까요.

A: 아 혹시 연락할 전화번호를 내가 알려 드렸나보죠?

Q: 명단이 다 있어서. 아마 나라에서 또 제도가 생기면 연락처 알려드리고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연락처는 꼭 알 수 있어야 되니까.

A: 그걸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린 건 같아요. 근데 내 걸로 바뀌었으니깐 아마 그 전화번호를 계속 이제 하니까 막 그게 제일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로 연락을 하신 것 같아.

Q: 따님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중학생?

A: 대학생.

**Q: 아, 대학생 이예요? 어머 너무 목소리가 귀여우셔 갖고.**

A: 스물 한 살이예요, 올해.

**Q: 따님은요, 아니 아드님은요?**

A: 아들은...저 쉰 세 살이라고 그런다. 스물세 살.

**Q: 어머님 나이를... 어머니가 5학년 3반 이신 거죠?**

A: 저요, 5학년 2반.

**Q: 대개 결혼 일찍 하셨나 봐요, 어머님. 자녀분들이 대개.**

A: 저요, 스물일곱 살예요. 스물일곱 살에 결혼했어요.

**Q: 그럼 아드님도 학교 다니시고 계시는 중이예요?**

A: 아드님께서는(웃음) 이제 학교를 아직 안 다니시고, 복학을 이제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Q: 아 군대 다녀왔구나.**

A: 예. 직장을 잡아 갖고 군대 다녀와서요, 잡아 갖고 지금 우선은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로 죽 같지, 대학을 복학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난 그게 요즘에 어디로 가는지 헛갈려 죽겠어요. 우선 돈이 중요하긴 하고 빨리 자리 잡아서 빨리 돈을 벌면 나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겠는데. 그것보다 우선은 머릿속 안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옆에서 자꾸 그게 아니라고 꼬시는지 어찌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Q: 어머님 대개 재밌으신 것 같아요.**

A: 고민스러워 죽겠어요.

**Q: 아드님은 취업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A: 예.

**Q: 근데 일자리가 뭐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취업을 하신 상태이신  
가 봐요. 매일매일 정규직처럼.**

A: 그러니까 한성 여고에, 한성 여고에 급식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음...에이  
다 말해 버리겠다. 그 6개월 동안 그 걷는 거 있죠, 그걸 걷어서, 아 그걸 6개월  
동안 지나가서...

**Q: 아, 인턴 같은 걸 했구나.**

A: 예. 인턴, 인턴인가 뭐가. 그런 걸 걸쳐서 지나가서 이제 직원으로 이제 한 달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

**Q: 아, 대개 성실하고 능력이 있나 봐요.**

A: 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Q: 책임감도 강하고?**

A: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제 직원으로 되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Q: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에는...**

A: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도 어찌어찌 하다가 학교를 가야지 하면서 계속 거기를  
머무르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잘 거기를 있게 된 거예요.

**Q: 왜요?**

A: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Q: 예, 녹음돼요.**

A: 아들 때문에...

**Q: 아, 아드님 일하는 건 동사무소에서 모르시는 거예요?**

A: 네, 동사무소에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Q: 저희가 뭐 이걸 동사무소에 알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는 연락처만 받은 거지 상관없어요.**

A: 그러니까 거기에 재가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들어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졌거든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그것도 부모가 어려우니까 이제 했는데, 어디 갔다 거기 갔다 그 때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올리니까 올리는 이상이 해주는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직업에서 나왔어요. 그래 갖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여기를 들어갔는데 뭐 여기서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잊어 먹고도 안 했고 그냥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지금 일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계속 그 길로 나갈 건지. 이제 아마.

**Q: 어머님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따님은 그럼 학교 다니고요? 그럼 2학년?**

A: 예, 내년에 이제 졸업해. 3년제.(웃음)

**Q: 그래도 다들 다 잘 커서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다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보시면 대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지금 댁에는 어머님이랑 아드님, 따님 세 분이 사시는 거예요?**

A: 예.

**Q: 어머님 그럼 언제부터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게 되신 거예요?**

A: 2002년도인가, 2001년도? 2002년도 2월 달 지나서 4월달인 가나, 5월 달인가부터 받게 된 것 같아요.

**Q: 그 때 누가 뭐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신청을 하라고?**

A: 그 때 오라버니가, 오라버니하고 또 그 아는 친구, 지인하고 가보라 그러지는 않고. 가보라고 한 사람은 오라버니가 동사무소 가면 어려운 사람을 해주는, 보살피 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 한번 가서 물어봐서 해라.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우선 제가 조금 배웠던 이제 뭐 시다 같은 일을, 미싱 그거 하는 데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좀 그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너는 빨리 가서 그런 데 알아봐라. 그래서 급해가지고. 가보는 게 있었구나, 가서.

**Q: 그 때 동사무소 가서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 그때 갑자기 어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A: 아, 그, 그 전서부터 어려워져가지고.

**Q: 그때쯤이 좀 더 어려워지셔서, 알려주셔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A: 왜냐하면, 제가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Q: 그때쯤에?**

A: 예. 제가 그 전에 남편이 갖다 벌어다 준 돈을 많이 다 뜯기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돈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분하고의 돈을 뜯기게 되는 바람에, 그거를 남편이 벌어다 주면서 다 그 돈을 갚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갚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어, 교도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서 교도소에 갔었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다 망가져 가지고 끝을 본거죠. 그러다가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배가 나왔었어요. 제가 속을 썩이니까, 속 썩인 걸로 인해서 술을 좀 드셨는데, 더 몸이 안 좋아 갖고 배가 나오시는 바람에 그러고 있다 한 3년 인가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죠.

**Q: 그럼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은 일하고 그러신 건 아니었죠?**

A: 그렇죠. 제가 그 전에는 맨날 벌어다 주면 쓰거나 하고, 갖다 줘서 뜯기고.

**Q: 그 시다, 미싱 기술 같은 건?**

A: 예전에 좀. 그런 건 없고.

**Q: 일 하셨던 건 아니고요?**

A: 잠깐 일을 거기 가서 밑에서 보조로 하고 있는데, 그 오라버니가 그런 걸 지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른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거를 해보고 다녀라.

**Q: 그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A: 그 때 정리를 할 거 하고. 전 그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 게 있는 걸 해주는 거 전혀 몰라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가갖고 이제 그런 거에 매달려서 네가 지금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이런 걸 네가 해야된다 그래서 했었는데. 저는 속으로 솔직히 오빠한테 욕을 했죠, 오늘 말하지만. 속으로, 내 속 마음으로, 난 정신이 없어서 다니지만 지가 와서 다니면서 좀 해주면 어때서 나한테 그렇게 보채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죠.

**Q: 그때는 월계동에 사셨던 거예요? 그때도?**

A: 장위동.

**Q: 장위동 사시다가 수급 하시면서 옮기신 거예요?**

A: 예.

**Q: 그럼 원래는 이쪽으로 오시면서 아파트로 들어오신 거죠, 어머니?**

A: 네, 거기에서 사는 데 거기에서 이제 또 옆에서 누가 교회, 성당에든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옆에서 성당을 다니라고, 교회를 다녀보라고 해서 이제 성당을 가게 됐었어요. 성당에서 이제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우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 갖고 그 분들이 다 가서 아파트라도 빨리 해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어느 날 갔더니 거기서 빨리빨리 해 갖고.

**Q: 그럼 처음에 신청은 장위동 동사무소에 하셨던 거예요?**

A: 거시서 이제 그 분이 떠나시면서 저를 거기다 올려놓고 가셨나 봐요, 아파트를. 근데 나는 하도 그때만 해도 뭐 이런 데 들어오면, 오려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딴 데로 이사를 가나 이 생각만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Q: 그러니까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미싱 기술을 배우긴 배우셨는데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A: 그렇다고 내놓고 할 그 정도는 아니라, 취미로 조금씩 알아보는 정도.

**Q: 결혼하고 나서서도 일 하신 건 아니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미싱 일 조금 하시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신 거죠?**

A: 응.

**Q: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처음에 갔을 때 뭐 어떤 어떤 서류 가지고 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던가요?**

A: 일단은 이 전세 계약서하고, 뭐 아이들 가니까 거기다 아이들 이름 같은 거 다 쓰라고.

**Q: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어요, 공무원 분들이?**

A: 응.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Q: 그럼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도 아마 어머니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도 일을 하라고 동사무소에서도 말씀해주시던가요?**

A: 예, 그리고 그 전에는 그 후에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제가 딴 데서 일을 했었어요. 딴 데서 이렇게 그때도 청소를 딴 데서 일을 좀 했는데. 얼마 후에 이리 들어오시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런 데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 그러셨

는데, 난 영문 모르고 안 간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가시겠냐고 그러시면서 여기 자리 비었을 때 들어가시면 좋다고. 안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게 이제 그만 두게 됐었어요, 일이.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기는 가긴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모르니까. 그 해줬던 저기 가 갔고 동사무소를 쫓아가서 그 전에 참, 그런 데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오라고 했든가 뭐라고 했었어요. 아, 나 가서 일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을 못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돈이 적대요, 돈이 적은 데도 이제 그냥 하겠다고 하니깐 이제 내가. 그럼 그러시겠냐고 그래 갖고 막 연락해서 어디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는데 간 게 그 연락을 취해서, 받아서 간 곳이 이런 계통의 하는 자활이라는 데...

**Q: 자활후견기관?**

A: 네. 그런 데를 간 거예요.

**Q: 그때도 청소사업단 쪽에 계셨던 거예요?**

A: 네. 그렇게 돼서 연결이 돼서 이제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Q: 그럼 자활사업단 언제, 한 2002년도 정도부터 하신 거예요?**

A: 아니요, 여기 이사 온지가 한 3년...

**Q: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A: 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북, 그게 장위동 살면서 성북구에서 있었던 거예요. 성북에서 거기 근무가 한 8개월 인가 얼마 정도 있었나 봐요. 8개월 인지, 9개월 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건 된 거 같아요. 1년, 그건 된 거 같은데 거기서 이 집을 받아주는 바람에 이제 이걸 해 가지고 이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Q: 노원구 쪽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가신 거예요? 3~4년 되신 거예요? 자활사업 참여하신지?**

A: 성복구에 것 포함하면 4년 됐고요.

Q: 어머니 처음에 공무원 분이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하셨을 때는 왜 싫다고 그러셨어요? 일단은 원래 하던 일이 있으셨던 거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일이 더 못하는 생각이 드셨어요, 어머니?

A: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Q: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던가요?

A: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것보다도 많이 해주긴 해줬는데 내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Q: 어머니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A: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해가 안 됐다고 해야 되는 건가.

Q: 아니면 심리적,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왠지 믿음이 안 간다거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A: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개성적으로 내 생각대로 너무 심하니까 그 분이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해줘도 내가 굳이 내 고집에 의해서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런 데 가서 이렇게 조금 시다 같은 일을 해도 이제는 거기 일이 많으면 사람을 꾸준히 쓰지만, 일거리가 많으면 사람을 계속 쓰지만, 일거리가 적거나 할 경우에는 자꾸 나가라 들어가라 내 사업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서럽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는 여기 와서 거기 돈은 적어도 여기는 뭐 사업이 뭐 어찌고저찌고 해서 한다 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또 조금 일을 잘못한다 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건 없으니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만 싫다고 하고 그냥 갔죠, 갔는데 나중에는 제가 가서 매달렸죠.

Q: 어머님 원래 같은 사업단에서 2년 이상 있기 어렵지 않나요?

A: 자활후견 복지관예요?

Q: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정도 하면 다른 사업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A: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 뛰가 있는 것 같아요.

Q: 그거와는 좀 다르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A: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계속 저를 써주니까 제가 계속 근무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안 써줄 경우에는 2년이든 1년이든 있다가 3년이든 뭐든 있다가.

Q: 거기 사업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청소 말고도. 어머님 하시고 싶어 하던 그런 봉제나 이런 것도 사업단에 있지 않나요? 노원구 쪽에는?

A: 이런 일 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Q: 어머님이 청소는 고르신 거예요, 하시겠다고?

A: 청소는 제가 하겠다고.

Q: 선택하신 거죠?

A: 예.

Q: 그럼 거기 직원이 다른 일자리 어떤 어떤 게 있다고 다 설명해 주시던가요?

A: 설명, 네 그거는 해주시던데요. 뭐뭐 있는데 어디 소속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오로지 청소만 한다.

Q: 다른 것도 잘하실 것 같으신데...



A: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 청소 이제 그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도.

**Q: 옮길 수 있지 않나요?**

A: 이제 청소를 안 하면 이제 댄 일을 해야 되겠죠.

**Q: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A: 글썄 아직은 뭐 그냥 계속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도 그렇고, 청소 일도 그렇고.

**Q: 그러면 처음에 한 6~7년 전에 수급 받으실 때는 어머니가 일도 하셨지만, 그때는 자녀분들이 다 미성년자여서 급여를 받으신 부분도 있으세요? 일 하시면서?**

A: 뭐 동회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데서 뭐 그 때 54, 60, 50 얼마든가 받는다고 하면 얼마간 예를 들어 받는다고 하면 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채워주는 거죠.

**Q: 한 2~30만 원 정도 받으셨겠어요?**

A: 네, 그 정도 나왔을 거라고.

**Q: 혹시 그럼 그뻘 자활사업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소득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소득을 좀 낮춰 말하신 적도 혹시 있으세요?**

A: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올해, 올해 되고 올라갔으면 수급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고 얼마 안 되서 바로 들어갔고 한 집에 가서만 좀 이렇게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래도 많이 나를 거기서는 설명을 충분히 안 해준 것보다도 그래도 나를 많이 생각해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이런 데 들어가서 꾸

준히 있다 보면 낫겠다 싶어서 이리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갔냐고 나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Q: 아, 그 땐 처음에는...**

A: 내가 일 하는 데 그 집에 목적을 두는 거지, 여기에서 뭘 말을 하든 여기에다 목적을 안 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던지 안 해주셨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보다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변동 사항을 해 갖고 받는 것보다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이런 데 와서 꾸준히 있으면 정신적으로 몸 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해서.

**Q: 안정감도 있고?**

A: 안정감도 있고, 이런 정신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들어가 계시라고 불렀었어요. 그 전에는 안 간다고. 설명을 충분히 했던 안 했던 그걸 떠나서 무조건 안 간다고 한 거예요.

**Q: 그 당시에 어떤 말을 들어도 안 가신다고.**

A: 무조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참고 들어도 좋을 수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Q: 그때는 일을 바깥에서 일 하실 때는 공무원이 소득신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어머니? 월급명세서 이런 거 내셨어요?**

A: 신고하라고 하고...

**Q: 조사도 하시던가요 혹시?**

A: 내가 뭐 그렇게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창 써내고.

**Q: 추정소득을 좀 높게 받으신 거예요? 버신 것보다? 억울하셨겠다.**

A: 그때 당시 몇 개월인가 그때 당시 돈 일하다가 하나도 안 받고 했는데 거기서

소득을 이제 얼마를 이제 올려서 잡아 갖고.

**Q: 급여가 좀 깎이셨잖아요?**

A: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깎였는지 어졌는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잡아놓아야 된다고.

**Q: 그 때 억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A: 그냥 뭐 의아해 했어, 제가 모르니까.

**Q: 부과할 때 뭐 어머님한테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A: 아니 그러니까 소득을 얼마나 잡아 놓아 드렸다고. 이제는 뭐라 해야 되나. 그  
러니까.

**Q: 사실 그 때 어머니는 소득이 없었는데 공무원은 소득이 있다고 한 거죠?**

A: 좀 억울하긴 했는데 참았어요.

**Q: 왜 참으셨어요? 항의하셔도 됐는데.**

A: 거기 가지를 못해요, 제가.

**Q: 동사무소를요? 왜요?**

A: 전화도 못 하고, 항의도 못하고.

**Q: 불편하셨어요?**

A: 불편한 것보다도 아무튼 그냥 뭐 가면 못 갔어요, 그래 가지고.

**Q: 처음에는 수급 받으시고 그러는 게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A: 예.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좀 괜히 그냥 거기 가면 뭐라 해야 되나 암튼 글썩요

그래 갖고 말았죠.

**Q: 만약에 지금 그때랑 비슷한 일 생기시면 이번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A: 지금요? 지금도 저는 내버려둘 것 같아요.

**Q: 지금 국가에서 배정해주고 계신 일을 하고 계셔서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때는 많이 억울하였겠어요.**

A: 예.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해도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럴듯하게 이해가 가니깐 뭐 굳이 가서 따져야겠지만, 제가 뭘 따지나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자활 저기로 있으니까 돈이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고 이래요. 왜 안 나오냐고 이제 또 가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지 왜 없냐고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자활특례로 가셔서 그렇게 돼서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런가보다.

**Q: 다 받아들이시네요, 어머님?**

A: 그래요.

**Q: 지금 의료급여는 받고 계신 거죠?**

A: 네.

**Q: 어머니 특별히 몸이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A: 예, 몸이 그렇게 아직한 것은 제가 못 느낀 거 같은데요.

**Q: 자녀분들도 다 건강하고요?**

A: 좀 뭐 몸이 많이 안 좋긴 했었는데, 이제 군대 가서.

**Q: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지진 않으시겠네요?**

A: 네. 저희는 별로 안 가는 편이에요.

Q: 어머님 생각하실 때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일자리 구해서도 일해보시고 지금은 자활사업 참아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게 좋고, 아니면 어떤 게 나쁘고 그런 장단점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A: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좀 뭐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건 자활 참여 안하고 나가서 하는 거는 수입이 돈이 좀 될 수 있고.

Q: 돈을 더?

A: 예를 들어 여기 기준에 70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에 따라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봐요. 그 밑으로 받는다는 건 조금 안 생각해봤어요, 제가. 밑으로 받는다고 하면 좀 덜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 위로 받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여하면 그 돈을 뭐 70만 원 정도에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맞춰서 주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 그런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맞나요?

Q: 아무래도 바깥에서 일을 하시면 어머니 생각에 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하면 여기 버는 소득에 맞춰서 쓰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A: 응.

Q: 그럼 좀 수입이 적어서 아쉬울 때도 있으시겠어요?

A: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Q: 일 하는 그런 건 어떠세요, 어머님? 만족감이 드세요?

A: 일 하는 거는 뭐 그냥 나와서 그 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Q: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거에 힘이 부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요?

A: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에서는 많이 또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벗어

나게 해주시고.

**Q: 그러면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업무 강도나 안정감을 생각했을 때는 자활이 더 좋으신 건가요?**

A: 먼저도 말씀을 해주신 거에 의하면, 그 쪽 해주셨던 공무원 분들이요. 해주셨던 그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수입은 적지만 그거 별어서 생활하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세 좀 내고 뭐 사고 이러다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자녀들은 뭘로 해서 보낼지를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죠. 본인들한테도 미안하죠 그게 항상.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뭐 여기서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봐주시고 다 이렇게 하니깐 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나를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때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를 못했거든. 아주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래 가지고 남편이 아플 때 조금 좀 저기했으면 조금 더 빨리 우리 남편이 고집이 세서 눈 감기 얼마 전까지 자기가 벌어야 된다고 해서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갖다가 친구를 다 줬는데 친구들이 따 떼어먹었어, 그 남편 친구 분들이.

**Q: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아직 못 받으신 거죠?**

A: 예. 못 받고.

**Q: 빚은 없으신 거죠?**

A: 빚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 내가 이제 그 보험 회사 이렇게 가면 거기서 제가 없으니까 빚 지은 상태에서 그렇고 계속 거기서도 일단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 주고 거기서 제가 다 도로 빼서 쓰는 거죠. 대출? 다 쓰고, 또 학생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대출?

**Q: 학자금 대출?**

A: 그런 식.

**Q: 그럼 뭐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 가지면 학자금 대출은 갚을 수 있으니까.**

A: 그거를 원래는 내가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에 조금 안정, 1~2년이든 지난 다음 부터는 제가 돈을 맡아야 되는 건데 그때서부터 남편이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 바람에 너무. 갖다 주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생활을 못 하니까 계속 제가 제 돈을 다 까먹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저기다 까먹고, 도로 다 까먹고 그랬었는데. 애들한테 지금 그거는 절대 애들 애.

**Q: 비밀이에요?**

A: 애들한테 말을 하면 말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만저만 해서 솔직히 엄마가 돈을 다 썼다, 돈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될 수 있는 한 내가 별어서 그걸 다 갚아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하지 말자. 나 혼자만.

**Q: 혼자만 알고 계신 상태신거죠?**

A: 예.

**Q: 지금은 급여로 빚도 갚고 하시려면 많이 빠듯하시겠어요?**

A: 네, 빠듯해요.

**Q: 많이 힘드시겠어요.**

A: 네.

**Q: 그럼 어머니님 그냥 밖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드시겠어요?**

A: 그래, 바깥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만일에 지금 그랬다가 그분, 그분 말에 내가 조금 그랬다고 해서 책임감 없이 거기서 그냥 안 쓴다, 쓴다 이러면 그나마 적게 받는 돈도...

**Q: 못 받으실까봐?**

A: 네.

Q: 그럼 혹시 밖에서 직장 구하려고 알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A: 없어요.

Q: 그런 적은 아직 없으시고요? 자활 참여하신 뒤로는 계속 자활사업만 하고 계신 거죠?

A: 예.

Q: 어머님 근데 병원은 별로 안 가시고, 지금 나라에서 돈을 조금 받고 계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시면 수급 받는 거 말고 밖에서 일을 하셔서 더 많은 소득을 버셔도 그렇게 아쉬울 게 크게 없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몸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돈은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의료급여 때문에 수급자로 남고 싶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 거 같아서요. 어떠세요?

A: 아. 근데 그게 나는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제가 올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 실수를 했다거나 뭐를 못했다 하면 그렇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여기 70을 받는다, 우리 2인 가족 뭐 하면 70만원인가 뭐라 하더라고요.

Q: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A: 그래서 거기서 그게 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70만원인데. 그러니까 70만원을 제가 받고 있어요. 일단은 받는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 그거를, 70만원인데. 딱 데 가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원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바로 피잖아요 생활이. 근데 그렇게 해 갖고서 나를 그러면 60세까지 당신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냥 두겠다라는 그런 명백한 조건이 있다면 제가 지금 한번 모험을 걸고 옮겨보고 싶은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하면 나 안 갈 거야 이런 식이면 나는.



**Q: 왔다 갔다 하면서?**

A: 그래도 이제 좀 적어도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Q: 자활 사업은 한 65세까지 하실 수 있는 거죠?**

A: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65세 되면 또 뽑더라고 또 저쪽에서.

**Q: 다른 일자리로?**

A: 예.

**Q: 그럼 자활 사업 참여하시는 데 중간에 공무원께서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일 잘 다니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A: 이제는 제가 근무하는 거는 복지관이니까 자활 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Q: 자활센터 쪽에서?**

A: 예.

**Q: 자활센터에서 그 복지관 일자리를 알선해 준 건가요?**

A: 예. 그래 갖고 그쪽에서 많이 이제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내가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어떻게 가셨냐 물어보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65세 60살까지라든가, 50 몇 살 까지라든가 저를 그렇게 받아줄 때가 있을까요?

**Q: 어머니는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하신 거네요. 더 높은 수입은 얻을 수 있지만 불안정한 일자리하고, 좀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중에서 후자를 택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택하신 거죠.**

A: 근데 여기서도 약간은 불안하기는 해요. 맨날 제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Q: 계약 새로 하셔야 돼요?**

A: 네, 그래서 1년 되면 또 어디로 가는 건가.

**Q: 한번 여쭙보시지. 어떻게 되는 건가.**

A: 내가 그래서.

**Q: 지금 하시는 곳이 그래도 마음에 드시나 봐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있으신  
게.**

A: 네, 다들 잘해주시고. 딱하다고 또 많이 배려를 하니까.

**Q: 센터에서도 어머니 일 하실 때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잘 조정  
해 주시고 그러세요?**

A: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딴 데보다 잘  
그런 거 얘기하면 잘. 내가 말을 안 해갖고 더 얘기 좀 해주시면 더 반영을 많  
이 할 건데.

**Q: 어머니 별로 요구사항이 없으신가 봐요? 다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요.**

A: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당한 걸 그냥, 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Q: 제천에 가셨었어요?**

A: 아무한테도 그냥 말 안하고 거기 일찍 나오신 주임 선생님 계세요, 주임 선생님  
일찍 나오셔서 가지고 거기다가 얼른 알리고 갔더니 이제 또 그러시더라고. 돈을  
조금 걸어서 주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갔다 올 건데 하면서.

**Q: 정이 있네요, 그곳에?**

A: 그래서 어머니 맨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Q: 어머니 말씀 하세요.**

A: 그 쪽에서 그걸 받아 갖고 오면서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가.

**Q: 다행이에요. 좋은 곳에서 일하고 계셔서.**

A: 예. 거기서는 뭐 나 이제 끝날 때까지, 나 끝날 때까지 이제 세금 줘서 해주신다고 하긴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이제 그것도 내가 실수해서 안쓰나 그런 불안한 마음.

**Q: 어머님 책임감 있으셔서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A: 그러다가도 아이, 내가 어디 돈을 더 받는 데를 한번 가봐 그 생각을 하다가도.

**Q: 그래도 이만한데 없다 생각하고 다시 다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A: 예. 그러고 있다가 돈을 더 좀 벌려고 하다가 빨리 죽나.

**Q: 아무래도 밖에서 일을 하면 일이 더 힘들지 않나요? 더 많이.**

A: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해봤거든요. 한 8개월인가 있어봤는데, 8개월,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거기서. 계산해 봤더니 1년 좀 넘었더라고요. 1년, 13개월인가?

**Q: 오래 일하셨네요. 1년 1개월 정도?**

A: 1년 3개월.

**Q: 1년 3개월. 네.**

A: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해봤는데 거기나 거기서 일을 하나 여기서 일을 하나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Q: 아, 일이 힘든 정도는 비슷하시고 급여 차이는 조금?**

A: 급여 차이는 조금 낮죠.

Q: 거기가 좀 낫군요, 밖에서 일 하는 게.

A: 거기서 일 할 때가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Q: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도 지금 하시는 게 더 오랫동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A: 네.

Q: 어머님 집에 계신 것보다 일 다니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A: 그런데 이제는 약간 건강, 체구 적으로나 왜 이렇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역세게 빠르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기 야간 일 같은 것도 조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Q: 자활사업 하시면서 다른 데 가서도?

A: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새치기해서 벌어 쓰는 돈?

Q: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A: 그렇게 해서 버는 건 이제 파출부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거 같은데요. 조금 해 봤는데 저는 덜 극성 맞아 가지고.

Q: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A: 그렇겠죠, 아무래도 생활이 여기서 워낙 그러니까. 좀 벌어야 생활이 더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저도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뭔가가 어디가 약간 모자라는 거 같아요.

Q: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래서 잠시 일을 해보시다가 지금은 자활 사업만 참여하시는 거죠? 다른 거 더 일 안하시고?

A: 네.

**Q: 주위에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A: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항상 저, 이렇게 그 억척을 못 떠는 내 자신이 조금, 아 난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Q: 반성하는 마음이?**

A: 응, 반성을 하는 거야, 항상. 뭘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빚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사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안 나쁘게 하나 이 연구만 하고 앉았으니까.

**Q: 건강이 켈 중요하죠, 어머님.**

A: 내가 좀 모자라나.

**Q: 아니에요. 진짜 더 힘들어요.**

A: 그래 가지고 좀 쉬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저기하면 다녀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Q: 몸이 더 좋아지면 별도로 또 일을 하실 생각도 하세요?**

A: 네,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일을 해보면 다만 얼마라도 벌어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Q: 많이 힘드실 텐데, 일을 두 개나 하시면.**

A: 그럴 땐 막 화나요. 제 돈 다 가져가서 안 주는 분들. 막 원망하게 되고 그래요. 막 욕을, 지나간 거니까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생각하겠죠. 할까? 안 보이니까.

**Q: 모르겠어요. 미안해하는 사람...**

A: 일단 저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 먹지 않을까 그런데.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다니면 멍퐁이 같은, 내가 내 스스로 멍퐁이 같아요, 멍

꿈이 같은데 그 분들을 저주하는 마음은 없어지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는데 좀 답답해 좀 맹꽂이 같아요. 그 분들을 욕을 하면서도 내가 다니긴 다녀요.

**Q: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그 분들은 혹시나 일 하시는 걸 동사무소에서 걸리고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A: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봤던 것들이고 여기 와서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모르겠어요. 그걸 걸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하면? 그렇다고 맹꽂이 같아,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맹꽂이 같아요.

**Q: 좀 굶은 일 하시고 이런 분들은 두 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A: 나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빨리 빨리 해서 생활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나는 뭐 나도 조금 있으면 나도 60이 다 되어 가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벌겠나 하는데, 자꾸 빼서 쓰면서...

**Q: 불안하실 때가 있으시고. 저축은 좀 하고 계세요?**

A: 저축은 뭐 거의 못 하지.

**Q: 한 달 받아서 한 달 쓰시는 정도?**

A: 그거 받아쓰니까 애들, 원래는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Q: 생활하기에도 빠듯하실 거 같아요.**

A: 아직은 이제는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Q: 졸업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 직업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A: 받으러 가려고는 했는데 안 받아 봤어.

**Q: 받으러 오라고 안내 같은 거 해주시던가요?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활센터 같은데서?**

A: 여기 자활에서는 바로 이제 수서에서 넘어와서 일을 하는 케이스로 돼서, 바로 일을 하게 돼서 이리 왔으니까 여기서는 아니고 저쪽에 있을 때는 딴 거 교육 받으러 갔죠.

**Q: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따로?**

A: 배우고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1년 되면, 아니 바뀔 때에 이 사람을 어디다 넣어주나 해가지고.

**Q: 기초 교육 같은 거...**

A: 치매 할머니들.

**Q: 아, 간병?**

A: 응, 간병인 같은 그런 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했었는데 제가 못 갔죠.

**Q: 지금 혹시 만약에 받고 싶은 직업 교육이 있으시다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뭐가 받고 싶은 교육 같은 게 있으세요?**

A: 지금은 받고 싶은 교육은 뭐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막연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Q: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건 없으시고 지금 상태에 그냥 만족하시는 거예요?**

A: 응.

**Q: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A: 60살.

Q: 이제 한 7년 정도, 7~8년 정도 하시면.

A: 응.

Q: 어머니님 그러면 혹시 근로소득공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일 더 많이 하셔서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A: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Q: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원래 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정도 돈이 되면 어머니가 더 이상 그 돈을...예를 들면 어머니가 지금 아마 아드님이 휴학 중이시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아니실 것 같고, 따님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따님이 포함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A: 예.

Q: 어머니랑 따님이랑 해서, 한 달에 급여가 70만 원 정도 되면 어머니가 지금 일을 해도 70만원을 버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70만원을 버셨으면 그 중에 30%는 안 번 걸로 생각을 해줘서, 7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한 50만원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 보충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A: 들어본 거 있는 거 같긴 한데...

Q: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A: 예.

Q: 그건 왜 그렇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자활 사업은 소득 공제 되는 거잖아요.



A: 원래 받는 건데.

Q: 어머님 지금 급여가 얼마세요?

A: 지금 63만원, 62만원 이러는데.

Q: 혹시 4대 보험 이런 것도 다 되세요?

A: 그런 거 안 돼요.

Q: 그럼 63만원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전혀 없어요, 어머님?

A: 네. 전에는 몇 만원씩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줘요.

Q: 아마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제도 지침 상에는 자활 소득 같은 경우는 30%를 공제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아무래도 휴학 중이고 가계 소득이 있으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번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제도가...

A: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60만원을 받으면 30만 원 이든가, 50만 원 이든가, 예를 들어 얼마를 올린 나머지 남고 나면 그거를 준다는 얘기시죠? 근데 그걸 전혀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Q: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아마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설명 해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희도 어떻게 급여 책정하셨는지 모르니까 왜 그런지 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A: 네.

Q: 원래 나라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A: 네.

Q: 어머니 만약에 일을 안 할 수만 있다면 혹시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일 하는 게 더 좋으세요?

A: 저요?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Q: 쉬고 싶으세요, 어머니도?

A: 응.

Q: 지금은 수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일을 안 하면 수급을 못 받게 되니까.

A: 그렇죠.

Q: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좀 지치셨나 봐요.

A: 그냥. 빨리.

Q: 쉬고 싶으시구나. 일을 계속 하시던 게 아니어서 일 하는 게 힘들시겠어요?

A: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일을 원래는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어디서 내 형편이 확 퍼서 일을 진짜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때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Q: 소득만 있다면?

A: 네 그렇죠. 못 하게 해 놓았으니까.

Q: 어떤 분들은 좀 잘못된 방법인데, 일을 하기 싫어서 진단서 같은 걸 부풀려서 제출하셔서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A: 그래서 전 아직까지는 병원에를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불편한 건 이, 치아를 해야 하는데. 치아가 그 때 요번 여름휴가 때, 저는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또 어디를 가면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가 망가지고 충치먹고 흔들리고 빠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이거를 한번 가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견적이 뭐 750만원?

**Q: 치과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A: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750만원 가지고 꺾꺾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만 있는 거 외에는 아직은 부풀려서 하고 싶은데 어디가 어떻게 되야.

**Q: 크게 아프신 데가 없으니까, 치과도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A: 그러니까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치과에서 깎나, 300만원만 들여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막 매달려 보고도 싶은데 그 분들도 남아야 사는 직업인데, 어려운 건 내 사정이고.

**Q: 치과 질환은 의료 급여로 안 되는 거죠?**

A: 안되나 봐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Q: 돈을 그대로 다 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군요.**

A: 견적을 받아 봤어요. 올 여름에 하도 궁금해 가지고. 그랬더니 750만원. 300만원 같으면 어떻게 해 보겠지만 빚을 내든지, 누구 허리를 잡고 늘어지든지 뭐 진짜 어떻게 해보겠지만 저기 모야 750만원이라니까 누구 허리를 잡아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척집 가서 손을 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전에 친척들을 귀찮게 굴어 가지고.

**Q: 친척 분들하고 연락은 자주 하세요?**

A: 네,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Q: 크게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친척들이 도와주고 그러세요?**

A: 아니요, 안 도와주던데요.

**Q: 도와주진 않으시고?**

A: 예.

**Q: 연락만?**

A: 아니요, 제가 연락도 안 했었어요. 빠져 가지고 연락을 안 했었어. 이렇게 되기, 동사무소에 다 올리기 이전에 제가 한번 오라버니한테 돈이 아쉬워서 급해서 해달라 그랬는데 그 때 안 해줘가지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길래, 남들하고 여럿 보면서 남들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난 내 댄에는 그래도 오라버니라고 말을 했는데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자꾸 가깝게 하다보면 그 사람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정하지만 버려버리자 그래서 잊었죠.

**Q: 그때는 처음 몇 년간은 별로 도움을 받으실 때가 없으셨던 거네요?**

A: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받아서 이거 쓰고, 이거 받아서 보험 같은 거 넣고 그 래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대출해서 쓰고.

**Q: 빠듯하게 사셨다. 열심히 그래도. 요즘은 좀 형제분들하고 연락도 하시고?**

A: 귀찮게 이제 그 쪽에서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Q: 아,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

A: 내가 말려 들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그랬어. 안 그랬으면 얼마 전 에도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갔다 올 건데 이렇게 갔다 오게 됐어요.

**Q: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 건, 어머니 이제 5년 뒤 정도에 미래에 대한 생**

각을 해보잖아요? 5년 뒤쯤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A: 일단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됐으면 하고, 우선은 건강도 해야 되겠고요. 또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살게 해 주셨으니까 돈을 모아서 통장에 집어넣고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있으면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다니고.

Q: 혹시 뭐 정부에 대해서나 이 제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A: 고쳐야 되겠다는 건 그다지 없는 거 같은데.

Q: 제도에 만족하세요?

A: 해주실 거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앞에 같은 그런 제도. 그거는 제가 못 받고 있는 제도이고.

Q: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못 받는 건지 대상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A: 근데 거기 가서 따져는 보는데요. 전 그렇게 말하기가 저기하잖아요. 그거 뭐지. 여기서도 내가 예를 들어 얼마는 버는데 얼마 수준만 올리고 이걸 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Q: 그게 아니고, 근로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번 여쭙보세요.

A: 이런 건 복지관에서 한번 여쭙봐도 되죠? 그래 갖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되나.

Q: 아니면 그 자활센터 그 쪽 분께 여쭙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복지관은 분명 모르실 것 같고 자활센터에서 아실 것 같아요.

48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A: 그럼 이제 어머님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더라든가, 없더라든가. 된더라든가 안 된더라든가.

Q: 아마 자활센터 담당자 분들이 훨씬 저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편하게 여쭙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 □ 수급자 02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1992년부터 총 16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55	여	유	유
2	아들	29	남	유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임대아파트 단지로 지하철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음. 방2개, 부엌, 화장실, 난방 및 수도시설은 괜찮음. 청소상태도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았음.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p>처음 면접요청을 했을 때는 경계를 하고 인터뷰를 하기 싫어하셨으나 아들이 이상한 곳이 아닌 것 같다고 인터뷰를 하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됨.</p> <p>막상 인터뷰를 할 때는 보사연이 이상한 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태도가 친절해지고 묻는 말에 열심히 대답해주셨음. 현재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적성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맡겨진 일은 그 일에 자신을 맞춰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음. 장애인 가정에 가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시키는 일보다 그 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일에 대한 보람도 있었음.</p> <p>현재 아들은 대학원생으로 주중에는 학교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온다고 함. 아들은 특별한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 않고 차비정도로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함.</p>



Q: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거에 질문 드릴 거냐면, 어머님 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A: 네.

Q: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하고 계신 분들 알려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런 것 좀 여쭙보려고... 어머님 지금 수급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A: 수급?

Q: 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돈, 나라에서 돈 받으신 지.

A: 나라에서 돈 안 받지.

Q: 아, 지금은 아예 안 받으시죠. 의료급여 이런 거 받고 계신 거죠?

A: 의료 급여 받는데 돈은 조금씩 받아.

Q: 돈은 약간 받으시고요? 그거를...

A: 일은 하고, 조금.

Q: 언제부터 그걸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A: 이거 제도 있고 받은 거예요. 그 제도 있었잖아. 이게 돈...

Q: 생활보호제도?

A: 예, 그거 있고.

Q: 그 때부터 받으셨어요? 아니면 생활보호제도 때문에 안 받으시다가 받으신 거예요?

A: 받았지. 받다가 계속 받았었지. 일 할 때는 안 주고 일 안 할 때.

Q: 그럼 생활보호제도 때부터 받으신 거예요?

A: 예.

Q: 한 몇 년 정도 되셨는지 기억나세요?

A: 몇 년 됐죠.

Q: 한 10년은 넘으셨나요?

A: 10년은 안 넘었지.

Q: 10년은 안 넘으셨어요? 그럼 한 8년 되셨어요?

A: 응.

Q: 8년 정도 되셨어요?

A: 일을 했거든요, 계속.

Q: 계속 일을 하시면서 수급을 받으신 거예요?

A: 수급은 얼마 안 받지.

Q: 돈은 얼마 안 받으셨지만 제도에 들어가신 지는.

A: 네, 그렇게 됐어요.

Q: 그럼 계속 일하신 거예요? 아니면...

A: 계속 일하죠. 여기 월계 복지관에서도 4년인가 5년 일했고.

Q: 어떤 일 하신 거예요?

A: 집으로 가정으로 가서 할머니들 도와주고.

Q: 아, 그걸 4~5년 하신 거예요?

A: 네.

**Q: 힘들셨지 않으셨어요?**

A: 그렇죠 뭐.

**Q: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 아닌가요?**

A: 근데 할머니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그래.

**Q: 좀 힘들셨어요, 그때? 지금은 다른 일 하시는 거예요?**

A: 지금은 다른 복지관. 월계 복지관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

**Q: 노원구에 있는 다른 복지관?**

A: 북부.

**Q: 북부 장애인 복지관?**

A: 북부 장애인 복지관 거기예요.

**Q: 거기서 어떤 일?**

A: 거기는 장애인들 돌보는 거예요. 장애인들 가사.

**Q: 댁으로 방문해서?**

A: 댁으로 방문해서 가사, 반찬. 이런 거 다 해줘요, 청소.

**Q: 그럼 어머님 그게 일하시는 게 센터에서 다 소개해 주셔서?**

A: 네. 복지관에서.

**Q: 그럼 어머님 이쪽 일을 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일을 해본 거 있으세요?**

A: 다른 일?

**Q:** 그러니까 자활에서 소개해 준 것 말고 뭐 식당이라든지...

**A:** 응, 식당은 했지. 식당도 다녔지.

**Q:** 많이 하셨네요. 몇 년정도 하신거예요?

**A:** 조금씩 조금씩 했지. 몸이 안 좋으니까 많이는 못하고. 조금 하다 쉬고 조금 하다 쉬고 그랬어요.

**Q:**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A:** 예.

**Q:** 허리가?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몸이?

**A:** 아, 전 고지혈증도 있고 비염도 있고 몸이 전체, 위도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Q:** 그럼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하면 일 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A:**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하면 얼마 안 되잖아.

**Q:** 받는 돈이 많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일 하는 데 70 안 되잖아요. 그거 나머지에서 조금 주는 거야.

**Q:** 일을 하나 안 하나 받는 액수는 비슷하지 않나요?

**A:** 그렇게 안 주죠, 일 안하면.

**Q:** 아, 원래 일을 하면 일을 안 하는, 뭐라고 해야 하지. 버시는 것보다 최저, 그...

**A:** 작지.

**Q: 작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채워주지 않나요?**

A: 이제 우리가 두 식구잖아요, 아들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얼마, 2인 기준에서 얼마 주나 봐요. 내가 70 안 받으니까 그 저기에서 조금 주는 거야.

**Q: 진단서 제출하고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일을 안 하시고 비슷한 돈을 받지 않나요?**

A: 근데 그렇게 안 주지.

**Q: 그렇게 안 해줘요?**

A: 그렇게 안 줘요. 작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일 안 하면 안 돼. 일을 자꾸 주려고 해요, 하라고 하고.

**Q: 동사무소에서요?**

A: 응. 이거 그거 하면 얼마나 받아? 학생도 있고 그런데.

**Q: 일을 해야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였군요.**

A: 응.

**Q: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A: 응, 교통비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고 나머지 교통비도 안 되더라고. 그거 주는 거야. 2인 기준, 3인 기준 있다면서요? 그거에서 주는 거야.

**Q: 지금 받고 계신 급여가 70만원 못 되게 받고 계신 거예요?**

A: 예.

**Q: 그걸로 좀 힘들지 않으세요?**

A: 예. 그래요. 그래도 사는 거지 뭐.

Q: 여기 관리비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A: 그러니까 아들이 안 쓴다고 봐야지. 아들이 용돈 같은 거 없다고 봐야지.

Q: 아드님도 좀 힘드시겠네. 그러면 아드님이 학비 같은 거 학자금 대출 받아서?

A: 학자금 대출.

Q: 이번에 졸업하셨나 봐요, 대학을 아드님이?

A: 그렇죠.

Q: 지금 나이가 한 스물?

A: 스물아홉.

Q: 아,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A: 예, 군에 갔다 오고 뭐 어찌고 학교도 맘에 안 들어 가지고 또 쉬었다 또 하고 군에 간다고 쉬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Q: 뭐 많은 나이는 아니신데.

A: 많죠.

Q: 많아요?

A: 응.

Q: 전 안 많다고 하시더니.

A: (웃음)그래요.

Q: 그렇구나.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이 돈으로 생활하시는 거구나.

A: 응. 생활은...학자금은 대출하고.

**Q: 급여액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A: 그렇죠 뭐. 9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얼마나 줘요?

**Q: 9시부터 5시까지 주5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

A: 예.

**Q: 그거 말고 몸이 조금 더 건강하시면?**

A: 다른 일 해야 되지. 그런데 못 하잖아. 자신이 없는 거야.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12시간씩, 10시간씩 하잖아요.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저녁 10시, 11시까지 어떻게 해?

**Q: 너무 힘들실 거 같아요.**

A: 그건 힘들지.

**Q: 잠깐 잠깐 일할 수 있는 건 없나요?**

A: 잠깐 잠깐?

**Q: 주말이나 저녁때나 일할 수 있는 데 없어요?**

A: 그 일 끝나고? 그 일 끝나고는 못해요.

**Q: 너무 힘들어서요?**

A: 응. 이것도 오후 되면 막 피곤한데.

**Q: 좀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 두 개도 일 하시는 것 같던데.**

A: 응, 난 못해요. 이것만 해.

Q: 어머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A: 54년생.

Q: 54년생이시면 저희 어머니보다 어리신데.

A: 55살.

Q: 아, 몸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기에는 좀 힘들시다는 거죠? 그래도 돈을 좀 벌려면 그렇게...

A: 벌려고 하죠. 그러는데도 안 돼.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나이 많다고 하고 그래요..

Q: 안 돼요? 어머님 건강이 중요하니깐.

A: 배움이 없으니까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Q: 혹시 그러면 식당일 이런 거 말고 다른 일 해보신 거 있으세요?

A: 다른 거 없어요.

Q: 그럼 결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신 거 없으세요?

A: 결혼하기 전 에는요? 하기 전에는 없었지. 집에서 있다가 시집 왔지.

Q: 있다가 바로 시집가신 거예요? 곱게 있으시다가 가셨네요.

A: 응. 별로 그 때는 해 본 거 별로 없지.

Q: 그럼 언제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A: 그러니까 우리 아빠하고 저기하고, 한 서른다섯 정도?

Q: 서른다섯 정도면 일 하신지 20년 정도 되신 거네요.



A: 그때는 별로 안 받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별로. 애만 혜택, 학교 저기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바뀌어 가지고 뭐 생계비를 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계비 준 지는 얼마 안 됐잖아.

**Q: 어머님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A: 진짜 그거 준 지는 얼마 안 됐네. 7~8년 안 됐네.

**Q: 7~8년 안 됐어요? 2000년도부터 주지 않았어요?**

A: 그랬나요?

**Q: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거든요.**

A: 그랬나? 그럼 7~8년 됐네, 그럼.

**Q: 그 전에는 생활 보호에 있을 땐 돈을 못 받으셨어요?**

A: 애만 받았지. 난 일하고.

**Q: 그 다음에는 돈을 조금 더 받고?**

A: 응.

**Q: 그 다음이 더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제도가 예전보다 나오신 거예요?**

A: 낮죠. 그 때는 딱 내가 일한 것만 줬잖아. 그 때는 내가 일한 것만 줬잖아. 동사무소 같은데서 일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만 줬잖아.

**Q: 그럼 지금이 훨씬 벌이가 괜찮으신 거예요?**

A: 괜찮죠.

**Q: 그럼 2000년부터 계속 복지관 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A: 그러니까, 여기 복지관에는 올해 갔고 그 전에는 여기 복지관 했고.

Q: 월계 복지관 가셨고?

A: 예.

Q: 그럼 계속 꾸준히 일을 하신 거네요. 중간에 쉬시거나 그러신 적도 없으시  
고요?

A: 중간에? 중간에 쉴 때도 있었지.

Q: 그 때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진단서 내고 쉬신 거예요?

A: 진단서 내고. 진단서 내서 쉬어도 별 볼 일 없어.

Q: 좀 더 편하지 않아요?

A: 그때는 그랬었어.

Q: 혜택이 특별한 게 없었어요?

A: 예. 없었어요.

Q: 그거 내고 몇 개월 정도 쉬신 거예요?

A: 진단서 내고도 쉬지는 못하죠.

Q: 아 못 쉬어요?

A: 응.

Q: 그럼 뭐 쪽 일을 하셨어요?

A: 이거 동사무소에 주고 그런 일.

Q: 아 그럼 조금 더 쉬운 일 하신 거예요?

A: 쉬운 일 했지.

**Q: 하다가 또 가서 일 하시고?**

A: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조금씩 일주는 거를 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엄마 이런 복지관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여기 월계 복지관 해준 거예요.

**Q: 그럼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 동사무소에 보내신 건가요?**

A: 복지관에서, 동사무소에서 한 거지. 후견기관에는 올 해 갔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Q: 왜 안 되신대요?**

A: 후견기관에는 뭐 사람이 다 왔대나, 그랬다고 안 쓴대요. 그래서 내가 막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거기 복지관 해줬잖아요. 사람 하나 빈다 그래서.

**Q: 다행이네요.**

A: 네, 끝으로 갔어요.

**Q: 동사무소 선생님이 보내신 거구나?**

A: 응. 자활 담당.

**Q: 자활 담당 선생님이요? 공무원 선생님은 좀 친절하세요?**

A: 네, 친절하죠. 나 애썼거든요. 올해 막, 내가 막 쫓아 다녀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한번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됐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했죠. 말로는 했지. 해주셔서 고맙다고.

**Q: 근데 친절하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A: 친절했어요 이번에는. 이 선생님 친절하더라고.

**Q: 다행이에요.**

A: 어떡해요. 엄마는 딴 일 그거 여기서 일 하는 거 있잖아요. 보름씩이나 20일씩 하는 거요, 그거 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지 않냐 그래 갖고 애써가지고 해줬잖아. 나는 이거라도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Q: 20일씩 일하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A: 저기 동사무소에서...

**Q: 아, 동사무소에서 시키는?**

A: 아, 있어요. 일반들, 수급 못 받는 사람들.

**Q: 아, 그래요? 그건 돈을 별로 못 받는 일이에요?**

A: 그렇죠.

**Q: 지금 하시는 일이 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A: 훨씬은 안 많아. 우리는 20일을 일 하니까, 그거는 20일을 안 하고.

**Q: 그건 주로 3~4일 정도 하는 건가 봐요?**

A: 응.

**Q: 아, 뭔지 알거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니까.**

A: 좋죠.

**Q: 대신 일은 더 힘들잖아요, 어머님.**

A: 힘들죠, 힘들어도 내가 그걸 감안해야지 그거는.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냐. 그래 가지고 재밌어요.

**Q: 재밌으세요? 어떤 게 재밌으세요?**

A: 가서 엄마들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몸을 못 쓰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니까 내가 뿌듯한 거야. 그 엄마들도 나한테 고마워하고.

**Q: 목욕 시켜드리고 이런 것도 하세요?**

A: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목욕 안 시켜주고 반찬, 청소 이런 거 하지. 또 목욕시켜 주는 건 다른 분이 또 있어.

**Q: 어머님 그럼 청소랑...**

A: 예, 우린 자활.

**Q: 목욕시켜주신 분들은 그 분들은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A: 있죠. 이 팀이 있어요. 목욕팀도 있고, 간병팀도 있고. 우리는 청소, 자활 이거지.

**Q: 어머님 청소, 자활팀이요?**

A: 예, 그거 있고, 다 있어요.

**Q: 그럼 어머님이 복지관에 고용이 되시는 건가요?**

A: 예, 거기 복지관에.

**Q: 계약서 쓰시고 다 하신 거예요?**

A: 계약서?

**Q: 그런 건 없나요?**

A: 이력서는 냈지.

**Q: 이력서 내시고 뽑히셔 갖고 일을 하셨구나.**

A: 근데 이것도 몇 년 못 해요.

**Q: 왜요?**

A: 계속 안 쓰나 봐요.

**Q: 얼마까지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A: 그러면 여기서 4년 인가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Q: 한 4년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하시라고.**

A: 응. 다른 분 써야 되니까. 다른 분 해야 되니까.

**Q: 그렇구나.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A: 수급자니까. 이 사람만 벌어먹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벌어먹어야 된다 그런 거 같아요. 구청에다 저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Q: 구청에 뭘 내는 거예요?**

A: 이게 수급들이 되나 안 되나 그래 가지고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Q: 그러니까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 구청에서 판단을.**

A: 응. 그리고 우리가 수급권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것도 보고.

**Q: 재산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러니까.**

A: 응, 그렇죠.

**Q: 어머님 저보다 훨씬 제도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A: 그런 거는 우리들이 저기 하기 때문에 알지.

**Q: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A: 그런 건 별로 안 해요.

**Q: 그런 건 별로 없어요?**

A: 응.

**Q: 공무원이 연락을 따로 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도가 바뀌거나 그러면 공무원이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A: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Q: 별 교류가 없는 거네요?**

A: 그렇죠. 별로 없어. 우리는 일하면 그냥 일 하나 보다, 저 엄마 일 하나보다.

**Q: 그 정도만?**

A: 응, 자기가 그거 해주면 아, 그거하고 있나보다. 나 그거, 우리 10개월 이예요, 이거.

**Q: 10개월 일을 하신다고요?**

A: 응. 10개월 하면 끝나면 나 10개월 하고 끝났는데 내년에 여기서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또 해주세요 하고 또 통보를 하지, 우리가.

**Q: 동사무소에서 그때만 자활 담당한테 연락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A: 네. 직접 가서 얘길 하지. 그러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되니까 가서 해, 나는. 여기서 하면 답답하니까.

**Q: 앞에서 일을 처리하시려고?**

A: 응, 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탈락이 되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안 쓴다더라 그러면 그럼 거기선 그러지, 왜 안 쓰냐 쓰겠다고 가만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딱 보면 안 쓰잖아. 그럼 딱 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해주죠.

Q: 그래도 이쪽에서 다 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거죠?

A: 해줘요. 동사무소.

Q: 그건 좀 다행이다, 그렇죠?

A: 근데 사정을 해야죠, 내가 가서. 몇 번씩 가야 돼.

Q: 불편하시겠어요.

A: 가요 그냥, 내가 아쉬우니까 가야지.

Q: 자활후견기관 같은데 가면 일자리가 다양한 걸로 아는데 거긴 가면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고요?

A: 응,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되니까 후견기관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 찼다고. 올해는 신규를 안 뽑는다고.

Q: 그랬구나. 그래서 따로 일하시게 됐구나.

A: 그런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다 알아봤지.

Q: 다 알아보셨구나.

A: 그럼요.

Q: 어머님 대개 열심히 일자리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A: 예, 일 안하면 안 되니까.

Q: 그래도 하기 싫을 때 없으세요?

A: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떡해. 해야 되니까 해야지.

Q: 가능만 하다면 일 안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A: 가능만 하면 안 하고 싶지.(웃음)

**Q: 솔직히 그렇죠.**

A: 힘들어요, 하기.

**Q: 가능한 방법이 없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A: 응. 오후에 되면 녹초 되잖아.

**Q: 밤에는 쉬어야 되고 하니까.**

A: 응.

**Q: 어떤 분들은 진단서 같은 거를 좀 부풀려 갖고 일을 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A: 어떻게... 내가 진료 받는 거를 하는 거지.

**Q: 어머님 또 징직하셔서.**

A: 그랬다고 진단서 내고 쉬면 어떡해. 내고 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족을 못 느껴주잖아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다 안 주잖아요.

**Q: 돈 때문에 그럼?**

A: 그럼, 돈 때문에 하는 거지.

**Q: 만약에 일을 안 하는데 지금 버는 만큼은 받는다면?**

A: 안 하지. 안 하고 싶지.

**Q: 사람 마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A: 그럼, 안 하고 싶지. 누가 그렇게 도와준다면 안 하고 싶지.

**Q: 지금은 방법이 달리 없으시니까.**

A: 응. 그렇죠.

**Q: 지금 일 하는 거는 재밌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님?**

A: 네, 재밌어요.

**Q: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A: 다른 일은 내가 아직. 오죽하면 자꾸 뭐 나이가 많다 어찌다 하니까 짜증 나는 거야. 하실 수 있냐, 뭐 어찌냐 나 그러니까 짜증나.

**Q: 여기가 제일 맘 편하세요?**

A: 여기는 맘 편하죠. 내가 엄마들 보면 서로 저기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붙쌍하고 엄마들이. 장애인 쪽으로 가잖아.

**Q: 돌보시고 계신 분들이 안쓰럽다는 거죠? 장애인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살림 도와주시니까 더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A: 응. 그래서 내가 더 해주고 싶은 엄마도 있어. 더 해주고 싶은 엄마도 있고, 해주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있잖아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가 그 사람이 나를 저기하게 안 해,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오전, 오후로 두 집 가잖아.

**Q: 매일 매일 두 집 가세요?**

A: 응. 매일매일 두 집 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오전 엄마가 좋다, 오후 엄마가 좋다 이 게 있어요.

**Q: 아무래도 그럴 거 같아요.**

A: 응. 정이 딱 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정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마가 나한테 참 잘해. 근데 난 그 엄마한테 정이 안가 영.

**Q: 뭔지 알 것 같아요.**

A: 예, 그게 있어요.

**Q: 아무래도 마음 가는 사람이 좋잖아요.**

A: 응. 나는 그 집에 일할 게 많아. 그런데도 이 엄마가 정이 가. 근데 이 집은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신경이 쓰여. 그런 게 있어요. 깨끗한 데도 신경이 쓰여요.

**Q: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고, 그럼 보람 있으시죠, 그런 때?**

A: 보람 있죠. 다 내가 치워 놓고 나면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좋구나, 깨끗하구나. 그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Q: 어머님 그래도 일에 대해 보람도 느끼시니까 좋은 거 같아요.**

A: 네, 좋아요. 해주고 나오면 내 마음이 뿌듯해, 좋아. 기분이 나는 막 힘들어도 아 내 저기다, 그러면서 난 내 힘껏 해줘요.

**Q: 어머님 봉사 정신이 많이 투철하신가 봐요? 남을 돕고 이런 것들.**

A: 봉사. 그런 것 좋지.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해주고 싶어 진짜. 내가 공짜로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한 엄마는 진짜 내가 그랬어, 나 이거 복지관에서 일 안 해도 내가 진짜 엄마는 도와주고 싶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Q: 어머님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A: 응. 진짜 그 엄마는 도와주고 싶더라고. 소아마비 저긴데...

**Q: 주로 엄마들이 다니는 집에 가시는 거예요?**

A: 응.

**Q: 아무래도 집안 일 하시는 거니까?**

A: 부부가 다 장애인이야. 부부가 다 장애인이야. 거진 다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거진 다 장애인이야.

**Q: 그럴 때 마음이 더 짠하시겠어요?**

A: 그런데 둘이 사이가 좋죠, 그러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위해주는데 아유 건강한 사람은 어떤가, 어유 나는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어유 부럽다, 진짜 엄마 내가 그랬어. 아저씨 참 부럽네요. 내가 그래. 아저씨가 이런 걸 다 아시고 결혼을 했으니까 진짜 부럽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무 잘해.

**Q: 사람의 행복이란 게 그렇죠.**

A: 응. 그래요. 그 엄마는 그러는 거야. 미안한 것도 없어.

**Q: 당당하시구나.**

A: 응.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당해야 되지 엄마들이 오면 당당해야지 엄마들이 자기들이 안 당당하면 엄마들이 자기를 저기하게 된다 이거야.

**Q: 불쌍하게?**

A: 편하게 보고 저기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더 그거를 저기를 한 대요. 당당해.

**Q: 대개 좋으신데요?**

A: 응.

**Q: 사람이 당당한 게 좋잖아요.**

A: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러니까 어유 당당해야지  
엄마들이 우리 무시하잖아, 병신이라고. 그런 소리하지만, 그런 소리하면 안 돼.  
나는 그거 생각 안 해봤어 내가 그랬지. 난 엄마 엄마가 병신이다, 엄마가 어디  
가 아프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랬더니 고마워요, 어디가 어찌고 저찌고 하  
다 괜찮아, 아예 못 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행복으로 살아라  
내가 그랬지.

**Q: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대개 마음이 통하고 그러실 때도 많으시  
겠어요?**

A: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 통할 때가 있어.

**Q: 어떤 사람은?**

A: 응.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 내가. 하나, 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Q: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A: 응. 어떤 땐 내 동생 같고. 그래요. 젊은 세대로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Q: 아, 나이가 좀 젊어요?**

A: 응. 젊어요. 40도 안 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일 신희 이제 저기 한 사람도 있  
고. 근데 신희 저기한 사람들은 내 딸 같아.

**Q: 아 그러시겠어요.**

A: 그래요, 진짜. 그 집은 이번에 새로 가는 집은 진짜 내 딸 같아. 우리 아들보다  
덜 먹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엄마는 우리 아들보다 덜 먹었어 내가  
그러거든.

**Q: 그런 경우는 더 도와주고 싶고 딱 그러신 거겠죠?**

A: 응. 저기를 모르니까. 완전 모르니까.

**Q: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살림도 가르쳐 주고?**

A: 응. 그래 너무 좋아.

**Q: 일을 대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A: 안 그래요.

**Q: 위로도 잘해주시는 것 같고.**

A: 내가 조금 그런 건 하지. 나는 막 직선적이고 성격이 좀 그래.

**Q: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A: 아니야. 좀 그래. 그런데 나한테 저기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잘해. 그런데 나한테 좀 저기한 사람한테는 막 무지하게 저기해 막 나도.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어.

**Q: 교육 많이 받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A: 장애인에 대해서 이 저기에 대해서 다 교육받거든요.

**Q: 교육도 받고 하시는 거예요?**

A: 그럼, 친절해야 되고, 항시 저기 해야 되고. 하지, 받지.

**Q: 교육 자주 받으세요?**

A: 먼저 월계 복지관에서도 자주 받았고, 여기서도 받으러 갔었고 먼저 그랬어요.

**Q: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A: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다 배우죠.

**Q: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A: 도움이 됐죠.

**Q: 어머님 사회복지 공부하셔도 잘 하실 거 같아요.**

A: (웃음) 그래서 내가 먼저도 갔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니까 결국 우리가 다 배우는구나.

**Q: 배우는 거 좋아하세요?**

A: 나는 이런 공부하는 건 싫어해.

**Q: 혹시 지금 만약에 직업훈련이나 이거 받으실 수 있다 하시면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A: 자신이.

**Q: 자신 없으세요?**

A: 응. 나이가 좀 먹으니까 좀 그래.

**Q: 지금은 그냥 현재 이렇게 사는 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A: 나는 이렇게 저기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좋아. 내가 조금 더 크게 저기 한다는 건 못하지. 나이도 있고.

**Q: 지금 하시는 일이 적성에 잘 맞으시는 편이신거죠?**

A: 맞지. 그리고 맞춰야 되지.

**Q: 안 맞더라도 맞춰야죠?**

A: 그럼, 내가 항시 가서 하는 말이 그래. 엄마, 내가 맘에 안 들어도 엄마 맞추세요. 내가 엄마, 이 점이 나쁘니까 이 점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속으로만 불만 하지 말고 해라 나는 항시 그러거든. 내가 싫으면 다른 엄마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른 엄마로 바꿀 수 있다 그러거든.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 복지관에 엄마들이 7명, 8명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 이 엄마가 너무 싫어 나 이 엄마가 이견 맘에 드는데 이견 맘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엄마로 바뀌도 돼.

**Q: 좋네요, 제도가.**

A: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난 이 엄마가 절대로 싫어 그럼 바뀌죠. 그리고 난 이 엄마가 진짜 맘에 들어, 그럼 안 바뀌죠. 그냥 10개월 쪽 하는 거야.

**Q: 10개월 동안 쪽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A: 아니.

**Q: 그렇지는 않고요?**

A: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하는 집 있어. 지금 우리가 일주 끝날 때 됐잖아요.

**Q: 아, 곧 끝날 때 됐네요.**

A: 곧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가는 집은 계속 가요.

**Q: 그럼 끝나시면 앞으로 더 연장이 될 지 안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연장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A: 연장은 안 되고 3월, 12월 말일까지 하고 1월 달에 쉬어요, 한 달은.

**Q: 한 달 쉬고 또 다시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A: 2월 달에는 하지. 근데 여기서 불러주면 이리 가고, 여기서 안 부르면 또 딴 데 일자리 해야 되잖아.



**Q: 자활에 또 가보면 자리 없을까요?**

A: 글썄요, 있겠지.

**Q: 어머님 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처럼 잘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A: 잘 알려주기는 하지.

**Q: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A: 그런데 잘 하는 건 없어요.

**Q: 그게 잘 하는 거죠, 어머님.**

A: 말로만 잘 하지 가서 실전을 해 봐야 알지.

**Q: 그래도요. 그 분들에게는 어머님 같은 분이 가면 많이 위로가 되고, 힘도 될 거 같은데.**

A: 그래도 이렇게 그 엄마가 가서 시무룩하게 하고 앉았잖아, 그러면 왜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어때요? 그러면 아니예요. 어찌고 그래. 에이 뭘 일 있었으면 말해 그럼 내가 얘기 해줄게 그러면 다 털어 놓고 얘기해. 어우 나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저기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거기서 답변을 해주지. 어찌 고저찌고 하더라. 그럼 서로 그냥 웃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 일은 잊어버려요 하면 네, 이리지.

**Q: 예전에 노인 분들 돌볼 때도 비슷한 일 하셨죠?**

A: 그거예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Q: 그 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보람 있고 좋으세요?**

A: 아픈 사람.

**Q: 장애인 분들이 더 마음이?**

A: 그렇지. 할머니들은 너무 당당해.

**Q: 당당히 받을 거다. 이렇게.**

A: 당신들은 나이가 먹었다, 당당해요.

**Q: 장애인 분들은 좀 다르신가 봐요?**

A: 틀리지.

**Q: 감사하라 이렇게.**

A: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그렇죠. 엄마도 엄마 같은 사람도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죠.

**Q: 마음가짐이 좀 다르네요, 아무래도.**

A: 응. 할머니들 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할머니들하고 하면 머리가 무지 아파. 들들 들들들 우리를 볶아 먹어. 대단해요.

**Q: 그럼 다음에 또 일 하실 때는 또 이쪽으로 하시면 더 좋으실 거 같은데, 장애인 분들.**

A: 예. 거기서 하지. 거기서 내년엔 하면 좋겠는데.

**Q: 그러게. 기회가 잘 되면 좋을 텐데.**

A: 예, 수급권 아니면 또 못해.

**Q: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다 수급권 받고 계신 어머님들이신 거예요?**

A: 예.

**Q: 그럼 그 분들하고도 잘 지내실 거 같아요, 어머니는.**

A: 응, 잘 지내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 들어가요. 이 엄마들 대화를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각각 일하러 가는 거야.

**Q: 혼자 이렇게 일하러?**

A: 응, 우리들이 선생님이 해주면 그 집을 우리들이 알아서 출퇴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번 복지관에 모여요, 우리 다.

**Q: 그럼 그 때 모임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A: 응. 모임 하는 거지. 우리가 일 한 거 보고하고 우리가 일지 이렇게 써서 갖고 가거든요. 우리 한 거, 일 해준 거 그거 다 갖다가 반납 시켜서 다시 또 갖고 오고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 거 하고 뭐 엄마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주고 우리들도 이제 어떤 엄마가 어떻게 했다 그럼 우리들도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Q: 사회복지 선생님이 관리하시고 그 분들도 잘 해주세요?**

A: 잘하죠, 너무 좋죠. 그 선생님들 잘해. 그래서 내가 아 사회복지사를 며느리로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너무 상냥하잖아. 너무 상냥해요, 진짜 잘해.

**Q: 아드님께 한번 찾아보라고?**

A: 그러니까. 내가 어머 내가 그랬어. 어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너무 상냥하다 그랬어.

**Q: 돈을 못 버는데 괜찮으세요?**

A: 돈을 못 번다잖아.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돈 많이 못 버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못 벌면 어때, 마음이지 내가 그랬지.

**Q: 마음을 대개 중요시 여기시나 봐요, 어머니?**

A: 응, 마음.

**Q: 어떤 분들은 대개 돈을 중요시 여기셔 가지고.**

A: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진짜 내가 돈을 조금 벌어도 마음이 편해야 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은 많아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 그럼 그게 뭐야. 그거 아니잖아요.

**Q: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마음도 편한 일이죠?**

A: 네, 편해요.

**Q: 일에 대한 만족감이 꽤 크신 편이신 거 같아요.**

A: 내가 일 하고 오면 좋고 일하러 갈 때 기분 좋고. 그 엄마가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나 막 가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해주고 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가는 거야. 반가워해요. 막 반가워하면 너무 좋고. 시무룩하게 하고 있으면 또 나도 기분이 막 가라앉는 거야. 가서 또 이제.

**Q: 어머님 적성에 잘 맞아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 막 자기 안 맞는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A: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다른 일은 저기 안 하는데 맞춰야지.

**Q: 맞추시는 게 더 크세요, 맞는 게 더 많으세요?**

A: 맞추는 게 많죠.

**Q: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니세요?**

A: 딱 맞지는 않지.

**Q: 그래요?**

A: 그럼. 그랬어도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감안해야지 그러

죠. 근데 장애인 분들은 조금 성격이 그래. 그래 갖고 딱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럴 땐 진짜 기가 막혀. 그런데도 내가 안 했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나는 내가 삭히죠. 아, 저 엄마들은 저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엄마, 저기 엄마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하세요. 그런 엄마들은 잘못하면 엄마들이 덤탕이를 쓴다 그러는 거야. 우리 위에 앉았다는 거야.

**Q: 더 고단수이신?**

A: 응.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러는 거야. 어머님 그 엄마가 이 말 하면 그걸 꼭 듣지 마세요.

**Q: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A: 응.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러는 거야. 답변하고 이러는 것도 싫어해, 그 엄마들은. 자기 말이 옳아야 돼. 그럼 난 엄마 말이 맞아요, 그래 응 그래도 돼. 막 이렇게 하지. 아, 그건 뭐 어찌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렇게 하면 딱 싫어해 그 엄마들은. 아, 엄마 싫어. 그 엄마들 직선적이야, 그 엄마들도. 엄마! 내가 그랬어 아, 그게 아니고 어찌고 그걸 딱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 그래 맞아 그게. 아, 집에 가 다 알아서 하지. 잘하지 내가 막 그러거든.

**Q: 어머님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하시나 봐요.**

A: 특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같이 일하는 엄마들도 특특해 가지고 저 엄마 싫어, 이 엄마 바뀌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다 가서 다 얘기해 이 엄마가 아, 먼저 엄마는 어찌고저찌고 했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나는 그 엄마 아는 엄마니까 얘기 하지 마요, 다음에 얘기하지만 우리 다 알거든 그러니까 얘기 하지만, 예, 그래요. 다 얘기해 그 엄마들은. 다 얘기 해죠. 나 엄마 어떻게 해서 싸웠어, 뭐 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엄마도 내가 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Q: 중재도 해주시는 거죠.**

A: 응. 알았어요 그래. 내가 막 어찌고저찌고 응, 왜 그랬어 어쨌어 딱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요. 내가 그러거든.

**Q: 어머님 그런 일 대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 같은 거 하셔도 잘하실 거 같은데.**

A: 이런말만 잘하지.

**Q: 배워보고 싶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잘 하실 거 같은데.**

A: 이제서 뭐 그런 걸 배워. 난 학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Q: 평생 배울 수 있잖아요?**

A: 우리 아들은 엄마 공부, 공부. 난 딱 질색이야.

**Q: 아드님은 계속 공부하라 그러세요?**

A: 우리 아들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 싫어해요. 엄마 책이라도 보세요, 왜 텔레비전 보세요, 책 보세요 막 이러지. 우리 아들은 텔레비전 안 보잖아요.

**Q: 공부 좋아하시나 봐요?**

A: 저기만 앉았지, 책상에만.

**Q: 어유 공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A: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냥 만족해요. 가서 엄마들 반찬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맛있어, 맛있어 그 때 했던 거 맛있어.

**Q: 요리 잘하시나 봐요, 어머님?**

A: 안 그래요.

**Q: 식당 같은 데 일?**

A: 그냥 하죠. 내 방식대로 내 해 먹는 것 같이 하고. 그 엄마들이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자기들 따라서 해주지 내 기준으로는 안 하거든. 자기들은 싱겁게 먹고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이런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엄마 나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기들 다 얘기해줘요. 그럼 그렇게만 해죠, 해주면 딱이야.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됐어, 난 항상 묻거든. 내 맘대로는 안 하거든.

**Q: 어머님 대개 잘 하신다.**

A: 내 맘대로는 안 해요. 내가 그랬어 집에서 그렇게 하면 상 주지. 그런데 아니야. 나가서는 해야 되지. 내 근무인데, 해줘야지. 내 성의껏은 해줘야지 그래도.

**Q: 어머님 진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일을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스타일 인 것 같아요.**

A: 성실해요. 나는 그거 안 성실하면 싫어해요. 약속, 약속, 첫째 약속. 이런 거 안 지키면 싫어해. 나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는 뭐 누구한테 빠지고 그런 건 없어.

**Q: 어떤 일 하시든지 잘 하실 거 같아요.**

A: 그냥 해요. 내가 힘에 부치지 않은 거는 해. 내가 그랬어. 엄마, 내가 못하고 내가 힘에 부치지 않은 거는 시켜라. 그런 거는 내가 다 해줄게. 다른 엄마들은 싫어해 나.

**Q: 왜요? 아, 너무 잘하시니까 비교 돼서?**

A: 그런 걸 너무 해주고 오니까 자기들이 부담되는 거지. 먼저 엄마는 이걸 해줬는데 엄마는 이거 안 해죠. 딱 묻는, 그렇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절대 얘기 하지 마세요.

**Q: 비밀이에요?**

A: 응, 오늘도 아까 오후에 왔는데 오후 팀에 엄마가 왔는데 근데 어제 딴 팀이 온 거야. 그 엄마 나하고 같이 하는 엄마가 온 거야, 어제. 근데 불편한 거지. 그래서 오늘 가니까 다 하잖아, 나한테 얘기를.

**Q: 어머님 인기 많으셔서?**

A: 응.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나는.

**Q: 한 번 맡으시면 쪽 하시는 편이시구나?**

A: 응, 그 집에 쪽 가는 거야.

**Q: 바뀌달라는 말도 없으시고, 이쪽도 좋으시니까?**

A: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어머님 오래 하셨으니까 어머니 바뀌 드릴까요, 아니요. 이 엄마도 오래 하셨으니까 어머니 바뀌 드릴까요 그랬는데 어우 왜 바꾸냐고 얼마 안 됐는데 그랬대요. 그랬다면서 오늘 에이 그 엄마하고 바꾸지, 그랬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Q: 어머님 일 그만 두실 때 다 서운해 하시겠어요, 일 가시는 집들에서?**

A: 응. 그렇지. 그건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 엄마, 나 하는데 까지는 해 줄 테니까 불만 있으면 얘기 하라고. 고쳐야지 나쁜 점은. 그랬더니만 아니야.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거든. 내가 못 하는 건 못해도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줘요. 하다보면 넘어. 그러니까 엄마 시간 됐어요 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게 아니야.

**Q: 오히려 그 쪽에서 가라고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A: 응, 가라고. 어유 이걸 못 하니까. 못하는 건 우리가. 엄마들이 이 만큼도 못 쓰거든. 이것을 못 잡고 일어나거든.



**Q: 거의 누워 계세요, 어머님들이?**

A: 앉았는데, 앉았는데 이렇게 서지를 못해서 이런 데를 절대 못해. 이 텔레비전 위에도 못 닦아.

**Q: 아, 그거 다 닦아 주시고?**

A: 텔레비전, 냉장고 뭐 안 닦는 거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해 놓으면 호텔이야. 근데 난 안 하잖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보다 깨끗하니까.

**Q: 어머님 집도 깨끗한데요, 대개 굉장히.**

A: 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래. 여기는 맨날 청소해 주는데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 힘든데 그랬더니. 아, 오늘 일찍 보내 줄 테니까 집 청소하랴 그래서 아 됐어요. 아 이 엄마 오늘 오후 팀에 가는 엄마는 참 좋아.

**Q: 그럼 그런 집에 가면 아무래도 일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커지시고, 더 해주고 싶고.**

A: 내가 더 해주고 싶어요. 어우 그건 났뒤 그래도 해주고 싶어 내가. 아니야 엄마 내가 해주고 싶어. 음료수 하나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집이야. 진짜 오후 팀에 가는 엄마, 오늘 가는 엄마는 물이라도 갖다 줘요. 그랬더니 자기가 몇 폰이나 저기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서 나는 내 저기다, 나 하나 덜 먹고 주면 돼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

**Q: 어머님 마음이 따뜻하세요.**

A: 아, 조금 그래요. 난 첨에는 무지 차가워 보인데. 근데 사귀면 괜찮대요. 나 첨에는 차갑게 보인데. 난 말 안하면 좀 차갑게 보이냐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안 좋대. 알았어요.

**Q: 자기 싫은 집도 있지 않아요?**

A: 가기 싫은 집이 없지는 않아요. 내가 저 엄마가 날 기다려 그래서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어우 저 엄마가 내가 가는 날이니까 나만 꼭 기다리고 있다니까.

**Q: 그래서 더 빨리 가게 되고?**

A: 응, 이 시계만 보고 엄마 오늘 빨리 왔네. 응 내가 그랬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빨리 왔지 그러면 너무 좋아해.

**Q: 그럴 땐 서로 마음이 따뜻해 질 거 같아요.**

A: 네 그럼요.

**Q: 서로 좋은 마음으로.**

A: 애기들 있는 집은 애기들도 날 끌어안아요.

**Q: 너무 좋아서?**

A: 사랑해요 막 이래서. 학교 가면 나 보고 싶다 그러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엄마가 소아마비라 앉아서 있잖아. 너무 개한테는 내가 잘해. 진짜 잘해. 내가 너 우리 손자다, 내가 손자다 그럼 어, 할머니라 하기는 젊는데, 그래요 개가.

**Q: 애가 똑똑하네요.**

A: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좀 애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저기를 해주고, 내가 있을 때는 볼 때는 그래요.

**Q: 어머님 그럼 일을 몇 년 동안 더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A: 나는 60살 넘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Q: 계속 지금 하시는 일 계속?**

A: 응.

Q: 65세 넘으면 일 안해도 돈 나오잖아요.

A: 얼마나 나오겠어.

Q: 그런가? 그래도 몇 푼이라도.

A: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만 나오겠죠. 그게 얼마나 나오냐고.

Q: 많지는 않겠죠.

A: 1인 이상 얼마, 2인 얼마 이렇게 준다는데 얼마 안 되지. 이제 애는 떨어져 나가면 지 저기 하면 나 한사람 주는데 얼마나 주겠어.

Q: 그래도 아드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A: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 그것도 없대요. 이런 것도 안 주고 일도.

Q: 그래도 아드님이 잘 돼서 안 받으시는 게 더 낫죠?

A: 그렇죠, 좋죠.

Q: 지금도 돈은 많이 안 받으시고, 정당하게 일을 하셔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A: 그거죠.

Q: 지금 병원비나 안 들고 이런 거 빼고는 별로 혜택이 크지않지 않으세요?

A: 병원비는 안 들죠.

Q: 병원비 안 드는 거 외에는?

A: 안 들지는 않아. 좀 들지.

Q: 조금 들죠. 몇 백 원씩.

A: 병원에 가면 1,000원, 그리고 약국에 500원

Q: 그럼 계속 돈은 조금 받으신다고 하셨죠, 나라에서? 이런 거 혜택을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좋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A: 고맙죠.

Q: 고마운 마음으로.

A: 그럼요, 너무 고맙지. 그래 갖고 내가 이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노력 없이 왜 남의 돈을 받아.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해서 그거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아들 차비쯤으로 주는 것 같아. 얼마 안 나와요 그건.

Q: 아드님 대학을 졸업하시면 또 직장 잡으시고 하시면?

A: 그렇게 되면 이것도 못할 것 같아, 내가.

Q: 봉사활동처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A: 봉사활동은 하지만 돈은 하나도 없지. 자원봉사로 해야 돼지.

Q: 소일거리 하실만한 게 있으면 좋을텐데.

A: 조금씩 벌면서 자원봉사 하면 좋죠. 내가 토요일 날은 여기 월계복지관에 자원봉사 가거든.

Q: 자원봉사도 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A: 여기 식당, 경로 식당에.

Q: 어머님 좋은 일 많이 하신다.

A: 그거 해요, 토요일 마다.

Q: 피곤하지 않아요, 토요일에.

A: 그래도 토요일엔 가요.

Q: 쉬고 싶지 않으세요?

A: 1시까지. 9시부터 1시까지.

Q: 어머니는 진짜, 제가 여러 전국을 다녀봤는데 어머니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은 많이 못 만났거든요.

A: 그래 남의 돈은 그거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그러는데 어떻게 앉아서 그 돈을 받냐고.

Q: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A: 그럼.

Q: 그럼 가능만 하다면 나라 돈 안 받고 싶으세요?

A: 그렇죠, 좋죠. 안 받으면 좋지. 근데 이거 내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학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우리 아들 차비로 주나 보나 이렇게 생각해요.

Q: 아드님이 학교를 다니시니까.

A: 응.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차비도 안 되지만 고맙죠.

Q: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어요?

A: 그래도 그것도 저기가 되죠.

Q: 어머니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감동했어요.

A: 네, 좋아요. 일하는 게 나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해 가지고 못 있어요.

Q: 일을 하시는 게 집에 있으신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보람이 크시니까.**

A: 그 엄마 한 사람은 내가 엄마는 찍었어. 내가 여기 복지관에 안 나와도 내가 엄마 보러 가끔 올게 그랬어. 그랬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내가 밤에라도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마워요.

**Q: 대개 든든하시겠어요 그쪽에서.**

A: 그러니까 나 바꾼다 그러니까 울었잖아 그 엄마. 그러면서 한번은 내가 가니까 엄마 힘들다 그러셨어요 우리집이?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 오 늘만 오면 안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야 딴 집은 한 집은 바뀌는 거 아는데 엄마네 집은 아닌데. 진짜요? 엄마 힘들다고 안 했어? 아이, 힘들다고 안 했지, 내가 왜 힘들다고 그랬어. 내가 초창기에는 힘들다고 했잖아. 선생님한테 바뀌달라고 했더니 안 바뀌 준다고 했잖아. 초창기에는 힘들어서.

**Q: 처음 일하실 때요?**

A: 2월 달에 처음 갔을 때. 무지무지 했었어. 어마어마했었어.

**Q: 처음 그 때 가니까.**

A: 응. 막 개도 기르고 그러니까.

**Q: 지금은 정리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실 만하시죠?**

A: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바뀌 달라고 했는데. 엄마 꼭 내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대. 자기 아들도 정들고 자기도 정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엄마나 딴 엄마 바꾸면 자꾸 바뀌어져요, 이래. 그럼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 봐라.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나 있는데. 어머님 이따 연락드릴게요 이러 더만, 그 이튿날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갔거든. 딱 그거 받아 들으니까 어머님 전화가 왔대, 그래서 안 바꿨대. 알았어요, 내가 감사해서 가야지. 바꾸지 말래요. 그래서 또 가게 됐네요, 이러는 거야. 난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바뀌 주려고 한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그 엄마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엄마

보내주면 안 될까요 어찌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내일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저기 하면 내가 연락 줄게. 연락 안가면 가는 줄 알라고. 그랬더니 나 연락 안 와서 너무 좋았대. 그 엄마는 그래. 내가 아들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바뀐다고 하니까 시무룩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딱 그래, 힘들다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야. 엄마 오늘만 오고 안 온대. 아닌데, 선생님이 잘못 알았나봐. 아닌데 내가 그랬더니만 전화 하더라고. 엄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그냥 엄마가 오시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따가 연락 줄게요 그러더라.

**Q: 끝까지 하시려고?**

A: 응. 바뀌면 한 엄마가 바뀌면 자꾸 바뀐대요. 작년에 몇 번 바뀌었다.

**Q: 아무래도 같은 상황에서 쪽 가는 게...**

A: 애하고 엄마하고 그 엄마하고 싸우고, 아기하고. 그 아기하고 싸우면 어떡해. 철부지인데 그걸 뜯고 싸워 엄마가 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 아줌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마, 예 그런데 아줌마가 나한테 막 야단 치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소리를 질렀대. 그래서 딱 그 엄마도 바꿨지, 몇 번 바꿨어 작년에. 올해는 너무 좋다고.

**Q: 어머니 가서 대개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A: 난 한 5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

**Q: 해 주시면 이쪽 분들도 좋으시고 어머니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A: 난 내 저기로는 한 5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돈 번다고 대출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벌어서 장가라도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앉아서 놀면서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Q: 그래도 아드님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좋으신 거잖아요.

A: 그렇죠.

Q: 그럼 조금 받더라도 이런 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A: 그렇죠. 그래도 60까지는 해야죠.

Q: 수급자 아니어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A: 수급자 일하는 거, 공공 같은 건 할 수 있대요. 공공근로.

Q: 하시면 괜찮아요?

A: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5시까지.

Q: 근데 그거는 이것처럼 돌봐주고,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건 아니신 거죠?

A: 이런 건 아니고, 식당, 저기 공원 이런 데서 하나 봐요. 왜, 이것도 어린이 집도 가고 해요. 그런데 가사로는 안 가지.

Q: 어머님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쪽일이 더 좋으세요?

A: 가사 하고 싶지.

Q: 가사, 애기들도 좀 돌보고?

A: 애기들은 자신이 없고. 아예 조그마한 아기는 자신이 없고. 좀 큰 애기. 근데 큰 애기는 공부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건 조금 그렇잖아. 학력이 있어야지 고등학교 이상.

Q: 그것도 있어요, 자격증?



A: 네, 있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애들 그런 저기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도 가르쳐 주고 가사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건 고등학교 이상.

Q: 자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거고?

A: 네, 그런 건 못 하지.

Q: 일도 대개 잘 하시고 하시는데 계속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A: 응. 그랬으면 좋겠어.

Q: 어머님 같은 분들이 진짜 일을 하셔야 되는데.

A: 글썸 말이에요. 난 조금 더했으면 좋겠는데. 뭐 차 드릴까요?

Q: 저도 곧 가야되니까. 몇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처음에 이 수급 받으실 때 누가 어떤 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알아보신 거예요?

A: 아,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니까 자연 저기로 되던데요.

Q: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신청 하셨어요?

A: 신청을 했을걸.

Q: 누가 알려준 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A: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올걸. 아 그거 애 학교 저기 할 때는 누가 알려줬어요.

Q: 아, 누가 알려주셔서 동사무소에 알아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A: 응. 그런 거야.

Q: 그때는 주변 이웃 분이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친척 분 이런 분들이?

A: 아니, 이웃 분들이겠지 뭐.

**Q: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A: 응, 한참 됐잖아요.

**Q: 아 그럼 아드님 고등학교 때, 아니면?**

A: 우리 아들 중학교 때 여기 이사 왔지. 여기 와서 받았지.

**Q: 아드님이 중학교 때면 한 90 몇 년도?**

A: 92년 도인가? 92년도인가? 그럴 거 같아요, 92년도인가, 93년도야. 그 때 이사 왔잖아.

**Q: 92년도인가 93년도에, 여기 아파트 지었을 때 처음?**

A: 네, 처음에 지어서 왔어요.

**Q: 여기 누가 아파트 소개해 주셨어요?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A: 응, 내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들 키우기가,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키우기가 힘들니까 누가 그래. 자기네 아저씨가 없잖아. 자기네 아저씨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애 중학교 가면 학자금도 나온다더라. 그래서 누가 말을 해줘요. 우리 주인아줌마가 그런 거 같아. 거기 세 살 때. 그래서 반장 엄마한테 얘길 했지. 아, 반장 엄마 이렇게 되는데 난 아저씨 없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갔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던데 내가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통장이랑 통화를 해야 된대요. 그럼 통장이랑 통화하는 데 안 된대. 아저씨가 이혼이 안 돼서 뭐 어찌 고저찌고 해서 그냥 말았어요. 말았는데 통장이 온 거야, 이제는 보험료 안 내도 되고 뭐라고 해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대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있었다.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엄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뭔가 그랬는데. 무슨 아파트가 나왔대. 아파트가 있대요. 중계동, 월계동 그래. 내가 방학동에 살았거든.

**Q: 가까운데 사셨네요.**

A: 중계동, 월계동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월계동도 모르고 중계동도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두 군데 다 써보세요 그래. 그래서 여기 된 거예요.

**Q: 중계동은 떨어지신 거예요?**

A: 두 군데를 쓰래. 엄마 잘 모르면 두 군데 다 쓰래 동사무소 직원이. 그래서 두 군데. 여기가 됐대. 여기가 됐다고 몇 월 며칠날 가라고 그래요. 너무 좋았지.

**Q: 새 아파트였죠?**

A: 새 아파트.

**Q: 기분 좋으셨겠다, 진짜.**

A: 난 뭐 조그맣고 어찌고 하다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이상한거야. 그래 가지고 여기 와 보지도 안 하고 이사 왔어요.

**Q: 들어와서 보니까 불편한 거 없으세요?**

A: 좋아. 남의 집도 아니고 하니까 좋지. 누가 저기도 안 하니까.

**Q: 뭐 난방이나 이런 건 잘 되고요?**

A: 응. 잘 되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애 키우기는 좀 그랬어도.

**Q: 힘드셨어요?**

A: 응. 애가 여기 저기한 애들 있으니까 잘 안 나가고. 그래 갖고 중학교는 거기서 마쳤어요. 방학동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Q: 고등학교는 이쪽으로?**

A: 고등학교는 경동 고등학교 나왔지. 그래 가지고 애가 너무 잘 안 나가고 그래

가지고 잘 컸어요. 속은 안 썩었어.

**Q: 착한 아드님 두셨네요.**

A: 막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아픈 사람들 많다 엄마 그런 동네 인가봐 이사 가자 그랬다가 조금만 더 살자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걸 안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안 해.

**Q: 사신지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

A: 그럼 15~6년? 6년 됐나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 중학교 졸업할 때 와 가지고 지금 대학교 졸업하게 생겼어.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신경써주고. 동사무소에서도 대학 등록금도 추천을 해 줬었어, 근데 안 됐고. 저기도 이제 학자금도 이자도 없이 학교에서 그렇게 대출해서 그렇게 했어.

**Q: 아드님 참 대단하시다.**

A: 우리 아들은 이자 없이 했어. 요즘 공부 좀 하나 봐.

**Q: 공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에 가실 정도면 뭐.**

A: 조금씩 우리 아들도 탔거든. 그러니까 반씩 주던데요, 완전히 다 안 주던데요. 그래서 탔었어. 수급 이걸로 했나봐. 그래서 그것도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 갖고 다녀.

**Q: 조금만 더 있으면 아드님 좋은 직장 가질 테니까.**

A: 글썸 말이에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지 뭐. 그렇게 키워가지고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저게 없다. 지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우리 엄마 저가를 벗어줘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먹어요. 엄마 좀 만 고생해. 이거 일 하는 걸 싫어해, 우리 아들은.

**Q: 지금 일하고 계신 거요? 왜요?**

A: 내가 힘들어 하니까.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Q: 일 하시면서 힘드셔서 병원도 가신 거예요?**

A: 아니, 내가 주로 약을 먹어야 되니까. 고지혈 약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먹고 또 막 봄, 가을 되면 알레르기 나오지, 이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아프니까 오후에 되면 누워 있고. 또 내가 웬만하면 안 누워 있으려고 해. 엄마 또 아프구나. 그러면 싫은 거야. 그래서 무릎이 약해요, 그런데 깡다구로 하는 거야.

**Q: 어머님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A: 근데 가서 일을 보면 그게 또 아니야.

**Q: 또 마음이 잔해 갖고.**

A: 응. 그거 하다말고 오면 내가 마음이 걸려 자꾸. 아 그 엄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막 이게 걸려.

**Q: 더 도와드리고 싶고?**

A: 아 내가 그거 좀 저기했으면 해줄 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요 일하는 데는. 내가 조금 저기하면 되지 뭐.

**Q: 어머님 건강 생각하시면서 일하세요.**

A: 그러니깐 그 엄마들은 그래. 무리하지 말고 좀 해. 그거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엄마는 한두 명이야. 그날 다 끝내야 되는 사람이 다야.

**Q: 다들 열심히 일하시네요, 다른 분들도.**

A: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집 있고, 한번 가는 집 있다 그러면 두 번 가는 집이 더 심해.

**Q: 아, 그래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중증이라서?**

A: 그 사람들은 아예 못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두 번 원하니까. 쓸고 닦고 하려고 원하지. 근데 한 번 가는 집은 한 번 해도 된다 이거야 청소는. 그 사람들은 반찬 해주면서 청소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웃음)

**Q: 제가 거의 다 여쭙본 거 같아요. 어머님 말씀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가지고 거의 다 끝난 거 같거든요.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일을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A: 그래요. 나는 진짜 성의껏 해주지. 아, 내가 이렇게 안하면 저 돈을 주지 않는다. 돈 10원 하나 안 주잖아요 누가. 공짜로 안줘. 그러다 동사무소 거기서 나오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거야.

**Q: 어떤 분들은 작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A: 작은 건 사실이지. 더 주면 누가 싫어해. 그렇지만 내가 댓가 없이는 못 받잖아요. 그것도 제도가 그렇게 돼서 그것도 나오는 건데, 안 주면 어떡할 건데. 할머니한테 내가 그랬어.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준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줘요? 돈까지, 청소해줘, 밥 줘, 다해줘? 할머니들 다 셋겨줘 나도. 할머니들 뭐가 불만이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들 다줘, 진짜 쌀까지 다 줘요. 밥도 다 먹여주고. 진짜 복지관에서 밥 다 날라주고 다 줘요. 진짜 할머니들은 괜찮아요.

**Q: 그래도 불평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나 봐요.**

A: 응, 많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 줘, 돈 줘, 목욕 시켜줘, 머리 잘라줘, 반찬해줘, 청소해줘 할머니 뭐가 불만이야 어디가면 차 부르면 딱 태워다가 앞에다 갖다 줘. 할머니 뭐가 불만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니네들은 돈 받잖아. 할머니 우리 돈 얼마 안 돼. 할머니 교통비 제외하면 우리 얼마 안 돼. 니네들은 돈 받잖아. 할머니 그럼 이렇게 힘들게 일 해주는데 내가 살기 저기하면 자원봉사 해준다. 그렇지만 아직은 자원봉

사 못 해줘요. 아유 대단해요 할머니들. 니네들 돈 받잖아.

**Q: 똑같지 않나요, 받는 건? 할머니랑 어머님 받는 게 차이가 많이 안 나오나요?**

A: 할머니들은 혼자 계시면 우리보다 작지.

**Q: 어머님 대개 주변 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A: 할머니들한테 그래 뭐가 불만이나. 할머니 어디 가신다고 하면 다 모셔다 줘, 데려와. 지금 활동 도우미들이 있어서 다 병원에 데려와, 데려다 줘. 다 목욕 시켜줘, 머리 잘라줘, 할머니들 다 주물러줘, 못 하는 거 어디 있어. 다 해주잖아. 그래도 죽겠다 그래. 어우 나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대단해. 그래서 할머니 대단하세요. 할머니 자식이 누가 지금 돈 4~50만원 줘? 안 주잖아. 하나도 안줘, 10만원도 안줘. 거봐, 할머니는 자식이 필요해, 나라가 저기해, 좋잖아. 고맙지. 고마우면 고마운지 아시고 가만히 계셔 떠들지 마시고. 자기들끼리 그래, 야 나는 얼마 주는데 너는 얼마줘. 자기들끼리 따져.

**Q: 서로 몇 만원 차이 나는지?**

A: 따져. 그래서 할머니는 자식이 없고, 이 할머니는 자식이 있고 이 할머니는 뭐가 있고 내가 다 얘기해주거든. 그런 차이다 내가 그랬지. 할머니 자식이 없으면 이렇겠어? 있어야 되잖아. 그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실망이 커서 저기 한 사람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한대. 그러니까 할머니 그런 소리하지 마. 병신자식이라도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사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거 맞기는 맞다, 네 말이 맞다. 무조건 너야.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우리 아들 30살 먹었다. 네까짓 게 무슨 아들이 30살 먹어. 할머니 그렇게 하지 마, 할머니 무시하지 마. 할머니 나 이런 일 한다고 무시하네. 그랬더니 무시가 아니야. 네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할머니 나도 나이 많거든. 야, 너야.

**Q: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A: 네. 욱하고. 좀만 그럼 네년이 뭐. 할머니 욱은 하는 거 아니다 그럼 알았어.

**Q: 어우 너무 좋으세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들이.**

A: 나는 가면 막 얘기해 주면 어 그래 내가 너한테 진다, 이래요.

**Q: 어머니 사람 상대하는 직업 어떤 걸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A: 글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Q: 잘 하시는 것 같아요.**

A: 좀 저기 한 사람이 좀 나쁜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대해주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대해주고 그래요.

**Q: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좋게 좋게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A: 너무 저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럼 그건 딱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 주지. 엄마들한테도 그러지. 엄마 그건 맞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말 실수 했나요, 이래 지네들도. 그건 진짜 실수했다. 나 서운해 내가 그랬지 내가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래요.

**Q: 어머니 주변 분들한테 꽤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A: 여기 사는 엄마들한테도 내가 좋은 말 해주지.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Q: 힘들면 집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A: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별로 저기를 안 해. 자꾸 집에 오면 말을 물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저기한 사람들하고나 그러지, 난 막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난 마실이니 이런 거 다니기 싫어, 그런 거 안 해.

**Q: 어머니 남 나쁜 얘기 안 하시죠?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A: 그 사람이 나쁜 얘기하면 그 사람을 타이르지. 에이 그 엄마는 그게 아니던데 왜 자기는 그렇게 하나 그러지. 너는 성질이 뭐 어찌고 하고, 난 성질값 하거든. 그래 너는 성질은 그래도 뒤끝은 없어. 내 저기는 다 알지. 난 직선적이야. 그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딱 해버려요. 그럼 그러지 넌 그거 있어. 말 없고 넌 직선적으로 그 날 다 해버리고 그 이틀 날 그냥 저기하고 그러니까. 넌 그런 거 있어.

**Q: 사람들이 신뢰하실 거 같아요. 뒷말 없으시고.**

A: 난 이 사람 막 홍보고 있어, 저 사람을. 에이 안 보는 사람은 하지마라. 안 보는 사람 저기하는 건 제일 나쁜 거다.

**Q: 어머님 멋있어요.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요.**

A: 난 막 그래. 그래버려.

**Q: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어머님 앞으로 5,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희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꿈이라든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A: 그래도 그때도 일을 했으면 좋겠어.

**Q: 계속 일어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고?**

A: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죠.

**Q: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A: 일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

**Q: 수급을 받던, 안 받던 간에?**

A: 그건 상관없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면 되잖아. 수급 많지 않아요.

**Q: 그래도 안 많아도.**

A: 내가 그거를 받아 갖고 난 그거는 못 써. 그거는 진짜 미안하고 내가 이런 데 멀쩡하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앉아서 뭘 못하게 되면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활동은 해, 그러면 안 되지.

**Q: 그럼 지금처럼 일 하시면서 사시는 게 꿈이신 거예요? 아드님 잘 됐으면 좋겠고?**

A: 그렇죠. 난 이제 아들 직장이 되어도 조금씩 컸으면 좋겠다 이거지. 난 나라에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아먹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Q: 아들한테 기대기보다는?**

A: 그렇지. 내가 우리 집세 내고 이려고 할 정도만 되도 괜찮잖아.

**Q: 지금 저축 같은 거 하고 계세요?**

A: 저축? 무슨 저축?

**Q: 어떤 분들은 1~2만 원 이라도 하신다던데.**

A: 못 해요, 난. 우리 아들 일주일에 얼마 주는 지 알아?

**Q: 얼마 드리는데요?**

A: 2만원, 3만원. 그거밖에 못 줘요. 그것도 어떤 때는 다 안 써.

**Q: 대개 아껴 쓴다.**

A: 안 쓰지. 그것도 그래 가지고 갖고 오지. 우리 아들 기숙사에 있거든.

**Q: 그럼 아드님이 주중에는 없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 때는 어떻게?**

A: 그 때는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왔어요.

**Q: 그래서 꼭 밥을 챙겨 드렸어야 됐구나.**

A: 그 때 배가 아파 가지고 애가, 장염이 걸렸대. 일주일간 학교 열흘간 안 갔었거든.

**Q: 딱 그때 아팠구나.**

A: 한참 그 때 배고픈 차에 막 밥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은 금방 끝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돌려보낸 거 아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 엄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지 그랬어. 야, 3~4분에는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잘못 됐어? 엄마가 잘못 됐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랬더니 엄마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엄마 그때라도 저기하지, 돌려보낸 건 엄마가 나쁘다 이거지. 엄마가 실수했다는 거지. 내 그래서 딱 생각이 난거야. 여깁잖아. 금방 전화 왔을 때 다시 누르면 어디 눌러야 되는 거야?

**Q: 이제 같 건데요, 나라에게 혹시 제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A: 바꿨으면? 이것도 좋은데 더 어떻게 바뀌?

**Q: 지금 마음에 드세요?**

A: 이것도 좋죠. 나는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런 것도 주고. 저기하면 동사무소 가서 저기 하면 혜택도 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Q: 어머님 다 감사하시는 거죠?**

A: 예. 난 너무 이게 돈 저기하고 그래도 너무 고마운 거야. 얼마 안 되어도.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일하고 남으면 이거 조금 이렇게 준다. 엄마 그게 뭔데? 네가 학생이라 너 저기해서 차비 정도로 주나 봐. 엄마 고맙네. 엄마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요.

**Q: 아드님도 생각이 바른 거 같아요.**

A: 바르지. 바르죠. 남한테 피해주고 그러는 거 싫어요. 정직하지.

**Q: 두 분이 성격이 비슷한 거 같아요, 아드님이랑?**

A: 정직해요. 칼이지. 정직해. 애가 남 앞에 저기하고 싶지 않고 남한테 절대 나쁘게 안 해요. 모르겠어, 아직은.

**Q: 도움을 주면 됐지.**

A: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막 아침에는 보따리 들고 가는 거예요. 엄마 그게 뭐예요? 깍두기 담아 갖고 가 뭐 해 갖고 가.

**Q: 아, 갖다 주시려고, 일하시는 집에?**

A: 그럼. 내가 해 갖고 가요.

**Q: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A: 안 해도 되지. 난 그 집에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무도 하나에 5백 원 밖에 안 해. 두 개 하면 많아. 두 집도 줄 수 있어. 두 개 하면.

**Q: 어머니 돈으로, 거의 봉사네요 그럼.**

A: 내가 무슨 봉사했다 그러거든. 내가 비싼 거는 못 해주지만 그런 건 해줘요.

**Q: 근데 마음만으로 기쁠 것 같아요.**

A: 응, 그러니까 그 엄마들 내가 그래서. 그 집은 김치를 사 먹잖아. 그 앓았다는 집. 내가 김치 사지 마라. 내가 김장 할 때까지 깍두기 해주마.

**Q: 어머니님 힘드시잖아요?**

A: 저녁에 와서 여기 세일 하면 5백 원씩 해요. 그거 두 개 하면 많아. 그러면 갖다 줘. 아유 이거 무거워 죽겠네. 그럼 막 웃는 거야. 엄마 너무 미안해요, 해오지 말라는 거야. 냉장고에 아무 것도 없는데 해오지마? 그거 해 갖고 국 딱 끓여

서 주면 먹잖아. 내가 얼른 먹어요, 내가 밥을 해, 밥을 해서 줘. 그럼 너무 맛있게 먹어, 둘이 앉아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예뻐. 그 아저씨는 안 해. 아저씨는 좀 멀쩡한데 그래도. 아저씨 국물 끓여서 그거는 반찬 안 많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두 번 가는데 두 번 다 국 끓여 주고.

**Q: 아저씨도 알려드리고?**

A: 안 해.

**Q: 알려고도 안 하고?**

A: 아무도 안 해. 맛있다, 맛있다 미안해 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거는 좀 돈이 많다 그러면, 자기가 전화해서 사오라고 하는 건 돈 줘. 그렇지만 내가 내 생각에야, 이거 해다 주고 싶다 그러면 안 받아. 자기는 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많지 않아. 내가 고춧가루 이런 거는 많이 있어서 해주는 거다 그러면 고마워하지.

**Q: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A: 그래요. 내가 엄마 뭐 좋아해? 그러면 나 뭐 좋아해. 호박 부침개를 좋아해. 그것도 해다 주고. 나중에는 사다 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 갖고 가지. 나 이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건데.

**Q: 어머님 감사합니다.**

□ 수급자 03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노인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약 10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72	남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 청소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봉사자가 와서 도와주 어 청소상태는 양호했음. 난방을 해도 방이 별로 따뜻하지는 않다고 함.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조사자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지는 못함. 30대에 몸을 다치신 뒤로 근로를 하기 힘들어 그 뒤로 근로를 하시지 않았 음. 따라서 과거 직업이력이 거의 없었고, 다치신 뒤로 계속 근로능력, 근로의욕은 거의 없었음.

**Q: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A: 제가 느끼는거요? 일주일에 세 번 가니까...

**Q: 투석 신장이요?**

A: 일주일에 세 번. 거기 가거든요. 몸이 항상 아프죠. 잠은 네 시간 자거든요. 첫째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귀찮고...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Q: 병원은 어디에 주로 가십니까?**

A: 원래 의정부 성모병원... 거기에서 수술도 다 하고... 성모병원에서 일년 다니다가... 여기서 가려면... 여기에서 전철타고 가려면... 버스에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앞에 서울 내과가고...

**Q: 그래서 근처 병원으로 다니십니까?**

A: 네... 겨울철에두 춥고, 여름에도 전철타고 가려면 세 번 씩이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갔다 오면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12시 좀 넘어서 이걸 하거든요. 5시 정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일루 땀기다니까 일루 그거를 해서 줘서 일루 왔어요.

**Q: 투석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되신건가요?**

A: 지금 4년 짜 됐어요. 성모병원에서 일 년 있다가 여기 와서 한 3년

**Q: 신장 투석하신 분들 보면 장애판정 받으신 분들도 있던데요. 받으셨어요?**

A: 네. 이것은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성모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해서... 갖다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에 갖다 주니까 동에서 보더니 사진 두 장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한 달 있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구요. 신분증 찾아가라구 해서. 장애판정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갔죠.

**Q: 장애등급은 몇 급으로 나오셨어요?**

A: 2급으로 나왔어요.

**Q: 지금 어르신 댁에는 같이 사시는 분이...**

A: 없어요. 혼자 있어요.

**Q: 아무도 안계시구요? 죄송합니다. 자제분들은?**

A: 자제분은 징역살이 한 5년 살구 나와서. 행방불명된지가 한 5년 돼요.

**Q: 연락이 끊기신거네요.**

A: 아 그러믄요. 징역살고 나와 가지고 와서. 부모라는 것은 뭐... 전화도 한통 없  
고. (우심...)

**Q: 그러면 선생님 찾으시려면 찾으실 수 있으셨겠네요.**

A: 아뇨. 찾으나마나. 개도 이제 다 컸는데... 50살이나 먹었는데... 집에 뭐 연락도  
없고... 오지를 않아요.

**Q: 그럼 자제분이 한분?**

A: 네

**Q: 아드님?**

A: 네

**Q: 어디계신지도 모르시구요?**

A: 네

**Q: 투석하는 병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많이 들죠?**

A: 그것은 정부에서 해주니까... 우리는 애초에 모르죠...



**Q: 실제로 추가로 선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은 없구요? 본인 부담금은?**

A: 겨울에 한번 감기로 예방... 예방... 8000원. 그거 말고 딱 부담금은 안들더라고요.

**Q: 그럼 병원을 옮기시면 걸어서 다니시는 거리가 되십니까?**

A: 네

**Q: 기초보장수급 받으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A: 그것이 한 10년 정도...

**Q: 처음에 하시게 된 것은 어떤 과정으로... 주변에서 신청 해보시라는 말씀 듣고 하신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시고 찾아가신겁니까?**

A: 내가 병원에 있고 하니까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동에 가서 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동에 가서 얘기한거죠. 내 동생이 혼자 있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된거죠.

**Q: 그때 10년 전에는 어느 병원에 다니신건가요?**

A: 성모병원 다녔죠.

**Q: 그때는 어디가 안좋으셨는지...**

A: 그때는 내가 7층에서 떨어졌는데, 옛날에 젊어서 노가다를 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여기 갈비가 2대가 나갔단 말이여... 요도가 나갔단 말이여.. 그것도 오래되니까 오줌이 인자 안나오는거여. 오줌도 안나오고 오줌도 찢끔찢끔 옷에 다 계속 싸게 되는거여. 그리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다 서울 대학병원에 갔었거든요. 서울 대학병원에 가니까 호수도 넣구 막 거시기를 막 해가지구 때리고... 그래두 안되가지구 일주일 있다 그냥 나왔어요. 대학병원을... 나와서 있다 보니까 영 죽겠길래 내가 그랬어요. 서울 대학병원도 좋지만 요즘 성모병원이 크고 새로 생기고 그래서 나올 것 같으니까 ... 서울대학병원은 입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자 했더니... 거기 가서 여기를 뚫었죠. 뚫어갔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호수 여기 차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또 한 2주 있다가 와서 뺐는데. 또 몸이 또 하구 나서 몸이 이상하게 계속 아프더라구요. 가니까 투석안 하면 죽는다. 그때는 투석이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엔 목을 뚫고 글루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달동안 했죠. 한달동안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막혀가지고 안되는거예요. 안되니까 여기를 또 뚫었죠. 또 뚫어가지고 여기 두달 때 걸린거예요. 또 뚫거죠. 완전히 여기가 막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해 갖고...

**Q: 처음에 10년 전에 기초보장 받으실 때 근로능력은... 보통 기초보장 제공할 때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판정해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처음 기초보장 하실 때 근로능력은...**

A: 그때는 병원 다니다 보니까 포천에 친구한테 친구집 가서 나도 없고 하니까 같이 거기 있었죠. 포천가서...

**Q: 댁이 그럼 포천에 있었나요?**

A: 아니죠. 원래는 수유리 있다가 삼양동 있다가... 삼양동에서 여기 온거죠. 노인네 하고 왔는데 2004도에 돌아가시고... 노인네는 4년 전에 돌아가시고...

**Q: 아, 어르신?**

A: 네. 여기서 엄마하고 나하고... 노인네는 2004년도에 돌아가시고... . 엄마가 있었는데. 나 혼자 있는거죠

**Q: 동사무소에서 알기로는 지원받으시는 분들 명단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로 왔는데, 손자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A: 손자는 있어요. 개가 내 앞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내 앞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이라고... 개는 나도 아프고 하니까 누나가

수유리 사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Q: 손자는 거기서 같이 사시구요?**

A: 네. 나두 여기서는 지금 투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나가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Q: 손자 손녀 분들하고 연락은 되시는 거예요?**

A: 그렇죠. 누나네 집에 있으니까

**Q: 가까운가요? 자주 연락을 하시는 겁니까?**

A: 명절 때.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몸 아픈데 그런거 지내면 그렇다고, 제가 계속 지내다가 2년 췌. 누나도 지금 혼자 있고 그러니까요. 누나가 모시고 있어요. 계속 지내다가 2년 됐어요. 명절때나 가고 그러지 같일은.... 누나네 집 같 일도 없고.

**Q: 누나도 지금 나라 돈을 받고 계세요?**

A: 누나는... 거기서 모르겠는데요.

**Q: 아, 모르시겠어요?**

A: 네... 누나는 나보다 4살 더 위

**Q: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어머니도 국가에서 주는 돈 받으셨는지?**

A: 그때는 안받았죠.

**Q: 그때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A: 누나가 조금씩 보태주고.. 그랬죠.

**Q: 누님은 형편이 괜찮으신가요?**

A: 혼자 사니까. 혼자 살고 지금은 뭐..전세로 있지만, 그래도 쯤. 젊고 했으니까.

지금이야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 누나가 쌀 같은 거도 주고... 돈은 뭐 번 것도 없고.

**Q: 지금도 누님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는지?**

A: 아뇨 없죠. 누님도 사는데 거시기 해가지고... 누님이 나보다 좀 젊다고 하고 돈 이야 많다면 동생이 이렇게 사는데. 거기 가면 차비도 안 줘요. 솔직히 거기 가면 차비가 왔다갔다 2000원인데 그것도 안줘요.

**Q: 일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예전에 건설현장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A: 그거 오래됐어요. 한 40년. 내가 서른 때 그랬으니까 한 40년.

**Q: 그때 다치신거예요? 그 이후로 일을...**

A: 안했죠. 뭐 일할게 있어야 하죠. 뭐 얻어먹고 그랬죠. 어디 뭐 직장이라도 있으면 그런거라도 할텐데. 직장이 어디가 있고...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나니까 그냥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계속 양아치 생활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뭐...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죠 뭐. 그때 뭐 경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때야 뭐..솔직히 양아치 생활 계속 했어요.

**Q: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하셨을텐데...**

A: 일자리만 있었으면 일이야 했죠. 그냥 뭐 힘들고 짐지고 높은데 올라가고 그런 거는 못했지만

**Q: 하고 싶었던 일 있으셨어요?**

A: 일이야 뭐 배우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뭐... 청소부나 뭐 그런거죠 뭐. 솔직히 생각은 뭐. 내가 많이 배웠다면 꿈을 좀 좀 꺾봤지만... 배우지도 못했고, 청소부 같은거면 좀 해봤으면. 내가 옛날에 일자리가 그렇게 있었으면 그런데를...

**Q: 지금 청소부... 체력 하기 힘들실텐데...**

A: 지금은 내가 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Q: 병원 3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A: 네. 병원에 일주일에 세 번가니까. 암만 편한 일을 해도 된다고 해도, 직장 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다니는 놈이 일주일에 세 번 빠지면... 그거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할 맘이 있는데... 병원에 안가면... 내가 병원을 한번 빠져봤거든요. 한번 빠졌더니 저녁에 숨이 팍 막혀가지고, 혀가 굳더라구요.

**Q: 빠질 수가 없겠네요.**

A: 그래서 내가 어디 좀 이틀 삼일 좀 가서 자고오려고 하면... 못가잖아요 이제까지...... 전화를 했더니 구급차가 와가지고. 내가 숨을 못쉬니까. 산소호흡기 꼽고 을지병원가가지고 알약을 넣어주고 산소호흡기 꼽고. 그 이튿날은 또 추석이란 말야. 을지병원에서 거기서는 수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 약 계속 넣어주고, 산소호흡기 하니까 좀 정신이 나더라구요. 말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와서 여기 와서 산소호흡기 뽑고...

**Q: 병원 빠지지 마세요.**

A: 네. 빠지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가서 내가 3일 정도 자고 오려고 그래도 그것 땀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Q: 일자리가 있긴 있어요? 구하시려면...**

A: 구하려면... 구해보려면... 구해보려고 안해봤죠. 내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해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이가 72살 이렇게 먹고 하니까...

**Q: 72살이세요?**

A: 네. 그래서 뭐...

**Q: 한 달에 생계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으세요?**

A: 32만원 나오다가 31만원 나오다가 그러더라고요

**Q: 달마다 달라요?**

A: 몰라요. 그렇게 주더라고요

**Q: 지금 주민등록상에 손자분은... 학교...**

A: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요.

**Q: 손주 한 분이신거예요?**

A: 네

**Q: 아들 손자?**

A: 네. 아들은 언제 와서 띠어갔다..띠어가 버렸더라고..동에 와서...

**Q: 그래서 주민등록은 두 분만 되어있는거예요?**

A: 네 언제가서 띠어봤나... 거시기... 내가 띠어보니까 띠어갔더라고요...

**Q: 생계비 받으시면 공과비 내시고 병원다니시고, 차비 내시면... 한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세요?**

A: 생활비야 저기... 저... 동에서 쌀 2만원씩 떠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거 갔다 먹고 내가 먹고싶은거 사먹고. 그리고...

**Q: 부족하시겠어요.**

A: 부족하기야 부족하지요

**Q: 지금 아파트 임대이신 겁니까?**

A: 임대가 아니야

**Q: 집은 월세신건가요?**

A: 월세도 아니고... 정부에서...

**Q: 집세는 따로 안내시는 거예요?**

A: 아니 겨울이면 보일러 준 거 물세, 전기세, 가스비, 전화비 내가 다 내야죠

**Q: 월세, 집세를 내시는 건 아니시죠?**

A: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서...

**Q: 관리비 해서... 전부 합쳐서 얼마정도 나가시는건가요?**

A: 전부 합쳐서 20만원

**Q: 많이 나가네요.**

A: 전부 합쳐서

**Q: 나머지 10만원가지고 생활하시겠네요...**

A: 그러니 어디가겠어요. (웃음)

**Q: 교통비랑...**

A: 병원은 가까우니까.

**Q: 걸어다니세요?**

A: 거긴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솔직하니 뭐 남자새끼가 먹고싶은거... 된장만 쫄 살려고 해도 만원...

**Q: 비싸더라구요. 물가가 올라서...**

A: 네. 떨치 좀 살려도 만원. 그니까 뭐 쓸 것이 있어요.

**Q: 복지관이나 그런데서 밑반찬 갖다주나요?**

A: 복지관에서 와서 전부 보고 가더니 밥. 점심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먹어요.

**Q: 복지관이 근처에 있나 봐요**

A: 여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앞 동에. 길옆에 있잖아요.

**Q: 매일 가세요?**

A: 아니죠. 병원 가는 날 3번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어쩔 때 몸이 아프면 못가 버리고. 일주일에 한번 갈까 말까예요. 지난주에는 한번 못 갔어요. 갔다 오면 몸이 아파서 움직거리지도 못하니까.

**Q: 복지관에서는 자주 오세요?**

A: 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오거든요.

**Q: 아... 청소해주시고... 그렇구나.**

A: 네. 처음 할 때는 세 번왔는데. 거기서 구로공단 거기서 나왔더라구요. 어떤 아가씨가. 나와서 다리 움직거리보고 아해보고... 화장실도 가냐구 간다구. 그랬더니 급수가 안나올거라구 그러더라구요. 그러구 한 보름 있으니까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거기서 확인 해가지구, 병원 가서 확인해가지고... 날짜가 저 밑에 편지함에서 그냥 어쩔 때 뽑아보고, 그 다음에 안 뽑아보고 그러거든요.

**Q: 이 사람이요?**

A: 네. 뽑아보니까 날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럼 그 병원에서 맡아가지고. 거기서 내일 부쳐달라고. 우체국 편지 하나가 1800원 이더라고, 그거 부쳐줬죠.

**Q: 혹시 동사무소 공무원은 자주 보세요?**



A: 자주보긴 뭐. 일 볼 때나 가지. 뭐... 내가 뭐...

**Q: 전화는 자주 안 오고요?**

A: 네

**Q: 가끔 일 있을 때만. 무슨 일로 가는데요?**

A: 그때는 뭐... 주민등록등같은 거 떼러 갈 때... 그럴 때 보고. 서로 인사하고. 그  
거지 뭐...

**Q: 가면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A: 가면 뭐 잘 해줘죠.

**Q: 나라에서 돈 주는거 있다고 하면 연락은 잘 오구요?**

A: 그런 연락은 안와요. 그냥 나오면 나오나보다. 통장 가서 찍어보고. 동네 노인네  
들 들어보니까 연락 뭐... 나도 연락은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했구. 넣어주면 언  
제 넣어준다. 20일 날 넣어준다.

**Q: 근데 왜 받으시는 돈이 30만원밖에 안되세요?**

A: 그러니까 내가 따져봤거든요. 내가 가서 따져보니까 손녀딸이 지금 저기 가서  
있다 이거야. 그러더니 한번은 3만원인가 나왔더라구요. 화가 나서 막 쫓아올라  
갔지. 올라가서 32만원 주면, 손녀딸 반 빼개서 16만원 줘야지 왜 3만원이나 막  
가서 그랬더니... 가만히 한 남자가 그러더니 요번 달 못 나간거 담달에 넣어준  
다고 그러더라구요.

**Q: 손녀딸이 그럼 직장 다닙니까?**

A: 안다니죠. 중학교 1학년인데.

**Q: 손자분이... 누나랑 같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손녀딸은 누나랑. 직장 안다닙**

니까?

A: 중학교 1학년인데 안다니죠.

Q: 손자가 아니라 손녀딸 한분?

A: 네.

Q: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하실 수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일을 안하시고 그래서 정부금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이셔서 원래 일을 안하셔도 돼요.

A: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으면 솔직하니 나가서 활동하고 술도 먹고 맘대로 하죠.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Q: 10년 전에 다치시기 전에는... 다치신건 30년 전에 다치셨다고..일찍 다치셨다고

A: 직장이고 뭐가 있어요. 노가다 아님 양아치고 그거지 뭐. 그런 생활 했죠. 솔직히 나 그랬어요. 종이 주워서 그냥 뭐 몇 푼이나 쥐요? 자유당 시절 이럴텐데.. 뭐 나 그런 생활을 했어요. 집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가서 주워다가... 뭐... 갖다 주면. 돈 몇 푼이면 그걸로 밥 사먹고. 그런 생활 하며 지냈어요.

Q: 어르신이 보시기에 나라에서 그때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A: 그때 도와주는 거야 먹는 것 좀 도와줬으면 그게 최고였죠. 우선 먹는 것이... 그랬지...

Q: 먹는 거 되면... 일자리를?

A: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파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구 있으니... 나는 썸 청소나 그때는 기저귀차고 다니다시피 했어요. 오줌이 찹끔찹끔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는 않고.

**Q: 신장 말고 다른 곳은 불편한 곳 없으십니까? 병원 다니시고 그러십니까?**

A: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지금 판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또래 되면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러기는 싫고. 힘이 들죠. 갔다 와서 어지러우면 드러누워서 약이나 먹고 그러죠 뭐...

**Q: 복지관에 가시면 밥 드시고 그러시나요?**

A: 죽같은거 끓으면 그거 먹고...

**Q: 한달에 30만원 정도... 뭐... 근근히 사시는거밖에 안되는데...**

A: 그렇죠 뭐. 그것도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죠...

**Q: 지금 가장 필요한건 생활비... 치료비도 나가시니까... 다른데 돈 나갈 때...**

A: 다른데 돈 나올게 있으면 괜찮죠.

**Q: 아노... 돈 나갈데...**

A: 나갈 때야 솔직히... 뭐. 누가 죽었네 뭐네 하면 돈 2-3만원이라도 넣어주고, 누가 결혼식이라고 하면 최하가 2~3만원. 4~5만원인데 꿈도 못꾸죠. 맘은 있는데 당장 단 10원 한 장이 없는데 내가...

**Q: 어르신, 장애인 등급 받으면 나라에서 13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받으시는거예요?**

A: 네. 통장으로 넣어 주더라구요.

**Q: 그건 별도로?**

A: 네. 혼자있어도 한달 지내려면 반찬 값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고기나 이런거 사먹으려고 하면 택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거 사먹으려고 하면 말할 것도 없는거고..

**Q:** 복지관에서는 한번씩 가서서 식사해주시고,청소도 해주시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도움받는 거 있으십니까?

**A:** 도움받는거 10원도 없죠

**Q:** 돈 말고 다른거...

**A:** 복지관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6개월 먹고 6개월 쉬고. 사람이 많으니까 교대로... 판 사람들이 6개월 먹고, 2교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화해서 가면 콩나물도 있고 빵... 라면 한 서너개하고 빵. 그거 줘요. 그건 거기 안갈 때. 6개월동안 안갈 때 가끔 전화와서 거기 가면. 어쩔때 가니까 콩나물도 주고 그러더라구요.

**Q:** 월계동엔 언제 오셨나요?

**A:** 92년도.

**Q:** 오래되셨네요. 그때부터 이 아파트에 계신 거예요?

**A:** 네

**Q:** 이웃이나 가끔 오시고 그러십니까? 도움이나 뭐...

**A:** 도움이야 뭐. 여기는 문닫으면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니 내가 한번 가스불을 쪼개가 설까봐 불을 켜놓고 아침에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야. 내 생각에 켜는지. 안 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못견디겠더라구. 그래서 간호원한테 이거 빼라고

**Q:** 집은 괜찮으셨어요?

**A:** 네. 암만 해도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왔더니 마침 아줌마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나봐. 연기가 나니까 신고를 했더라구요.

**Q:** 큰일날뻔 했네요.

A: 아줌마가 없었으면 불이 났죠. 마침 옆집 아줌마가 연기가 나오는 걸 보고 신고를 해서. 저기서 소방차가 10대가. 나 오니까 소방차는 갔더라고요. 저기 줄타고 들어와 가지고 하고 갔더라고요...

**Q: 문 뜯고 들어온거예요?**

A: 네. 문 뜯고 끄고 갔더라고요. 관리사무실에서도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전기가...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어요. 내가 뭐 정신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보리차를 끓여먹으려고... 불을 켜놓고 그러고 한번 아줌마.... 겨울같으면 문을 딱 닫아놓으면 누가 뭐... 하마터면 불날뻔했어요.

**Q: 동사무소의 공무원은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A: 만날 기회가 뭐... 내가 볼일이 있어야... 내가 가야 만나지 뭐...

**Q: 문안인사라도 전화라도 하고 그러면요.**

A: 할 말이 있어야... 아니 뭐... 할 말이 있어야...

**Q: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크게 불편한건 없으신거죠?**

A: 저번에 그러대요.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뭐 수급자... 여보쇼... 아들한테 돈 10원이라도 동정을 받았으면... 당신. 어. 아들로 나왔다고. 화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씨발 내가 약오르면 내가 농약 먹고 죽어버린다고 그 말 했어요. 내가 힘들어서 죽었는데...

**Q: 공무원은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신건가요?**

A: 아들은 돈을 잘 버는데... 열이 나니... 열이 나니...

**Q: 사정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A: 그러니까. 열이 나니... 나는 미치겠는데... (울음) 내가 아들한테 돈 10원이라도 받고 가끔씩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말 없어요. 내

가 그 새끼 5년 살고 나와 가지고... 떠나가지고... (울음)

**Q: 생사정도는 확인이 되시겠네요.**

A: 50정도 먹었으니 뭐...

**Q: 무슨 일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시구요?**

A: 모르죠. 저야... 만나보고 연락이라도 하면 아는데... 나는 모르는 사실은... 나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

**Q: 그렇게 되시기 전에는, 5년 살고 나오시기 전에는 자제분이랑 연락하고 그러셨어요?**

A: 그때는 노인네가 길렀어요. 노인네가...

**Q: 아... 같이...**

A: 네. 개 한 3살 때니까 40 한 7년 됐죠. 화문동 살 땐데... 개 3살 때니까 노인네가 길렀죠.

**Q: 아드님을요?**

A: 네. 노인네가 쪽 길렀죠. 나는 그때 솔직하니 없어서... 거지생활하고 막 허구언 날 개 10원 한 장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런.... 학교도 솔직히 보내지도 못했고... 누나가 수유리에서 그때 장사 할 땐데... 누나가 국민학교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때 솔직히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누나네 집에서 전부... 어머니는 누나네 일 도와주면서... 솔직히 나는 방이라도 따로 있다면... 방도 없고. 거기서 노인네랑 전부 같이 있는데. 나는 방탕생활 했어요. 그런 생활 했어요. 그 대신 나쁜 짓은 아직까지는 안했어요.

**Q: 그럼 결혼을 안하신거예요?**

A: 예식은 안올렸는데. 만나가지고 한 3년인가... 살았죠. 그때는 돈도 못 벌고... 오

죽 했으면 그랬겠어요.

**Q: 어머니는?**

A: 개 3살 때... 오죽하면 갔겠냐... 해가지고...

**Q: 거의 다 된거 같은데... 여쭙본건 다 여쭙본거 같은데 끝으로... 생활비 들어오는 것도 겨우 살아가는 정도밖에 안되는거고... 그거 말고 기초보장 지원 받으시면서 애로사항... 힘드신거...**

A: 애로사항이야 머... 병원에 드러누워 있으니까... 돈도 없고... 누나가 동에 가서 사정을 했는 모양이여. 그래서 그렇게 나온거여. 뻘히 뭐... 누나도 잘 산다면 모를까... 누나도 이제 절절매는데 뭐...

**Q: 바라시거나 그런 점은 없으세요?**

A: 바란거야 뭐... 나이먹었는데...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나 좀 더줬으면 뭐...하하... 솔직히 그거죠 뭐. 그 이상 더 있어요. 내가 몸이라도 안 아프면 청소부나 뭐 그러겠지만... 내가 일주일에 3번이나 빠지는 놈인데. 어디에서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또 오면 어지럽고 그러니까...

**Q: 지금은 32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좀더 많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생계비가 조금 올라가는지?**

A: 그전에는 25만원 줬다, 26만원 줬다. 지금은 올라갔어요. 32만원... 네...

□ 수급자 04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약 1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51	여	유	무
2	자	31	남	무	유
3	자	29	남	무	유
4	자	26	남	유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p><b>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b></p>
<p>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방은 2개이며, 현관에서 안방까지 이어지는 통로에 주방설비가 되어 있음. 큰방은 주로 대상자가 사용하고 거실처럼 사용하며, 작은방은 아들 3명이 사용하고 있음. 집안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큰방 벽에는 조카들 사진이 걸려 있었음.</p>



##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본인은 위염, 무릎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첫째 아들(성인병)과 둘째 아들(신장투석 중) 모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근로를 할 수 없는데 진단서를 제출하고 비공식 근로를 하고 있으며, 가구 내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의 신뢰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Q: 아드님만 세분 있으신 거죠?

A: 예. 예.

Q: 딸? 혹시, 있었으면 하고 생각?(웃음)

A: 예.

Q: 어떻습니까? 수급하시게 된 건 얼마나 되셨습니까?

A: 수급이요? 음...

Q: 3월 달이요?

A: 봄...

Q: 올 봄...

A: 요때, 아니요. 작년 봄... 봄 좀 지나서... 그러니까, 늦은 봄이요.

Q: (남)1년 반 정도.. 관계없어... (여)1년 조금 넘으신 거죠?

A: 아, 예예. 좀 확실히 잘 모르겠네. 일단은, 1년 이쪽저쪽 된 것 같아요.

Q: 근데 어떻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A: 방법이요?

Q: 네.

A: 이제 병원에서... 애가 저희 둘째... 두 아들이 다 아파요.

Q: 첫째, 둘째 아드님?

A: 네. 근데 저는 나라에서 혜택 받는걸 원하지는 않아요. 또, 또, 어디다 원하지는 않고, 참 나는 공짜는 어쩔 또 싫고. 근데 이제 사람이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남들은 영세민이라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영세민일까, 그렇게는 했는데... 일단은 큰 애는 성인병이고, 그리고 둘째는 갑자기 일하다가 “엄마, 나 눈이 안보여.”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땐 뭐, 그때는 진짜 합병증도 온 거예요. 저희 집은 뭐 고혈압, 당뇨, 그런 건 없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원인은 열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신장? 신장이라고 할까?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현재 투석하고 있어요.

**Q: (남)아, 그렇습니까? (여)입원 중이신 거예요?**

A: 아니요. 입원은 안하고, 이제 피 걸러내는 거...

**Q: (여)정기적으로 가서 그것만, 투석만 하시고? (남)일주일에?**

A: 일주일에 세 번.

**Q: 아이고.**

A: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남편은 사망을 하면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식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잊어요. 언젠가는 잊는데.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이 많이 심각해요. 심각하다 보니까 그게 켈 두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일단 병원에 있으면서 진료소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Q: 그런 게 있다. 소개해 주신 거예요?**

A: 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상담 했었고.

**Q: 어머니가 찾아가셔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가셔가지고 면담하신 겁니까?**

A: 예, 그것도 저는 영세자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몰랐었고 하니깐,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Q: 그 전부부터 뭐야, 그럼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던가요?**

A: 동사무소요? 예. 근데 그때 힘들게 해주신 분은 어머,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신다. 근데 그 분은 구청으로 가셨더라고요.

**Q: 아, 그 분이 가셨어요?**

A: 예. 근데 동사무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아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딱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Q: 지금 계신 분은 별로 안 친절하세요? (웃음)**

A: 조금 덜해요.

**Q: 그 분이 워낙 친절하셨으니까?**

A: 네. 지금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분 이제 구청으로 가시고, 또 그 ○○○씨라고.. 또 지금 하는 분이 ○○○씨예요?

**Q: 지금 아마 계신 선생님이, 저희 연락하신 분은 ○○○선생님 맞아요.**

A: 키 좀 약간 작고.

**Q: 직접 알거나 만나 뵙지는 잘 못했는데.**

A: 근데 몰라, 이름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약간 키가 작은 분인데, 조금 친절이 조금 부족해요.(웃음) 그래요.

**Q: 그러면 지금 첫째 아드님이랑 둘째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A: 근데 아직 젊은 애들이다 보니깐, 근데 이제 큰 애는, 큰 애는 지금 많이 말랐어요. 성격들이 또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하고 애기를 하게 되고 하는데. 자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거를 싫어하고.

**Q: 그렇죠. 아무래도 짜증이 나니깐.**

A: 그리고, 지하고 다니는 직장에서만 사람들하고만 얘기 하지.

**Q: 일을 하고 계세요?**

A: 예. 근데 많이 못 벌죠.

**Q: 아드님 두 분은 다 일하러 가신 거예요?**

A: 근데 지금 둘째는 조금 안해야 되는데, 둘째는요.

**Q: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A: 근데 애가, 둘째 같은 경우는 음식 조절을 많이 해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첫째 많이 써야 되고, 가서 투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거든요.

**Q: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A: 무거운 걸 드니깐 이렇게 투석을 하는데 이 그 힘줄이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게 막 불룩불룩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면 가만가만 뛰잖아요. 근데 전보다 더 약간 세게 뛰는 경우도 있지만. 애는 막 뼉뼉뼉뼉 뛰는데, 그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얼굴 혈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얼굴로 막 피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Q: 근데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A: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비어 있을 때 가서 아르바이트로 식으로.

**Q: 잠깐잠깐 가서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몸이 아프신데.**

A: 그 대신, 도우는 건 하나도 없고 지들 용돈. 근데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고, 또 핸드폰을 쓰고 하니깐, 이제 저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을

취 버릇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지들 용돈으로 하는 거지.

**Q: 막내 아드님은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신가 봐요?**

A: 예, 다행히. 개 하나만.

**Q: 그럼 학교 다니고 계신 거죠?**

A: 예, 학교는 지금 늦게라도 들어갔는데, 지금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가 대줘가지고, 형편이 다닐 형편이 안 돼요. 안되는데. 근데 푹푹하고 지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Q: 아르바이트 하고, 학교 다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A: 전에는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끊겼어요.

**Q: 일자리가 없어서.**

A: 예.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Q: 어머니가 뭐, 교회 다니시는 것 말고 또 일 하시는 것 있으세요?**

A: 또, 이제 동네 가서 그 영세 만들 때.

**Q: 뭐 만드는 것 있어요?**

A: 제가 혼자되면서, 저는 이제 젊을 때는 내가 고생했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내가 젊고 건강하면은. 근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 되면서부터 몸이 아프다보니까 아, 너도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과일이나 또 고기를 사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못 먹여봤어요. 여기 이사 와서 딱 닭 한 마리 사서, 닭 한 마리 만원인데 그 한 마리 가지고 네 식구가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돈은 쪼들리고.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고기와 과일을 먹을 줄을 몰라요. 특히 큰애만 과일을 좀 먹거든요. 근데 저도 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일만 하다보니깐 무릎이 무척

많이 아파요.

**Q: 요즘도 많이 아프세요?**

A: 뼈, 지금 저는, 지금은 이제 방석을 샀으니까, 수시로 방석을 깔고 다리를 펴고 앉아 있어야 돼요.

**Q: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편하게 앉았어요. 기대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기대서 앉으세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A: 잠깐이니까. 저는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먼저 을지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구멍 세 군데 뚫어가지고.

**Q: 수술 하신 거예요?**

A: 예. 무릎이 이렇게 한쪽은 높고 낮고 해가지고 이게 닿으니깐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수술한 거랑 똑같아요.

**Q: 해도 똑같죠? 저희 엄마도 무릎 수술하셨는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A: 근데 그게, 더 나빠지지만 앉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방에서 일어날 때도 두 손 짚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는가봐요. 뼈가요.

**Q: 뼈가 좀 약하세요?**

A: 예.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서 무릎 아픈 거, 일 잤다 올게, 애들한테 또 신경 쓰고. 또 머슴아들하고 살다보면...

**Q: 그렇죠. 아들 셋에.**

A: 좋은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경찰서입니다, 일 나가는데 경찰서라고 하면 안 가본데 없이 다 한 번씩 다녀봐야 돼요.

**Q: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들 셋을 키우셨어요?**

A: 그래서 신경을 쓰다보고, 또 일 다니다보면 제때 음식을 못 먹어요. 특히, 식당 같은 데는. 그래서 위하고 제가 다리, 무릎이 많이 아파요.

**Q: 어머님, 식당에서 일 하셨어요?**

A: 네. 다했는데. 식탁보면 약이 막 잔뜩 있어요.

**Q: 무릎약이요?**

A: 네, 무릎약, 위약. 그리고 빨리 위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그 약들을...

**Q: 위, 병원에서 치료는 안 받으시지요?**

A: 치료는 자주 받아요.

**Q: 위염 같은 게 있으시구나.**

A: 네. 그래가지고 그때 먼저 동사무소에서 금융 정보...

**Q: 사기요?**

A: 동사무소에서 금융정보, 막 은행에서 권해서 막 오더라고요. 미리 아는 사람은 잘 어떻게 하지만, 저는... 그 모르고. 너무 좀 그런데 머리를 돌릴 줄을 몰라요.

**Q: 다른 분들은 그걸 다 알아서 하시나 봐요?**

A: 네, 저는 또 이렇게 들으면 내 얘기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선 너무 또, 일단은 애들이 또 막 일 저지른 것도 있고 또 아픈 것에 대해서, 막 돈이 왕창, 일주일에 한 몇 백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Q: 어휴...**

A: 그렇게 안하면 영세민이 또 떨어진다고 하니깐. 그러니 저는 떨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둘째 애가 투석을 못 받잖아요. 투석을 못 받고, 투석 받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요. 한번 가서 받는 데도.

**Q: 병원비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A: 네, 그 돈을 뭐, 뭐, 3월 말일까지 돈을 다 이렇게 써야 된대요.

**Q: 아, 돈을 또 써야 되요? 자산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A: 근데 누가 영세민들이라고 누구든지 발로 뛰던, 가서 몸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내가 벌어, 노력, 고생해서 벌은 만큼 저축을 하잖아요. 쓰는 것보다도. 근데 저 애들 어릴 때부터 저축했던 것인데 못 먹고 못쓰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

**Q: 아껴서...**

A: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떨어진다고 하니깐...

**Q: 억울했겠다.**

A: 얼마나 억울하게요. 애들한테도 뭘 해주려면 책임감을 줘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엄마가 덜컥 해주려고 하니깐... 아, 그래가지고 너무 막 신경을 쓰다보니까 몸이 막 이상하게 막 오더라고요.

**Q: 그럼 그 돈을 다 쓰셨어요?**

A: 예.

**Q: 쓰라고 해서? 아니면 떨어지니까.**

A: 예. 그래서 저는... 예.

**Q: 그럼 치료비로 다 대신 거예요?**

A: 예. 큰애가 이빨이 또 많이 안 좋아요.

**Q: 아,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A: 예. 몇 번. 근데 그것도 이제. 애가 몸이 막 말라가니까, 애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지고 이제 안 좋아지고. 엄마하고도, 엄마가 저기서 잘 받아주면 딱 한 두마디 해요. “다녀왔어요.” 하고, 여기 와서 텔레비도 안 봐요.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이제 지가 일은 해도 엄마한테 돈을 한 푼도 못 갖다 주니까, 염치없어서도 여기 못 들어오고, 텔레비도 못보고 과일 냉장고에 넣어 놓아도 그거 좋아하는데도 못 먹고 있어요. 그 말라비틀어지면 나중에 제가 먹거든요. 그 정돈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음...애들 아빠도 일찍 세상을 뺐는데...

**Q: 언제쯤 그러면 혼자되신 거예요, 어머니?**

A: 지금 거의 20년 됐어요.

**Q: 아, 오래 되셨네요. 큰 아들이 한 열 살 때부터 혼자되신 거예요?**

A: 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이고, 재는 유치원이고 하니까.

**Q: 그러면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는 일을 그때도 하셨었어요?**

A: 근데 그때는 시골서 농사짓다가 와가지고, 딱 1년 만에.

**Q: 서울에 오자마자? 되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A: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못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 아빠가 마흔 하나, 한 줄에 갔거든요. 저는 삼십대 완전 초...

**Q: 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어머니님 서울 오셨는데...**

A: 네, 근데 이제 큰 애가 많이 안 좋다보니까 큰 애 말하는 건 싫어하고 피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도 생명이 길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가서 뭐 약을 쓴다든지, 뭐 이빨을 한다든지 좋은 걸로 하잖아요, 기왕이면. 근데 그거

큰 애나 저나 제일 싼 거 27만 원짜리. 근데 그건 잘못하면 색깔도 변할 수도 있고 쉽게 부러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거부를 했어요. 마음은 좀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뭐 바닥났죠. 그럴 때는 저는 욕이 나와요. 한 마디로 도둑놈들이라고 나와요. 아니, 그 영세민, 그 지금은 수급자니깐 좀 더 올라왔더라고요, 돈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쪼들렸어요. 근데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60만원 미만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살려니까...근데 또 저는 지독하게 해요. 먹을 거, 뭐 쌀이 있어도 한쪽으로 또 저축할 건 딱 제껴 놓고 이 만치만 먹어야지, 또 나중에 뭘 일 있으면 이걸 땀혀서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남았죠.

**Q: 그렇게 하셔서 아드님 잘 키우시고, 이렇게.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A: 근데 다 키웠다 해도. 근데 이제 오늘부터 새벽 기도 했지만. 근데 둘째는 자기가 또 노력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Q: 아, 나올 수 있대요?**

A: 왜냐면, 그 돈이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Q: 신장 수술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A: 네. 첫 째, 술, 담배 안해야 되고. 근데 본인은 술, 담배 안하고 엄마가 챙겨주는 음식과 약만 잘 먹고. 투석만 잘하면.

**Q: 나올 수 있대요?**

A: 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해야지. 이식을 해도 이제 그 몸 관리는 자기가 또 해야 되고. 나는 너를 낮게 해줄 수 있다.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지만, 큰 애는 못해주잖아.

**Q: 방법이 없어요?**

A: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낮춰졌지. 그래서 개를 생각하면 많

이 많이 불쌍하고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근데 또 저희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안 좋은 일이 꼭 같이 겹쳐요.

**Q: 항상 같이?**

A: 예. 뭐 애들이 경찰서를 갔다고 해도 애가 먼저 가고나면 나중에 가게 되고. 술 먹고 꼭 실수하고. 근데 아픈 것도 이렇게 겹치다보니까 또 나중에 또 더 안 좋은 일이 겹치면 그게 제일 불안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다보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라.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거는 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해주면..그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Q: 그게 최고죠. 어머님 다른 혹시 어머님 형제분이나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도 계세요?**

A: 형제들은 있지만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Q: 언니분, 언니분 자녀의 조카분. 언니의 손자도 다 서울에 계십니까?**

A: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Q: 원래 남양주가 고향이세요?**

A: 저요, 아니요. 전라도예요.

**Q: 아, 멀리 오셨네요. 서울까지. 그러면 원래 전라도에서 농사짓고 사시다가 서울 오셔서 여기 월계동으로 바로 오신 거예요?**

A: 아니요. 이제 시누이... 용두동, 동대문구 용두동.

**Q: 아, 저 근처에 살아요. 지금**

A: 예. 거기서 살았었어요. 시누이들이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이제 얻어줬는데, 이제 자기 오빠가 세상을 뜨니까 가서 방을 빼가려고 언니 우리하고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여자들은 시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살다보면 또 밥을, 반찬을 챙겨줄 수가 없어요. 다만 김치, 간장, 고추장, 그거면 진수성찬 이예요. 뭐, 단무지 그때가 단무지가 또 썰 저것 했고.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집 가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두동 살다가, 또 애들 아빠도 용두동에서 또 세상을 떠났고. 그래가지고 퇴계로, 충무로에서.

**Q: 아, 그래서 교회를 그 쪽에서 다니신 거예요?**

A: 예. 그래가지고 시누는 이 방에 사는데 저희는 저 쪽 방에 살거든요. 저 위 방에서. 짐을 막 나무 상자에 쌓아 놓고 나면 그 해 몇 해를 못 입는 거예요.

**Q: 어휴, 불편하셨겠다, 그때.**

A: 말도 못했죠. 쪼그리고 잠자다가 새우잠 자는 식으로 잤어요.

**Q: 몇 년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A: 한 일 년 반 정도. 거기서 동사무소 사회 담당이 저 일 나가고 나면, 앞집에 와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앞집에서 설명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리 왔어요.

**Q: 언제쯤? 언제쯤 월계동으로?**

A: 여기, 한 7~8년 된 것 같은데.

**Q: 오래 되셨어요.**

A: 예. 여기 입주하면서, 지으면서 바로 입주했어요.

**Q: 그때 새 아파트에 들어오신 거예요?**

A: 예. 천국이죠, 여기는. 저희요.

**Q: 그럼 이사 안가시고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A: 예.

**Q: 그럼 퇴계로, 여기 집은 소유를 하고 계신가요?**

A: 소유? 이진 나라 임대 주택이잖아요. 영구임대.

**Q: 그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A: 네, 그러고선 이제 영세민 되고나서 지금 여기 전세, 이제 근데 영세는 또 보증  
을 빼주나 보더라고요.

**Q: 아, 원래 보증금을 내시고 들어오셨어요?**

A: 그렇죠.

**Q: 그럼 이제 그걸 빼주신 거예요? 작년부터?**

A: 네, 이제 영세민 되고나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백만 원? 예, 이백만원  
에서 저는 또 제가 늘 이렇게 약을 달고 살다 시피해요. 저 나이 오십 들이면  
아직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울을 보고 너는 나이는, 아직도 어  
린데 너 왜 이렇게 네 몸은 늙었어? 사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Q: 얼굴은 그래도 괜찮으신데.**

A: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늘 이렇게 아프다보니까 이제 이백만원만 보증  
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내주는데. 그거 놔두면 뭐해요. 내가 만일에 죽는다면  
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야 더 아프고 더 걸겠다 해가지고 이백  
만 원 더 걸었어요.

**Q: 더 걸 수도 있어요?**

A: 많이는 못 걸어도 이백만 원까지는 더, 사백만원.

**Q: 거의 저축처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A: 예.

**Q: 어머니, 진짜 알뜰하신 것 같아요.**

A: 근데 영세민 되면 또 그거 내야 되고, 또 만약에 제가 갑자기 세상을 뜨거나 하면, 심지어 이런 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집이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빌려 사는 것 밖에 안 되니깐, 못질 하면 못질하는 것까지 또 어디 수도 터지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깐.

**Q: 아, 그래요?**

A: 그렇죠.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야 되니까.

**Q: 도배를 새로하신 것 같아요?**

A: 예. 그래서 애들이 책임감이 있으면 많이 괜찮겠지만, 머슴아들이라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잠깐 걸었죠.

**Q: 어머니, 서울 오셔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겠어요?**

A: 여러 가지는 무슨, 식당.

**Q: 식당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요리 잘 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니.**

A: 전라도는 김치며, 음식은 알아주거든요.

**Q: 대개 잘 하실 것 같으셔서.**

A: 조금요. (웃음)

**Q: 혹시 뭐 식당 같은 것 한번 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A: 근데 남이 잘 한다고 해서 내가 차리다보면.

**Q:** 아, 그건 싫으시고, 그냥 일하시는 건 좋으시고? 젊었을 때는 식당에 가서서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하신 거죠? 매일 매일 나가셔서.

**A:** 그렇죠. 9시부터 10시까지.

**Q:** 언제까지 그렇게 일하셨어요?

**A:** 그거는, 오랫동안 했죠.

**Q:** 일 그만 두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A:** 저요, 지금 일 그만 두지는 5년 됐어요. 왜냐면 둘째가 그때는 이제 둘째가 보면 몸에 병을 달고 있었다라고. 왜냐면, 그 5년 전, 5년 좀 넘었거든요. 근대 애가 이제 감기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열이 있어서, 을지 백병원, 거기서 거의 한달 정도를 입원했었는데. 이제 그게 술, 담배를 안 하고. 근대 애들은 저도 그러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 하면. 또 지가 어디가 콧속 찌시고 저리는 거 아니면 잘 모르죠.

**Q:** 특히 남자들은 더 모르잖아요.

**A:**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합병증으로 왔는데.

**Q:** 아, 많이, 아파진 건 작년부터 많이 아파지셨는데 좀 병을 오랫동안 있으셨던 거예요, 아드님이?

**A:** 근데 이제, 그, 5년 전에, 5년 전... 2002년도니깐, 이제 2008년도죠? 5년 됐네요.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둘째 애가요. 근데 지금도 여기 쇠가 있는데 이 쇠를 빼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막 시리고 통증이 많이 온대요. 후유증이요. 쇠를 빼야 되는데 안 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무릎은 많이 아팠었는데 애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애 수발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일을 못했죠. 근데 이제 애 수발을 하고나니까 무릎이 더 심하게 아팠었어요. 더하다, 애를 해주다 보니깐, 안한지 오래, 5년 됐네요.



**Q: 식당에서 일하면 무릎 많이 상하지 않아요?**

A: 그 당시에는 이제 아픈지를 몰랐어요.

**Q: 그렇지, 끝나고 나니까 아프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침을 하나도 못 빼고 계십니까?**

A: 글썄. 이제. 근데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있어요. 얼른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빼지를 않는데. 지금은 아마 빼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피 투석을, 걸러내는 투석을 하루걸러 하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에 많이 안 좋아서 세 번씩 해요.

**Q: 걸린 이유가 그러면 다른 이유보다 아드님이 싫어서, 억지로 하면 멍들고 그러니까 그냥 안하려고 하고.**

A: 애들이 웬만하면 병원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도 감기도 누구든지 감기도 좀 아팠을 때 얼른 병원을 가야되는데. 저는 일 나가야 되는데, 앞에 병원 있으니까 얼른 가라, 가라 했는데, 안 가길래. 그럼 엄마랑 같까 그랬더니, 작은 애 하는 말이 “저게 애기야? 엄마가 같이 가주려고 하게? 네 혼자 가라!” 막 그랬어요. 그래, 가라 그랬더니 대답만 하고 안 갔던 거지. 그게 화가 된 거죠.

**Q: 죄송합니다만, 아버님도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습니까?**

A: 네, 애들 아빠도 병원 가는 걸 꺼려했어요. 옛날 농사 질 때도 경운기에 다치고 그래도 아프단 말도 안하고 그랬는데. 또 성격을 또 닮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좀 전에 내성적이었는데, 제가 혼자 딱 있으면서 아 내가 이런 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막 성격을 바꿔야만 내가 모든 것에 편안하고 애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애들 아빠도 이제 서울 와가지고 막상 이제 뭐든지 또 눈으로 보면 뭐든지 잘해요. 잘 하는데, 이제 시누이들, 외아들이거든요. 이제 큰 아들이고 밑에 동생도 있는데. 동생들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농사 짓다보면 술 한 잔씩 먹고 일하니까, 술의 힘으로 일하

는 거예요.

**Q: 일이 힘드니까.**

A: 술 힘으로 일하는데, 이제 열 잔 먹던 걸 다섯 잔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그게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열 잔에서 다섯 잔을 할 때는 저는 백점을 줄 수 있어요. 장하다, 잘했다,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시누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오빠 술 먹는다고. 근대 우리가 다섯 잔을 하거나 한 잔을 하거나 입에서 술 냄새는 나요. 술 냄새는 나는데. 이제 시누이들이 오빠를 이제 어떻게 한번, 을지로 인쇄업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눈으로 보고서 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오빠 술, 그 잠깐 쉬는 동안에 내가 술 한 잔을 하는 걸 가지구서 오빠를 갖다 너무 막 함부로 대했을 때. 그래가지고 나와서 가게를 하나 해보는데 거기서 이제 가게가 안 되니까, 시골에서는 사 먹고 돈 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물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내야 되고. 근데 또 자기 몸이 이제 내성적이고 장사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안 좋아졌는데, 가게에서 있을 때부터 막 몸이 안 좋다는 걸 느꼈는데, 형편이 너무 없다보니까, 또 자기 동생들한테 오빠, 야 나 이렇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한 번도 병원을 못가고 그 사망하는 날 딱 갔어요. 사망하기 전까지도 마누라 앞에서 그 추한 꼴 안 보이려고 더 꾀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도, 숨 떨어지는 그, 딱 병원 가니까 오늘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나약함을 안 보이고. 또 그 숨 떨어지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동생들 앞에서 아이고 소리 한번 안 하고, 나 괜찮으니까 얼른 가 거라 하구선 한참 동안 얘기하고 아침 시켜서 다 보내 놓고. 그리고 나선 자기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하더니만, 자기 불일, 불일은 이제 소변, 대변. 그것도 남 앞에서 이제 응급 환자실인가, 그 벽적한테 거기. 그럼 내가 급할 때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소변, 대변 볼 때 다 가려달라는 거예요. 나 본다고. 그리고 침대에서 일 보라니까 침대에서 일도 안보고, 그 아래에서 다 본대요. 그래서 끝까지 그 두 번을 고집을 피우더니 그렇게 하고. 손 쓸 겨를도 없고 돈도 또,

우린 시누이들한테 또, 물론 시누이들한테 말하면 살리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갔어요. 병원을 잘 안가는 성격 이에요. 그러다보니 애들도 마찬가지로요.

**Q: 남편분이 심지가 끈으시군요.**

A: 네. 그러니까 애들도, 큰 애도 지금 서울대 같은데, 서울대로만 가야 되거든요.

**Q: 서울대 병원이요?**

A: 네. 그런데. 딴 데 갈수 가 없어요. 서울대 특진으로만 봐야 만이, 그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안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약을, 지금 약만 먹으면 자기 몸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약을,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고.

**Q: 약도 잘 안 챙겨먹고요?**

A: 아, 예. 근데 먼저는 막 책상에 보니까 약이 막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약이야 했더니. 몸 생전 아프단 내색 안 해요. 저희 애들이 다 그래요. 큰 애나 둘째가 아프다 해도 일체 말을 안 하는 애들인데.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근데 막 나중에 보니까 막 물집이 이 배 가운데서 등,

**Q: 물집이 잡혔어요?**

A: 네. 막 오돌도돌하게 막 크고 작고 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너 왜 그래 했더니만,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큰 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형, 형이 돈 가방 메고 다니니까 여기서 혹시 이게 땀으로 인해서 이게 난 게 아닌가.

**Q: 땀띠 이런 것처럼?**

A: 가방을 메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뼈가 아프다고 하는데, 구영예배 보러 가니까 그게 파상풍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상풍이고, 뼈가 무척 아픈 거래요. 근데 애가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병원 안 가는데 그땐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근데 지금도 상처는 다 나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처 다 나았네 했는데. 그래도 뼈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얼굴 보고 야 너 이렇게, 조그마한 말이라도 잔소리니까 그러니깐 늘상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 볼 수가 없어요.

**Q: 아, 몸이 안 좋으신 데도 계속 그러셨나요?**

A: 네.

**Q: 그러면 처음에 그거 동사무소에 신청하실 때, 아드님이나 어머니 진단서 같은 거...**

A: 네. 다 해다 줬죠.

**Q: (여)진단서 같은 거 하신 거예요? (남)어머님 진단서 아니면 아드님들 진단서... 어머니 진단서하고 같이 제출, 누구 진단서를 제출하신 거예요?**

A: 이제 애들 것도 했고, 제 것도.

**Q: 세 분 것 다 낸 거예요, 그러면?**

A: 네, 근데 저는 또 사회 담당이, 저는 이제 뭐 ○○이(아들)를... 근데 그 때 60만원도 안 돼, 그 때 56만 원?

**Q: 작년에 받으실 때, 처음 받으실 때요?**

A: 이제 생활비 나오는 돈이, 56만 원 나오는데.

**Q: 너무 작죠.**

A: 너무 작죠. 근데 우리가.

**Q: 그 전에, 죄송한데 그 전에 일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식당에서 일하실 때는**

어느 정도...

A: 받았냐고요? 80만 원 받고 다녔어요.

Q: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때보다도.

A: 꾸준히 80만 원 받고 다녔어요.

Q: 아드님이 아프시기 전에는 돈도 벌어, 더 많이 버셨죠, 아드님들이?

A: 근데 엄마한테는 일체 없었어요.

Q: 자기 용돈으로 쓰고, 그냥 이렇게?

A: 네.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 대해선 보험이 없어요. 왜, 엄마한테 도움을 줘야 엄마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버는 집세 내면서, 또 이제 집에 먹는 거는 일체 돈이 안 들어가요. 안 먹으니까. 이제 저축만 하는 거죠. 저축한 건데 이제 저는 이빨이 안 좋아요. 이빨이 안 좋다보니까 이를 한번 하면 몇 백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뭐 이제 저희 작은 애도 이빨을 하느라고, 학교 다니다보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빨 해주는데, 큰 애도 이빨 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이빨 하는 걸로 인해서 거의 돈이 탕진이 많이 됐죠.

Q: 이빨이 진짜 비싸요. 한번 하면.

A: 그래서 제가 이빨 때문에도 무릎이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Q: 아, 연관이 있어요?

A: 예. 이제 나중에 그 5년 전에 일 할 때 가정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애기를 늦게 낳는데, 애기를 올리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굉장히 넓은데, 그 다 막 무릎 구부리고...

Q: 아,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하셨구나.

A: 막 쓸고 닦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빨은, 이제 이는 했는데, 이에 또 잇몸에

서 뭐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 또 뜯었어요. 몇 백만 원 들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빨을 빼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밥 먹다 죽을 먹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Q: 또 일을 나가셔야 되니까.**

A: 네, 근데 또 이빨 빼기도 전에는 애기 막 울고, 애기 기저귀 빨아야지, 청소 해야지 하다보면 또 반찬 이거저거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김치국물 에다 그냥 떠먹는 것 밖에 없어요, 얼른 먹는 게 김치국물이거든요. 깨 물을 일도 없이. 근데 이빨을 빼고 나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뭐 이제 그냥 물 말아서 김치국물에 먹으니까 그냥 씹는 것도 없고 영양가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또 막 몸은 주사를 하고 오면 완전히 반 기절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많이 망가졌어요.

**Q: 그때는 그럼 식당 말고 그냥 집에서 애기 돌보시고 하신 거예요?**

A: 예. 한 2년 동안은.

**Q: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A: 예. 이제 왔다 갔다.

**Q: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A: 예. 그것도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Q: 애기 보는 게 힘들죠, 애기 보는 게?**

A: 아유, 엄청 힘들었어요.

**Q: 그럼 진단서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A: 정기적으로요?

Q: 제출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A: 아니,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왜냐면 큰 애, 둘째는 그걸 정기적이 안 되잖아요. 개네들은 죽을 때까지.

Q: 그러면 둘째 자녀분은 혹시 장애 진단 같은 것도 받으셨어요?

A: 둘째가.

Q: 투석. 신장 장애. 2급이세요? 장애인.

A: 1급. 아 개가 지금 2급인가 된 것 같아요.

Q: 그 공무원, 동사무소 쪽에서는 연락, 잘 정기적으로 연락 잘 안합니까?

A: 네, 그런 건 없어요.

Q: 요즘 건강 좀 어떠시냐, 그런 거 물어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A: 네, 그런 건 없어요. 또 저희들은 죽는 날까지 그 몸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가. 이도 그렇고. 위는 오래 전부터 아파왔고. 차라리 저는 이 진단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으니까 안 아프고, 그게 좋잖아요.

Q: 안 아픈 게 더 건강하시고 좋으니까.

A: 근데 이하고 무릎이 무척 많이 안 좋으니까.

Q: 그걸 또 내라는 말은 안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어머님이라도?

A: 예.

Q: 그럼 처음에 내시고, 내신 적 없으세요?

A: 또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내란다 해도 내란다면 예를 들어 이상이 없다, 그럼 이상 없으니까, 나 이제 이상 없으니까 안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자신 있게. 근데 그렇지만 지금 두 아들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특히 작은 아들은 음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사회 담당하는 말이 그 때 56만 원 정도 줄 때, 나이거 너무 적습니다, 난 적은데, 나 차라리 길에서, 솔직히 저 길에서 휴지 줍는 거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삶의 과정이 너무 삭막할 때는 휴지 줍는 것이 아니라 별 짓이라도 하라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삭막하니까, 56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저 새마을 일이라도 주십시오, 근데 새마을 일은 돈 얼마 안 돼요. 새마을 일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라도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도 유종관이를, 저희 아들 유종관이를 위해서 신경 쓰라고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냐고. 그러니 더 이상, 뭐 아주머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유종관이를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Q: 그럼 어머니는 일 하실 수만 있으면 지금 하고 싶으세요?**

A: 그렇죠. 이제 뭐 힘든 일이 아니라. 근데 제가 영세민 되기 전에, 실은 여기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돈 한 푼도 없고 또 제가 무릎이 아프다보니까 종관이 병수발 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일을 하라고 영세민이 안 됐다 해도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그런데서 영세민 떨어지기 전에 제가 동안에 모아 났던 거, 모아 났던 걸 가지고 100만 원씩 꺼내서, 이제 보험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 들어가는 적금도 있고 30년 치 막 메우다보면 생활비는 조금인 거예요.

**Q: 그럼 지금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세요, 어머니? 한 달에 받으시는 금액이?**

A: 지금 급여는 100만 원.

**Q: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A: 네, 그렇더라고요.



**Q: 뭐가, 이게 차이가, 뭐가 달라진 거죠? 신기하네요.**

A: 그러게요. 근데 그 때는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요.

**Q: 아버님이, 둘째 아드님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A: 그 때, 병원에 있고나서 한 보름, 병원에서 그 때 있고 나서 보름 후에 했는데, 이제 전 가계부를 봐야지, 저 가계부 쓰거든요.

**Q: 다 적어 놓으시는구나.**

A: 작년 쫓이신거죠, 예 그러니까 그 때 아프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것이기 때문  
에.

**Q: 장애수당도 나오죠, 어머님?**

A: 예, 16만원 나오더라고요.

**Q: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드님 통장으로?**

A: 제 통장으로. 근데 이제 아들한테는 너무 돈을 안 주니까.

**Q: 비밀로.**

A: 2만원 나온다.

**Q: 13만원 아니에요, 13만원?**

A: 16만원 나와요.

**Q: 아, 그래요? 올랐나?**

A: 이제 애한테는 그냥 그렇게 조금 나온다고 했죠.

**Q: 어머님 혹시 추정 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 네?

**Q: 추정 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 처음 듣는데요.

**Q: 아, 그래요? 간혹 그게 부과가 되는 소득자 분도 계시거든요.**

A: 근데, 저희 얘기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재는, 재도 지금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큰 애가 몸이 더 안 좋으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알거든요. 그걸 알아서 보건소에서 이리 연락을 해주고 또 제가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성인들이라서 보지도 못하겠고, 겨우 자기 핸드폰, 담배 값만 하는 것을, 그걸 또 엄마한테 안 가져가는 것도 다행이죠. 그래도 너무 적게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다른 집 비교해보면 저희 집 너무 적었어요.

**Q: 작년에 56만원 나올 때는 아드님이 일하시고 그런, 근무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면 그만큼 급여를 깎게 되거든요.**

A: 근데 음,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대로. 그대로 얘기 했거든. 근데 그 때 뭐 그렇게 된 거죠.

**Q: 그러면 지금 급여 받으시면 뭐 공과금이랑 관리비 같은 거 내시고, 계속 생활 하시고?**

A: 생활이라고 해도 뭐 우리가 보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평생 영세민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Q: 그렇죠. 어머니님 가능하면 뭐, 영세민...**

A: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못 먹더라도 다만 100원이면 20원을 저축을 해야 돼요.

**Q:** 그럼, 조금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으십니까?

**A:** 저요, 저축? 어, 저축 이제 하나도 없죠. 돈 다 썼는데.

**Q:** 예전에 그럼 수급, 영세민 되시기 전에 보험이나 그런 것 들어 왔던 거 다 해지하고...

**A:** 아니,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아플 때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야 동회에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전 따져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도 들지 않았나, 당신도 들지 않았나, 이걸 누구나 간에 어른, 할머니서부터 얘기, 아니 얘기부터 노인네까지 다 드는 게 보험인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사망하는 날까지 애들이 뭐 일이 있을 때까지 그걸 할 수가 없죠. 전 가진 건 없어요, 이제. 다 쓰게 되고.

**Q:** 어머님, 그대로 대개 미래 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A:** 근데 영세민이라고 해서 나 언제까지 내 입을 다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나 아프다 아프다 해서, 몰라 효자라면 모를까. 어렵죠. 그거 또 내가 나가서 약 사먹을 돈은 자식들이 안 줘도, 또 준다 해도 내가 조금씩 해 놓아야지.

**Q:** (남)영세민을 벗어나신다고 하면 뭐가 제일 아쉬울까요? (여)병원비 지원하는 거요? 아니면...

**A:** 지금 현재 영세민.

**Q:** 지금은 받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드님도 건강을 찾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 아드님도 일을 하고 그러면 영세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벗어난다고 하면 제일 아쉬운 게 뭘까요?

**A:** 우선 일이죠. 떨어지면 병원비죠. 제가 지금 병원비가 건강보험료에서 돈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 그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두 번, 하나는 뭐 무릎 아파

서 하나는 무릎, 위 아파서. 두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와요. 병원비가 제일 걱정이죠.

**Q: 병원비만 해결되면?**

A: 그렇죠. 거의 뭐 우리 목표는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거니까. 응, 어서와.

**Q: 아드님 오셨어요?**

A: 큰 아들.

**Q: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을 대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A: 아유 근데 있는 답변만 하는 거지. 아유 다 잘하죠 뭐.

**Q: 어머님 그럼 사실 다리도 너무 아프시고, 위도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어디 취업하셔서 예전처럼 일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래도 그런 어머님의 어떤 건강 상태를 고려해 줄 수 있고 그런 뭐 인근에서 그냥 뭐 집에 일거리를 갖고 와서 잠깐씩 한다거나 그런 소일이 있다면 그런 거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A: 근데 집에서 하는 거면 거의 뭐, 다리 편다 해도 오므리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소득이 될 수 없어요.

**Q: 일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우신 거죠?**

A: 근데 저는 전에 영세민 되기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살까지 가려고 거의 다다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집에 와서 막 정리다 했어요. 자살까지 하려고. 나중에는 이제 애한테 나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 도와주지 않을래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저는 이렇게 저는 지금도 정말 큰 욕심 부리지 않지만, 저 한 달에 어디 가서 5만원 10만원만 벌어도 저한테는 열배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 공공근로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휴지 줍는 것만 생각을 했지. 제 눈으로 본 것은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줍게, 일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9개월 간 했어요. 근데 하는 동시에 둘째 애가 아파다고 해가지고, 하는 동시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청소는, 그 공공근로를 가면 이제 50분, 1시간이면 60분에서 50분일하고 10분 쉬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는 또 일을 막 열심히 잘해요. 남들은 막 한 눈 팔고, 막 이렇게 뭐 있는가 하고 하는데. 저는 막 1인 3역, 4역을 막 하는 거예요.

**Q: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A: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화 나누고 웃고 같이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전 강아지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Q: 그러니까. 꼭 돈, 소득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가서 뭐 일을 하시면 아무래도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더 나을 테니까.**

A: 저는 한 달에 10만원만 준다 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으신 거죠?**

A: 예.

**Q: 그럼 어머님 혹시 복지관이나 그런 데도 다니세요, 어머님?**

A: 복지관은 65세 이상이나 하지.

**Q: 할 만한 게 없으세요?**

A: 아니,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뭐 복지관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뭐 배우는 거?

**Q:** 아니요, 뭐 배우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가시고, 사람들 만나려도 가시고. 교회 다니시니까.

**A:** 근데 저는 자원봉사는 늘 마음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는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누가라도 좀 와서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저는 지금도 마다않고 가서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 지금은.

**Q:**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도움 받으신 거 말고 인근에 뭐, 동생 분 계신 거죠? 동생이나 아니면...

**A:** 누가 도와주는 사람?

**Q:** 예. 도와주시는 분 있으신지?

**A:** 없어요.

**Q:** 금전적인 부분 말고 정서적으로라도 자주 연락을 해서 잘 계신지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뭐.

**A:** 근데 다들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해도 자기 먹고 살려고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넷째 시누이가 이제 조카, 자기 핏줄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 하나만이라도 내가 키워보겠다 그 뜻으로.

**Q:** 막내 아드님이요?

**A:** 네. 그 뜻으로 한 거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거 나중에 도와주고 공치사는 뭐예요, 안 받고, 공치사 안 받는 게 낫죠.

**Q:** 월계동으로 이사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이 근처에 오래 사신 분들 하고 잘 지내십니까?

**A:** 근데 저는 오로지 방콕 밖에 몰라요. (웃음) 잘 안 나가요.

**Q: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고?**

A: 교회하고 집, 이제 또 직장 다니면 직장하고 집.

**Q: 교회는 어머니만 나가시고 아드님들은 안 나가시고?**

A: 애들이요? 교회요? 근데 뭐 중학,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던데 컸다고 안 다니네요.

**Q: 교회가 집이랑 떨어져 불편하지 않으세요?**

A: 아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녀요? 불편해요?

**Q: 아니에요. 전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어머니 처음에 이거 수급 신청하실 때, 진단서 내고 그럴 때 공무원이 태도가 그냥.**

A: 그런 거 없어요. 친절하게.

**Q: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필요한 서류 뭐, 뭐 가져와라 다 안내해 주셨어요?**

A: 뭐 이제 지금 공무원들은 옛날같이 그렇게 쌀쌀맞게 안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 게끔 안 되어있고. 불친절해도 또 써서 내는 것도 있잖아요.

**Q: 그럼 셋째 아드님이랑 둘째 아드님은 사실 원래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소일 하고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로. 그거 동회에서도 알고는 계세요? 그거는 모르고 계신 거죠?**

A: 큰 애만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Q: 그걸 말씀을 또 하셨어요?**

A: 얘기 했죠. 해야죠. 해야지. 근데 이제 둘째는 그때 한동안 얘기 못했죠.

**Q: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셨죠.**

A: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목에다가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젊은 애다 보니까 또 없으면 없고 하니까 애들 또 친구가 없어요.

**Q: 집에만 있으니까. 건강은 어떻게 그러면 둘째 아드님은 이제 좀 예전에 막 위독하신 상황에서는 좀 나아지신 거예요?**

A: 아니라니까. 많이 지금 더 안 좋다니까. 많이 진짜 안 좋아요.

**Q: 어머님 처음에 진단서 떼실 때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A: 병원, 그거 뭐 다 떼어주는 건데 어려울 거 뭐가 있어요.

**Q: 비용은, 진단서 떼는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A: 그거 얼마나 들어서. 그건 얼마 안 되잖아.

**Q: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돈 천원이라도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A: 아, 또 내야 될 것 같다면 뭐 다만 만원이 아니라, 십만 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들더라도 떼어야지. 또 그게 과하게, 비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Q: 어머님 혹시 뭐 질문 다 하셨죠? 저축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데.**

A: 저는 욕심이 없어요.

**Q: 계획하고 계시거나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A: 저희 가정에서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전에는 기와집도 많이 짓기도 하고 애들 아프기 전에는 그랬는데 나름대로, 나름 그때는 영세민 되기 전이고. 그 때는 혼주들 생각도 하고 막 혼재 텔레비 나오는.

**Q: 와~**



A: 아니 근데 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근데 그제 새끼 밥만 해주고 살림하고 살 수는 없지. 또 일을 다닌다면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보면 텔레비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이제 집에 있고 하니까. 근대 지금은 그제 더 이상 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은 그것 밖에 없어.

**Q: 지금 상태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

A: 그렇죠. 그럼.

**Q: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어머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제도에 대해서 ,이것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저축 같은 거 아까 한꺼번에 다 쓰라고 해서 쓰셨을 때 억울하셨던 것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뭐가 좀 있어야지 이제 벗어나고 할 텐데.**

A: 근데 정부에 바란다는 거는 어려운 사람이 일단은 뭐 통장에 뭐 3,800만원? 그 이하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정도 되지도 않지만. 막 그 통장을 다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언제 이렇게 영세민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또 언제 또 떨어질 지. 저는 늘 불안한 거는 저희 둘째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고 안 좋아요. 근데 지가 견디고 일을 하거든요. 여자애들 같으면 저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얼른 가는 사람인데. 여자애들 같으면 일 안 하겠죠. 그냥 집에서 엄마 나 뭐 사다죠 그러거나 하겠죠. 근데 머슴아이다 보니까 또 지가 아파때부터도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고 그런데 대해서. 저 뭐 얘기 하려고 그랬죠?

**Q: 정부에 바라는 점.**

A: 그러는데. 애들이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하는데서 그걸 거의 막 들어보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그 주사들이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근데 애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영세민 떨어지거든요. 근데 영세민 떨어졌는데 영세민 되기 위해 둘째 애 때문에 막 썼는데 딱 떨어졌어. 이제 뭐 먹고 살아, 이제. 그때 가서 굉장히 삭막하죠. 그래서 제가 100원이면 20원을 저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는 없고. 그게 바람이에요. 근데 막 정부를 너무 심하게 한다. 저쪽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집은 따님이 혼자 계신대요. 따님이 이제 사위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쪽 다만 집은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딸네 집도. 그 딸네 집까지 금융 정보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Q: 아, 딸 주택까지?**

A: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피해 줄까봐.

**Q: 그 걱정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다들.**

A: 근데 바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Q: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가지고. 조사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마련했거든요. 저희 선물. 장시간 이렇게 협조해 주셨는데. 어머님 여기 성함만 적어주시면 돼요.**

A: 여기다가.

**Q: 어머님 먼저 받으시고 하시면 돼요. 농협 상품권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A: 여기다만 쓰면 돼요?

**Q: 성함만 적어주시면 돼요. 글씨 잘 쓰시는데요.**

A: 아이, 글씨 못 써요.

**Q: 어머니 난방은 잘 되세요? 난방은 괜찮아요?**

A: 예.

**Q: 아침에 갔다 온 집은 난방이 안 되시더라고요.**

A: 차요. 이제.

**Q: 들어오는데도 방이 춥더라고요.**

A: 방이 차가워요. 근데 있는 사람은 내도 상관없는데, 돈 없는 사람은요, 차라리 내복 입고 양말 신고 있을 테니까 불을 조금씩만 넣으면 좋겠다.

**Q: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요? 겨울 이제 겨울인데 그럼 관리비 얼마나 나와요?**

A: 제가 있는 사람 많다고는 안 하는데 없는 사람은 또. 근데 이제 영세민이고 해서 많이는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다만 몇 천원이라도 저축을 해야 만 이 살길이기 때문에, 내복 입고, 양말 신고, 차가워요. 냉방이에요.

**Q: 온수는 잘 나오죠, 그래도?**

A: 네?

**Q: 온수.**

A: 온수? 온수도 뭐 불 들어올 때 그때 나오는 거고.

**Q: 관리비 한 20만 원 정도 나와요, 어머니?**

A: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죠. 근데 일반인은 그 정도 좀 못 나오죠. 한 7~8만원. 근데 겨울엔 좀 그 정도 나오지, 20만 원가량.

**Q: 영세민 되기 전이랑 후랑 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세요?**

A: 근데 돈 내는 금액이 보증금에 따라 좀, 보증금이 있고, 또 영세민이고 하니까.

**Q: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병원 가야하겠네요.**

A: 네 얼른 가야죠.

**Q: 병원은...**

□ 수급자 05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가구주	40	남	유	유
2	자녀	6	여	무	무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엌과 거실 겸 방1. 주거상태는 생각보다 깨끗했으며, 아이를 맡아서 봐주는 분이 가끔 와서 집도 치워주신다고 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함. 아파트 주변이 다 신도시여서 대단위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으나, 이 임대아파트는 거의 관리가 안 되는 듯,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퀘퀘한 냄새가 나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노인들과 근로 가능해 보이는 성인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군데군데 모여서 시간을 보냄.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복지관 위치.

##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p>조사를 위한 연락을 시도할 때도, 믿을 수 없으니 동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 만난 대상자는 말단 공무원(대상자가 사용한 표현)외에는 어느 누구도 못 믿는다고 함.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지만 정부도 믿을 수 없다고 함. 이 면에는 사업 부도로 구치소에 있었던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p> <p>구치소에 갔다 온 이후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온몸이 아프고, 어깨가 쑤시지만 정확한 병명이 없어 진단서는커녕 병명이 없어 치료도 못 받는다고 함.</p> <p>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여서 어릴 적부터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아왔고, 현재는 본인의 사업 부도로 구치소를 다녀와서 수급 받고 있음. 택시운전을 하며 생활을 하지만, 몸이 아파 매일 나가지 못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실제 월급 받는 것이 없음에도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여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함.</p> <p>그런데도, 정부에 대해 바라는 것은 없고, 다만 수급 받는 동안 빚 독촉을 막을 수 있어 수급 받을 뿐이라며, 자식에게 전과자 아버지라는 오명을 준만큼, 파산신청도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고, 아픈 게 다 나으면 열심히 살아서 다 갚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임. 자신의 금속 기술을 통해 공방을 차릴 의지까지 표명.</p>

Q: 누구하고 같이 사세요? 가족 분들은?

A: 저희 딸하고 저하고 살아요,

Q: 딸이요? 딸이 몇 살이에요?

A: 여섯 살이요..

Q: 아.. 아직 애기네요?

A: 네

Q: 유치원 갔어요?

A: 네

Q: 저기 죄송한데요.. 실례지만 애기.. 어머니는? 이혼 하셨어요?

A: 예.. 그러카고 애기는.. 인제, 봐주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Q: 아 누가.. 봐주시는데요?

A:쭙 아시는 분이.. 왔다 갔다 봐주시고.

Q: 뭐 친척이나.. 이런.. 거세요?

A: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쪼금.. 이제 돈을 드리고..

Q: 아~~

A: 그런 식으로 해서...

Q: 선생님은 그... 동사무소... 그러니깐 정부로부터, 지원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A: 지원 받으신지... 허.. 2~3년 됐죠, 근데, 그 돈 같은건 안 나오고요? 제가.. 별을 수

가 있으니깐,

**Q: 아~**

A: 그러니깐 이제, 지금 이.. 아파트 하고, 그러카고 애.. 유치원 비용 고지해주는거 있잖아요? 그 정도 받고 있어요.

**Q: 아... 지금 일을... 무슨 일 하시는데요?**

A: 저는 그냥 애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러카고 제가 일을 하다가 흠... (헛기침) 전과가 생기는 바람에,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데... 원래 한국이라는 제도가 한번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가 힘든 나라 아니에요~

**Q: 네..**

A: 그러니깐.. 그냥 시간 시간 택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Q: 아..**

A: 그것도 인제 애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는 않고요, 그렇카고 인제.. 아시는 분들이, 인제 예약같은 거 해서, 시간 시간 이렇게 해서.. 가끔씩 하고 있어요.

**Q: 아...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A: 별이는.. 그 어느 달은 쫘.. 괜찮고요, 어느 달은 애하고 먹고 사는 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죠.

**Q: 그럼, 생계비로요.. 조금도 안 들어 오세요?**

A: 네 조금씩.. 한.. 몇 만원,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거는.. 그.. 그것 때문에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끊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인제 무슨 빚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지연을 시켜놓을 수가 있어요.

**Q:** 아..

**A:** 근데, 애가 좀 크면... 제가 일을... 뭐 하거나, 뭐 제일을 다시 시작을 하면,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제가 생활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제도를 그냥 이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 문제가 아니니깐... 지금 이게 끊기면... 그게 전부 들어오면, 말 그대로 파산이니까요.

**Q:** 아...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A:** 전에는 여기 대우자동차 다니고요.

**Q:** 아, 계산동이에요?

**A:** 그거... 그만두고 나서는... 뭐 영업소 하고 모텔 했었어요.

**Q:** 아.. 이제 좀 안 좋아지고 나서서 이혼 하신 거예요?

**A:** 그렇죠.

**Q:** 그럼 어떤 계기로 정부로부터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A:** 어.. 인제 회사 다닐 때, 아버지가 유공자시니깐 그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해가지고, 애가.. 핏덩이 일 때 혼자 키웠거든요. 그러니깐... 인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깐, 거기 직원분이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죠.

**Q:**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A:** 네

**Q:** 그래도 정보를 미리알고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었네요.

**A:** 아무리도 일을 하는 자체가, 예전에 일했던 거는 뭐 이런 게.. 뭐 포괄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깐...



**Q: 애기 할머니나 뭐 이렇게 친척 분들은 안계세요?**

A: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있어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  
요. 그게... 인제, 좀 저기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들어가기는 누구  
도... 그건 사람이라면 쉽지 않더라고요.

**Q: 지금 그.. 인제 처음에 신청을 하셔서 수급을 받으시면서요, 지금까지 한 3  
년 지난 동안 공무원들이 뭐 자주 찾아오고... 뭐 이렇게 뭐... 연락도 드리  
고, 이렇게 하나요?**

A: 공무원들이.. 가끔 찾아.. 오구요. 연락오구... 그렇카고 통장이 인제 사는지 안  
사는지 인제 관리하시고요. 그러니깐...

**Q: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 동네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그래도, 계속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네요? 다른데 보면은, 전혀 뭐 연락도 안하고 그러시  
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A: 공무원 분들이 인제... 여기는 이제... 많이... 못 오고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깐, 사실은 여기는 공무원 분들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계산동 같  
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동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공무원 분들이 나오셨거  
든요? 가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신청해놓고 이 기간이 한 4  
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Q: 임대주택이?**

A: 네,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Q: 아..**

A: 그런데 이.. 이것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데서 하는 게 있더  
라고요? 저는.. 네 저는 중복이 다 되었어요. 이쪽에 들어오고 나서, 올해인가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Q:** 아...

**A:** 그래 여기 입주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깐, 이쪽은 공동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깐. 사실은, 공무원 분들은 거기서 사무처리만 하시면, 여기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다 하시니깐, 여기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그러니깐 정식 공무원은 아닌 거 같은데, 이.. 공무원 제도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Q:** 응... 지금 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군요.

**A:** 그것도...

**Q:**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A:** 몸은... 아무래도 학익동(구치소)에 갔다 왔으니깐. 아무래도... 통증 같은거는 많은데요,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오니깐.. 뭐 어떻게 치료를 병원에 다녀도, 병명이 없고... 그러니깐... 만성... 뭐... 무슨... 뭐...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Q:** 네.

**A:** 그 정도 같더라고요. 병원에 뭐 여기저기에 가도 뭐 낫지를 않으니깐, 포기할 한 상태죠..상체는 거의 뭐 통증이 많아요.

**Q:** 아.. 뭐 정기적으로 치료같은거는 못받으시고요?

**A:** 치료는 받아야 소용도 없으니깐...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같으면.. 뭐 대학병원... 예전에 전에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애 못 갖는다고 뭐 온갖 병원을 다... 현금이 있으니깐 다... 찾아다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Q:** 아.. 그럼 뭐 의료 제도 중에서 뭐 혜택 받는 건 아직 없으세요?

**A:** 의료는 보호 2종으로 돼서 병원에 가면 돈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찾아다녀도... 뭐 병명이

안 나오니깐, 어떻게 뭐 찾아다녀도 시간만 아까운거지...

**Q: 지금 이렇게 시간제로 택시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A: 네

**Q: 그런데 이렇게 종일.. 아침에 가서 이렇게 저녁, 하루 종일 하시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제일...**

A: 애기... 도있고

**Q: 애기...**

A: 네.. 그렇게 하고 택시를 한다고 해도 몸이 그렇게 안 좋으니깐, 장시간 운전을 못해요... 그런다고, 직업을 안가지면, 애를 어떻게 부양을 못하니깐... 직업을 갖고 부양을 한다는.. 거에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게, 그렇카고 제가... 전과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Q: 혹시 이렇게 동사무소 통해서.. 무슨.. 다른 기관에서 뭐 취업에 관련된...**

A: 아니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Q: 왜 그러셨어요?**

A: 왜 그러냐면.. 몸이 인제 동사무소 직원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Q: 아프신거를요?**

A: 네 그 아픈 거 이야기해야... 병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차피 어느 공무원들이나 서류가지고... 이걸 저기를 하는 거지, 개개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는거 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 일을 하면 물론 좋은데.. 판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 때문에... 이 상체 부분이 계속 통증이 오고 그러니깐, 장시간... 한... 두 시간만 앉아 있어도... 여기 이 부분이(어깨를 가리키며) 통증이 오니까요. 그러니깐 장시간 할 수도 없고..

Q: 오히려 운전하는 것 보다.. 좀 편하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운전을 하시는 것, 가만히 인제 좁은 공간에서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거 같은데..

A: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혜택이 있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유공자시니깐, 근속이 차면.. 근속이 꼭 차면..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에 상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인천시에 메달 따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 그것까지 플러스 하면, 남들보다 개인택시를 나갈 확률이 높아요.

Q: 무슨 메달?

A: 기능대회 출신이에요.

Q: 아..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A: 네

Q: 이제 그쪽으로는 아프셔서 인제 못하시고요?

A: 아무래도 못하니깐.. 인제 택시를 했겠죠.

Q: 동사무소 왜 처음에 가셨을 때요.. 어디서 뭐 신청하고 그러실 때, 뭐 근로 능력 판정이라 그래서.. 뭐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거든요?

A: 네

Q: 그거 기억나세요?

A: 그건 잘 기억이 안나요. 몇 년이 지나서... 근데 그때에는 직원분이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게.. 만약에 제가 그때도, 뭐... 진단서가 없으니깐, 보기엔 멀쩡하니깐... 그래도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애가 두 살인가 됐어요. 그러니깐 와서 보면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Q: 그때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가요?

A: 네

Q: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것 처럼요. 진단서가 있어야지... 확인할 게 있어야지.. 이제 이분.. 뭐.. 근로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깐 생계비를 지원해드리고, 일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주시잖아요? 생계비 명목으로는?

A: 네

Q: 진단서를 주고, 일하실수 있는 분, 없는 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좀.. 뭐 잘못됐다거나 뭔가 부적당한 거 같다.. 부적절하다고 이런 생각은 안드세요?

A: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를 봐서는 진단서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진단서가 없으면 누구든지 가서 서류를 저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생계비라든지 뭐든 게 지원이 되니깐... 그거는 탄사람들한테 불공평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해주셨으면 좋죠. 솔직히 그런데 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Q: 네 여기 임대주택이니깐 수급 받으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도 사시잖아요?

A: 네

Q: 그분들이 뭐 진단서를... 이렇게 떼어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하셨어요? 아예 병원에서 안 떼어 주시는 거예요? 아프신거?

A: 저는 여기 옆집 할머니 외에는 몰라요.

Q: 아 잘 모르세요?

A: 네. 전에서부터 하던 일이... 혼자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뭐 아무래도... 인제 영업소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하고 음식이고 많이 저기들 했지, 혼자 서류가지고 싸우고 혼자 기계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했던 직업이라... 사람들

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못해요.

**Q: 공무원... 말고 인제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A: 네

**Q: 그럼 직접 공무원이랑 만날 기회는 많이 없으신 거예요?**

A: 공무원 분... 들하고는 가끔 뵙죠, 어찌다 한번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잖아요?

**Q: 네**

A: 그러면 요즘은 제가 예전에 그런 일로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못 믿어요. 사람을...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일단 전화번호가 그쪽 전화번호면, 그거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Q: 네**

A: 그러니깐, 무슨 일 있으면 동사무소로 와서 저기... 처리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깐 뵙기는 뵙죠. 그렇카고 제가 애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있고, 그러니깐 가서 뵙고 그러니깐... 몇 번 정도는 뵙는 거 같아요.

**Q: 그러니깐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시는 것 보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마다...**

A: 연락이 오셔도 휴대폰으로 안 오면, 사실 제가 받지를 못하죠.. 연락을 주셨는지 안주셨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집으로는 연락을 하실 거라고요...

**Q: 그... 공무원 선생님들 만나시면 혹시.. 어떤 어떤 거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A: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좋은 쪽으로 가는것 보다, 이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기가 되면,

애를 혼자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뭘 요구하는 것 보다 이거를 그냥 유지해나가는 저기가 더 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부족하면, 뭐.. 시골 갔다 오다가, 시골에서 조금 이렇게.. 융통해다 쓸 수도 있는 형편이고 그러니깐...

**Q: 아 친척 분들이요?**

A: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어머니도 연금을 받고 계시니깐..

**Q: 국가 유공자니깐...**

A: 네. 그러니깐 아무래도 그런 입장이다 보니깐... 제가 가서 큰손을 벌리기가.. 나 이 먹고, 벌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입장이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Q: 근데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이런거, 이런거는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뭐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뭐 애기도 키우시고 하시니까요.**

**Q: 응 개인적으로 국가가... 이런 점은 조금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 같은 거...**

A: 전 국가 안믿거든요?

**Q: 하...**

A: 솔직히..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은 믿어요. 상급 단체는 안 믿어요.. 제가 대모도 하고 돌아다녀 봤고, 그러카고 제가 저기 했을 때, 상벌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정도는 혜택이 있다고... 실패를 해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서류가지고 싸워가지고... 제가 서류로 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지고 모든 걸 떠안은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국가하고 법원은 안 믿거든요.

**Q: 저기 죄송한데요 그..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쭙어 봐도 되요?**

A: 인제 회사를 그만두고 동업을 하다가, 인제.. 모텔을 하면서 동업을 하다가. 양

쪽 다 동업이었거든요. 인제 회사를 그만두면... 인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Q: 네**

A: 그러니까 동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거의 혼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99%고. 근데... 동업을 하게 되면 현금이 오가는데, 그 현금을 서류상 정확하게 해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Q: 그렇죠.**

A: 그런데 그걸... 법원에 저기 학익동(구치소)에 있을 때 내용증명하고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Q: 네**

A: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해서 졌어요..

**Q: 아...**

A: 판결에서 지면서, 제가 거기에서 인제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면허증도 없어지고, 면허증도.. 저기, 뭐 갱신기간이 지나서.. 면허증도 없어지고, 그러카고 동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 모든 게 제가 파산이 되다 보니까 다 파산이 돼서 다 넘어간거죠.

**Q: 아 그쪽 동업하시는 분한테요?**

A: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치고 나온 거구요. 한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도 정리를 하면서 제가 파산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깐.. 파산을 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쪽도 돈이 안 되게... 그냥 저기를 하고 가지고 있던 집이라는 뭐, 이런 거 다 급매로 해서 내놓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Q: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들셨어요..**

A: 힘든 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솔직히 애한.. 애기한테 떳떳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디가서 손 안 벌리고, 어디가서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애기랑 먹고 살려고 하는거지 솔직히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상황이던지,.. 제가 인제 제조도 해봤고, 영업도 해봤는데... 누구 뭐 사기 못치겠어요?

**Q: 네..**

A: 그러카고 거기 들어가면 전부 그런 사람들 밖에... 경제범들은 그런 사람들 밖에 안 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단지 애기한테 떳떳하고 싶어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지.

**Q: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럼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A: 아니, 해준다고 했었어요. 애기를...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도우미 식으로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청 할꺼냐 그래서.. 전 싫다고 했어요.

**Q: 이 일이 더 나은진 거 같아서요? 택시가?**

A: 아무래도... 제가 자활사업에 가면 거기서 묶여있고, 만약에.. 뭐 도로나 뭐 이런 거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안 좋으니깐 맘대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아무래도 힘들어 지니까요. 그러니깐... 그거는 이야기는 하셨었는데, 그래 갖고 애기도 도우미 분이 봐준다고... 어느 정도... 아니면 소개를 시켜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건...

**Q: 아 그럼 애기.. 봐주시는 분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A: 네.

**Q: 근데 자활사업에는 참여 안하셔도... 그런 거는 지원 안 되나요?**

A: 그것도..

Q: 애기.. 따로

A: 그것도... 예 그것도 공무원 분이 이야기 하셨어요..

Q: 아 근데..

A: 네,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솔직히 사람들을 못 믿기 때문예요..

Q: 아... 아시는 분한테 맡기시는 거구나.

A: 네 그게...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데었기 때문에... 솔직히..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말단 공무원들은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Q: 혹시 그래도... 왜... 지금 그런 자활 사업예요.. 어떤 그... 좀 자활사업이 어떻게 바뀌면 참여할 생각도 있다 이러신 건 없으세요?

Q: 뭐 시간이 좀 더 자유로워 진다 거나 그런거...

A: 저는 솔직히 그럴 생각은 없어요.

Q: 아... 아예 참여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세요?

A: 네, 왜 그러냐면 이 혜택 한 가지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거 거든요? 근데 뭐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좀 괜찮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 특례를 받아가지고... 제 나이에 특례를 받아가지고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취업하는 데는 사실.. 대기업들만 인제... 신용조회해서 인제 안 되는 거지~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 경력이면 솔직히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Q: 아... 네.

A: 그런데 뭐 자활사업이라고 해야...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Q: 지금 선생님한테 제일 필요한 게 건강 적인 부분이겠네요?**

A: 그렇죠. 그런데 정밀진단을 받았어. 봤는데도... 나오지를 앓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게, 어깨를 피면 통증이 오니깐 항상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제, 학익동(구치소)에 갔을 때 생긴 지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나와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많이 돌아 다녔었어요.

**Q: 네..**

A: 그러카고 제 의료보험 이걸 보던가 그렇카시면, 가끔 뭐 침 맞으러 다니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버티지 못하니깐, 병원에 가서.. 뭐.. 태반주사도 맞아보고, 다 했어요.. 뭐 침도 맞아보고..

**Q: 아 근데 진전이 없어요?**

A: 네

**Q: 신경통의 일종 그런 건가요?**

A: 모르겠어요.. 병명 자체가 안 나오니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Q: 아 그 앞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냥 택시하시다가.. 뭐 개인택시 나오면,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A: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래 하지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 정도로 벌 수 있는 체력은 되니깐.. 뭐 거기에서 더 진전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깐...

**Q: 네...**

A: 단지 개인택시를 해서.. 인제 신용을 풀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디에서 투자자를 구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러카고 택시시작을 했는데 돈은 못 벌어도 끝은 봐야될 거 아니에요.

**Q: 네**

A: 사고가 나던지.. 아니면 개인택시를 타던지.. 성격상 끝을 보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인데... 나는 날도 많은데... 마이너스 다는 날도 많아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시작을 해서 바닥을 안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은 쪽으로 보던 나쁜 쪽으로 보던 다 봤어요.

**Q: 혹시 지금 생계급여가 얼마 몇 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A: 아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Q: 아예 안 들어와요?**

**Q: 그 쌀 지원 이런거는?**

A: 명절날 마다 한 20킬론가?

**Q: 아... 명절날만?**

A: 네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Q: 아 그럼 특례세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뭐 특례 뭐, 자활특례 뭐... 조건부 수급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게 있는데... 혹시 어디에 해당하시는 지 아세요?**

A: 저는 부녀... 부녀... 생계 유지자일걸요?

**Q: 애기 때문에?**

A: 네

**Q: 아 그러면 생계급여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A: 아니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아는 분 딸도... 아는 분이 안 좋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는 분 딸도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왔다 갔다 하고 저랑 살다가, 제가 데리고 살다가.. 인제 아버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제 아버지랑 산다고 갔다가... 저랑 사는 게 더 좋다고 저한테 왔다가 지금은 다시 아버지한테 갔어요.

**Q: 그럼 거기 갔다가 나오시고 나서 받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A: 몸상태가 안 좋으니깐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겠죠.

**Q: 아니... 수급 받으시는 거요.**

A: 아뇨, 바로는 안했어요.

**Q: 바로는 안했어요? 네에..**

**Q: 근데 원래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셔도, 뭐 소득 얼마라고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A: 했어요.

**Q: 그럼 그때인제 보통 얼마정도 번다 이렇게 써서 내셨잖아요?**

A: 저번 달까지는 회사 정식 사원이었기 때문에...

**Q: 아... 지난 달 까지요?**

A: 네

**Q: 택시 회사요?**

A: 네 정식 사원이었기 때문에 월급 급여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타는 건 없어도 매달 60,70,50 기본 급여가 그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령액은 없었죠.

**Q: 급여 명세서에는 그렇게 있는데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A: 아니죠, 급여 명세서에 실수령액이 70만원이면, 70만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해다가 저번 달에는... 50만원인가? 그 정도 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실수령액이.. 인제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 있고, 본인 실수령액이 있잖아요. 월급 총액이 있고, 본인 실수령액이 있잖아요. 월급 총액에서는 70만원, 50만원, 71만원 이 정도는 됐었어요. 그런데, 이 실수령액이 거의 없었죠..

**Q: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A: 택시를 하다가 보면... 사실... 실수령액이 없어도, 이렇게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Q: 아 인제 회사에 내고 남는 경우요?**

A: 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뭐 남들처럼 택시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깐, 그 남는 부분이 거의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깐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한 거죠.

**Q: 그럼 인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는 실수령액으로 인제 잡혀서..**

A: 네. 인제 아니... 동사무소에서는 총액 수령액으로 잡히는 거구요.

**Q: 총액수령액 그걸로 잡는 거고요?**

A: 네 그러니깐 그거.. 진짜 그거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Q: 그렇게요.. 실제로 받는 게 거의 없는데.**

A: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직원이 계속 이거를 인제 없애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려고 그랬었거든요.

**Q: 네.**

A: 왜 그러냐면... 화물, 뭐 택시, 뭐... 이런 인제 종류는 수급자를, 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되 있더라고요, 그 저기에 그러니깐... 인제 아니면 그 옆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단서도 없지, 일을 아주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정말 회사총액하고... 실수령액하고... 그거하고 제가 버는 건, 일을 뭐 많이 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주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사실 그것도 맞춰 나가기 힘들거든요. 입금도 맞춰 나가기 힘들고.. 입금도.. 입금에서 평꾸 나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런거는... 인제 조금 물론 진단서가 있으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사실, 많이 봐주셨어요. 봐주신 거 보다는, 그 태두리 안에서 해주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 아픈건...

**Q:** 네. 거기 왜 총액에서요. 빠져나가고, 실수령액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A:** 미입금된 거 빠져나가는 거죠.. (웃음)

**Q:** 아...

**A:** 돈을 못버니깐 미입금 된거...

**Q:** 아 택시 하면은 하루에 얼마를 회사에...

**A:** 네 사납금이 있는데 그 사납금을 못하니깐 그게 빠져나가는 거죠.

**Q:** 그럼 그런 것도 인정이 안 되나요? 동사무소 측에서는?

**A:** 그건 인정이 될 수가 없죠.

**Q:** 그래도 몸이? 아... 하긴 진단서가 없으니깐...

**A:** 진단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 수급을 받아도 솔직히 진단서에 있는 분들 일하고 싶어도, 일 안하시는 수급자들 많잖아요? 이제 진단서만 있으면, 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저기가 되

면 제가 일하는것도 편하고 그런데, 진단서가 없으니깐 일이 초래가 되는거죠..  
몸은 아프고 진단서는 없고..

**Q: 동사무소서 인제 그러니깐 진단서를 지금 병원에서 떼어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실텐데.. 동사무소 직원이 진단서를 떼오세요 뭐...**

A: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급자들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잖아  
요? 저는 애기랑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애기랑 있으  
면서 진단서를 첨부하면, 아무래도 조건이 아무래도 나아지겠죠?

**Q: 그렇죠. 혹시 주위에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진단서를 떼어서 그러시는 분  
들... 보신 적...**

A: 저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안 어울려요.

**Q: 잘 모르세요?**

A: 네

**Q: 애기 지금 어리잖아요?**

A: 네

**Q: 애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돌봐주고 이려는 거는  
싫으시다고 하셨는데? 다른 거 해주었으면 좋겠거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A: 애기요?

**Q: 아기를 위해서.. 뭐 애기를 관련해서건.. 뭐 다른 것도 괜찮고..**

A: 아기를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애기는 인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는  
인제 보조를 해주니깐...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일 년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이  
렇게 돈을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 폭이 크니깐 그때가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게 남들은... 인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예전에 몇 십 만원.. 돈이라고 생각도 안했거든요?

**Q: 네**

A: 그런데 그 몇 십 만원을 내려면... 사실 힘들어져요. 어느 때는 가서 손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Q: 애기.. 뭐 이렇게... 유치원비 이런 건 이제 지원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내실게 6개월 마다 있으신 거예요? 따로?**

A: 학기 초에 입학금이라고 해서요.. 몇 십 만원을 내고, 2학기 때 또, 뭐 저기라고 해서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Q: 그러면 애기 때문에 보조 되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A: 유치원 20몇 만 원인가? 그거 될 거예요

**Q: 한 달... 한달 당...**

A: 예 한 달에 매달 나가는 거.

**Q: 아... 근데 그거 말고도 학기별로 그렇게 또 따로 그게 많네요.**

A:네

**Q: 그게... 다 공통이에요? 유치원 마다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A:네

**Q: 아.. 근데 왜 그런 게 지원이 안 될까?**

A: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관인 어린이 집은 그게 금액이 조금 차이 날뿐이지.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관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난데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1~20만원 차이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Q: 입학금이 있기는 있는 거...

Q: 진짜.. 애들 키우면 돈 많이 드는 거 같아요. 한 달에 20만원씩 냈는데 학기 별로 또 몇 십 만 원씩 내야 되고...

Q: 그럼 아기 지원... 그 봐주시는 분한테는 선생님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A: 네 꼬끔 드려요. 많이는 못 드리고, 뭐 어느때는 제가 못 들어 올 때는 여기서 애랑 같이 주무시고요, 그렇카고 뭐 제가 며칠 못 들어 올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 시골 내려간다던지 그러카면 거기서 인제 시골에서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깐..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카고 애 저기하고 저 여기 있을 때는 또 가시고.. 거기도 애를 보시는 입장이니깐... 보니깐, 애를 하나를 본인애만 보셔야 하는데 둘을 보시니깐 그렇죠.

Q: 아... 거기 애기 있고 이렇게 같이... 또래예요?

A: 아니예요 저희 애보다 좀... 어려워

Q: 아.. 저기 문에 보니깐 천주교 마크가 있던데..

A: 저는 상관없어요.. 전 무교예요

Q: 그러면 뭐 이렇게 계획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까 뭐 택시 뭐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요..

A: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택시경력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인가 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개인택시가 만약에 그때까지 나오면, 2012년도 정도에는 개인택시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제... 저는 그것만 생각 하는 거지. 딱 건 생각하는 게 없어요.

Q: 일단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보다 벌이가 더 나은 거예요?

A: 별이가 나온 게 아니라 입금이 없죠,

**Q: 아 회사에다 별게?**

A: 네 차만, 넘버만 받으면 시에서 넘버만 받으면 인제 입금이 없으니깐... 근데 개인택시는 수급자라던지 이런 혜택은 없고요, 수급자나... 뭐 이런 건 없고, 장애인하고... 유공자하고는 혜택이 있는데 소폭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일반인들하고 나가는 저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Q: 그렇게 만약에 개인택시 하시게 되면 수급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될 거 같은데요.**

A: 그런데 일을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 입금을.. 회사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돈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제 주머니에서 회사에다가 돈을 쥐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없어지고. 돈을 적게 벌어도 그 돈이... 개인택시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스 사용량 외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죠.

**Q: 그 수급은 못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A: 그럼요. 개인택시를 받으면, 수급하고 상관없이 예전처럼 인제... 일은 안하는 날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그러면 인제 그때는 또, 좀 별이가 되면 어디 찾아가서, 뭐.. 일단 몸 먼저 고치려고 막 또 저기를 하겠죠.

**Q: 근데 여기 아까 말씀 하실 때 수급 받고 있어서 빛이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연기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수급에서 벗어나면, 인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A: 네 전부다 들어와요. 수급자로 해서 이... 수급 상실이 되는 순간, 일주일 내로 다 들어오게 돼있어요.

**Q: 아...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개인택시 하시고 거기 빛 갚아 가실 때요.**

A: 아... 그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남들 파산신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싫거든요.. 왜 그러냐면, 파산신고 하면 아무 저기가 없다고 이야기 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 자식한테 안 좋은 게... 그러잖아도 자식... 애기한테 제가 전과가 하나 있다는 것까지 남겨 줬는... 남겨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파산신고 마저 하면.. 물론 저야 편하겠죠. 빚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받으면 그게 담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회생... 이라던가 이런 걸 신청을 해도 한 달에 적은 돈으로 그걸 갚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은 돈, 그때는 그걸 뭐 개인택시를 받거나, 일을... 개인택시 일을 하면, 아무래도 벌이는 적어도 월 고정수입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때 되면 사실 좀 작은 돈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풀라고 하는 거죠.

**Q: 몇 년 정도 그렇게 조금씩 갚아나가시면... 그래도 그거 다 갚으신 이후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그러실 거 같아서, 그래도 그게 해결이 몇 년이나 걸리실...**

A: 그건 제가 성의만 보여주면... 아무래도 그게 그 사람이 성의만 보이고 일을 하려고만 하면... 아무래도 옆에서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예전에 하던 일을 이라던가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그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인제 몸을 완전하게 낫고 제가 성의를 보이려면... 인제 몸이 나서야 일을 해야 그런 것도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 뿐이죠.

**Q: 그래도 일에 대한 의지는 되게 강하신거 같아요. 열심히 사실려고 하시고...**

A: 그럼요. 일을 해야죠. 해야 내 새끼 잘 먹이죠.

**Q: 네.**

A: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었는데, 전부다 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깐,

인제 먹는 거나 여행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전엔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일하느라고, 요즘은 별이는 없어도 애기랑 여행은 많이 다녀요, 뭐 남들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데라도 여행은 많이 다닌다고...

**Q: 애기랑 들이 가세요?**

A: 네

**Q: 뭐 집안일을 혼자 다하시는 거예요? 판데 뭐...**

A: 인제 제가 할 때도 있고, 인제 애기 봐주시러 올 때 애들 자면 틈틈이 인제 혼자 지저분하게 있으니깐 이렇게 깔끔하게 치워주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인제 아시는 분이니깐 그분도 인자 혼자되셔가지고 혼자사시는 분이니깐. 근데 인제.. 그냥 아는 걸로 족한거죠..

**Q: 지금 현재 인제 많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 환경에서 어떤 게 좀 달라지면... 인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더 수월하실 거 같아요?**

A: 전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제 하나씩, 하나씩 인제 천천히... 지금 당장은 사실 먹고 살기 급급해요. 먹고 살기 급급하지, 인제 뭐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Q: 인제 정부가 뭘 하고 뭐 믿음이 안가고 하셔도... 그래도 인제 여기 속하셨으니깐, 국민이시니깐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점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급을 또 받아보는 입장에서, 뭐.. 수급자들한테 이런 점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A: 모르겠어요. 그건 수급자로 산다고 생각을 또 한 번도 안 해 봤다가, 갑자기 수급으로 살게 되었고, 그렇다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이 힘든 상황으로 간다고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다가... 갑자기 한 10년 사이에 모든 게 한 번에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생각 없어요. 단지 처음에 인제 택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인제 그 전과라는 게... 그것 때문에 인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깐 시작을 했고 일단 몸은 안 좋아도 일단,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요. 돈은 못 모으더라도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못 놓는 거고, 그라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사고가 터지던가 아니면 개인택시를 받던가 끝을 보고나서, 그만 두더라도 그만두는 성격이라 아직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Q:** 그러면 인제 개인택시가 되고, 그 후에 또 뭔가 아 이런건 정말.. 한번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바램 같은 거 있으세요?

**A:** 저요?

**Q:** 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일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거...

**A:** 전 제조업 다시 할 거예요. 제조업...

**Q:** 아 제조업으로요.

**A:** 처음에 제조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조업 할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제조업을 안 했는데...

**Q:** 어떤 거?

**A:** 저요? 저는 금속분야예요. 금속... 금속분야가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던지 아니면 그걸 못하면, 개인택시 하면서 그건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깐, 공방 같은 거 쪼그만 거 하나 해서..

**Q:** 공방이요?

**A:** 공방이요

**Q:** 아... 네

A: 공방 같은 거 좀해서.. 제... 뭐 저기도 있고 그러니깐... 정말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분들... 그런 분들 고것 정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건이 안 되니깐... 아무래도 뭐 금속분야니깐 뭐... 금속공예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깐... 예전에 결혼했을 때에도, 예물도 제 손으로 다 해줬으니깐.. 그러니깐.. 그 정도는 그러카고 그런걸 만드는 데는 자격증이고 뭐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깐..

**Q: 그럼 오늘은 일은 안 나가세요? 오후에 나가세요?**

A: 아니 이따가 애기랑 오늘 놀려고요

**Q: 아 어디 놀러가세요?**

A: 아니요 그냥 애기랑 자전거나 탈라고요.

**Q: 아 저기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세요?**

A: 일주일에요?

**Q: 네**

A: 일주일 다 나갈 때도 있고...

**Q: 아.. 그때그때 다르군요...**

A: 뭐... 뭐 한5일이나 이렇게

**Q: 그럼 그 스케줄은요... 뭐 일주일 전에 알고 뭐 이렇게...**

A: 아뇨, 그냥 저는 회사에서 조금 배려를 해줘서... 제가 차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Q: 아...**

A: 제가 차를 계속 가지고 있고, 어제는 소주한잔 먹고 그러카고, 차를 놓고 온 상태라 조금 있다가 차를 가지고... 인제 와야죠.. 애기오면...

Q: 몇 시에... 애기 와요?

A: 한... 네시 정도에 와요.

Q: 아.. 참 이쁘네요 애기...

Q: 저렇게 많이 큰 거예요?

A: 지금 여섯 살이니깐...

Q: 그러니깐... 하하.. 이쁘다.

A: 일본 분들이 들어오실 때 애기 과자 같은 거 많이 갖다주시죠.

Q: 일본이요?

A: 네, 일본 분....

Q: 어떻게 아시는?

A: 아, 옛날 회사 다닐 때부터 알았던 분들이 인제 사업차 들어오시니깐 제 택시를 타고 다니시니깐...

Q: 아... 공항에서 이제...

A: 네 픽업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택시... 그 인제 그런 분들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날은 별이가 좋죠. 뭐 한 20년 넘게 알고 지냈으니깐...

Q: 아... 거기 예전에 제조업 하실 때요.. 거기는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A: 아... 여기 대우자동차요?

Q: 아 대우자동차에서요.

A: 13 년이요.



Q: 아.. 오래 하셨네요.

A: 13년, 14년...

Q: 아, 거기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인제 동업을 하신 거예요?

A: 네 13~4년 다녔어요.

Q: 거기 나오실 때에는... 왜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A: 흐(웃음)... 학교... 인제 또, 기능대회 나가고, 거기저기하고 특례 받고..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남자가 그렇잖아요.

Q: 사업을..

A: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게 남자잖아요. 그때 막 IMF 터지고 막 그럴때 니깐... 그러니깐, 너희는 망해도 나는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웃음)

Q: 아! 그때 맞아... 대우자동차가 어려울 때였죠?

A: 아니, 저는 그 전에 그만 둔거죠.

Q: 아... 그전에...

A: 조금 전에... 지금 저 그만두고 일 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막 힘들어지고 IMF 그 다음에 직원들 해고다 뭐다 이렇게...

Q: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빨리 재기 하셔야죠. 그, 금속 관련해서요 뭐, 재교육 같은 거 받고 이런 거 혹시 알아 보셨어요? 그냥 국비로 무료로 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A: 있어요.

Q: 그렇죠? 그럼, 계속 이제 한 번씩 가서 그렇게...

A: 저는 시골에 거기 관련된 책이 다 있어요. 아직도...

**Q: 기계 같은 것들이?**

A: 여기에 인제 놓을 수가 없으니깐, 시골에 창고에 다 있어요. 그런 거, 거기 관련된 책... 책 제가 예전에 보던 거 뭐 다 이런 거...

**Q: 전문가시네요. 한마디로...**

A: 아무래도 그때는...

**Q: 네... 예물까지 해주실 정도**

A: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웠으니까요. 제 생각으론

**Q: 대단하시다. 나중에 꼭 공방 차리세요.**

□ 수급자 06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3년부터 총 6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52	여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지하 1층의 낡은 빌라. 방 3개, 거실 겸 부엌, 화장실로 구성. 방 1칸은 수급자 본인이 살고 있으나 다른 2개의 방은 수급자의 친구가 사용.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엔 침대 1개만 있으나 거실엔 김치냉장고, 정수기, 냉장고, 전자렌지 등 주방가전 및 생활용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음. 나머지 방 2개는 수급자와 관련 없이 친구의 집이라 볼 수 없었음. 수급자는 주로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느라 거실에서 생활하고 잠은 본인의 방에서 잔다고 함.</p> <p>집의 위치는 갈산역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동사무소와는 15분 정도 거리. 주변에 시장, 상가들이 즐비한 한쪽 골목을 따라 수급자가 거주하는 빌라가 위치해 있음.</p>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초반에 녹음 중 강아지가 녹음기를 건드려 녹음이 중지된 채로 진행되어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겪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수행됨. 단, 수급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 손과 발의 부종이 매우 심하고, 허리 디스크 또한 있어 이동시에도 불편한 모습이었음. 혼자 사는 자신을 찾아와 주는 것에 고마워하였으며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자신의 과거 이력 및 원가족과의 관계까지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한 응답을 하였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조건제시유예자로 분류됨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 분석 시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Q: 이번엔 정말 잘 해볼게요 (웃음) 지금 현재 어머니 혼자서 살고 계시고... 동생분하고 가장 친한 동생분하고 연락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동생 분 한 번 뵙고 싶어요.

A: 일 갔는데...

Q: 왜냐면 저도 되게 저희 언니랑...

A: 나 챙기고 그럴라고 일을 다니잖아.

Q: 아...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좀 더 잘 해드릴라고 아...

A: 내가 돈 벌이를 못하니까

Q: 그죠. 여기 그 뭐지 동생분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갖다 줬다 하니까 저도 저희 언니랑 되게 친한데 언니 한명이 시집갔거든요. 되게 친한 언니가... 여럿 있어도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집을 가니까 더 애뜻하고 또 여기 한국에 없어요. 시집을... 미국에 있어가지고 보고 싶고 그래요 아까 동생 얘기하니까 저도 저희 언니랑 잘 지냈던 생각이 나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는 눈 안 좋으시고... 어디 어디 안 좋으시죠?

A: 지금 뭐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고...

Q: 눈은 완전히 실명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당뇨랑...

A: 혈압..

Q: 당뇨하고 혈압... 손을 보니까 되게 많이 손발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해야 하나? 그죠?

A: 점점 뭐 이런 게 튀어나오고 그래...

Q: 충격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A: 손이 손바닥도 그렇고 몸 구조가 다 이상해지더라고...

Q: 음... 거동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는?

A: 이 허리가 아프니까..

Q: 허리가 디스크인 거예요?

A: 허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꼬리 맨 꼬리.. 그 뼈하고 맨 밑에 저기 이 갈비하고 협착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고...

Q: 거의 그럼... 못 서있겠네요.

A: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오래 걸지도 못하고

Q: 장애... 눈으로 인해서 현재 장애등급 받으신 상태고... 장애 몇 급 나왔어요?

A: 6급. 근데 어떻게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는데 그건 이상하더라고 왜 그건 6급밖에 안되냐고...

Q: 장애 등급이 되게 그니까 뭐... 하나 외 두 개가 있으면 좀 더 확 올라가는데 하나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건 좀 그런것 같아요. 눈과 손가락은 또 다른데 손 하나 없어도 똑같이 6급이니까 그것도 계속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판정지침이 조금 바뀔 거 같더라고요. 2000년엔가 장애등급이 나뉘어지고 판정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다시 바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친척들하고 연락하시는 그런 분들은... 친척은 없으시고 오직 이 3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고 동생 분 한 분계시고 남동생들은 연락 전혀 안하세요?

A: 안해요.

Q: 전혀 연락 안하시고...

A: 지그들 살기도 바쁘데 나 챙기겠어?

Q: 아. 그러시구나. 부모님은 지금 현재...

A: 시골... 고향...

Q: 그럼 고흥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일 안하시면 부모님들은?

A: 우리 부모님?

Q: 네.

A: 우리 엄마가 되게 꼼지락해서... 엄마가 한 푼 한푼 벌어서

Q: 어머니가 몇 살이신데요?

A: 칠십... 지금 다섯인가?

Q: 아 일혼다섯?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A: 어떡해...

그렇게 툼툼이 일거리 생길 때마다...

A: 당신네들 소일거리 삼아서 농사지어서 먹고 가용돈은 엄마가 벌어서 쓰고

Q: 아.. 어머니도 여전히 농사지으시는 거예요?

A: 응. 짝끔.

Q: 아버님은?

A: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작대기 짚고 다니는데...

Q: 아... 아버님 또 건강이 안 좋으시고

A: 예 다리가 아파서...

Q: 고흥에 다녀오신지는 언제쯤 됐어요?

A: 몇 년 됐을까...

Q: 몇 년 됐어요? 그럼 어머니 . 부모님 올라오시거나 뭐..

A: 엄마가 뭐.. 가끔...

Q: 아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가끔 그렇구나 ...전화연락이나 그런 건 뭐자주 하  
시고요?

A: 응

Q: 그래도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많이 좋으신가봐요.

A: 나쁘게 없잖아. 부모인데

Q: 아니 아버님은 뭐

A: 아버지도 부모니까 미워도 할 수 없고...

Q: 어머니는 계속 생각하시면 같은 여자로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A: 우리 엄마 불쌍하지.

Q: 너무 불쌍하죠. 아빠도 좀...

A: 무능력하니까....

Q: 너무 무능해서 아빠가 ... 어렸을 때는 되게 그래도 어머니에 대해서 속상한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A: 어려서... 그때는 내가 철이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항상  
마음이 아프잖아. 나 나름대로... 근데 인제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시집살이  
를 자식한테 했던거 같아.

Q: 아 그럼 어머니도 뭔가 표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  
니까...



A: 응... 없으니까

**Q: 남편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 남편한테 해봤자 때밖에 더 맞겠어 .

**Q: 그럼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맞고 살거나 그런 거 있으셨던 거d요?**

A: 뭐..가끔

**Q: 가끔식... 술 마시거나 그럴 때...**

A: 술 잡수고 그럴 때 가끔...

**Q: 그럴 때 부모님에 대한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들이 아버지에 대한**

A: 우리 부모도 싸움하고 사는 게 싫더라고 나는 그게...

**Q: 어머니 결혼 생활은 그러면 어떠셨어요?**

A: 나는? 나는... 남자가 재혼을 했었어요. 나는 미혼이고...

**Q: 음.. 어머니는 초혼이셨고**

A: 그쪽에는 한 번 결혼해서 그쪽 분이 죽고...

**Q: 사별하시고...**

A: 그래가지고 그쪽에 딸이 하나 있어. 시집보낸...

**Q: 언제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A: 서른... 서른다섯...

**Q: 아 그럼 어머니도 결혼 늦게 하셨었구나. 언제 다시 그럼 이혼을 하셨는지...**

A: 2년 전에

Q: 아.. 2년 전에 이혼 하신 거예요. 살 때 좀 많이 불편했던거나 그런 것들은?

A: 불편한게 많았지 뭐.

Q: 결혼하실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텐데.... 기초생활보장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힘든건...

A: 어 병원 자주 못가는 거...

Q: 병원 더 맘대로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A: 응...

Q: 워낙에 이것저것 다녀야 될 때가 많아서 그죠?

A: 어 안과도 다녀야 되고 안과도 갔다 온지가 1년도 넘었지 치과도 치과는 엄두도 못 내고 돈이 없어서...이를 해 놓아야 되는데...

Q: 아... 이가....

A: 이가 다 많이 빠졌어...

Q: 아.. 그러시구나... 또 허리는... 지금 허리는 다니고 계신거예요?

A: 못다니지.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야 하는데

Q: 지금 이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수급하시는 건...

A: 친구...

Q: 친구분이라 하면 어떤 친구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A: 하나 있어요.

Q: 아 또 이 분 말고

A: 고향 친구

Q: 근처 사시는 거예요?

A: 저기 갈산동.

Q: 그럼 그분도 현재 수급 받고 계신 거예요?

A: 아니...

Q: 아. 그럼 그분은 받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A: 그런 제도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가보자 그러더라고 동사무소로.. 그럼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Q: 동에서요?

A: 난 우리... 나는 그런 걸 몰랐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었다 그랬지.

Q: 네네... 동에서 처음 갔을 때 되게 그래도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셨어요?

A: 네

Q: 아. 그랬구나 그럼 그때 불편했던 거나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어머니 입장에서 바로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조사를 또 다시 나왔죠?

A: 예.

Q: 구청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설명할 때 어머니가 이해하기 힘들었다거나 어려웠던 점들..

A: 없었어요.

Q: 전혀 없었어요?

A: 응.

Q: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고 종이를 갖고 와서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랬나요?

A: 응

Q: 어머니 처음부터 장애 등급은 그럼 언제 받으신 거예요?

A: 눈 실명 된지가 한 5년 됐지 나.. 5-6년 됐지.

Q: 그러면 그때 공무원을 수급받겠다고 만났을 때도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겠어요. 담당자가 딱 보시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가 판정을 하는데 바로 어렵겠다고 얘기를 바로 하셨어요? 어머님 일이...원래는 수급 받으려면 자활을 해야되는데 어렵다고....

A: 기억이 잘 안 나는데...그냥 구청에서 나와서 딱 보더니 아이구, 일 못하시겠어요. 이러더니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돈 나오고...

Q: 공무원하고는 수급관련해서 몇 번 정도 만나 거 같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세요?

A: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도 안 만나지.

Q: 한 6개월에 한번 이정도?

A: 어...

Q: 연락오고...

A: 이거 떼어오라 진단서 떼어오라 뭐 그런 거 할 때만...

Q: 어머니 진단서는 몇 번...

A: 2번

Q: 어머니 2번 내신다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내세요? 어머니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무원 전화하면 사무적인 얘기나 이거 관련된 것만 하고 다른 거  
뭐 안내 받으신거나 이런 것들...

A: 그런 건 없어

Q: 명절 때나 이럴 때도 그때는 뭐 타 가야 된다거나?

A: 명절 때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안줘

Q: 연말에 그런 것도?

A: 없어 없어.

Q: 전혀 없으시고... 어머니 진단서는 필로 받아 가시는 거예요? 어떤... 어디 병  
원에서

A: 지금은 그냥 일반 내과...

Q: 일반 내과요? 내과에서 뭐라고 해서 받나요? 소견을 어떻게 병명을...

A: 병명을 지속적으로 치료 요함 이렇게 쓰더라고

Q: 당뇨 이런 것 때문에...

A: 혈압하고 허리 아프고...

Q: 어머니 예전에 뭐 일 하셨... 무슨 일 하셨어요?

A: 장사했었어요. 나 인제 당뇨 걸리기 전에.

Q: 음... 장사는... 어떤 장사를 하신 거예요?

A: 식당..

Q: 아... 식당...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몸이 더 안 좋아졌다거나...

A: 일 하면서 안 좋아져버렸지 무리하고 눈도 실명이 됐고.

Q: 그 일하고도 관련이... 장사는 몇 년 동안 하셨는데요?

A: 장사를 거의 한 5-6년...

Q: 아 장사는 한 5-6년 정도 하시고 그전에는 뭐 어떤 일?

A: 그전에는 다 직장생활 했었지

Q: 음... 그때는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A: 예,

Q: 그때는 괜찮았는데 장사하시면서...

A: 음... 나이 먹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Q: 어떤 장사하신 거예요?

A: 이 당뇨 걸린지가 발견한지가 34살 땀가..그때 발견했어요.

Q: 아. 그러셨구나

A: 피오줌을 막 싸고 그래가지고...

Q: 어머. 예 많이 놀라셨겠어요.

A: 응... 입원하고... 근데 이 당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고 회피 한 거야. 이걸... 그래서 이렇게 더 망가졌지

Q: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A: 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질병인데

Q: 이게 합병증도 많아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음식이나 그런 것도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A: 그렇지. 단 거 잘 안 먹고

Q: 혈압도 높으셔서

A: 짜고 맵고 그런 것도 안 먹고...

Q: 내과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시는...

A: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약 타러 가니까

Q: 혹시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 건강해져서 일해가지고 약간 그런 욕심이 있으신지 좀 더 지금보다 수입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A: 당연히 그렇지 지금은 어려워니까...

Q: 근데 여건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금 어머니는 처음부터 자활사업 하신 적이 없고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판정해가지고 속인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셨을 거 같고... 진단서 받으면 보통 지속적인 치료 나오고 보통 몇 개월이라고 나오세요?

A: 몇 개월? 6개월.

Q: 6개월짜리로 끊으시는 거예요? 아... 근데 병원에서 알아서 6개월 해서 주시는데 어머니가 좀 더 길게 해달라고 그랬다거나 그런 건 있으신지...

A: 더 안 해줘요. 더 길게는

Q: 더 안 해주니까 그분이 알아서 6개월...

A: 1년짜리로 선생님 해 주세요 그러면 안되요 그래.

Q: 원래는 3개월씩 해가지고 하는데...

A: 6개월이야. 번거로워. 요새는 약도 전에는 몸에 안 좋은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첨가해주세요 전에는 그게 됐었거든... 지금은 안 돼, 개인 저기로 돼서.. 5월 1일자로... 없는 사람들은 몸이 쇠약해지면 그런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사먹을 돈이 없잖아. 그런 알약 이만한 거 2만 얼마씩이나... 그런 제도가 다 바뀌어져 버렸더라고... 처방을 안내려 준다고 하더라고 개인부담이라고

**Q: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약품들이 더 제한됐다는 말씀이죠? 예전에는 그냥 드실 수 있었는데**

A: 응.. 그냥 혈액순환제 약이라도 처방해 주세요 하면 해줬거든 지금은 못하게 해... 5월 1일서부터 안 되더라고...

**Q: 알약하나에 2만 얼마라고요. 아.. 네...**

A: 없는 사람들은 수급자들이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의료복지도 못해주니까

**Q: 이렇게 계속 아프신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이 상태가...**

A: 당뇨 걸리고 계속 이렇게 시름시름 앓죠.

**Q: 근데도 어떻게 장사를 계속 하셨나봐요. 당뇨 걸려서...**

A: 어. 했어. 그걸 모르고

**Q: 아..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젊으니까 이겨내겠지 하셨었나봐요.**

A: 난 이게 지병인지도 모르고 고질... 지병인지도 모르고 나는 무시를 해버린거야 이거를...

**Q: 그럼 그때는 장사하실 때는 결혼하시고 이혼하셨겠네요. 그쵸 결혼하셨을 때 같이 남편... 예전에 남편이셨던 분하고 같이 장사하셨던 거예요?**

A: 아니. 나 혼자서...

**Q: 어머니 되게 생활력이 강하신가보다.**



A: 엄청 강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놓고 앉아 있으니까 엄청 울화통이 치밀지.

**Q: 음.. 어서 당뇨만 없어도 일 하실 수 있을텐데...**

A: 나 엄청 생활력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난 건강해지기만 하면 어서 떨어내고 일어나서 내 힘으로 해결해서 살고 싶어요.

**Q: 근데 허리도 아프고..**

A: 허리도 아프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일을 제대로 하겠어 식당을 갈 수도 없고 저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이지 조금만 멀면 사람이 안 보여 형체만 보이지 뚜렷한 윤곽이 안보여

**Q: 한 쪽 눈도 되게 많이 안 좋으신가요.**

A: 어. 안 좋아.

**Q: 원래 그 왜 따라가잖아요. 한 쪽이 안 좋으면. 되게 많이 속상 하시겠다.**

A: 어 많이 울고 살지.

**Q: 많이 울고 울면 더 눈 안 좋아진다는데... 아이고 그럼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자활사업은 하지 못하시고 그래도 좀만 좋아지면 자활사업은 그렇게 어머니 건강상태에 대비 일이 힘들지 않게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가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으신지 건강만 회복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A: 당연하지. 건강이 좀 좋으면은 뭐를 해서 먹고 살아도 벌면 좋지.

**Q: 그럼 계속 수급 받으시고 일은 안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일을 전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어머니 개인적인 생각은...**

A: 어디 가서 직장생활을 할 거야?

**Q: 직장생활 아니더라도 자활사업하잖아요... 수급받으면... 집수리단도 있고 가  
시간병하는 것도 있고 도우미 사업도 있고 그런데...**

A: 못 하지. 허리가 아파서 못해.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하라는 것도 못했지...

**Q: 그거 하셨었어요 어머니?**

A: 아니 못했어요. 어지럽고 빈혈도 있고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말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거랑 집게로 집고...

**Q: 맞아요 청소하고 공공근로도 있고**

A: 그것도 할 수 있어야지 좀만 있으면 어지러워서 정신이 헤까닥 가고

**Q: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수급 받고 일하신적은 없으시고 계속... 지금  
얼마정도 받고 계신거예요?**

A: 37만원. 쌀 안 나오면 35만원. 쌀 값 지원해야 37만원 두 달에 한 번씩 쌀이 나  
오고... 37만원 겨울 되면 기름 값 얼마씩인가... 작년서부터 조금 그랬구만.. 기  
름값 2만원씩 주고...

**Q: 한 달에 그거 받으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거예요?**

A: 그래서 죽겠지 뭐. 혼자 살아도

**Q: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A: 이거 다 월세예요. 집주인 있어요. 집주인 따로 있어요.

**Q: 월세.. 월세 얼마씩 내요? 어머니.**

A: 나는 15만원씩.

**Q: 월세 15만원씩 내고 나머지에서 생활하시는 거고... 좀 많이 적지 않으세요?**

A: 형편없지. 그러니까 얻어먹고 다니지

Q: 어디서 얻어 드세요?

A: 이 사람 저사람 다 갖다 주고...

Q: 그래도 주변에 누가 많이 있으신가 봐요.

A: 그냥 아는 사람들

Q: 아는 사람 많으신데요? 아까는 이렇게만 아신다 하시더니...

A: 애가 많이 갖다줘.

Q: 아. 이 분이 많이 갖다주시고... 다행이네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동생분은 뭐...

A: 개가 조금 도와주고...

Q: 지금 일하신다 그랬으니 용돈도 조금 주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좀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나마 동생이 보태주고 이래서...

A: 근데 병원을 이렇게 맘대로 못 다니니 어떡하냐고...

Q: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녀볼 수 있는... 동생분이 음식도 해주시고 동생분도 애기가 뭐 조카가 있겠어요.

A: 개도 없어요.

Q: 아. 동생분도 없으시고 아 그러시구나.

A: 그러니까 나를 조금 도와주고 있지. 자식 있으면 못하지.

A: 진짜 은영이가 진짜 잘해요 여기 오면 뭐 사가지고 와서... 딱 썰어서 뭐해서 동생이 다 닦아주고.

A: 그런 동생 없지... 머시마 새끼들은 어떻게...

Q: 진짜 잘하시나보다.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칭찬하시는 거 보면 ... 예전에는 주로 식당일하고 직장일은 어떤 일 하신 거예요?

A: 식당일 했지.

Q: 직장생활도 계속 식당일 하신 거예요?

A: 공장에도 조금 다니고

Q: 서울로 올라오셔서 공장에도 다니시고...

A: 인천에 내려와서 타일 공장 다녔었어

Q: 타일 공장 다니셨을 때 타일 공장이면

A: 저 구계동에 있었어.

Q: 아... 구계동....일 분량이 많지 않아요? 공장 같은데는?

A: 거기는 불을 가마를 쉬지를 안으니까 로테식으로 돌아가..

Q: 아 3교대 근무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A: 어

Q: 그때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겠는데...

A: 그때는 뭐 20대니까 팔팔했지.

Q: 지금에 비하면 젊음으로...

A: 날 새고 오고 또 그 담날 저녁에 출근하고 잠자고.. 낮에 잠자고...

Q: 응... 그러시구나... 지금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어머님... 울화통 터진

다고 생활력이 엄청 강하시니까... 예전에 일하시고 할 때는 얼마씩 받고 일 하셨어요?

A: 옛날에 근무... 옛날에 조금 했지. 그래도 그 돈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10원 20원 콩나물도 50원 어치 이랬잖아. 화폐가치가 다르니까...

Q: 지금하고 그때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A: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고

Q: 물가가 올라서 큰일이에요

A: 어. 그 돈은 한정돼있고 뭘 어떻게 거기서 해갖고 먹고 살아 이제 겨울 되면 기름값 때문에 큰일이고

Q: 어서 빨리 건강해지셔야 될텐데 계속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돼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어머님은 그래도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게 이 수급해서 받는 돈보단 많구 이러니까 그러고 싶으신데...

A: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A: 오죽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나 좀 버려줬으면 그런 생각을....

Q: 아이고 어머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죠.

A: 막 어쩔 땐 답답해가지고 막 순갈질도 못해 가지고 막 울어요.

Q: 되게 많이 안 좋으신가봐요. 아이고 다들 건강해지셔야 될텐데... 나이도 점점 한 해 한 해 가면 더 힘드실텐데.

A: 아이고...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지 뭐...

Q: 지금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건 병원...

A: 어. 병원 편하게 다녔으면 하는 거하고 또 생활 문제도 조금 더 나왔으면 하고...

Q: 혹시 어머니 일해본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하셨는데 수급 받으신 다음에... 그래도 뭐 전혀 구직활동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안 좋아도 일자리를 한 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거나 그런 생각 해보신건지...

A: 그렇다고 박스를 주으려 다닐 수도 없고 그것도 힘들겠더라 난 허리가 아파서 끌지도 못해

Q: 앉았다가 또 그걸 주워서 엎기도 힘들고...

A: 마당에서 빗자루질만 해도 주저앉겠는데...

Q: 많이 힘들셨나봐요.

A: 내가 자포자기를 많이 했어요. 눈이 이거 실명되고 나서...

Q: 눈이 딱 우선 안보이니까 일할 수 있는 게 난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아이고 우시네...

A: (울떡거리며)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다니다가 하나가 실명되니까 자포자기를 많이 했어

Q: 몸이 천 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데 그 눈이 안 좋아진거니까 또 가장 소중한 거니까... 잘 관리하셔야겠어요. 한쪽 눈 그래도...

A: 그래. 보이는 쪽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지.

Q: 오늘 여기 울음바다 되겠네요. 다 같이 우시고 어떡해... 제가 울리러 온 건 아닌데...

A: 안 아파본 사람들은 몰라요.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

Q: 그쵸. 몸은 참 그렇더라고요. 몸은 아파야지만이... 보니까 몸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남의 맘을 헤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A: 그럼..

Q: 자기가 정말 거기에 처해 있어야지 딱 그만큼 더도 아니고 딱 그만큼 내가 처해있는 딱 그만큼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A: (수급자 친구)내가 건강한 사람이 화분 들다가 허리를 빼긋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에 오줌도 쌀 수도 없고 오메 이렇게 아플꺼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한약방 가서 침을 맞는데 선생님 나 일해야 되니까 빨리 좀 고쳐주라고 아 정말 없이 살아도 건강이...

Q: 아. 그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제 8년 전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디스크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약간... 20대 중반에서부터 점점 심해지거든요. 어느 날 드는 생각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다가 서른이 넘으면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꼼짝 없이 이렇게 누워서 지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슬퍼지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면서... 요즘에는 물론 통증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프지만... 완벽하게 회복은 안되니까

A: 한 번 이게 그게 빼끗해 붙면 고질병으로 가는거야.

A: (수급자 친구)나 지금 보름됐어...

Q: 친구처럼 갖고 살아야 돼요. 몸이 안 좋으니까 누가 허리 안좋다고 하면 정말 나처럼 아프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만 그 사람을 제가 헤아릴 수 있지 제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아프다고 하면 본인만이 딱 아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A: (수급자 친구)내가 여기 오면 아주 이런 거 이거 여기다 놔둘까 저기다 놔둘까 하고 빨래도 넣어주거든요. 내가 생전 안 누워 있어요 여기 오면... 내가 허리를

딱 다쳐본께...

**Q:** 근데 여기 가구가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텔레비전이랑 동생분이 ...예쁘게 꾸며주신거예요? 동생분 은영씨가 되게 잘해주신 거 같아요. 냉장고랑 막 이렇게...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면 성당에서 가끔씩 와서 도와주거나 그런 것들

**A:** 으응... 성당이 아니라 장로교...

**Q:** 아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시는거나 그런건 없으세요?

**A:** 거기도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라

**Q:** 매주 나가시고요? 교회는

**A:** 요즘엔 안 나가요

**Q:** 요즘에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가시는거예요?

**A:** 그게 뭐야 마귀한테 이제 쓰러트렸지 내가....

**Q:** 가셔야겠네.

**A:** 의지할 곳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고 가면 좋아. 거기도 돈 있어야 되겠더라고 다... 그래서 그만 뒀어. 현금 안하면.. 현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신앙생활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Q:** 일은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만 두신 거예요? 아니면은 당뇨가 심해지시면서 그만두셨는지?

**A:** 응

**Q:** 당뇨가 심해지시면서..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만두신지... 한 5-6년 식당일 하셨다는게...



A: 그 정도 됐지 손 놓은지가

**Q: 일단 5-6년 했고 손 놓은지는 6-7년**

A: 6-7년 됐지 나 손 놓은지가

A: (수급자 친구)7년 넘었지 내가 여기 이사 온지가... 7년채

A: 8년 됐을까?? 한 10년이 넘었지

**Q: 동생이랑 10년 넘게 같이 사신거예요?**

A: 아니. 4년 잠깐 있었어.

**Q: 그럼 일 안하고 가실 때면 생활은 어떻게? 동생이 다 해주신거예요?**

A: 그전에 내가 수급 안 받기 전에는 그 전에 내가 일해서 돈 조금 벌어놓으게 있었잖아. 그거 갖고 눈 수술하고

**Q: 아...**

A: 그거 먹고 이제 그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Q: 그게 없으면서 동생하고 같이 사시고 그러다가 수급 받게 되면서 나오시고 따로 나오시고... 그럼 이게 보증금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A: 100만원

**Q: 아... 보증금 100에 월세 15만원씩**

A: 저기 작은 방 하나만 쓴다니까.

**Q: 여기는 그럼 누가 쓰는거예요?**

A: 누구 있어요. 또 사는 사람

Q: 아... 그래요? 아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이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한 분은

A: 일갔어...

Q: 아 그분은 일하시고 그 분은 수급을 받진 않으시고요?

A: 응

Q: 그럼 어머니 15만원 이 분 15만원해서 한 달에 30만원 내시는거예요 월세를?

A: 아니지.

Q: 그냥 두 분씩 합쳐서 15만원 내고요?

A: 20만원

Q: 두 분씩 합쳐서 20만원씩 내요? 아... 저기 맨날 저쪽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겠다.

A: 그래가지고 애 가고 나면 친구 가불고 나면...

Q: 이 분은 어떻게 아셔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A: 우리 고향 친구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Q: 아..그 친구가 여기 계시는 친구분이... 아... 그럼 친구 분이 원래 살고 계셨고 어머니가 들어오신거예요 아님 같이 만나서 살자.

A: 얻었지 지가 얻어갖고 나가 여기 들어오고...

Q: 아.. 방 한 칸 주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친구 분 거예요?

A: 친구 거 여기 다...

Q: 김치냉장고랑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꺼?

A: 나는 없어. 짐이 없어 냉장고 하나...

Q: 어머니는 짐이 없고 다 친구 분이 다 가져오시고 아..그렇구나. 혼자서 사시는 집이 되게 큰거예요. 보니까 방도 그렇고 되게 그래서... 쾌적하시겠다 생각 했는데 또 한 분이 계시구나. 저는 혼자 사신다 하셔가지고 ... 지금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A: 오십 다섯...

Q: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래는 법적으로는 65세가 노인이지만 저희 엄마도 보니까 환갑을 기준으로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A: 요즘에는 뭐 60도 무슨 청춘이래매... 근데 건강한 사람 말이야 그건...

Q: 앞으로 뭐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좀 삶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으신지

A: 하유... 바라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냥 그날그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 벌어서 때부자 될거야 뭐가 될거야. 이 정도에서 안 아프면 좋겠다.

Q: 이 정도에서 안 아프면 좋겠다고... 어머니 아까 병원을 좀 더..자주 맘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수급을 받으시면 병원도 다니고 뭐생활도 할 수 있고 주거비도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통으로 나오잖아요 어머니...

A: 몰라. 커피 한 잔 드려요?

Q: 괜찮아요.

A: 들어요.

Q: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가득 주셨어요. 저한테... 잘 먹겠습니다. 커

피를 두 잔이나 먹고 가는 데요 (웃음)... 공무원이 전화해서 어머니 몸 안 좋으신 거 아니까 더 좋아지셨는지 아니면 나빠지셨는지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A: 없어요.

Q: 그런 건 없고 서류만 내라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A: 근데 나... 우리는 얼마 안 되서 이제 자세한 거 이런 거 모르는데 자세한 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애. 동사무소에서.

Q: 자세히 안 가르쳐 주는 거 같다면 어떤 말씀이신지 예를 들면

A: 뭐를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더라고

Q: 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A: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가끔 내가 가끔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Q: 어떤 얘가요? 친구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A: 그러니까 우리 수급자들이 누려야 할 거를 다 안 챙겨준다는 거지.

Q: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알려준다고요.

A: 어

Q: 그래서 조금 빠뜨리는 게 있다고... 그럼 어머니는 잘 설명 안 해 줘서 잘 모르는 게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마다 틀리다는 건지 본인이 찾았다는 건지...

A: 그러니까 내가 뭐 가끔가다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뭘 얘기들을 하면 뭐 오래

된 사람들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뭐뭐 지급... 뭐 급행지급으로 해서 돈을 더 타고 어찌고 그런 소리를 했었더라고...

**Q: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본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A: 혜택을 주면 받을 수 있는 거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있는지 모르니까

**Q: 그럼 가서 물어보고 조금 더 귀찮게 하지 그러셨어요?**

A: 우리는 또 성질이 그런 건 못해

A: (수급자 친구) 우린 진짜 그런 건 못해. 저기 아파트도 수급자도 아파트도 신청한지 오래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거기 가서 난리 치는 사람은 빨리 빨리 되고...

A: 거기 가서 남자분들 술 먹고 땡깡부리면 그런 건 또 있더라... 영세 아파트 인데 우리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 사회복지과 가서 난리 부리면 얼른 되고 근데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A: (수급자 친구)정식적으로 한 사람은 안 되고 다 먼 사람이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땡굴어 버리면 얼른 해주고 그것이 불만이고 내가 봐도

A: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다 비리잖아. 비리가 왜 없겠어. 정치하면서도 비리가 있는데

A: (수급자 친구)거기 가면 가스 살면서 가스 좀 때고 기름값 얼마나 비싸... 진짜 비교 많이 되고

A: (수급자 친구)알게 모르게 비리가 진짜 많아 내가 봐도 나도 여기서 들었는데 벌써 들어가 버렸다 하데요. 한참 멀은 사람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언니나 이 언니나 해줘야 되는데 이 언니는 더구나 또 기름 보일라라....

**Q: 겨울에 힘들죠.**

A: (수급자 친구)그러니까 전기장판 조마난 걸로 하는데... 안된 사람은 안 되도 되

졌단 사람은 돼갓고 버젓이 저라고 있고 정상인도 그게 좀 안 좋더라고 보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확히 해야 해.

**Q: 공평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A: 진짜 그렇게 하니까 정치가 공평하지가 않다는 얘기지.

**Q: 정말 어려운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조금 나보다 형편이 나운데 말 발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지금 얘기신거죠. 그럼 여기 친구 분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A: 예. 고향 친구..

**Q: 이분이 뭐 일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께 좀 도와드리는데..**

A: (수급자 친구)식모지 식모.

**Q: 왜요?**

A: (수급자 친구)다 해주지.

**Q: 아 진짜요? 어머니 가도 여기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럼 뭐 좀 드려야겠네.**

A: (수급자 친구)큰소리 팡팡 치지. 그 사람이...

**Q: 그럼 뭐 좀 드려야겠네.**

A: (수급자 친구) 그러니까 설 때는 우리 안와요.

**Q: 그러면 여기 어머니 친구 분께서 이 집을 보증금 다 내고 그렇게 해서... 그거 미안해서 집안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도 월세 내고 사시잖아요.**

A: 뭐 보증금 쪼금 들어갔잖아요.

Q: 보증금 찍끔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오백만원 냈다고요?

A: 아니지 난 백만원 밖에 안냈지.

Q: 그래도 보증금 내셨네요. 친구분 혼자 얻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안하니까 자꾸 더 하게 되고 이러시는 거예요. 생활비 그러면 여기 전기나 가스도 친구 분이 내시는지 아니면 같이?

A: 같이 내야지

Q: 같이 내는데도 친구분이 오히려 큰소리 친다고요? 똑같은데 그러면

A: 큰소리는 뭐 큰소리 쳐. 친군데... 그냥 나 안됐어서 데꼬 있는거 뿐이지 좋은 친구여

Q: 그래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셨던 분이신가 봐요?

A: 응.. 깨박쟁이 친구... 고향에서

Q: 고향에서부터.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몸도 안 좋아서 나가기도 힘든데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힘들것 같은데 좋은 분들이 계셔서.

A: (수급자 친구)그러니까 오지는 않고 내가 와야 되요. 그니까 아침마다 방문을 해야 되요. 문 잠그고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해

Q: 어디 안 좋아졌을까봐..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A: 다 전라도 사람들...

Q: 어머니는 어디신데요?

A: (수급자 친구)난 전라도 저....남평이요.

Q: 남평이요?

A: (수급자 친구)나주 남편..

Q: 아... 나주... 전 전라도 남원인데

A: (수급자 친구)나도 남편 인데.. 언니 남편 어찌 아요?

A: (수급자 친구)나 남편 어렸을 때 자랐잖아.

A: (수급자 친구)음마 나 못 살겠네 우리 친정이 남편인데...

Q: 그걸 지금 아시면 어떡해요... 친구신데... 여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신거예요?

A: 오래됐지 한 10년 정도 됐지..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Q: 옛날에 어디 동네에서?

A: 갈산동..

Q: 갈산동에서 사시고.. 저희 엄마도 시골에 있어서 혼자 있는데 같이 와서 살  
자고 해도 못 움직이시더라구요.

A: 암면... 노인네들은...

Q: 누군가가 있어줄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더라구요. 동생이 조금씩  
용돈은 주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생활이 되겠어요. 월세 내야되고 생활비  
내야되고

A: 네.. 저거 가지고는 되도 안하니까...

Q: 동생분이 되게 기특하네요.

A: 착해.

Q: 어머니 돈 드리려고 왜냐면 남편이 벌어들인 걸로 주면 눈치 보이니까 동생  
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A: 애기... 산모...

Q: 아.. 산모도우미... 동생 분도 수급 받으시고 그러세요? 산모도우미 되게 힘들다고...

A: 예. 거기 가면 돈이 조금 더 많은게...

Q: 몇 살이신 거예요?

A: 47

Q: 엄마같이 잘 하시겠다.

A: 그런 일을 찬찬히 잘해.

Q: 일주일에 3-4번씩 와주고 그래요? 동생이...

A: 응

Q: 동생하고 같이.. 동생분은 집에 잘 내려가세요? 시골에 친정집에...

A: 개도 이번에는 한참 됐지... 안 내려 간지...

Q: 고향은 떨어져

A: 애는 명절 때도 못 가고 시집이 있으니까 시집에 제사도 있고 그러니까

Q: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6개월로 딱 나왔어요 어머니?

A: 아니요.

Q: 어머니께서 얘기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알아서 그냥...

A: 어

Q: 병원에서 알아서... 제가 지금 어머니 궁금한 거 다 물어봤거든요. 오늘 바쁘

220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시고 몸도 불편한데... 사기도 기승을 부려서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닐텐데 감사하고요.

A: 난 맨날 열어놓고 살아요.

Q: 여기 완전 사랑방이겠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 □ 수급자 07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35	여	유	유
2	자녀		남	무	무
3	자녀	12	여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아파트 맞은편에 동사무소와 복지관 및 관공서 위치.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걸어서 10분정도 거리에 전철역이 있어 교통은 편리함. 버스노선도 많은 편. 아파트 내부는 거실 겸 주방과 방 하나인데, 싱크대 바로 옆에 침대가 있어 집안이 전체적으로 많이 비좁고 어두워 보임.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이혼 후 식당에서 종일제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에 딸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건부수급을 받음. 삶에 대한 의지와 일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아이들이 집에 귀가하는 시간에는 집에 있고 싶어 자활참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시간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탈 수급하고는 싶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자활 일에 만족하고 있고 오히려 정해진 기간이 지나 탈락되는 것을 걱정함. 자활참여 외에 부업으로 십자수를 하고 있었으며, 후에 취업창업도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임. 부업일은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 자활센터에서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Q: 학교니까요,

A: 네. 학교에 가시는구나.

Q: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A: 장애 보조, 장애 애들 있잖아요?

Q: 아... 네, 네, 활동보조

A: 그래서, 아침 8시 인제, 고등학교 저.. 중고등 학교는 8시 반부터 4시 반이고요,  
고등학교는 좀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8시에 갔다가 4시.

Q: 그럼 어떻게 보조를.. 집에 대려가 주시는 거예요?

A: 아니, 그거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뒤처리 해주잖아요, 왜 그런거...

Q: 아이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A: 그렇게 되면요, 우리 같은 보조원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요, 그러니깐 한 학급,  
그러니깐 학급에 한명씩 들어가 있죠.

Q: 아...

A: 근데 반 애들이 많으면 한 학급에 두 명도 들어가요..

Q: 어디 특수학교 그런데 다니시는 거예요?

A: 아뇨 일반학교요. 일반학교 도움실 있잖아요.

Q: 네. 그거 하면 얼마정도 받으세요?

A: 그게... 또 그게.. 어 교육청 소속은, 교육청에 임용이 되면요? 일당이 보통 배에  
요, 그 자활 일 할 때보다.

Q: 아... 그러면 자격시험 이런거 보셔야 해요?

A: 자격시험... 지금까지 시험은 없어요 시험은 없는데, 인제 교육 받아야 하고요, 그 외 그거에 관한 무슨 뭐.. 뭐 자격증 비슷한 거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Q: 응 네.. 지금 인제 조건부.. 그러니깐 수급을 받으시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A: 네.

Q: 그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정규직으로 교육청 소속이 되면...

A: 네 지금 임용이 됐어요. 9월 달부터

Q: 되게 잘되셨네요. 배가 되면...

A: 근데 그게.. 계약직이라 일 년이 지나면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경쟁자가 많아요 일반사람들...

Q: 어머니 죄송한데 티비 좀 꺼도 될까요?

A: 네.

Q: 그럼요 어머니, 수급은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A: 내가 2000... 2005년인가? 4년부터 그렇게...

Q: 아 그럼 그때 처음에 어떻게 아시고...

A: 처음에는 제가, 그 시장일 다니다가요. 그, 애들을 어차피 혼자 힘들게 키우니까 동네분들이 자활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그래서 다니게 됐죠.

Q: 식당 다니시던 것 보다 나으세요?

A: 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인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0시쯤에 끝내서 집에 오면 거의 11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혼

자 있잖아요. 그리고 제 딸이 어렸을 때 조금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워만 하면 늦은 시간까지 안하려고 하는데, 또,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깐 또 그 식당일 다니다 보면 늦으니깐, 그래서.. 알게 되서 거기 가서...

**Q: 아... 시간이...**

A: 네.

**Q: 급여는요?**

A: 급여는 제가 이쪽 자활 일을 해보니까요. 하는 일 만큼의 돈은 좀 작더라고요.

**Q: 아... 시간대비?**

A: 네 시간에 비해서는 솔직히... 시간도 그렇지만, 하는 일이에요 또 자활에서 간병... 또 저는 간병을 했었거든요. 간병을 했었는데, 그거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은 좀 작았죠.

**Q: 식당 다니실 때 보다 작았죠?**

A: 네 많이 작죠.

**Q: 아 지금 수급 받는 거 다해도, 식당에서 일했던 것 보다 작아요?**

A: 작죠.

**Q: 그 자활로 버시는 돈이랑 생계비 해도요?**

A: 생계비 해도 네 좀.. 이번에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해가지고 그래도 100만원은 안 되는 거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식당 나가면 조금.. 벌잖아요.

**Q: 그러면은, 인제 다른 일도 해보셨고, 자활일도 해 보셨으니까요.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조금 나아지면은, 그러니깐 먼저... 이 질문 전에, 어떤 일이**

오히려 그러니깐.. 생계를 유지하고 인제.. 수급을 안 받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어떤 게 조금 달라지면 괜찮을 거 같아요?

A: 응 식당일 같은 경우에는요, 쯤 그게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많이 힘들잖아요? 또 하는 일도 힘들고, 그 여러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딱 자활일하면 내가 어느 분야를 딱 가잖아요? 그럼 그거에만 다해서 충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자활일이 낫죠.

**Q: 급여는 쯤 아니어도...**

A: 네네. 그리고, 또 그게 흠... 또 그 자활일 할 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봐주는 거잖아요. 간병을 해도, 뭐 돈이 안 되서 요양사들 못쓸.. 경우 우리가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쯤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Q: 그러니깐 또 전문가가 된 기분이랑, 보람이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면에서 자활이 더 나오신 거 같아요?**

A: 네

**Q: 학교 다니시는 거요, 그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A: 작년에요, 작년에... 그 간병 그게 없어져갔고요. 그러니깐 말하자면, 우리 자활일 하면서 자활 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간병이 있고요, 약간의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간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료로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없어져가지고, 할게 거기서는 마땅히 또 없고 해서~ 다른 분야로 한번 가보자 해서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Q: 그러면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상담을 해주셨나요?**

A: 네, 그 자활에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분야별로.. 그분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게 낫겠다.

**Q: 그 후견기관이요?**



A: 네네

**Q: 동사무소에 계신 담당직원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이요. 그분이랑은, 상담하고 이러는 건 별로 없으세요?**

A: 그러니깐, 그거는요. 초에 만약에, 그 자활 일을.. 무슨 일을 할 게 없냐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활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사무소 보다는 자활에 가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죠.

**Q: 그 자활 연결해주시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A: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Q: 아 동에서는요?**

A: 네.

**Q: 죄송한데요.. 여기.. 그.. 수급 제일 처음 받게 되셨을 때, 이렇게 그전부터 혼자 애들 키우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몇 년 동안.. 사별하거나?**

A: 아니 이혼하고...

**Q: 이혼하셨어요?**

A: 아니 몇 년 동안이라기 보단, 거의 뭐 제가 살면서도 제가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단 또 애 때문에 제가 또 충격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웬만 하면 늦은 시간에는 안 하자. 그런데 또 그렇게 시간제 가자 그러면 다른 일 자활 말고요 시간제를 가자 그러면, 또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깐, 아시는 분이 한번 찾아가 봐라 하시더라고요.

**Q: 그 아시는 분이, 뭐하시는 분이셨어요?**

A: 어 이거 다니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한번 가봐라 해서.

**Q:**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두 가지 다 받으신 거예요?

**A:** 네 그전에는...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드시고, 좀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만 수급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젊은 애들도 있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셔가지고, 그 일단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깐요.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Q:** 여기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A:** 여기가 작년... 제작년에 들어 왔어요. 제작년 10월에...

**Q:** 아 그럼 수급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오셨군요?

**A:** 네 안 그러면 들어오기 힘들죠.

**Q:** 전에는 그럼 어디 사셨어요?

**A:** 그냥 월세

**Q:** 여기 이 동네 사셨어요?

**A:** 아뇨, 아뇨 석남동이요.

**Q:** 아 다른 데 사셨구나. 그 일하러 가시는 데는 여기서 집에서 가까워요?

**A:** 네 한... 그러니깐 버스타고 한... 세정거장? 네 정거장?

**Q:** 아 그런 것도 혹시 그 자활센터에서 거리라던가 이런 거를...

**A:** 네, 그거를 인제 그거 하고 인제... 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를 배정해 주는 거는. 그 교육청에서 다 따져 보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웨만 하면 차비도 덜 들어가고 집에서 가까운 데로 보내주셨더라고요.

Q: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으세요?

A: 자활에서 일하면요. 월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기 뭐.. 60만원 받을 때에는 한.. 40만원 조금 넘고 그거 넘으면 한 30만원 조금 넘고요. 맞춰서 나오니까요.

Q: 그럼 그 생계급여 외에 또... 뭐 감면되는 거나, 뭐 아이들 학비라던가, 이런 거 또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A: 애들 학비 안내잖아요. 일단 급식비 안내고... 그런 면에서 도움이 크죠.

Q: 만약에 또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A: 어떤 면에서요?

Q: 뭔가.. 뭐 아이들 방과 후에 누가 뭐... 학업지도를 해준다던가 뭐 더~ 정부에서 이런 것 좀 신경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라도...

A: 글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저희 딸 학교에서 또, 그걸 하더라도요 9시까지...

Q: 방과 후 이런 거요?

A: 네 뭐 일반 애들은 10만원씩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은 그렇게 대상이 되가지고 그냥 무료로 받고 있어요.

Q: 그래도 안심이 되시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붙잡고 가르쳐 줘서..

A: 네.

Q: 그때 처음 동사무소 가셨을 때요. 근로능력 판정이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A:네.

Q: 근로를 할 수 있다, 없다 나눈 기준도 있고 그런데...

A: 그.. 처음에 인제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직업.. 아니 처음에는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그.. 식당을 다녀도, 가는 날 보다 안가는 날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해서 해주시더라고요.

Q: 그때 뭐... 이제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 이제 상담 그 담당직원이랑 초기상담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뭐 상담하시는 분의 태도나 이런 게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A: 네. 그러니깐 제가... 잘 모르니깐. 처음이니깐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인제, 그분이 이렇게 잘...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활일도 있고? 안 그러면 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시고.

Q: 그러면 일단 이제 자활 센터 연결되고? 그다음에 인제 수급 받으시면서, 관리해주시고 이런 게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뭐 전화를 한다던가.. 한 번씩 와본다던가?

A: 글썄요. 전화는 글썄... 못 받은 거 같고요? 집도 그래요, 제가 거의 낮에는 없잖아요 한낮에는 그러니깐 그...

Q: 왜요.. 주위에 그러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제 일하고 있고 하셔서... 왜 소득 밖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벌수는 있잖아요? 자활하는 것보다? 근데 왜 소득 조금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80만원 버는데 60만원 밖에 못 번다라고, 신고하시는 분들...

A: 글썄요, 저희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히 눈으로 안보고 저기하는 이상 모르죠 뭐...

Q: 그 뭐... 자활사업에요, 지금 그 일하고 계신데, 다른 일을 뭐 하고 싶으신 일이나?

A: 자활에서요?

**Q:** 네. 뭐 다른 지금은 뭐, 좀 정해져 있잖아요? 간병 뭐 이렇게 몇 개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자활 쪽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뭐가 없을까요? 다른 것들이? 되게 사업이 한정적이니까요?

**A:** 이제 한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또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활에서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교육청 일이지만, 자활에서 공동체로 나가는 거거든요?

**Q:** 아 자활공동체?

**A:** 네네, 그걸로 속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특별히... 거의 다하고 또, 거기 다 속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분야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교육 받는 게... 간병 뭐... 그런 걸로 교육을 받으니까 그 외에는 생각을 별로 못하죠.

**Q:** 지금 사시면서요, 인제 생활하실 때 지금 인제 급여 들어오는 거나.. 진짜 별어서 자활하셔서 버는 걸로 모자르지는 않으세요?

**A:** 모자르죠.

**Q:** 주로 인제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어떤 걸로 많이 나가요?

**A:** 거의 주로 애들한테 쓰고요, 뭐... 보험비 같은 거, 그런 걸로 나가고, 생활비 쪽으로 많이 나가요.

**Q:** 아... 그래도 보험 같은 것도 들고 하니깐...

**A:** 아노 제가 아파보니까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깐...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돈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은 보험이 없어도 되는데. 없기 때문에 들어와야겠더라고요 아파보니까...

**Q:**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드시죠? 아플 때 그게 제일 걱정되시니까...

A: 그래서 들었어요.

**Q: 여기 임대료는 얼마나 나와요?**

A: 임대료는 3만... 3만 4천 원 정도 나가고요, 뭐 이것저것 해서 관리비가 10... 10만원 좀 넘어요.

**Q: 다 합쳐서요?**

A: 관리비만 전기세 빼고.

**Q: 다 합치면 한 10, 5~6만원?**

A: 네, 그 정도 되죠.

**Q: 아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부족할 경우가 있잖아요? 인제 쓰다보면... 그럼 어떻게 충당 하세요?**

A: 거의 제가요 부업을 해요. 끝나는 시간에...

**Q: 아, 집에 오셔가지고요?**

A: 네. 이런 거요 이거해서

**Q: 이게 뭐예요?**

A: 십자수요. 해서 이렇게 주면, 거기서 팔아서 주거든요 그런 걸로...

**2Q: 아 어디서 팔아요? 거기 자활센터요?**

A: 가게...

**Q: 아 거기 가게에서요? 그럼 이 소득활동이 그 공무원한테 이야기가 가고서, 인제 이야기가 되고서 하시는 거예요?**

A: 이거는... 그 외잖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 외잖아요?

Q: 아... 외로요?

A: 네, 남은 시간 틈틈이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Q: 이걸로 하시면 그나마 보탬이 되세요?

A: 네

Q: 이거 한 달에 얼마정도?

A: 이게 수공이라서요, 또 작품 따라 틀려요.

Q: 아... 그래요?, 한 달에 몇 개나 하세요? 얼마만큼?

A: 한 달에, 이거 큰 거는 하나 밖에 못해요.

Q: 그래도 앉아서 이거 하시려면 좀 힘드실텐데...

A: 그래도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보다 낫잖아요?

Q: 아 점... 4시에 끝나고 오시면 집안에서..

A: 네, 집에 집안일 해놓고 한 두 시간, 해놓고 그래요.

Q: 아 그래도 재주가 있으셔서... 그래도 이것저것 하시는 게 많으셔서~ 지금 자활사업 하시는 게요.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여는 좀 작아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 이나 이런 게 맞는다면,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A: 지금 인제 이 일도 해보니까요.. 장애 이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보람도 느끼고요? 그런 일도 있고... 좀 시간에... 글썄, 그 서비스업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Q: 아..네

A: 제가 많이 배워서 뭐.. 기술이 있어서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Q: 그러니깐.. 그 시간적인 여유... 어머니한테 맞는 시간이 있고, 서비스업이고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인제 그런 일이 있으면 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A: 솔직히 수급, 능력이 있어서 안 해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안 해먹으면 좋은데, 그렇죠. 암만해도 보수가 더 낮고...

Q: 응, 어머니에게는 시간 맞추는 거랑 보수가 좀 더.. 나은 그런 것들이.. 필요 하겠죠. 그렇죠?

A: 네.

Q: 근데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자활 공동체 계속 참여하시는 건데, 그 과정 어느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과정 상담하실 때, 상담할 때 뭐... 이렇게 자세히 잘 알려 주시고 그러셨나요? 거기 후견기관 선생님께서?

A: 네, 저희 같은 경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력도 봐요.. 그 학력도 보더라고요 고졸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 다 이렇게...

Q: 응... 그런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 선생님이나, 자활후견 선생님께서 친절 하시지만, 이렇게 좀 불친절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A: 네. 불친절한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Q: 그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아니면 인제 일단 일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끝인가요?

A: 끝은 아니고요? 인제 가끔씩 인제 전화를 주셔요, 뭐... 이런 이런 뭐 있다 뭐



이런... 교육이 있고?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보수할거 있냐? 그런 식으로 자  
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Q: 아 집에 보수할거요?**

A: 네.

**Q: 아 거기서 또 도와주시는 거요?**

A: 해주시는가 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Q: 자활사업 몇 년 참여하시는 거예요? 간병까지 다 해서.**

A: 다하면 지금 한 4... 5년차인가? 그럴걸요?

**Q: 그니깐 수급 받으실 때부터 계속 자활 참여 하신 거예요?**

A:네, 그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 된 거잖아요.

**Q: 그럼 혹시요 자활사업은 참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A: 있어요.. 있어가지고 계속 거의... 근데 좀 압력적으로 해요. 그... 계속 그게 뭐..  
몇 년 거의, 한 3년 지나면요? 조금 압력을 줘요.

**Q: 자활사업에서 나가라고?**

A: 나가라기보다는 인제 취업을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같은...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깐 수급  
에서 우리는 조건부라 이렇게 탈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취업을 안 하려고 하죠.

**Q: 응**

A: 그러면 제외가 되니깐 왜냐면...

Q: 그럼 학교도 학비 따로 내야 되고, 그렇게 되죠?

A: 네 그러면 힘들죠.

Q: 자활사업 오래 하신 분들 많으세요?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A: 네. 많은 거 같아요. 거의 처음 자활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던 분도 계신 거 같아요.

Q: 그 3년 되면 취업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후견기관에서 그러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A: 후견기관에서 그렇게 하죠. 오래 됐으니깐 취업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Q: 그럼 지금 근데 취업할 데가 없다 지금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참여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참여할 수는 있게 해주세요?

A: 네, 어... 네

Q: 압력은 주는데, 주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A: 네, 왜냐하면 조건에 되니깐... 우리가 안하면 조건부 그 앞에 조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깐...

Q: 그러면 지금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인정이 된다면? 일에 대한 욕구는 있으신 거예요?

A: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Q: 아 주변 분들도?

A: 네

Q: 따로, 이제 자활 말고 일을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른 일도 하고 계시고, 부업 같은 거...

A: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힘들거든요. 적금 뭐, 솔직히 적금이라도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좀 그러니깐. 그리고 또 이...이 시간.. 외에 거는 또 안 잡더라고요?

**Q: 혹시 뭐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A: 동사무소에서요?

**Q: 네 무슨 일 하냐고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A: 저는 안 물어 보는 거 같아요.

**Q: 그 이외 시간에 일하는 거는 별로...**

A: 그때 뭐... 이렇게 동사무소는 아니고, 자활에서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시간 내에, 그 자활시간 내에서만 다른 일을 안 하면.. 그 외에 거는 자기네는 신경을 안 쓴다.

**Q: 아 그렇게 하셨어요?**

A: 네 자활에서는...

**Q: 그럼 부수적으로 다른 부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동사무소에 알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A: 그런 걸로 아는데요? 왜냐면 그 소득을 다 잡으면,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조건부랑 그게 떨어지거든요?

**Q: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단하신 거 같아요. 자활사업을 다른 여건이 비슷한 수급자 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A: 네, 근데 저희 보면요, 저희 동네가 거의 수급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일도 안하고~ 진짜 맨날 술에 찌든 사람도 많고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 갖고, 술

에 썬 사람도 많고요? 막 그런 거 보면 위에도 젊은 사람... 젊은 사람도 많지만 또 일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더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가 좀 시끄러워요, 막 그... 수급 딱 나고 그 다음이면 그냥 동네가 시끄러워요.

**Q: 아 그러니깐 수급 그..**

A: 돈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이면 좀... 그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도와주고, 일할 수 있는데 안하는 사람은 진짜 얼마만큼 기간을 주고, 니네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Q: 주변에서 혹시 이 사람은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안하시고... 안하고 자기는 아 난 일할 수 없다. 난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아예 무능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A: 그런 분들도 계시죠.

**Q: 그러면서 일을 안 하세요?**

A: 네 안 해요. 이렇게 왜 그냥 나 저희같이 그냥, 나가서 자활 가서 일을 하지 그러면, 자기는 아파서 못한다고.

**Q: 그러니깐 할 거 같은데도?**

A: 네.

**Q: 아 그러신 분들이 있구나 그러신 분이 난 아파서 일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자활은 아니라 일반 식당가서 일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못 보셨어요?**

A: 식당가서 일을 하는 건 못 봐도요, 못 봤는데...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멀쩡한데 먹고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Q: 그... 왜 자활에 참여 하면은 소득이 확 밝혀지는 거잖아요. 일반 노동 시장에 가서 일을 하면, 80만원 받았는데 60만원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거고, 제도가 보충급여라서, 왜 소득 그... 최저 생계비 아래 버는 만큼 차액을 주잖아요. 그러니깐.. 그래서 나 일 못해요, 하고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뭐 소득 얼마 벌어, 그러니깐 일을 하고 있는데, 80만원 버는데 60만원만 벌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활사업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불공평한 거잖아요?

A: 그렇죠.

Q: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잡고, 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A: 글썄요 그게 또 그 일 못한다고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내기가 좀 힘들 거 같아요. 눈으로 안보고 진짜 뒷조사 안하는 이상은...

Q: 다들 동사무소 선생님들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A: 글썄 그게... 네.

Q: 아까 왜... 조건분데 일을 하셔야,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야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계급여 같은 거는 버시는 돈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뭐 의료나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수급을 못 받으면 떨어져 나가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새 복지부나 이런데서 이야기하는 게요? 의료 급여 따로... 그러니깐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급여 주고, 또 뭐 교육급여 필요한 사람은 교육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생계 급여는, 생계급여 필요한 사람만 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근데... 저희 저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은요? 의료도 필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두 가지잖아요? 일단은... 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만약에 내가 벌어서 어떻게 충당을 한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의료비도 문제지만 애들이 지금은 한참 커나가잖아요. 지금 한참 배울 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혜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힘들 거 같은데요?

**Q:** 지금은... 그러니깐 왜 수급자가 되면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수급자가 안 되면 다 못 받는 거잖아요?

**A:** 네.

**Q:** 그런데 이제 뭐 좀 제도가 바.. 꾸면 뭐 그니깐 수급자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의료 필요한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아주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교육급여랑 의료급여랑 필요하면, 두 가지 같이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나가서 “아.. 일 못해요” 이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의료급여나 이런 거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문제를 좀 없애 볼까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어떨까?

**A:** 어떤 면에서는 좋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또... 이렇게... 그... 그것처럼, 그냥 계속 그것만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은데요?

**Q:** 전체를 통으로 받던 사람들은?

**A:** 네 아니면 그게 딱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Q:** 그럼 이제... 지금 자활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다른, 여건이 되면 다른 일도 괜찮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가장.. 어떤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A:** 지금 제가 그... 하는 일이 또... 그것도 약간 전문적 전문적이어야 되요, 뭐 저기... 뭐... 배우는 그것도 많아야 되고, 일단 많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양보호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시간 별로 하는데, 그  
응.. 수급자들은 거의... 80프로 지원된다고 하는 거 같던데?

**Q: 아, 아 뭐 배우는 돈이요?**

A: 네. 뭐, 그런 거~ 해서 뭐 배우고자 하면, 좀 지원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거든  
요.

**Q: 네. 어머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A: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가서 뭐를 일을 하려고 해도, 뭐 그런 게 좀 자격 조  
건들이 좀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하잖  
아요? 어디는 인제 국비로 한대는 되지만,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는 또 내가 전액 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Q: 그럼 가장... 이 일은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배  
우고 싶은 기술이나 뭐 이런 거. 그 요양 보호사요?**

A: 그거, 그거는 좀 알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조건이,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 조금  
거의 제돈 조금 들어가고도 배울 수 있고.

**Q: 인제 돈 생각 안하고, 그냥 인제.. 자활센터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데, 여기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A: 제가요. 자활에서 창업을 해준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저는 고물상을 하면 괜찮  
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 안 들어가고 일단은, 내가  
움직이면 주어 오는 거잖아요. 돈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땅도 사야 되고 차  
도 사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괜찮을 거 같은  
데?

**Q: 자수 하시는 거 가게 차리셔도 될 거 같아요.**

A: 아뇨. 생각 보다 돈 많이 들어요..

Q: 그럼, 창업할 때 돈 얼마나 대출 해준대요?

A: 그... 사람도... 여러 명이 가야 되고, 거의 한... 최대한으로 안 주는거 같아요.

Q: 응 그러면, 그러니깐 창업을 하실 기에는... 여러 사람도 모여야 할 문제도 있고, 돈도 좀 부족 많이 부족한가요? 저런 거 차리려면 얼마나 드는데요?

A: 가게... 뭐 하다보면... 그래도 몇 천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조그맣게 한다  
그래도, 이렇게 재료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Q: 지금 지원하시는 건 얼마나 되요?

A: 자활에서요?

Q: 네.

A: 자활에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만 원 되려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Q: 창업하려면 몇 명이상? 뭐 이렇게?

A: 한 뭐 5인? 다섯 명?

Q: 그럼 창업하기... 되게 어려울 거 같아요.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A: 네, 네...

Q: 그러면은... 일에 대해서는 의욕도... 인제... 근로의욕도 있으시고, 일에 대해  
서 계속 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고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취업을 해가  
지고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세요?

A: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



Q: 어느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제 학업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A: 네, 애들...

Q: 병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A: 네 맞아요. 한참 커가는 거 그러기 때문에..

Q: 혹시 일자리.. 다른데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신적은 있으세요? 자활 말고, 자활 말고요. 이제 그냥 다른.. 이제 거기서도 그냥 말로만 그렇기는 하지만, 3년 지났으니깐 취업하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볼...

A: 근데요. 수급자들이 딱 갈 데는 진짜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 왜냐하면 딱... 만약에 월급이 90만 원 이상 잡으면... 딱 그... 거의 다 말 못하잖아요?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만약에 월급을 150만원 받으면, 150만원 받아요 그러면... 그게 10시까지 힘들게 해서 받는 돈이잖아요. 시간이랑 저거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거 다 잡아 버리면 떨어지잖아요?

Q: 아 수급에서 떨어지니깐?

A: 네, 그니깐 그런 건 혜택을 받으면서, 나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 그러니깐 오히려 나가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필요한 뭐 수급은 개별수급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A: 네.

Q: 그러니깐 아까 말씀 드린 게요~ 그렇게 나가서, 돈을 이제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벌어도...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하는 거거든요?

A: 그래요 그러면 에...

Q: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일은 할 수 있는데.. 인제 놀고, 술 드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비효율적인 혜택은 오히려 덜 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깐, 정말 이제 필요하신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거는 받으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Q: 저기... 아까 보험 들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의료 보험 이런 거?

A: 거의 의료보험 쪽이에요.

Q: 그런 거 말고, 뭐 애들 위해서 적금이나 이런 거는 못 들고 계세요?

A: 적금... 네 적금은 네 제가,, 제가 안 들고요, 그... 저... 저는 그... 그거 하나 넣기도 벽차고, 저희 제 그... 재네 시대 쪽에, 아들이니깐 앞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 있더라고요,

Q: 보태주고 그러세요?

A: 보태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넣는 거예요.

Q: 아 그것만.. 그럼 나중에...

A: 나중에 아들이니깐, 그 뭐 남아선호 사상이니 뭐니... 우리 시대 쪽이 딱딱 박힌 사람들이라, 그것만 인제...

Q: 아버지가 남겨진 할머니나 그렇게.

A: 고모나... 뭐 이런 사람이 넣어주고...

Q: 아들만?

A: ㅎㅎㅎㅎ

Q: 주변에 흑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 안한다고 하고서 몰래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갖고, 동에서 걸려 가지고... 조치를 당한다거나 제제를

당하는 분... 혹시 보셨어요?

A: 아직까지는... 제 주위에선 못 본거 같아요.

Q: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A: 뭐.. 많아요 서른... 서른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 까지는 하는 거 같아요.

Q: 근로 능력이 64세 65세니까는.. 60대까지 하는 거구나.. 혹시 주위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있으세요? 조건 불이행 해가지고.. 자활사업 나가야 되는데, 자주 빠지시고.. 뭐 이러면 조건 불이행이 돼서, 수급 정지되고 이러잖아요?

A: 근데요. 그렇게 자활에서 문제가 되서 자활에서 쫓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냥 동사무소 가서 사정하면, 내가 얼마 잡아줄테니깐 일해라 뭐 이런 걸로 하는데...

Q: 아. 거기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요?

A: 네 그러잖아요. 또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 잘 할 수만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막 사정하고 그러면 인간이니깐..

Q: 소득 신고하신적은 없으신 거죠? 따로 저 얼마 벌어요, 이렇게?

A: 초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 바뀔 때 마다 초에 하잖아요?

Q: 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깐, 자활사업 하면 자활사업 통해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

A: 네.

Q: 아... 그럼 직접 써서 내세요?

A: 네, 동사무소에 초에... 매년 초에...

Q: 그... 그러니깐 1년에 한번에요?

A: 네.

Q: 혹시 그럴 때... 왜... 진짜 많이 내면 소득 조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생계 통장에 돈 조금 들어오고, 조금 써내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A: 근데.. 그게 써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희 월급이 자활에서도 다... 그러니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동사무소에서 또 검사를 하잖아요, 통장 계좌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Q: 먼저 내서 내시고, 거기서 또 확인하고...

A: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한 300만원만 들어도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잖아요.

Q: 아까 그 장기요양보험... 아니, 그 제도에... 얼마 내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직접 시도 해보신거예요?

A: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고용보험 든 사람만 그 혜택을 받는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판사람한테 물어보니깐,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급자들도?

Q: 그러니깐 그거를 무료로 하면 하실 의향은..

A: 무료가 아니고요, 거기서 80프로 내주고 저희가..

Q: 아... 지금 현재 80프로를 내주고 있어요?

A: 내고, 우리가 20프로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Q: 근데 한번 해보시지...

A: 시간이 없어요.

Q: 아 시간 때문에?

A: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활일은 거의 12월 달 되면 종료가 되요. 그럼 1월 2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Q: 아... 두 달은 자활 일을 못하세요?

A: 네.

Q: 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A: 그때는 거의 그냥... 집에서 있어야죠.

Q: 그, 수급 생계급여는.. 더 많이 나오나요?

A: 아뇨. 그 더 많이가 아니고요. 일을 맞춰서 나오는데요, 일할 때 보다 훨씬 더 작죠, 거의 일할 때 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작게 나오죠.

Q: 어이구, 1,2월 달에 힘드시겠어요. 원래 자활일 자체가 1,2월에 없는 거예요?

A: 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일ियो,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니깐 12달을 안 잡고, 11달을 잡는 거예요.

Q: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A: 네.

Q: 그럼 그 1,2월에는 그... 학생들 도우미... 이런 거는 누가?

A: 개네 방학이잖아요.

Q: 방학이니깐... 그럼 간병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A: 쉬어야죠. 근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간병하는 사람 그... 한 달, 두 달 좀 이렇게 쉬면 그렇잖아요 빼놓기, 잘 나아지다가 한 달, 두 달 쉬면... 더 나빠지거든요.

**Q: 난방비 또 제일 최고로 많이 들 때인데, 자활을 1,2월에는 쉬어야 하는구나.**

A: 네. 11달까지만 하네요.

**Q: 그럼 그 두 달을 보통, 다른 분들 어떻게 사용하세요?**

A: 거의 뭐.. 근데 두 달 동안에는 또 특별히 무슨 일을 할 게 없어요. 또 겨울이라 여름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진짜 병이라도 주워서 판다고 하지만, 겨울이라 특별히 할 게 없죠. 그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Q: 그럼 일을 기다리게... 되시는 거네요.**

A: 그렇죠.

**Q: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쉬시다 보면은 일하는 게 더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1~2개월의 쉼 때문에... 혹시 일을 아예 안하게 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나요?**

A: 거의... 그... 저희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라는 게요 상당히 인식이 많이 가요. 만약에 그 1~2월 놀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에 또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떨어질까? 뭐 그런 조바심도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놀아가지고 일 안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Q: 중간에 자활사업 하시면서, 아프셨던 적은 없으세요? 자활사업에 못나가게 되시거나?**

A: 거의 그러면... 거의, 그 아플 정도로 못가면요. 조퇴를 미리 전화를 주던... 전화를 주고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입원서 떼어다 주고 그래요.

**Q: 장기간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비우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A: 네 아파봐야 한 달...

**Q:** 지금은 인제 자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뭐.. 미래에 한 5년 후나 10년 후에,  
“아 이런 일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일은 있으세요?

**A:** 저는 그 가게... 하고 싶거든요?

**Q:** 어떤? 이거(자수)?

**A:**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반찬가게 그런 것도? 괜찮고...

**Q:** 음식 잘하시나 봐요?

**A:** 잘하지는 못해요. (하하하) 하는 것을 좋아해요.

**Q:** 그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는 뭐가 있을  
까요?

**A:** 글썄, 요즘은요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뒷바라지 하는 만큼 공부가 된다고 하잖  
아요? 그래서, 글썄요.. 저는 생각이요. 니네 인생이니깐, 최소한도로 해줄 거는  
해주지만, 니네 인생이니깐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못해주니까요. 이렇게...  
따른 뭐... 무슨 어느 부모 는 뭐 과외비가 100만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진  
짜... 저희 선생님들하고 비교하면요, 선생님들은 거의 그 정도 들어간대요. 애  
들한테... 뭐 무슨 힘들 때 마다 선생님이 뭐.. 저는 그렇게 안 해 봤거든요? 그  
래 그렇게 해서 개가 과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잘 될 수 있을  
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뭐... 그렇게 뭐 우리 애들한테 못해주지만, 공부  
잘해라 어찌라는 안 해요 못해주니깐 그래도 건강하게...

**Q:** 지금 쓰시는 뭐.. 의료비 애들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절실  
하고 필요한 게 어떤걸까요?

**A:** 제일 절실한 게... 애들 이쥬 의료보험... 아니 애들 저기 교육하는 게, 그냥 남  
들... 남들하고 똑같은 못가더라도, 그 밑에 중간정도는 갈수 있었으면...

**Q:** 근데 여기 근처 복지관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 복지관..

A: 초등학생.. 중학생되면 안 받아요.

**Q: 아.. 그러니깐 애들이 몇 학년이에요?**

A: 지금 우리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생은... 그리고... 애들이 워낙에,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없어요 자리가...

**Q: 혹시 형제나 친척분들은 주위에 안사세요?**

A: 살죠.. 주위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죠. 다들... 도움 되면 안 해먹고 싶죠. 하하하 찡피하잖아요, 형제들도 나 보기가 찡피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그 형제들 대하기가 좀 찡피하고. 능력만 있으면 안 해먹으면 좋죠.

**Q: 그 수급 받는 거예요?**

A: 네.

**Q: 옛날에 근로능력... 오래전인데, 근로능력 판정할 때요. 일하실수 있도록 이걸 나누잖아요? 그때, 기준에 나이... 뭐 연령.. 뭐 건강상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A: 나이... 그런 거... 그거 다 진짜 써 내는 거잖아요? 써내는 거니깐 그거는 거짓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이 어디 아파서 못해요.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가보다 하지, 거기서 뭐 뭐를 때 오세요, 뭐를 해오세요 그런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그 좀 치사하지만, 정밀하게 검사를... 만약에 일을 했...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왜 얼 만큼... 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가? 뭐 그런 거를 확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데...

**Q: 그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평하니깐 잡아야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갈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A: 네. 뭐주면 네네..

Q: 혹시 자활사업 하실 때요, 이렇게 그니깐 지금 좀 수급 받으시는 게.. 가족이나 뭐 이렇게 주위분들에게 알리는 게 좀 그러시다고 하셨잖아요? 자활사업도 좀 그분들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인식도 있으시니깐... 참여할 때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A: 전... 처음에는 몰랐으니깐, 그냥 몰라서 가서 했는데요? 가서 하다보니깐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활 저런 사람... 또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래 너네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네는 돈 받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Q: 그거 하시는 분들 중에도, 학교 돌봄이 하시는 것 중에.. 자활 참여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럼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A: 있죠..

Q: 수급자 아니신데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A: 네 차상위들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있어요, 그게... 직업에 워낙에... 교육청소... 뭐 학교 일하고, 딱 보면 공무원인 저기... 그런 취급이니깐.. 그 일반인들... 대학교 나와 갖고, 집에서 노시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학력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 막 오셔요.

Q: 아 그런 분들은, 자활 후견기관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아니신 거죠?

A: 네.

Q: 근데 겉으로 볼 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분들이랑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이랑?

A: 그러니깐 그분들은 대부분 그... 인맥이죠. 교장선생님 뭐 통해서 이렇게 뭐.. 학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암만해도, 그 직접적인 건 없어도, 그 우리같이

만약에 자활일 하는 사람은 왠지 모를 뭐가 있죠.

Q: 그럼 다른 그런 케어를 받는 분들은.. 이분이 자활에서 오신건지... 아니면, 그냥 누구... 일반인인지... 이런 차별을 하시나요? 대우?

A: 학교에서?

Q: 그러니까... 그 아니 아니...

A: 같이 일하는?

Q: 장애 어머니나?

A: 어머니는 모르죠.

Q: 아 그럼 아까 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별어먹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

A: 근데 그분들은... 그 어머니들은... 다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Q: 아 그 일하는 분들은 다 자활기관에서?

A: 네네. 처음에 자활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요.

Q: 그게 좀 그 자활 사업하시는 분들 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훨씬 좋을텐데요.

A: 그렇죠.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활이라 쓰지 말고...

Q: 아...

A: 자활이라는 딱 명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딱 돼있잖아요.

Q: 그러면 좋겠네요. 혹시 뭐 제도 관련해서 뭐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건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A: 지금... 그거는 진짜로 제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수급을 받는데, 진짜 보면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 진짜 나랏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나라에서 진짜 어떻게 뒷조사라도 똑바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거 혜택이 덜 갔으면.. 그리고 진짜, 응 저 수급을 안 받아도,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있는 사람 보면, 저희보다 못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조금 더 되었으면...

**Q: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시거나 이런 건?**

A: 어... 지금 그냥 제가 그냥 만족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애들한테 그렇게 크게 뭐 안되고 하니깐, 그나마 그거 받는 것만도 감사하죠.

**Q: 그냥..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근로 무능력으로 수급만 받으시는 분하고 수급은 조금 받지만, 이제 또 일해서 또 인제 나머지 충당하시는 그 수준의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돈에 대한 수준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깐, 근로 무능력으로 판정을 받아서 일을 안 하고 수급 받는 분이랑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의지를 보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랑, 조금은 급여에 차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A: 네 그거 네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 더 덜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Q: 응 그럼 자활을 해서 임금이 더 높아지거나... 어떻게든 인제 총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A: 네, 네네 왜냐하면, 그 실제로 내가 일을 못해서 무능력 하다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난 죽을병 걸리지 않는 이상은, 진짜 손발 못 쓰는 경우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도, 그 장애인 그 있잖아요. 전동 휠체어 인자 타고 다니면서, 진짜 박스 같은 거 주서다 파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수급을 받나 어쩔나는 몰라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내가 손발을 못 움직여가지고.. 못해서 받는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움직일 수 있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수급 받는다.

**Q: 마지막으로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도 있기는 한데요, 취업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취업하기 제일 어려우신 거 같으세요?**

A: 지금... 저희,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요. 이게 경쟁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하찮은 일 같았어도 경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학벌 같은 게 좀 많이 딸려요 쯤 저희는 솔직히...

**Q: 그냥 일반 시장에서 일반직장 구하실 때 어려우신 점은?**

A: 그게 그런 일반직장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얼 하나 할 수 있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쯤 그런 게 없잖아요.

**Q: 나라에서 정말, 이제 뭐 직업훈련 해서 할 때도 이제 돈 이렇게 수급 생계비나 이런 거 지원해주시면 참여 의사가 있으신 거죠?**

A: 네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Q: 어 근데 혹시 노동부에서요. 이제 왜 조건부 수급자 되면, 뭐... 일부분은 노동부에서도 직업훈련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A: 근데 그게요, 기간이 다 짧아요. 한 3개월 6개월?

**Q: 훈련기간이요?**

A: 네, 그런데 그 3개월하고 6개월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Q: 근데 혹시 그쪽으로 가... 훈련받으러 가세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 보시기는 하셨어요?**

A: 아뇨,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Q: 근데 훈련기간이 짧았다?**

A: 아니 왜냐하면~ 그게 3개월에 딱 그거를 딸 수 있는 거 같으면, 그쪽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걸 하려면 진짜... 그래도 못 배워도 한 일 년을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3개월 6개월이 한계니깐.

**Q: 그래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A: 네, 그러면 뭐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나가서 뭐라도 해먹잖아요.

**Q: 또 그러면 자활이랑 또 시간이 겹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A: 그렇게 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시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 수급자 08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생활보호제도부터 계속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40대 후반	남	유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b>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b>
영구임대아파트거주. 벽면이 직접 제작한 책장과 액자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이 있음

- 조사평가

<b>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b>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본인의 심리상태부터 최근까지의 근로활동 여부 및 가족 구성의 변화 등 상세한 내용까지 응답

**Q: 여기 91년도에 처음 오셨다고요?**

A: 네. 91년도.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Q: 그럼 그 전에는?**

A: 전에는 그냥 저기 전세 살았죠, 다른 데서.

**Q: 대전에 계속 계신 거구요?**

A: 대전에서.

**Q: 다른 데 계시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A: 이제 그 저기 이 영구임대, 그 때 200만호 아파트 막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청했더니 다행히 되어 가지고. 이게 뭐 내 집은 아니지만 남의 집 사는 것보다 열배는 나으니까요. 뭐 관리비만 척척 잘 내면 누가 나가란 소리도 안 하고.

**Q: 주변에 뭐 관리비 밀리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A: 우리는 자동이체로 해냈죠. 자동이체로 해 놓아 갖고.

**Q: 그 급여 나오는 데서 그냥.**

A: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거부터 먼저 빠져나가니까요. 전화 요금, 관리비 이런 거 빠져나가니까요. 여기 뭐 2년, 3년 치 밀려 있어 가지고 관리비 잘 안내면 나가야 돼요. 여기 서로 들어오려고 관리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어유, 전세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Q: 그럼 그 때 뭐 좀,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A: 그때 직장 다닐 때죠.

**Q: 어떤 직장?**

A: 저기 뭐 제조업, 제조업. 뭐 여러 가지.

**Q: 주로 이제 뭐 기술이 뭐 있으셨어요?**

A: 아니, 기술 아니고 그냥 단순노동 이예요. 나이 먹고 기술을 배웠는데 내가 저기 2003년도에 기능 대학을 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19살, 20살이잖아요. 개네 아버지가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 갖고 다니는데. 그래 갖고 이제 교수님 추천서 받고 자격증 따 갖고 취업을 나갔는데 다행히 거기 출신이더라고, 사장이. 나이가 동갑이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잘해주잖아.

**Q: 그럼 2003년도에도 일을 계속 하셨어요?**

A: 계속 했어요.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라 계속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생기면 또 옮기고.

**Q: 그러면 예전부터 쪽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일 하시던 중간에 여길 들어오신 거예요? 일 하고 계시던 중간에?**

A: 예.

**Q: 그럼 여기 생활보호나 기초생활 수급 하신지는 언제부터세요?**

A: 그때가 아마 90년도 8월에 했을 거. 90년도인가, 95년도인가 여하튼 정확한 연도는...90년도 그때쯤 했어요.

**Q: 계속 막?**

A: 네,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적으니까요. 수입이 한 달에 150만원 이정도 밖에는. 조금 받아야 200만원밖에는 안 되니까.

**Q: 그 당시에요?**

A: 예. 애들 아들하고 딸 태어나고 그러니까 뭐. 250만원까지라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 나오는 거보다도 이제 저기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제도인지를



몰랐어. 내가 수입 있고 그랬을 때는. 수입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전화요금이나 감면 받고 뭐 감면 받고 그러니까. 나는 차를 안 샀으니까. 이거 차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딱 떨어지고 수입이 없을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아 이게 있으니까 2~30만원이 이게 크더라고요. 애들하고 있을 때는 한 5~60만 원 나오나 보더라고요.

**Q: 그렇죠.**

A: 그리고 제일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내가 느끼기에 켈 좋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학자금이 지원이 돼요. 대학까지. 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 딸을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거든. 이렇다 보니까 등록금을 안 내는 거야. 잘됐다, 공부해라.

**Q: 지금 그러면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 한 명씩? 고등학교예요?**

A: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딸은 중학교 2학년.

**Q: 그럼 어떻게 여기 혼자 계시고?**

A: 이제 난 여기 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집에 또 사정이 생겼어요. 애 엄마가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려서. 난 그 동안에 고정 수입 없지, 난 또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한 번 가면 며칠 있다 오고. 90년도 한참 심할 때는 한 달도 가고 막 그랬어요. 이제 난 돈 벌어서 통장에 저금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난 원래 시골 살았어요. 시골 살아 가지고, 내가 50 억도 돈이라는 게 이게 귀하다는 걸 몰라,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좀 풍족하게 우리는 시골 부잣집에서 살아서. 다른 집은 뭐, 우리는 가뭄 들어도 땅 사고 그랬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완전 시골 농부 출신이라.

**Q: 원래 어디셨는데요?**

A: 여기 용담, 용담댐 있죠?

**Q: 용담댐이 어디죠?**

A: 여기 진안. 진안군. 전주, 진안 거기 살았는데. 그때가 초등학교잖아요. 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인가, 3학년 때까지 학교 가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돈 주면 학교 가는 날이요, 안 주면 안 가는 날이요. 왜 시골 사람들은 왜 안 주냐, 토요일 일 날 일요일 날 학교 안 가면 먹을 게 천지라 이거예요. 낮에는. 감을 따먹든, 뭘 따먹든, 수박을 가서 따먹든. 난 어렸을 때 이제 황씨 집안 종갓집에 살아가지고 담배를 안 배웠어요. 이제 술은 제사 지내고 하니깐 말 보다 먼저 배운 거지. 먹는 거에 있어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배고프면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은, 돌아다니다가 난 혼자 잘 돌아다녔어요.

**Q: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뒀.**

A: 네, 무서운 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세파트가 그게 수호신이었어요, 세파트가 항상 내 주위를 돌아다녀요. 학교 갈 때도 같이 갔다가 끝날 때 되면 이상하게 그 시간에 와요. 정문에 딱 와요. 그 개가 죽고 나서 난 그 개가 죽고 나서 개고기 먹고요. 난 고기를 좋아했어, 시골집에서.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장손자니까 할아버지랑 밥을 같이 먹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기를 삶아가지고 소금 찍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야 고기가. 이제까지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봤는데요. 우리는 소고기만 먹었어요 시골에 어릴 때. 50년,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울 때 다른 집에는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우리는 소고기 먹었어요. 할아버지 환갑잔치할 때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겨울인데. 거기는 개념이 노는 개념이니까. 겨울 내내 하루 놀고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소 잡는다는 건 드물어요.

**Q: 어린 시절에는 뭐 거의 굉장히 풍족하셨네요.**

A: 그러니까 이런 게 할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돈 달라고 하면 주셨으니까. 돈 주고 손에 밥 먹고 나오면 손피면 딱 줘요. 그때는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10원짜리, 그거 주면 가는 거야. 토요일이나 학교, 월요일부터 개념이라

는 게 나는 3학년 때까지 책을 읽지를 못 했어. 읽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읽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왔다 갔다. 내가 고등학교, 아니 대학, 그게 아니라 군대 갈 때까지 따귀 한 번 안 맞아봤지. 군대 가서 따귀 맞아 봤지. 그게 확실히 계급이 있으니 이게 촌수 계열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설명도 안 되는 거야.

**Q: 그렇죠.**

A: 그러다 보니까 자유스러운데 버릇없이 컸지. 그런데 뭔가 개념은 알았지. 포도 받이나 감 받에서 따먹으면 그게 하나의 범죄행위인데 그때는 아니요, 이게 따 갖고 가지는 않고 두 손에 하나씩만 딱 들고. 하나씩 두 개만 들고. 너 집에 가서 누구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이거야. 그 대신 딱 하나만 따라, 바닥을 휘적거리지 말고. 교육은 받았어요. 그것만 하면 혼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 안 하는 거야. 세 개 따도 좋은데 두 손에만 들고 있어야지, 세 개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두 개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먹는 거 하나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래요, 저금을 안 해요. 돈이 없죠, 그럼 빌려. 애 엄마한테 빌려오라 그래, 한 달 후에 갚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남한테 빌린 돈 갚으러 일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다음달 살기 위해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300만원, 500만원 써놓고 그거 겨울 내 쓰고, 그거 내년 봄, 여름에 갚을게요 그러면 여름에 갚는 거야, 내년에.

**Q: 그래도 주변에 그렇게 빌리시거나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나 봐요.**

A: 그래도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큰돈은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Q: 친척분이나 이렇게?**

A: 친척은 안 빌리고 사회 생활하면서.

**Q: 아.**

A: 그냥 이자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안면 있고 하니까 빌려주고.

**Q: 그러면 어쨌든 90년대 그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일은 하신 거예요?**

A: 한 3개월 하고 한 달 쉬고, 5개월 하고 한 달 쉬고 이런 식이지.

**Q: 아 그 당시에요?**

A: 왜냐하면 IMF 이후로는 고정 직장이 없어서 버렸어요. 하다못해 건축 공사장에 서 한 두어 달 하다가도 어디 일거리가 좀 돈 더 준다거나. 원래 건축일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뼈가 굵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같이, 난 시골에 살았어도 농사일이란 거 몰라요. 농사일이라도 거들어 준다하면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두 손 가니까 못 당해요. 막걸리 심부름이나 하고, 와서 심부름이나 하라 하지. 그런 게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일을 못 배웠다고. 여기 와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공사장 와갖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 하기만 하는 거지. 기술이 필요 없지.

**Q: 그럼 90년대에 여기 들어오실 때도 일은 하셨어도 그게 고정적인 일은 아니고 그냥?**

A: 예. IMF 87년도, 87년도.

**Q: 97년도요. IMF는.**

A: 97년도 여기 이사 오고 한 5~6,7년까지는 애들 태어날 때까지는 잘했죠. 근데 태어나고.

**Q: 계속 일 하셨어요? 여기 오셔 가지고는?**

A: 예.

**Q: 그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은 돼있는 상태였어요?**

A: 애 엄마가 병원을 자주 가요. 그러니까 의료 보호 2종인가, 1종인가, 2종인가 해 가지고.

**Q: 그래서 이제.**

A: 애 엄마가 만들었지, 일부러. 한 달에 거의 150만원, 200만원 받을 때지만 겨울에 놓고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된다. 나는 몰랐어. 이걸 올렸더더라고요. 약값도 들고 전화요금도 전기 요금도 감면받는다고 하니까. 애 엄마가 몇 십만 원씩. 애 엄마가 했더라고요.

**Q: 그럼 그때도 사모님 일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A: 애 엄마는 나 만나고 일을 못하게 했지. 돈이 뭐 필요가 있어요? 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처음에는 우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애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닌다 그래 가지고. 다 들어놓더라고. 그거 뭐 하러 드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 90년도, 80년도에는 중간에 해약하면 내가 넣은 거 50%도, 반도 못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해약을 해버렸어. 애 엄마가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럼 사고 나면 돈 몇 억 받으면 뭐하냐. 죽으면. 애들도 태어나고. 애들 죽으면 장기 같은 거 기증하고 화장 시켜서, 돈 받는 건 난, 부모가 애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돈 쓰겠냐 난 안 쓴다고, 굶어죽는다 그거 안쓴다. 그래서 싹 해약해 버렸어. 나 죽어도 돈 있으면 어차피 죽을 사람도 살겠지만 그렇게 안 산다 이거지. 죽지, 차라리 장기 기증하고 화장 시켜라. 애 엄마는 그냥 꼬박꼬박 암보험이니 뭐니 하여튼.

**Q: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A: 애 엄마는 작년. 애 엄마가 이제 쉰 다 됐으니까 폐경기 오고 그러는 거지. 애 엄마가 자꾸 이상해져 자꾸 느낌이 막. 애 엄마 시인이예요. 이 글쟁이들이.

**Q: 아, 시인이세요?**

A: 글쟁이들이 생활은 다 빵점이에요. 50 먹었는데 김치 못 담그면 말 다했지 뭐.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내가 청소하고.

**Q: 그럼 여기 들어오시고 뭐 IMF 전까지는 일도 그냥 그러저럭 하시고, 시인으**

로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애들 키우시면서 이렇게 시도 쓰시고  
그러면서 사셨겠네요?

A: 예.

Q: 그럼 그 때는 네 분이서 같이 사셨어요?

A: 여기 농도 있고 책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애들이 크니까 이런 게 작아  
진겨. 그래서 싹 들어내니까 조금 나왔죠. 농도 없잖아요. 이 살림살이가.

Q: 그럼 그때는 계속 계시다가 그럼 200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생  
활보호에서 수급자로 되신 거잖아요 계속 이어서.

A: 그게 언제였드라?

Q: 2000년도, 2001년도 그때거든요.

A: 네, 그 정도 됐을 때요.

Q: 그럼 그때 언제 나가셨어요?

A: 9월 달, 이달.

Q: 아, 이번 9월 달이요?

A: 애들이 크니까 나보다 크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으려고 해요.

Q: 그럼 이번 9월 달 얼마 전까지는 계속 같이 사시다가?

A: 이거 방 수리하는 데 두 달 걸렸어요, 막 때려 부수고 막 두 달 걸렸어요.

Q: 그럼 사모님이랑 세 식구는 어디 다른 데?

A: 다른 데. 다른 데.

Q: 다른 데 가서?

A: 이 앞에 쯤.

**Q: 그럼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건 다 같이?**

A: 아니 따로.

**Q: 따로?**

A: 이혼, 서류만 이혼.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게 심각하게 애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치료를 받았는데.

**Q: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A: 네. 상담 받고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이게 1년 전부터 계속 받았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감기 걸렸다 나은 것처럼 금방 낫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진다 그래 갖고, 애 엄마를 격리수용 해갖고 치료를 시켜야 한대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애들, 난 괜찮은데 애들이 안 되겠어요. 애 엄마하고, 애들은 진짜 속 안 썩이니까 우리 애들은 진짜 착실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개들은 학원비 단 10원도 안 냈어. 장학생이고 해갖고 학원도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장학금도 타고.

**Q: 그럼 병원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 하실 정도인데 그래도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집에서 사시면서는 크게 뭐?**

A: 왜냐하면 애들을 붙여 놓은 거예요. 애들이 중심을 잡아 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있으면 자꾸 저기 좀 더 심하니까. 애들이 옆에서 잡아주니까. 난 또 있으면 신경 쓰이거든. 그러니까 난 안 되겠다 이거야.

**Q: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적인 얘기이지만,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건가요?**

A: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겹치고. IMF 겪고 술집 가고 했는데 어떡해.

**Q: 계속 그런 게 이렇게 막.**

A: 쌓이고. 난 또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 갖고 땅 사니, 집 사니. 난 일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Q: 그럼 IMF 지나고 나서는 제조업이나 건설현장 가서 이렇게 잠깐 잠깐 일하시고 그러시다가 2003년도에 기능대학 가서가지고 그 때 이제 기술 배우시고 그 뒤에는 또 일을 언제?**

A: 그 뒤에는 작년까지 다니다가 올해만 쉬는 거예요. 애 엄마도 그렇고, 나도 안 되겠다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니까. 몸이 힘들면 마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Q: 그럼 작년까지 일하실 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한 달에 얼마씩은 버셨어요?**

A: 한 달에 150만원 받다가 어떨 땐 두 달 일하고 한 달 쉬고 평균 잡아 1년 평균이면 100만원이 안 되더라고. 200만원 받으나 안 받으나, 노나 똑같아요.

**Q: 그러시다가 낚시 가실 땐 한창 가시다가?**

A: 이상하게 작년, 재작년까지 한 달에 200만원씩 별로 그랬는데 물론 1년이면 한 8개월 9개월 밖에 안 해요. 반 조금 넘어, 60%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원, 200만원. 안 버나 하면 좀 지금 놓고 한 30만원 받으나 이 30만원 이거 받으니까 밖예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일체. 이제 어디 낚시를 가도 세 번 갈 거 한 번 밖에 안 가고, 그것도 돈 들어가는 건 안 가고. 바다낚시 가고 이런 식이죠. 술, 담배는. 술은 슈퍼에서 사다먹고, 담배는 안 피니까, 또 차가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한 달에 10만원 갖고 살아요 나. 요 생활비 10만원 갖고, 내 용돈 10만원 갖고 30만원으로 사는데. 내가 하도 게을러 갖고 이거 기초생활 이거 안 끊어버리면 나 평생 혼자 그냥 책이나 보고 놀다가 낚시나 다니고. 일을 안 한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한 달 내 죽어라고 일 해 갖고 200만원 받아 왔구나.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노나 뭐 똑같은데. 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한 달에 50만원씩만 나오면. 30만원 주니까 작다고. 난, 다른 사람은 술, 담배 먹지만 난 담배를 안 먹잖아요. 안 피니까, 돈이 안 들어가



니까 난 그냥 군것질이나 하고 나이 50 먹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고 그런다  
니까, 콜라나 한 병씩 사다 먹고.

**Q: 뭐 약주는 많이 하세요?**

A: 아니요.

**Q: 그것도 많이 안 하시고?**

A: 그것도 술친구하고 안 먹고, 사다가 병에 담아 놓고 한 번씩 먹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만 원어치 사면 한달 먹는 거죠.

**Q: 그럼 진짜 여기 혼자 계시면 별로 돈 들 일 별로 없이?**

A: 돈 들 일이 없다니까. 요즘 살기 힘들니까 누가 술 먹자고 전화도 안 와요.

**Q: 그렇죠, 요즘에 뭐.**

A: 전화도 안 한다니까. 대한민국에 전화 요즘 5천원, 7천원 나오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걸 일이 없어요 그냥. 전화 걸면 그냥 술 한 잔 하자는 소린데,  
요즘 힘들니까 바쁘다고 못 만난다고 하지. 기껏 만나면 만났다면 식당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먹으니까. 뭐 둘이 먹으면 15,000원 2만원 이면  
뺑 나 버리는데. 술집에 가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 이제. 옛날에 군대 갔다  
와 갖고 월급 타면 제일 처음 식당에 밥값, 술값, 그 다음에 2차. 소주집하고  
맥주집.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 월급 타 갖고 모자라요, 그럼 그 다음 달로 넘  
겨. 일부터 넘기는 거야. 20만원, 30만원. 그러다 다 갚으면 안 줄까봐. 안 줄까  
봐 그러는 것보다 돈이 모자라는 거지. 그렇게 생활을 했어.

**Q: 생활을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하시고, 돈에 대한 개념 없이 필요하  
시면...**

A: 없으면 안 쓰고, 필요하면 빌려다 쓰다가 나중에 갚고 이런 식이여.

**Q:** 그럼 지금 빛이나 그런 게 많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A: 빛은 없어. 난 빛 단 10원도 없어. 그 대신.

**Q:** 잠깐 잠깐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것만 잠깐 빌렸다가 또 갚고?

A: 애 엄마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지. 그랬더니 카드 하나가 자꾸 안 되는 거야. 자꾸 빵구 나는 거야. 세 개 가지고 돌려 막아서.

**Q:** 아, 사모님은?

A: 거기 한 돈 천만 원 넣어 줬는데 그거 갖고 돌려막고 그래요.

**Q:** 근데 사모님은 지금 수입이 없으신 거죠?

A: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아이 엄마도 별도로 나오고 하죠.

**Q:** 별도로 수급자로 돼 있으신 거고? 선생님은 여기 계신 거고?

A: 애 엄마는 한 5~60만원씩 나올거야. 아들하고 딸 있으니까.

**Q:** 그럼 지금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는 거는?

A: 단 10원도 없어.

**Q:** 없으시고, 빛도 없고, 사모님 가지고 계신 현금 그거 통장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A: 그거 까먹든지 뭐하든지 알아서 하라 그랬지.

**Q:** 예전부터 그냥 별로 없으시고 그게 다?

A: 예전에는 좀 있었지. 있었는데 맨날 돈 있으면 돈 다 까먹을 때까지 뉘시가 다니고 노는 거야. 난 사람이 이게 딱 기댔 데가, 믿는 데가 있으니 그렇지. 난 장남이고, 장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호주제 없어졌지만 내가 호주

였어요. 집에 땅 있으니까 동생들은 다 결혼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배를 안 했어요. 재산분배하면 내가 손해인데. 그거 딱 떨어지고 나면 내가 뭐야. 팔아먹을 거면 몰라도 세금 뭐 하러 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Q: 그럼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은?**

A: 2003년도.

**Q: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럼 진안에 그 쪽에 여전히?**

A: 밭하고 산, 땅, 논 다 있죠. 동생이 거기 살고 있었요.

**Q: 아, 그쪽에 농사지으세요?**

A: 농사짓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하고 있죠.

**Q: 그럼 그 재산은?**

A: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명의로 다 돼 있어요. 세금만 나오는거여.

**Q: 그러면 자식들한테 하나도?**

A: 안했죠.

**Q: 어머니가 그냥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A: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거지. 돌아가셨지만 명의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세금만 나와. 죽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겨. 안 해놓고 있는겨. 사망 신고도 안 했어요. 우리 그 2005년도인가 동사무소에서 전화 온 거예요. 사망신고 안 했다고.

**Q: 어차피 시골이라 면에서 다 아시 텐데요?**

A: 아는데 사망신고를 내가 안 한겨.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 3년인가 고생하셨습니다.

Q: 그러면 최근까지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사신 건 아니네요? 부모님, 거기서 땅, 논 밭 다 가지고 농사지으시면서 그러셨겠네요?

A: 애들 다 결혼했지.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부터 부모한테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교육을 내가 그렇게 시켰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농사는 안 짓는다. 그렇게 힘들고. 농사지으면 보통 사람은, 도외지에서 태어났죠?

Q: 네.

A: 농사짓는 거 겨울에는 쉰다고 생각하죠? 겨울에 농사지어, 겨울에. 내가 장남이고, 장손이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어요, 방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자는 걸 못 봤어, 내가 딱 한 번 봤어, 한 번. 돌아가실 때 한 번 딱 누워 있는 거 봤어. 우리 어렸으니까 잠도 많았겠지만, 자다 깨도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불이 없고 옛날 목침, 나무 그것만 딱 있는 거예요. 허리 폈다 이런 식이라. 내가 누워서 자는 걸 못 봤어, 자는 걸. 겨울이고 뭐고 옛날에 인삼 농사 하는데 겨울에는 밭 엮고 옛날에는, 지금은 가마에 기계로 썬 오지만 옛날에는 이걸 다 썬어, 그걸 다 엮고. 겨울 내 이걸 엮는 거여. 난 농사 안 짓는다고, 난 굶어 죽어도 농사 안 짓는다고.

Q: 근데 농사에 대한 생각이 없으셔서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선생님 좀 생활하시기 좀 어렵거나 하면 부모님께 좀 의지하시거나?

A: 난 의지 안하고. 내가 여기 87년도 사고 났어요.

Q: 아, 손이요? 그럼 그 때 87년도에?

A: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갖고.

Q: 그 보상금은 그 당시에 산재로 뭐 이런 거 해 갖고 일시금 받으신 거예요?

A: 일시불로. 연금식으로 안 하고 일시불로 받아서. 가만 생각하니까 시골에서 농

사지으면 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농협이, 옛날 농협에는 이자가 이자 붙고 요새 사채마냥. 사채 시골에서 막 사채 쓴 거. 이런 사채가 아니라 시골에서 막 쓰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 농사짓고 하면 그거 반 이상 갚아 버리는 거예요. 난 돈 갚으면 반 밖에 없는 거예요. 반 갖고 농사짓고 또 모자라니까 빛이나 정리해 버리자. 그래서 농협부터 사채 빛까지 짝 갚았죠.

**Q: 아, 그 보상금 받으신 걸로? 그 당시에.**

A: 보상금. 그래 갖고 내가 한 40% 정도는 떼어 가지고 내가 한 1년 동안 낚시만 했어요, 그 돈 가지고.

**Q: 87년도에 제조업 하시다가 손 절단 사고 나서가지고?**

A: 예. 1년 동안 쉬다고 낚시 했어. 빛 싹 갚고 한 10% 남은 거 애 엄마 줌 주고. 생활해라.

**Q: 그럼 이 손사고 나시기 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시고?**

A: 그때는 뭐 그냥 술 먹기 위해서, 술 먹고 데이트 비용 쓸라고. 그때는 낚시를 그렇게 많이 안 다녔어요. 여자 좋아하고 그럴 때니까. 이제 애 엄마가 만나고 딱 자르니까 갈 데가 낚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절대 바람을 안 피고 술 먹고 잡기는 안 한다. 낚시만 한다. 그러니까 딱 믿은 거지.

**Q: 결혼을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A: 87년도.

**Q: 그럼 결혼 하시자마자 손을?**

A: 아뇨, 사고 나고 한 거예요. 이제 직장에서 아는 사이였어요. 직장 낚시 동호회에서.

**Q: 그럼 사모님도 낚시를 좋아하세요?**

A: 아니, 안 좋아해. 직장 낚시, 사무실 직원들하고 생산부장하고, 솟 놈들만 가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직원들 꼬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첩에는 어디 놀러가야 되는데 물가에 데려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상사가 가자는데 안 가나, 따라가지. 사고 났는데.

**Q: 그럼 사고 나시기 전에 결혼하시기로 했는데 사고?**

A: 아니요. 사고 나기 전에는 애 엄마하고 결혼 안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딱 났죠. 결혼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 나중에 연애하다가 질리면 결혼 하자고 친하게 지낸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있고. 사고 딱 덜컥 났는데 이제 정리를 사고 나가지고, 난 이상하게 군대 가서 속 차리고, 사고 나서 정신 번쩍 들고.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자들 정리 짹 하고, 사고 나서도 정리를 해 갖고. 나이 먹고 27인데, 결혼하기는 다 틀렸다. 한 손을 갖고 어떻게 사나.

**Q: 젊은 나이에 손을 다치셨으니까?**

A: 예. 내가 머리로 사는 놈이 아니라 손으로 먹고 사는 놈이었는데, 손 딱 다치고 나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생활하기는 틀렸다. 결혼하고 생활하기는 틀렸겠다. 혼자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꾸 면회 오고 그러더니, 또 혼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같이 오다가. 또 나도 이 여자가 괜찮고 보다보니. 좀 안 됐던가봐. 여자, 모성에 이런. 난 저기 처음에 올 땐 무지하게 반갑고 고맙죠. 너무 자주 오니까 부담감 느끼는 거여, 이제. 안 되겠다 그래 갖고 고맙긴 고마운데 난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다. 지금까지도 없고 이제는 자격이 안 되잖아. 그래도 오고 자꾸 그러더라고 요. 정이 들어 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나가고.

**Q: 그래서 결혼하셨구나?**

A: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이 들었잖아요. 텔런트나 영화배우가 예쁘면 뭐해,

내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쁘지, 정이 들어 가지고. 그래 갖고 이제 어떻게 같이 생활하고.

**Q: 그럼 손은 엄지랑 이렇게 새끼손가락하고?**

A: 다예요. 두 개가 다예요.

**Q: 지금 그러면 장애 등급 신청하신 건 몇 급이세요?**

A: 4급이에요, 4급. 그래 갖고 이제 한번 밤을 보냈는데 딱 하는 얘기가 나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난 여자를 일찍 알았어요. 난 좀 개방적이었어, 성격이. 시골에서도 결혼 안 하고 여자 좋아하는 건 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도 초등학교 때부터도 짝 있어 갖고 애는 내 꺼야 그러고 다녔어.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성격이었어요. 난 둘을 몰라요, 하나 밖에 몰라.

**Q: 근데 그럼 사모님은 직장에 같이 다니시다가 나중에 시 쓰시고 그런 거는 나중에?**

A: 시는 처녀 때부터 했어요.

**Q: 워낙 좋아하셨던 거예요?**

A: 나 만나고 이제 애 엄마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는 뭐 시나, 신춘문에 당선될 정도 아니면 말아, 그냥 아마추어로 살아. 친구들이 안 됐나 봐요. 그래 갖고 추천해서. 원래 경기도 안성 거기가 집이에요. 안성이 시인들이 많잖아요. 거기 추천해 갖고 창조문학인가 거기서 신인당선이라고 거기서 시인됐죠.

**Q: 그렇게 당선 돼서 그렇게까지도 하셨었어요?**

A: 그래 가지고 친구들이 시집도 내주고, 처음엔 내가 내주려 그랬는데 그때 친구들이 내준다고 해서, 자료 같은 거 준비하고 어찌다보니까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런가 몰라도 100편 정도 모으면 한 두 세 개 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밖

에 없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그래서 뭐 친구들이 시집을 내줬어, 자기들 용돈 내어 가지고. 내가 첨부터 시집은 내가 내 주겠다 그랬는데. 시를 딱 모아놓았는데 시집을 엮을만한 게 없어요. 애 엄마가 막 다듬고 이런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일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생활에서 자기 느끼는 걸, 느끼면 그 한 편 쓰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하면 몇 번 수정하고 그러는데, 수정은 잘 안 해. 그러니까 뭐 그냥 일기식이여, 자유시.

**Q: 그럼 지금은 저쪽에 따로 생활하시면서 뭐 지금도 시 쓰시거나 그러고 하세요, 아니면?**

A: 그걸 내가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직접 식당 다니면 토요일, 일요일 시 쓸 때는, 평일 날은 일주일 중에 일할 때니까 직장에 다니면 뭘 시를 쓰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어디 데이트도 못 나가고 갑갑하고 잠도 안 오니까 끄적거리고 그런 거 쓴 거지. 근데 나 만나고 일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놀려고 쉬라고. 책이나 보고 쉬라고. 그래서 대학 노트를 딱 사줬어요. 대학노트 사 갖고. 고무도장 보면 날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한 페이지 하나씩 찍어 놓은 거야. 한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하루에 하나씩 써라. 시를 쓰고 일기도 써라. 반강제적으로. 시하고 일기를 써라. 그렇게 하니까 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년 되니까 시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 그게 제일 나은 거. 그건 한 일곱, 여덟 번 수정하더라고. 수정하는데도 원 틀은 있으니까.

**Q: 원래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신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더 또 하라고?**

A: 만든 거지, 내가. 원래 글을 내가 더 잘 썼지. 옛날부터. 딱 내가 봐도, 직장 사보를 하고 그럼 애 엄마하고 나하고 밖에 안 올라왔어, 시가.

**Q: 아, 워낙에 선생님도 글 쓰시거나 책 같은 거에 관심 많으시고?**

A: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 집안 환경이 시골에 살아도 일은 안 하지, 만화책이나 보고, 소설책이나 보고. 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까지는 책을 모르고 글씨를 모르다가 내가 뭐 때문에 글씨를 알았냐면 만화책 때문에. 만화책을 한 3학



년 때부터 한 1년 동안 만화책보니까 질려버린 거야, 이제. 다른 애들은 만화책 못 사요, 나만 샀어, 만화. 나만 사서, 만화책을 사 봤다니까 70년대에. 그래서 내가 사면 동네 애들이 돌려보고. 실컷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설책. 소설책 좀 넘어가니까 이제 고전. 막 닥치는 대로. 나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간다고 그래 갖고 학원 안 가고 학원비 갖고 도서관 가서 이 도서관은 내가 접수한 거여.

**Q: 닥치는 대로 다?**

A: 40일, 35일 동안 방학 동안 책만 본겨. 이 도서관은 내가 접수한다. 책 목록을 보면 내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나중에 필요 없는 건 안 봐요. 한 달 동안 사서가 그러는 거예요, 2만권, 3만권 됐다고. 그러다보니까 잔소리가 여기서 생각해서는 느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본 걸 써부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말 잘 하잖아요. 개들이 뭘 알고 얘기하는 건가. 이걸 많이 봤으니까 막 본 걸 나오는 거예요. 앞 뒤, 구분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Q: 워낙 진짜 책 많이 보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걸 계속 그냥 책에 대한 거나 글 쓰시거나 그런 생각은 안하세요?**

A: 이제 전 글 쓴다는 건, 이게 말도 생각을 못 따라 가지만 생각이 막 안 되는겨. 그래 갖고 속기를 배웠어. 노트 정리를 보면 막 예쁘게 쓰는데 난 연습장에 쓰는 것처럼 노트에 막 썼다가 집에 와서 정리해요, 저녁에. 그게 한번 공부가 되더라고. 저는 시험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쓰는데 난 그냥 노트하고. 그래 갖고 집에 와서 정리해. 그걸로 끝나. 내가 성적에 관심도 없고.

**Q: 그럼 선생님 죄송하지만 대학 나오셨어요?**

A: 내가 저기 그때는 거시기 갔죠. 일류 대학 못 가고. 공주 사대 갔죠.

**Q: 그 때 그럼 졸업하셔 가지고 군대 갔다 오시고?**

A: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제 멋대로 하는 놈이 제 코스를 가겠냐고. 가다가 여자가 있으니까 낚시를 하다가도, 우리는 30년 낚시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 어때 하면 금요일부터 준비해요. 어디가 목적이 없어요, 딱 만나면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맨날 가던 데나 가고. 누구한테 솔깃 전화 오거나 누가 어디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거기 공주소대 가려면 선생 하러 가는 게 목적이지.

**Q: 네.**

A: 갔는데 여자 있으면 맨날 거기로 쪽 빠져버리는 거지.

**Q: 아.**

A: 임용고시 패스는 했는데 선생 하기는 싫은겨.

**Q: 아, 교사 자격증 다 따시고 다 했는데?**

A: 예. 하기가 싫은겨. 그래 갖고 뭐 사업을 한다고, 엄한 데 다른데 정신 팔려서.

**Q: 그러시다가,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하시고 선생님 안하고 그냥 그러다가.**

A: 옛날에는 교육대 같은 데는 2년제였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군대 안가고, 가기 싫으면 거기 가고. 근데 난 군대 간다고 그래 갖고 사대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회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은 선생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낫다고. 최고 공무원. 나 애들한테 교육공무원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교원 대학. 지금은 공주소대가 종합대학이 되어 가지고 시들해졌어요. 교원대학 보내려고, 교원대학 하나 있잖아요. 거기 나와야만이 선생할 수 있어요. 거기 보내려고 애들 인터넷 검색해 갖고 짝 보여줬어요. 너 여기 가라. 나 통장 하나도 없어, 나 돈 10원도 없어. 일류 대학 가려면 등록금 돈 천만 원 씩 나 없고 있어도 안 주고. 초등학교 애들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용돈을 1,000원을 주면 500원은 저금하고, 500원은 쓰는, 그걸 유치원 때부터 습관을 들여놨어요.

**Q: 선생님이 원래 그런 걸 되게 잘 못 하시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A: 그래서 나는 학용품 산다고 이거 샀은 적 있어요. 지들이 사고. 예를 들어 학용품을 자기가 노트하고 이런 걸 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너 만원어치 채워서 사지 마 7,000원이나 만원 넘었다 그럼 15,000원, 13,000어치 사와. 그럼 내가 5,000원 채워서 2만원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필요해서 13,000원 어치 용품을 샀지만 용돈은 난 2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학용품 13,000원 사고 2만원을 버는 거예요. 난 학용품 사라고 준 적이 없고,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13,000원을 제 돈을 쓰고 이 13,000원도 내 돈이지만, 이미 들어간 거지만 7,000원을 버는 거여. 2만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7,000원이 저축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통장을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유치원 때는 이제 통장관리를 애 엄마가 했지. 엄마 저금하면 애들 유치원 다니고 하니까, 유치원도 새마을 금고 들어가잖아요. 애 엄마하고 같이 가면 애들이 가고 하니까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애들이 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애들은 병원에도 가면 아파, 그러면 지가 병원에 가자 그래 갖고 엉덩이 딱 까고 누웠어요, 주사 딱 맞고. 애 간호를 원체 잘 해주니까.

**Q: 대개 뭐 교육 잘하고.**

A: 난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이 힘든데도 박사도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 집안 형님도 그렇고, 돌아가셨는데 담임선생님도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학교에 대한 것은 모르고 농사짓고 돈 버는 데만 관심 있지. 난 선생 해야겠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그냥 존경 받고 선생이 이 세상에 제일로 존경 받는 사람 중 최고다.

**Q: 아니 근데 그래서 어쨌든 사대까지 잘 가셨는데...**

A: 갔는데 가서보니까 이제 사회를 안거여, 돈을 알고. 현대사회도 왕이 있구나, 정주영씨가 왕 노릇 한 거지. 돈이 있으니 술집에 가면 여자들 굶실거리고 이건 왕이 안 부럽네. 선생이라고 하면 조용히 한 쪽으로 모시는 거예요. 개네들이 가면 쭉 나오고. 야, 그래 생각이 완전 오염이 된 거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망해버렸어.

**Q: 그러면 처음에 생활보호 수급하고 그런 건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A: 네, 애 엄마가 한 거고.

**Q: 잘 하셔가지고 된 건데, 그러면 그 뒤에 2000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바뀌고 할 때도 뭐 특별하게 그냥 사모님께서 다 알아서?**

A: 우선 지금도 통장은 딱 하나 있어.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애 엄마가 관리하는 거 이번 달부터 내가 관리하지.

**Q: 그럼 그렇게 서류상으로 이혼하신 건 언제예요?**

A: 6월 달인가 그래.

**Q: 그것도 올해하신 거예요?**

A: 그래 갖고 9월 달에. 같이 있으면 안 된대.

**Q: 그걸 누가 알려주셨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A: 이제 애 엄마가 하도 다니니까 어디서 들었나보지. 안 되겠다, 애들도 다 크고. 난 돈 안 드니까 여기 방을 갖다가 문, 문도 우린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문을 만들어 갖고 애들하고 따로 자고 애 엄마하고 자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원체 애들이 크고 생활이 안 되겠다 그래 갖고 생활이 안 되겠다, 방을 따로 따로 써야 되겠다 그래 갖고.

**Q: 그럼 지금 선생님은 판암 여기 1동, 사모님은 저기 건너편에 계시나요?**

A: 저기 가구동, 저 앞.

**Q: 그럼 저쪽에 사시는 집은 누가, 친척 분이 얻어주셨어요, 아니면?**

A: 거기는 저기했어요, 전세. 난 돈 안 댔지, 나 몰라. 돈도 없고.

**Q: 그럼 알아서 얻어 가신 거예요?**

A: 전세로.

**Q: 그럼 자주 만나세요?**

A: 안 만나요. 우울증이 심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더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전화 하고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Q: 그럼 자제분들은...**

A: 애 엄마하고 같이. 애들 엄마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학교 안 갈 때는.

**Q: 여기 잠깐씩 들리고요?**

A: 오도 안 해. 애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니까 지들도 바쁘지 뭐 이제. 지들도 이제 부모하고 슬슬 거리가 멀어진 거여. 지들이 평일은 바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교회가고 어찌고 그러면, 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낚시가면 못 만나고.

**Q: 사모님 집안은 좀 괜찮으신 집안이에요?**

A: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옛날에 포도밭이었어요. 그때 잘 살았는데, 근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해, 장모가 어떻게 해. 팔아버리고 여관 하다가 여관 안 되니까.

**Q: 지금 저쪽 동네 저기 전세사시면 꽤 비쌀 텐데.**

A: 몰라요. 난 전세야 뭐. 난 전세 안살아. 난 이게 젤 좋아. 관리비 안 들어가니까.

**Q: 저 전세를 누가 얻어주시고 그런 건 아니꼬?**

A: 애 엄마가 해결 했을겨.

**Q: 알아서 해결하신 거예요?**

A: 애 엄마가 인복이 있어서 그런가.

**Q: 주변에 조금 여유 있으신 친구 분들이나 뭐?**

A: 그런 건 없어요. 있어도 큰돈은 못 빌려요, 재주가 없으니까. 근데 전세 얻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했나 보지.

**Q: 그럼 저쪽으로 이사 가신지는 뭐 불과 한 두세 달?**

A: 9월 달에 갔어, 9월 달.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어.

**Q: 한 달밖에 안 됐네요.**

A: 처음에는 막 가슴이 무지하게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사람이 있다가 쭉 빠지니까 썰렁하고 답답하고. 근데 이제는 혼자 있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문 탁 닫아 놓고 팬티도 벗고 훌쩍 벗고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낮잠도, 자다가 졸리면 자고. 아 그러다보니까 근데 사람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제 낮잠은 안자고 저녁에만 자죠.

**Q: 그럼 사모님이 그 전에 일을 좀 하시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A: 돈 벌란 소리도 안 하고. 둘 다 그래요. 둘 다 개념이 없어. 아파트를 전세방을 전세 뭐 평수를 늘리니, 집을 사니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Q: 그래도 예전에는 두 분 다 직장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셨는데.**

A: 직장생활 해도 난 뭐 공짜로 먹으니까 돈 하나도 없고, 애 엄마도 그런 상태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서 시집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뭐 얼마 없었지만.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돈이 이거밖에 없냐고 했더니 돈이 뭐 필요가 있냐 이래.

**Q: 처음에 수급자 되실 때 사모님이 누구 통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A: 그건 아마 모르고 어떻게 그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누가 들었나보지. 전 아무래도 약국에서 들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약국을 자주 가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안 내고 약 타고 자기는 돈 내고 타가니까 그런데서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약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Q: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90년도,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병원 다니시는 거 그리고.**

A: 그렇죠. 처녀 때부터도 이상하게 처녀가 되면 혈색이 돌고 번뜩번뜩 거리고 해야 되는데.

**Q: 옛날부터 좀 많이?**

A: 덩치는 좋은데 좀 건강한 편이 아니지.

**Q: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선생님이나 저쪽에 따로 있는 가족 중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은?**

A: 나밖에 없지.

**Q: 선생님밖에 없으시겠네요. 애들은 어차피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일 하는 건 못하고...**

A: 애들한테 못을 박아놨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임용고시 합격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고 경험이고 뭐고 일체 하지마라. 그 동안에 놀아라. 그 시간 아깝게 돈 몇 천 원씩, 3천원, 4천 원씩 벌라고 하지마라.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핸드폰에 다 목에 매달아 놓았어. 그때는 이게 위치추적이 안 됐잖아요. 단축번호 이런 거 해 놓아가지고 번호만 눌러라. 어디 가게 되면 꼭 주고.

**Q: 선생님 기술이 좋으신가 봐요. 화장실 박아 놓으신 거랑 보니까.**

A: 이게 저 똑딱거리고. 낚시꾼이니까요. 난 손이 이래도 밤에도 눈 감고도 낚시는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여. 전자 이런 건 난 못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관

심 있다 보니까 하는 거여.

**Q: 손 다치시고 나서?**

A: 그 이전에도.

**Q: 그 이전에도?**

A: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만들고 그러면 막 아버지, 시골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덜렁덜렁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이게 타고 난거여. 물려받은 거여. 집도 옛날 시골집은 나무로 짓잖아요, 목수하는 사람만 딱 오면 집안사람들이 다 고쳐버리는 거야 똑딱.

**Q: 그때부터 손기술이 있으셨네요?**

A: 응. 장손이니까 나 없을 때 보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더라고. 나무 올려 가지고 큰 집을 짓는데 목수가 또 하고, 이거 하더니 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끌하고 정, 망치를 주더라고. 기둥을 딱 세우면 반듯하게 안 잘려요. 톱으로 썰면 세워지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하나면 오목을 파고 거기다 소금을 넣어요, 벌레 먹어 썩지 말라고. 그걸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해라. 나름 정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모양을 보여주고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너도 집 지었다 알아라 이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에 뭐 만들기 하면 똑딱하니 잘했어요. 집에 연장이 많으니까. 칼 같은 것도, 칼이라든가 만들고 그런 것도 지금도 연장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망치고 드라이버고 다 있어요.

**Q: 그러면 손 좀 장애 있으시고 그래도 어디 일자리 생기면?**

A: 일자리 생기면이 아니라, 난 딱 봐요. 일을 봐 갖고 저거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Q: 아직 그런 일을 못 만나신 거예요?**

A: 내가 돈은 필요하고. 앞으로 1년, 내가 기능대학 가면서도.



**Q: 기능대학은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A: 아니 저기 인터넷인가 어딘가 어떻게 알았나 몰라. 거기 이제 집으로 지어 갖고 그때 박정희 있을 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1기, 2기 나온 사람들은 한 자리씩 다해요. 과목이 23가지인가 그래. 근데 컴퓨터만 3D, 이걸 못 하겠어.

**Q: 그럼 어디서 찾으서 가지고 직접 가신 거예요?**

A: 네. 거기를 들어가려고 내가 1년 자리 직업전문학교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나오면 1차 기본적인 걸 배워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Q: 벌써 뭐 직업전문학교 다니시고, 기능대학 몇 년 다니신 거예요?**

A: 2년.

**Q: 2003년, 2004년 이렇게 2년 다니신 거예요?**

A: 하여튼 컴퓨터만 못하고 나머지 똑딱 거리고 만들고, 자르고 쇠 같은 거 붙이고 그러는 거 아주 잘했죠. 근데 컴퓨터를 못해. 안 돼.

**Q: 그럼 2004년도에 거기 졸업하고 나오셔서 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추천 받으셔서 가지고 일하셨다 그랬죠? 거기 일 하신 건?**

A: 2004, 5년, 6년 한 2년 반했나? 3년?

**Q: 아, 3년을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 하신 거예요?**

A: 그때는 내가 설비 전공을 했거든요. 쇠 무거운 거 못 하겠더라고요. 냉난방, 에어컨.

**Q: 안에 부품 만들고 이런 거?**

A: 빌딩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에어컨 같은 거, 에어컨 설치. 설치하고.

**Q: 그걸 3년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4~2006년도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A: 응.

**Q: 그 때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씩?**

A: 아니. 200만원씩 받았지.

**Q: 아, 그럼 그때도 여기 계속 사시면서 그냥 기초 수급도 계속...**

A: 그거 한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애 엄마 병원비도 안 되고. 그 대신 내가 통장으로 안 받았어요. 현찰로 받았어요.

**Q: 아.**

A: 이것 때문에. 공사장 한 일주일 하고 한 달 쉬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Q: 그 회사에서? 돈 받으실 때?**

A: 날 임시직으로 써 놔라. 250만원 준다는데 나 50만원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왜 안 받냐 그래, 내가 수급자인데 내가 몸 건강하고 애 엄마도 건강하면 나 안 하겠는데 차압하고 이런 건 없지만 내가 병원비를 못 받으니까.

**Q: 아, 병원 다니셔야 되니까?**

A: 내가 수급자를 해야 되겠다. 이번부터 등록금 면제가 없어졌잖아요. 애들 이제 보장이 됐고, 임용고시만 딱 합격만 하면 내가 10만평씩 준다고. 애들하고 딸하고. 살림살이 먹고 살라고. 등기를 니들 앞으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Q: 아, 할아버님 거 안 돼 있는 거 하시면?**

A: 앞으로 7~8년 되니까 2010년도 되면 계산이 딱 떨어져요. 급한 건 애들이여, 동생들이. 아직까지 동생들이 딱 해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시골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놈은 9천억도 남들 등기만 하면 남는거야. 그때 가면 가정이 어느 정도 애들 다 뭐 애들도 나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커요. 그럼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애들 결혼하고 어찌 하려면. 지들이 먹고는 살지만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때 한꺼번에 팔아 치우려고 하다가. 원래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아버지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다. 땅이나 팔자. 아버지 건데 안 판다 그랬어. 원래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버지 맘대로 못 하는 거지. 아버지 등기 앞으로 자기 거지만 맘대로 못 파는 거지. 생각을 해봐. 아들, 장남 장손이 안 판다는데. 보통 장남, 장손들이 팔아 갖고 결혼하고 살림하고 그러잖아.

**Q: 그럼 그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였어요?**

A: 대전에 있는 회사. 전국적으로 에어컨 설치하는 데가, 빌딩 지으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막 설비랑 에어컨만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하려면 일주일, 한 달을 거기 가서 일을 해요.

**Q: 현장에 가서 계속 계셨겠네요?**

A: 에어컨 기사만 에어컨만 덜렁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하나 설치하려고 딱 가면 한 달을 가서 일을 해요, 빌딩에서.

**Q: 빌딩에 실내 천장에 실내 에어컨?**

A: 폐관 빼고 에어컨 보일러. 우리 내부 설비를 다 하니까. 한 달을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Q: 근데 그 월급 현금으로 받으시는 건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A: 임시직으로 써라. 임시직으로 쓰고, 다른 사람들 보통 같이 가면 10만원, 20만원 덜 줘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만원, 20만원 더 줬더라고. 난 성격이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성격이라. 이게 급해서 이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일을 딱 보고 가서 하면 내 컨디션에 따라 일을 해요. 오늘은 많이 하고 내일을 조금 하고. 이런 사람들 패턴 맞추고 이런 건 못해 난.

**Q: 그때 계속 일하실 때도 여기 동에서 담당자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A: 집에 오면 맨날 있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뭐.

**Q: 그때 일을 하셨잖아요?**

A: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달에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 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고 조사만 오는 건데. 일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 서류상 근거잖아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없는데, 실직자인데. 우리야 뭐 건축 일 다닌다.

**Q: 그럼 그때 기능대학에서 추천해줘 가지고 에어컨 설비일 하러 다니실 때, 3년을 일하시면서 일 년에 한 6~7개월, 7~8개월 일하신거죠. 그럼 한번 일하실 때 이렇게 현장 가서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계시다가?**

A: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장이 교인이예요, 크리스천이라.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 6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 일찍 끝나고 집에 오고.

**Q: 어디 뭐 딱 도시에 가시더라도?**

A: 가더라도 오고. 여기서 2~300km 정도 되는 데는, 저 뭐.

**Q: 그럼 담당자가 와서 만나 뵙고 그럴 때는 선생님 일 없어서 쉬실 때 왔어요?**

A: 그런 건 뭐 애 엄마가 있는데, 애 엄마가 다 처리하는데. 여기 뭐 조사 안 나오잖아요. 일 년에 뭐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그게 경비들이 와 갖고 도장이나 받고. 서류상으로 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또 재산이 없으니까. 돈 10원도 없잖아요, 재산, 통장에 돈 10원도 없지, 재산 10원도 없지.

**Q: 통장으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

A: 어떻게 보면 내가 이용해서 먹고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어

요. 근데 차가 없지. 그러니까 뭐.

**Q: 그냥 그때도 일 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시니까.**

A: 현금 받아 갖고.

**Q: 현금 받아 갖고 뭐 통장에 넣어 놓으시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A: 생각을 해봐요, 한 달 생활 하는데 뭐 줄 거 다 주고나면 통장에 넣을 저기가 어디 있어요? 공과금 나가는 거 자동이체 그것만 한 30만원, 한 40만원만 통장에 넣고 쓱 빠져나가면 돈 한 만원, 2만원밖에 안 남고 그런데 뭐.

**Q: 선생님 그 수급자 저기 하실 때 선생님 그래도 일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A: 나는 나오라 그러면 공공근로도 나가고 할 건 다 했어요.

**Q: 아, 그런 것도 다 하셨어요?**

A: 신청했지. 공공근로도 다녔고, 겨울에는 일거리 없다고 할거냐고 하면 한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불러달라고 했지. 근데 지금 있는데 나이 든 사람만 부르고 젊은 사람은 안 부르는 거지. 일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Q: 아, 여기도 얼마. 그럼 뭐 저기 그런 거는 좀 들어보셨어요? 근로 능력이 지금 4급이라 그러셨잖아요. 4급이라도 일 하실 수 있으면 일을 하는?**

A: 네, 공공근로 하면 부르기만 하면 간다고 했어. 지금 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뭐 쓰레기나 좀 줘고 간단한 거.

**Q: 그럼 여기 담당자한테 그런 설명은 들으셨어요?**

A: 예.

**Q: 선생님 혹시 연세도 그렇고 근로 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조건부과 자활사업, 자활근로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그거 나오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A: 예. 하기도 했어 또.

Q: 여기 동사무소 가서 일하기도 하고?

A: 애 엄마도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어떡하나. 아프면 그렇지만 안 아플 때 아줌마들하고 쓰레기도 줍고 뭐 그러더라고.

Q: 아 그것도 하셨구나. 근데 지금은 안 부르니까?

A: 그래 갖고 저기 노동청 거기 구직 신청 다 해놓고. 가 갖고 보면 다 어디 산골짜기. 한 번은 이제 여기 커피점에 가 갖고, 다방에서 담당자 만나 갖고 차 딱 탔는데 저기 충북 어디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한 세 시간을 걸쳐서. 가서 딱 보니까 죽어도 못 하겠어. 난 좌우지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출퇴근 하는 데어야지 돈 몇 억 줘도 안 하지. 출장가면 난 못한다.

Q: 예전에 에어컨 설비하실 땐 그렇게 생활을?

A: 그때는 그렇게 했죠, 평일 날. 저 멀리 부산이나 멀리 가서 일주일간 있는 데는 난 안 갔지. 난 안 간다. 안 가고 하루 이틀 자는 건 몰라도 일주일, 한 달이면 난 못 잔다. 저기 서산 이런 데 가면 여관 같은 데 얻어 놓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한 4~5일 일하고 집에 오고 이런 건 했죠. 근데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난 못 있는다. 좌우지간 난 토요일 날 낚시는 가야 돼. 난 교회는 안 가도, 애 엄마하고 애들은 교회를 가도 난 안 가지.

Q: 근데 그 중간에 3년 동안 1년에 몇 개월씩 일 하실 때, 그때는 기능대학 졸업하신 지 얼마 안돼서 바로 일하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담당자도 기능대학 다니시고 한 거 다 알죠?

A: 서로 다 알죠. 거기서 돈 주고...

**Q: 추천해 가지고 일 하시고?**

A: 장애인 공단에서 등록금 다 대 줘가지고. 거기 가면 생활비까지 주잖아요. 집안 가장이 가니까 생활비까지, 내가 직업훈련이나 학원가면 생활비까지 나와요, 교통비까지 나오고. 내가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웠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Q: 그때 기초보장 급여 나오는 거 말고도 또 거기서?**

A: 학원비 나오죠. 학원비, 교통비, 밥값 이런 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 수 당 조금 해 갖고 한 돈 10만원 씩 나오고.

**Q: 그거 졸업하고 그러면 에어컨 설비 일하러 가는 거는 여기 담당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A: 알죠.

**Q: 알았어요, 그걸?**

A: 왜냐하면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 같은 이런 데 나오면 의무적으로 취업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나 3개월만 다녔다 젊은 애들하고 못 하겠다, 나 3개월만 다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Q: 아 그럼 여기 담당자는 3개월만?**

A: 의무적으로 기능대학에서도 사후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3년을 해야 돼요. 3개월만 딱 하고. 기본이 법적으로 기본이 3개월이더라고요.

**Q: 아, 실제로는 그냥 다니면서?**

A: 다니는데.

**Q: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3개월만 하시고 그만 둔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A: 실직자가 된거여.

**Q: 근데 어쨌든 선생님 근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오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 오라 그러고?**

A: 공공근로 오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건축 공사장에 가면 5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3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공사장 끝나고 갈게요 하고 가면 끝난 거요.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건축 공사장 다니고 있어요, 일당 받고.

**Q: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안 가신 거예요?**

A: 여기 5만 원짜리인데 뭐 하러 3만원 받으러 가냐 이거예요, 없을 때만 하는 거여. 없을 때만. 내가 이제 밖에서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겨울에만 가는거요. 5만 원짜리 있는데 뭐 하러 3만 원짜리 가요? 2만원 인가?

**Q: 그럼 5만 원짜리 일하시면 수입이 있는 걸로 잡히니까 급여가 줄잖아요?**

A: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두 달 일 하고 한 달 쉬고 석 달 하고 한 달 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한 100만원, 90만원 수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나가도.

**Q: 그럼 예전에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사실 때도 선생님이 수입 있는 걸로 잡혀 있으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겠네요.**

A: 많이는 안 나왔죠. 4인 가족에 뭐 250만원이 한정인데, 들어온 돈이 한 100만원 된다 그러면 100만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만원, 6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이 반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반은 벌어먹고 살고 있다,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이 되는 거지.

**Q: 그럼 그때도 여기 건설 일용 나가실 때는 며칠씩 일하는 걸로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지면 겨울에?**

A: 여기 공공근로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맞아요. 여기 일 있을 때 다른 데는 무지 바쁘다고, 저기 한가하면 여기는 일 없는 거지. 그러니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에 일 생겼으면. 그러다 보니 여기 공공근로는 못 가는 거지.

**Q: 이번에 사모님하고 이렇게 떨어지시고, 분리하시면서 여기서 또 무슨 담당자가. 선생님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시잖아요?**

A: 3개월 동안은 기초생활, 3개월 지나면 안 해준대요.

**Q: 아, 이 분이요? 여기 담당자가 그랬어요?**

A: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3개월은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대요. 근데 3개월 후에는 안 될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Q: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A: 예. 그래 갖고 공공근로 해야 한다. 나 공공근로 하겠다. 그거 공공근로 해도 난 저기가 돼요, 장애인이라. 기초생활 떨어지지 않는 건데, 떨어져도 뭐 상관없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급자라 거기서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난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Q: 그럼 사모님하고 여기서 떨어지시면서 그걸 다 알고는 있네요, 동에서도?**

A: 서류가 다 올라갔는데.

**Q: 왜냐면 동에서 이렇게 다 사모님 다 다른 동으로 가시니까?**

A: 서류가 딱 분리가 됐는데. 의료보험 카드도 딱 떨어졌는데.

**Q: 그럼 9월 달에 이렇게 서류 딱 주민등록등본?**

A: 여기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왔었어요.

**Q: 아 왔었어요?**

A: 나 저기 이혼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다 짐 쌓아 놓고 있었지. 동사무소에서 왔었어요. 기초생활 조사 왔었어요.

**Q: 그 분이 와서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좀 봐 드리는 건데 그 뒤에는?**

A: 우리는 이제 한시적이죠. 수입이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내가 취업이 됐다 한 25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근데 250만원 어떻게 받아, 100만원도 안 주려고 하는데,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데.

**Q: 예전에 기능대학 마치시고 그 3년 일할 때는 담당자가 그때는 일하시는 걸 몰랐을 거고?**

A: 알았죠. 처음에는 알았죠.

**Q: 처음에 3개월만?**

A: 그 다음부터는 몰랐죠. 내가 안 다닌다는데 뭐. 알아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Q: 이번에 담당자는 저기 때문에 아셨겠네요?**

A: 이혼하고 나니까 여기 왔지. 뭐 일 있으면 실제 조사하러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 상 보고 전화하고 그러지. 뭐 일이 없으면 그냥 전화하고.

**Q: 그럼 지금 9월부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럼 나중에 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A: 이제는 뭐 공공근로 있으면 한다고 하지. 무조건 한다고 해. 나중에 못하면 이 유를 델망정, 그렇게 해 놔야지 일도 안 하고 먹고 놀려고 한다 그러면 괜히 욕 얻어먹잖아.

**Q: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공공근로든, 여기서 어디 자활사업 뭐 이런 거 가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으시고, 그냥 가서 일 하시**

고 대신에 여기 이 집에 계속 수급자로 있을 수 있고 급여 조금씩 나오고 거기서 뭐 돈 좀 주고 이러면 크게 불만 있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지요?

A: 난 노인 연금 타 먹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Q: 아 수급자로 그냥 그 자활 그렇게 하라 그러면?**

A: 이제 2~3년 안에 애들 대학 들어가고, 아들하고 딸하고 대학 졸업하면 2013~4년 되니까 그 때 이제 집안 재산정리 하고 이제 노후 생활 해야지.

**Q: 그러시구나.**

A: 내 앞으로는 땅 한 평도 등기로 안 한다. 모르지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세금 내고 골치 아프게.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 생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럴 때. 부모가 이제 부모로서 자식들이 살게 하계끔 집이라도 한 칸 사주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식이 부모 빚을 갚아 줬으니까 마음의 짐이 있을거라 생각을 해요.

**Q: 어머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 집에 빚, 손 다쳤을 때.**

A: 집안사람들이야 다 알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알지. 왜냐하면 3년 전에 지어 갖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쓰고도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거야. 누구네 집에 몇 십, 몇 백만 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가서 보면 서류, 줄 사람은 갖다 써서 딱 끝나버렸지만 받을 사람은 이제 받아야 하니까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 빌린 사람이 서류 갖고 있겠어요? 한 두어 장 석장, 한 300만원 있을 거라 가서 보면 한 5~600만원, 돈 1,000만원. 세배 네 배가 있어요. 그거 300만원 있을 거라고 300만원만 갚고 와요? 다 갚아야지. 가서 보면 이게 원금은 한 700만원인데 이자는 막 3~400만원이면 무지하게 아깝잖아요 이거. 나 이제 살 팔아서 피 팔아서 사 온거다 이자. 은행이자만 딱 갚고 사채 이자는 끝났다. 은행 이자 그때 10%만 딱 끊어요.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말고. 서류 내가 딱 쥐고 탁 퍼. 찢어버리는거야. 찢어버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원금 딱 주고 이자는 찢어버리고 나오는거야. 이자에 대한 거는 없어. 시골사람들 계약서에는,

은행에는 이자 계약서 있지만, 시골 사람들 계약서에는 원금 빌려간 계약서만 있어. 원금 700만원 딱 내놓고 딱 찢어버려. 이자는 은행이자 10%. 한참 계산해. 몇 년 계산해 갖고. 이거 필요 없어 은행이자 10%.

**Q: 이번에 담당자가 와 가지고 그 이야기 할 때, 선생님 예전에 직접 장애 이거 말고는 근로능력 이런 거 관련해서 진단서 제출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죠? 사모님 말고. 사모님은 어디 아프시고 그러시니까.**

A: 애 엄마는 이제 일을 못 하지. 애 엄마도 이런 거 했었어요. 직장에 안 다니고 리서치 같은 거 설문 조사. 애 엄마도 공공근로 했다니까요.

**Q: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단서 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A: 일을 못 한다고 진단서 낸 거?

**Q: 네.**

A: 그런 건 없었죠.

**Q: 예전에 기초생활 수급 딱 되고나서 직업 훈련 받는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 2년 다니시고?**

A: 직업훈련이나 기능대학은 다 취업하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돈 대주고, 동사무소에서 돈 대준겨.

**Q: 동사무소에서 그걸 알고 계셨죠?**

A: 취업하려고 저 사람 기술 배우려고 갔다니까 지원을 한 거여.

**Q: 그렇죠. 그때는 뭐 일을 안 하려고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게?**

A: 난 일을 안 한다고, 난 일은 하는 데 돈을 막 야간 수당을 받아 갖고 집을 사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야. 기본 정량. 내가 한 달 일, 하루 8시간 근무 딱 기본적인 거 하고 야간 근무도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스타

일이에요. 내가 돈을 더 받으려고 야근 하는 게 아니라.

**Q: 어디 사실 직장 생활하시는 건 좀 쉽지 않겠네요.**

A: 전에 직장 생활 할 때도 야근 하려고 하면 그 담당자가 와요. 야근 할래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딱 왔으니까 야근하려고 하면 퇴근하려는데 딱 불러 그러면 야근하라고, 그럼 뭐 소리여,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근 딱 올리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요, 나 야근 안 해요.

**Q: 그런 경우에는 오래 못 계실 거 아니에요?**

A: 그래 가지고 내가 야근 안 한데 왜 야근시키냐고. 나 안 한다고. 이거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틀기 시작하면 틀어져요. 희망자만 해라. 그래 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 짤릴 이유가 없는데 자기 근무 시간에서 하고 가는데. 내가 낮에도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든 일을. 나 안 할래요. 나 집에 가서 술 먹고 잘란다고.

**Q: 그러니까 선생님은 돈에 대한 욕심보다 일을 해야 될 때는 딱 하시고, 뭐 여기서도 담당자가 와서 뭐 해야된다 그러면 일만 있다고 부르면 딱 가서 하시고.**

A: 그렇게 딱 바뀌었으니까. 이제 담당자가 와 갖고 일거리 밀렸으니까 야간에 해야 한다고 나 안 해요. 다른 사람 불러다가 하라고. 점심 먹고 쉬는 시간만 하고 계속 일하지 않냐, 담배 피고 술 먹고 낮에 다른 사람보다 30% 내가 일은 더 한다.

**Q: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쨌든 일 자체가 싫으신 게 아니고 내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하시고, 이제 내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어야 되는거고.**

A: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난 직장 다니면서 난 돈을 더 받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덜 하는데 야근 안 하는데도 돈을 더 받았어요. 왜

냐하면 한 달 지나고 보면 일이 틀리거든요. 그래 갖고 한번은 저기 조그만한 가네보꼬(?) 집에 거기를 들어갔어요. 야근을 하고 야근하면 낮에 힘들잖아요. 낮에 힘드니까 낮에 그 다음 날 일을 못 해요. 야근 한 놈보다 낮에 일만 한 놈이 일을 더 많이 내 놓았어요. 그래 갖고 생산력이 틀리거든. 그래서 월급 탈 때 우리 토요일 날 쉬자. 그랬더니 처녀, 총각들이 아가씨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많이 나오는데 토요일 날 일하고 있으면 아가씨도 못 만난다. 그 대신 일주일 일하든 하루 일하든 한 달 일하든 금요일까지 일 만들어 놓겠다. 생산 제조업이니까 딱 통밥이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시험 삼아 한다 그랬어. 한 달 해 보니까 평상시 나온 것보다 20%가 더 나온 거예요 토요일 날 쉬고도.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쉬자. 사장은 전기세도 안 나오지, 인건비도 덜 나가지 좋다고.

**Q:** 지금도 선생님 생각은 그런 거는 확실하신 거네요? 일 해야 할 땐 딱 한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지금 선생님 일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자활근로나 이런 거 하러 와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A:**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봐요. 학원가고 싶어 애들 막 다섯 개, 여섯 대 다니지만. 지가 가고 싶다고 하면 저녁에 와갖고 나 학원가고 싶어 그러면 애 엄마한테 교육을 딱 시켜요. 애 엄마 딱 들어가 갖고 애 엄마가 애 데리고 학원에 가요. 애 엄마가 학원에 가서 쇼부를 보고 오는 거예요. 애 엄마가 애는 학원가고 싶다고 하고 난 돈이 없습니다. 그럼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학교에 서류 갖다 주고 하면 다니는 거예요.

**Q:** 담당자가 지난번에 와 가지고 그 때는 그 지금 당장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나오시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A:** 가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하고 있는데 안 불러. 내가 보니까 뭐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거 그런다니까 나이 드신 분은 시키고 난 아직 젊은 놈이니까. 한 3개월 동안 돈 나오고 들어가고 했으니까.

**Q:** 그럼 3개월 동안은 일자리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해주고?

A: 그런 거 안 하죠.

**Q: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A: 예. 9,10,11월까지는 일을 나가나 안 나가나 돈을 더 준다 이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공공근로 한다든가 수급자 이런 거 조사를 한다는 거지. 수급자를 1년에 한 세 번씩은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Q: 네. 그때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하는 자활근로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기업처럼 일할 수 있는데 이런데 소개시켜 주신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A: 그런데 1년 내내 365일 한 번도 안 왔어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리고 저 노동부 직업센터에 가서보면 맨날 그런 데고. 장애인 업체에서 와 갖고 보면 일당도 싼 데고. 또 난 그런 데는 안 가죠. 그런 데 가면 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난 겨울은 쉬고. 11월 12월 1월 2월 한 3~4개월은 겨울에는 쉬는 거여. 근데 겨울에도 일거리가 있지, 공사는. 근데 이제 아파트나 빌딩, 겨울에는 땅 속에서 일을 하면 상관없어요. 올라오면 몰라도 지하에서 겨울에도 한다고. 어떤 때는 겨울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Q: 요즘에는 거의 월급 같은 거 현금으로 주고 그러는 데 별로 없지 않아요? 다 통장으로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아요? 4대 보험도 그렇고? 그건 아예 선생님이 가셔서 얘기 하시는 거예요?**

A: 난 250만원 쥐 갖고 다 세금 내느니, 200만원 주고 나 50만원 안 받고 그냥 세금 안 받겠다 그렇게 현찰을 주라.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는 거 불편하냐,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경리가 주는 건데. 가불도 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경리한테 돈만 타가면 되는 걸. 간단하잖아요.

**Q: 그렇게 얘기들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A: 지는 50만원 덜 주고 난 50만원 덜 받고, 그 열 배 이상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Q: 그럼 그 전에 에어컨 설비 하실 때도 뭐 4대 보험 들거나?**

A: 거기는 이제 직장에서 단체 보험 들고, 개인 보험은 안 들고.

**Q: 개인으로 4대보험이나 연금은 하나도 안 들고?**

A: 안 들고. 이제 저기 기능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4대 보험 되는데 다녀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는 보험회사에 돈을 냈죠.

**Q: 아, 기능대학 마치시고 3개월 다니실 때?**

A: 그때는 서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규격을 맞춰줘야 하니까 그래요. 3개월 딱 되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안 나가냐 하니까 일 하기 싫다고.

**Q: 그러니까 그러면 기능대학 마치시고 3개월 동안은 다른 회사 다니시다가 3개월 딱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 회사로 옮기신 거네요?**

A: 아니. 기능대학에서 아예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3개월 동안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Q: 아,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A: 3개월 딱 다니고 퇴사가 된 걸로 만들어 버린 거지.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일용직으로 된 걸로.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 난 일을 다니고.

**Q: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 하셨군요?**

A: 내가 먼저. 처음에 250만원 준대. 뭐 250만원 주다 그러냐고.

**Q: 선생님 그럼 잠깐 쉬시는 동안에는 공공근로 같은 거 거기 나가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자활근로?**

A: 내가 몇 번을 안 나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꼭 바쁠 때 불러요. 그쪽에서 5만원씩 버는데 여기 3만원. 그러니까 있어도 나한테는 그냥 5만 원짜리 받으러 가



지, 3만 원짜리 일하러 안 온다. 아예 전화도 안 하고.

**Q: 그럼 여기 5만 원짜리 일하러 가실 때는 좀 소득으로 잡고?**

A: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돈이 나와도 50%는 수입이 7~80만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Q: 여기 일하러 가시기 전보다는 급여가 깎이긴 깎였겠네요.**

A: 그렇죠.

**Q: 이쪽일도 아주 계속 나가시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며칠 일하시는 걸로 잡았고. 그럼 그거는 가서 말씀하셨어요? 나 여기 공공, 자활근로 못 나가고.**

A: 못 나간다고는 안 하고, 불러만 줘라. 겨울에 일 없을 때라든가, 나 일 없을 때.

**Q: 그 당시에는 여기 가셔야 되니까 여기 못 나간다고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A: 더블 댕을 때는 못 나가지. 그 사람들도 알아요. 여름철에 일 많을 때는 공사장에 5만 원짜리 거기 갔다. 근데 겨울에는 일거리 없을 때는 거기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하고 자기가 배고프면 알아서 밥 차려 먹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도 공무원인데.

**Q: 근데 여기 지금 나가셔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며칠 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A: 이제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정비, 좀 힘든 거 이런 거 도로 뚝 풀 베는 것 힘든 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되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공공근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간단하게 할 일이 있고, 힘써서 할 일 있고.

**Q: 그거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A: 재밌죠,

**Q: 할 만하다 그러셨어요?**

A: 가서 지각만 안 하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건데,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지. 젊은 놈이니까 도와주면.

**Q: 그럼 그냥 계속 월급도 조금 주시고 급여도 조금 나오고 수급자도 계속 유지하고?**

A: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고 생활만 하는 거야, 생활만. 이제 우리가 돈 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빚이 안지고 있고, 애들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좌우간. 내가 빚 안지고 애들 크고 있으니까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Q: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기 사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수입이 많지 않고 급여가 많지 않아도 여기 10만원만 내면 그냥.**

A: 1년에 120만원만 딱 집어넣으면 나가란 소리 안 하니까, 돈만 내면.

**Q: 그렇죠. 지금 다른 데 월세 구해도.**

A: 혼자 산다고 해서 나가라, 가정이 없고 혼자 산다고 해서 나가라 이런 건 없으니까. 일반인도 살잖아. 일반은 돈을 조금 더 내면 돼요. 혼자 살아도. 이 옆집 아줌마 과부인데, 추석 때 한번 얼굴 뵈고 안 뵈. 애들 손자들 와서. 이거 빈방이 놓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 살림 가정 있고 식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밀려서 못 들어온다고. 법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돈 내니까.

**Q: 그럼 어쨌든 여기서 불러만 주시면 그 일도 그냥 하시는 거는 즐겁게 하시는 거군요?**

A: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격이 있으니까. 놀면서 뭐 나가라는데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 있는데 어디 다니고 있습니다. 3만 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5만 원짜리 나가겠다고 하면 거기 나가라고 하지. 여기 나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Q: 선생님 지금 그러면 사모님이랑 다시 합치시고 그건?**

A: 이제 저기를 봐야 돼요. 이게 우울증이 증세가 어떨지. 지금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한방에 있으니까 문제없는데. 애들이 대학 가고 그러면 걔들이 기숙사로 간다거나 가서 공부한다고 그럼 혼자 있다고. 혼자 있으면 어떡할 건데. 혼자 있을 땐 불러들여야지.

**Q: 근데 서류상으로 이혼까지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A: 해야 된대요.

**Q: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A: 왜냐하면 따로 살아야 되고, 따로 살면 방을 얻잖아요. 내가 여기 살면서 방을 얻어갈 정도면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따로 사는 돈 어디서 냈냐 이거지. 돈 문제도 그렇고, 우울증이니까 좀 쉬어야 한 대요. 쉬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 갖고 가고 나서 전화하면 사용을 꺼 놓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지를 시켰어요. 그럼 조용히 있어라. 뭔가 힘든 것 같아요, 느낌에. 나 같이 이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혼자 끙 하고 있어요, 꿈 마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쉬어야 되겠다.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라, 내가 애들을 데리고 있겠다.

**Q: 본인이 또 원하시지 않고,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A: 병원에는 입원은 안 하겠다 그러고. 애들이 또 위안이 되고 하니까.

**Q: 나중에 그러면 자제분들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혼자 되셔도 생활은 이렇게 같이, 보살피 주셔야 되니까.**

A: 보살피긴 뭐 지가 알아서 해야지. 배고프면 지가 밥 먹어야지.

**Q: 그래도 주민등록상으로 서류상 이혼 한 걸 다시 합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겠네요.**

A: 아들 좀 있으면 군대 가고 딸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기숙사 있는 데로 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2학년이니까 한 2~3년 있으면 그때까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낫고 심해지면 딸내미는 기숙사 있는 데로 보내고 아들은 군대 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기숙사로 가든가 아님 방을 하나 얻어주고. 그때까지도 안 낫고 그러면 입원을 시키든가, 입원을 해도 안 해도 되고 나랑 같이 있겠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오려고.

**Q: 근데 그러면 다시 저기를 합치셔야 되잖아요.**

A: 그때는 뭐 혼인 신고만 하면 되잖아. 이혼은 힘들어도 혼인신고는 갖다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잖아.

**Q: 그럼 이번에 서류 정리하시고 그런 거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A: 우리가 했어요. 내가, 애 엄마하고 둘이. 요새는 아주 편해죽겠어 아주 내가. 문 딱 잠가 놓고 팬티만 입고 다녀. 팬티도 벗고 다녀 막 어떤 때는.

**Q: 그럼 계속 일거리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일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A: 해야죠.

**Q: 선생님 생각하시는 일이 어떤 거세요? 딱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수급자에서 떨어지고 뭐 그렇더라고 내가 가서 일 하겠다 하는 것은...**

A: 손으로 벌어먹는 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도, 나 고등학교 학원 다니기 전에도 대학 수업 들을 때도 공사장 건축 공사장 아파트 지을 때 거기 갔어요. 한 눈에 보면 다 보이잖아, 일이. 못 빼고 손으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건 못 해.

**Q: 근데 저런 데 가서 일을 계속 한 달 이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보통 2~300만원 받나요?**

A: 지금 공사장 나가면 처음 쓰레기 줍고 그러면 공사장 아파트에 가면 5만원씩 줘요. 근데 같이 일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되고 그러면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30만원도 받고 그래요. 20만원. 30만원하는 사람들은 기술자고. 우리 같이 가면 10만원, 보통 평균이 10만원. 이게 막 아파트 지역사무소, 용역 회사 가면 5만원이고. 같이 팀끼리, 공사 짓는 사람들도 보면 팀이 있어요. 건축 우리는 내 말로 하면 팀이지만 개들은 건축, 뭐라 하나, 아파트 공사장 건설업. 개들은 다 면허가 있으니까. 회사여, 건설 회사.

**Q: 그럼 그런 데 들어가서 지금도 일하러 갈 수 있으면?**

A: 하죠.

**Q: 근데 알아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A: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애 엄마가 힘든데. 난 생활하다보면 애 엄마가 아프고, 내가 아파요. 이게 난 그런 쪽으로 민감해 갖고. 예전에 군대 갔다 와 갖고 결혼하기 전에. 그때 20대 인데. 애가 여름휴가 때 저 서울, 경기도 구리 서울 옆에 살았었어요. 무주구천동으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무주구천동 몰라요. TV나 봐야 되니까. 여름휴가 때 거기 가자. 처녀, 총각이 거기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안 잔다 그래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야 된대요. 가서 보니까 뭐 아홉시 되니까 무주까지 출발해 가지고 하니까 차가 뚝 떨어졌네. 그러니 자야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근데 애가 생리를 하네. 생리를 하면 여자들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픈 거예요.

**Q: 사모님 나오시기 전까지는 일을 구하시거나?**

A: 아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올 겨울 내년 3월까지. 겨울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나가 갖고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하면 일을 못 해요. 돈을

하루 100만원 준다고, 내가 일 못하면 100만원어치 일을 해야 하는데 10만원밖에 일을 못하면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일거리가 있어도 못 나가. 힘들니까. 내년 봄에는 이제 건설회사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하는 데 많이 다녀서 알아요. 시골집도 내가 짓고 그랬는데.

**Q: 그 동안에 일 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A: 다른 일은 몰라도 건축, 설비는 그게 전공이에요. 직업전문학교하고 기능대학.

**Q: 그럼 좀 자리 잡고 자제분들 자리 잡고 그러면 이런 수급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 없으신 거예요?**

A: 없죠. 원래는 나 이거 안하려고 했어요. 애 엄마가 만들어 놓고 나 자존심 상해서. 젊은 사람이 이거 타고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일도 못하고 할 때 그러면 몰라도. 애 엄마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비, 첫째 약값이 아까워서 이거 한 거예요. 처음에 의료 보호 2급인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1등급으로 어떻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 생겨 가지고 전화요금,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녀요. 여러 가지로 망고 땡이예요.

**Q: 그냥 계속 누리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년 정도 되어서 일?**

A: 이제는 일 해야 돼요. 애들 용돈 주려면 돈이 어디서 생겨요?

**Q: 그렇죠. 이거 받으서 가지고.**

A: 이거 가지고는 나 혼자 쓰는데. 애들 용돈 주려면 이제. 전에는 만 원짜리 한 장 줘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만 원짜리 하나만 줘도 돼요? 안 되지. 우리는 애들 용돈을 다른 사람들은 명절 때 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급을 줬어, 토요일에 한번씩. 교회가니까 현금을 주니까요. 현금만 줘요? 그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주냐고.

**Q: 그럼 어쨌든 내년 봄 되면 일 좀 찾아보시고, 여기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일**

자리 괜찮은 데 생기면 여기서 나가서.

A: 내가 공공근로 나갈 테니까. 나 일 나가면 뭐 이거 안 하는 거죠.

Q: 어쨌든 그래도 사모님 병원도 그럴 수 있고.

A: 그건 뭐 별도로 됐으니까 그건 같이 살아도 이걸 별도로 탄탄 말이에요.

Q: 별도로 내셨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시면 되니까?

A: 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야. 기초생활 수급자들. 왜냐면 내가 250만원 어떻게 받아요. 못 받는다고. 그래서 난 항상 2급 아니면, 1급. 떨어졌다 올라갔다.

Q: 근데 혼자 계시면 250만원 아니고. 지금 1인 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혼자계시면?

A: 한 150만원이나 되겠지.

Q: 그 정도도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A: 한 100만원이나 이렇게 되겠지.

Q: 그 이상 월급 받으실 수 있는 데 있으면 그냥 일 하시면 수급 이거 안하시게 되는 거죠.

A: 30만원 받고 놓고먹고 있느니, 일을 하면서 몇 십만 원 6~70만원 받는 게 더 낫다 이거지. 내가 용돈을 쓰니까. 근데 이거 갖고는 용돈을 못 쓰니까.

Q: 이렇게 사모님하고 분리 되셨기 때문에 자제분들 교육비라든지 사모님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걱정 안하셔도 되니까 선생님은 훨씬 자유롭게 일 생기면 하시면 되겠네요.

A: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애 엄마는 계속 병원 다녀야 하고 하니까 호적정리 안 할지도 몰라요. 애 엄마가 막 어떻게 할거나, 병원비 낼거나 어찌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난 못 준다 그리고. 돈 없다고 그러면.

**Q: 선생님 만약에 일 생기시고 소득이 좀 생기면 여기서(임대아파트)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A: 여기 안 나가도 되죠. 일반으로 가는거여. 일반.

**Q: 일반으로?**

A: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 일반이면 몇 십만 원 한 5만원인가 더 내면 돼요. 15만 원 정도.

**Q: 수급자 아니고 일반 그 위 계층으로 해서 몇 년까지 있어요? 계속 있어요?**

A: 이걸 영구예요.

**Q: 아니 일반으로 있더라도?**

A: 일반인도 마찬가지로예요. 일반인도 자기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여기는 가정 있어서 자녀들이 크니까 자기들이 못 견디고 나간다고. 나같이 혼자 있는 사람은 안 나간단니까. 여기 10년 20년 돼도 안 나가. 문만 탁 걸어 잠그면 망고 땡인데.

**Q: 지금 혹시 뭐 또 따로 직업훈련이나 지난번처럼 받으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A: 해야죠. 왜냐면 다른 거 업종을 바꿔 갖고, 이제 건축 설계 이런 거 못하고 힘드니까. 힘 안 드는 거 그런 거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 학원비 대준다 그러면. 책은 준비해놨어. 나이 먹고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공인중개사 하면 그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게.

**Q: 그거 준비하시거나 그러면 여기서도 좀?**

A: 1년 동안 학원비, 생활비 준다 그러죠.



**Q: 아,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렇게?**

A: 사람들이 하고 있어. 서류도 다 있고. 팜플렛 이런거.

**Q: 어디요? 고용안정센터, 고용지원센터 그쪽이에요?**

A: 장애인 공단. 난 기초생활 안 돼도 공단에서도 돈이 조금씩 나와요. 지금 한 3만원 나오더라고. 학원 간다 그러면 공단에서만 나와요. 장애인 공단에서.

**Q: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서요? 선생님 장애인 등록하신 거는 산재 그때 87년도에 하시고 바로 장애인 등록 하신 거예요?**

A: 수술하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가만히 보니까 난 일 한 날이 별로 없고 맨날 먹고 논 거예요 팔자가.

**Q: 그래도 중간 중간 하셨잖아요. 하시다가 마시다가?**

A: 양반, 놀고먹을 팔자라고. 난 그래서 어딜 가면 먹을 게 있어. 사주가 먹고 놀고.

**Q: 마지막으로 선생님 지금 생각하시는 희망, 기대나 희망 바라시는 거 있으면 어떤 상황을 바라세요?**

A: 난 나이 먹고 공사장에서 이런 힘든 건 못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Q: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A: 책은 준비해 놓고, 마음만 아직이죠. 책은 펴놓고 안 하는 거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Q: 그럼 학원도 이제 신청만 하면 저쪽 공단에서 학원비 지원해 주는 거죠?**

A: 3월 달에 딱 이 일을 1년을 더 하고 애들 용돈을 벌어 주고 갈까, 아예 학원을 갈까. 어차피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애들 용돈을 줘야 되니까요. 수입이 있든 없든 간에 용돈은 줘야 하니까요. 애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돈 주는 거밖

에 더 있어요?

**Q: 아직은 몇 년 남았으니까.**

A: 몇 년 남은 게 아니라 금방 크니까 애들이.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앵글을 하나 두 개만 만들어 놔지. 나머지 책은 그냥 벽에 쌓아놔서. 앵글이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걸음마 할 때 저거 잡고 걷더라고. 그래 갖고 저걸 연결 다 해버린 거야.

**Q: 선생님 대개 잘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도서관 같아.**

A: 지금은 공인중개사 1년 동안에. 내년 3월 달이나.

**Q: 내년에 그걸 준비하러 가실 지, 아니면 일을 좀 하실지 그걸 좀 생각하시겠네요?**

A: 지금은 돈이 안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때까지. 학원을 다니더라도 1년을 벌어서 시작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중이에요, 일을 하고 할까.

**Q: 그거 말고는 사모님 병 빨리 나오시는 거 하고.**

A: 그건 죽어야 낫는 거지.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네 번했구나. 애들 힘 때문에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었지.

**Q: 자제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보내시고 뭐.**

A: 애들을 교육시켜 놔다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놔서 용돈도 내가 벌어서, 학비도 내가 벌어서. 대학도 가능하다는 거 내가 다 해줬어요. 장학금. 다만 용돈만 내가 너희들 만났을 때 용돈은 형식이다, 용돈은 내가 100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만원, 물가가 올라가면 2만원 3만원 준다. 지금은 둘이니까 내가 2만원 준다.

**Q: 그럼 나중에 대학 가고 그러면?**

A: 그게 교육 되니까 결혼 비용 만들 필요도 없지. 지가 먹고 살건 지가 버니까.

**Q: 진안에 있는 재산은?**

A: 그것은 임용고시 합격 했을 때만 집사라고 해주겠다는 거지.

**Q: 실질적으로 지금 땅이나 이런 거는 관리는 선생님이 하시겠네요?**

A: 아니. 있는 땅이 뭐 관리 안 해도.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밭이고 논이고 농사 안 지으니까 완전 풀이. 그냥 산 되어 버렸어요 밭이. 농사를 누가 지어요. 등 기상으로는 논밭이 되어 있으니까.

**Q: 그걸 뭐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하거나 결정은 어쨌든 선생님이?**

A: 장자 있으니까. 도장 파 갖고 팔아버리면 돼요. 애들한테 뭐. 돈 있으면 사람이 위험해요. 돈 많으면 위험해요. 제 명대로 못 살아.

**Q: 장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수급자 09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7년부터 총 1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52	여	현재는 무릎 연골 파열로 근로능력 없으나 치료 및 수술 후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로 가능하리라 생각됨.	무
2	아들	초등학생	남		
3	아들	초등학생	남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p><b>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b></p>
<p>영구임대아파트. 부엌, 거실겸 방으로 연결된 큰방 1개, 작은방 1개로 12평정도 되어 보임. 이 아파트는 수급자가 정보가 없어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여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수급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아파트(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음.</p> <p>응답자가 주로 생활하는 방엔 침대 및 텔레비전이 있었고 수급자는 주로 이곳에서 생활하며 작은방에 아들들이 거주한다 하였음. 한지공예를 배운 적이 있어 한지공예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음. 거실 겸 부엌에는 간단한 주방가전만이 비치되어 있었음. 아이들의 방은 작은방으로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채 다소 지저분하고 빨래들이 여기 저기 늘어뜨려져 있었음.</p> <p>대전시에서 비교적 번두리에 속하는 곳이나 아파트 단지라 주변에 학교가 바로 자리 잡고 있고 버스 정류장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은 없어 보임.</p>

○ 조사평가

<p><b>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b></p>
<p>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수행됨. 수급자와 장시간동안 편안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본인의 과거사인 결혼, 이혼, 또 다시 결혼, 폭행 남편 등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하며 질문에 응답해 주었음. 다리를 다쳐 현재 일을 할 수 없어 집에서 쉬고 있으나 아이들 이야기에는 미소를 가득 지으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아이들이 현재 삶을 이겨나가는 레질리언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p>

Q: 지금 애기가 있나봐요. 이거 집에 보니까..

A: 애기는 아니고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Q: 몇 살이에요

A: 4학년 5학년

Q: 그럼 어떻게... 딸... 아니면 아들...

A: 아들만 둘...

Q: 힘들시겠어요. 아들만 둘 키우려면

A: 아직까지는 그냥 애들이 아직 순하고 착해서 크게 뭐 저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Q: 예.. 저도 조카가 오빠네가 조카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거든요. 점점 그 집에 가면 힘들더라구요. 이제 한참 손이 많이 갈 나이인가.. 2살하고 4살인데...

A: 그러면은 줌...

Q: 두 살짜리 애가 동생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형 하는거 다 따라할려고 하니까..

A: 맞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애기 때는 모른데 작은 아이 생기고 나면 작은 아이가 크면서 형 따라하고 더 할려고 하고...

Q: 그게 고집이랑..

A: 작은 아이가 더 많더라구요. 보편적으로 보면...

Q: 예. 발 디딜 틈이 없더라구요. 그집에 가면...

A: 그때 좀 그렇죠. 지금도.. 안 치우고 살아요. 애들 좀 더 크면..

Q: 깔끔한데요 뭐...

A: 아휴...

Q: 아휴..

A: 애들 오면 좀 치워라 .. 애들 오면 더 어지러워지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면 그냥 이정도... 집에 있으니까..

Q: 아 그러시구나. 저도 조카네 집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거 등.. 이라고 해야 하나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에 있는.. 등..

A: 이거 애(강아지) 때문에 있어요. 애...

Q: 제4의 식구 강아지를...

A: 예.. 저녁에 틀어놓고.. 원래 불을 안 켜놓고 자는데 그냥 한번 틀어놔 봤어요. 띠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Q: 아... 조카가 저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부르거든요. 늘 켜놔야 되고..크리스마스 아니어도 늘 켜놔야 되고 이래서...

A: 네...

Q: 애들은 잘 도와줘요?

A: 네... 지네 할 일 다 하고... 잔소리좀 해야지 크니까... 꼭 해야 되니까 엄마 잔소리쟁이라고 하는데... 왜 잔소리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하니까... 니들이 안하니까 잔소리 하는거야...

Q: 음. 그죠...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좀 힘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A: 그렇죠. 예 애들이 둘이다 보니까.. 둘 다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만큼 큰애는 큰애대로 좀 작은애는 또 활달해서 이것저것 다 신경 써주고..

**Q: 아.. 그럼 작은애가 애교도 많고 그래요? 아들 둘 키우면 하나가 딸 같다...**

A: 네. 작은애가 애교가 많아요.

**Q: 그래도 그런 재미가 있으시겠다.**

A: 그쵸. 큰애도 없지 않아 있는데 큰애는 남자 성격 좀 과묵하게 그냥...

**Q: 큰아들이네요 진짜**

A: 네. 진짜 딱 큰아들이예요.

**Q: 되게 좋으신가보다. 애들 얘기하니까 입가에 미소가...**

A: 우리 애들 어디 가도 아직 욱 한번 안 얻어먹고 살고 항상 누가 와도 친구들이 와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항상 우리애들 보고 잘 큰다고 얘기 하나니까...나는 그냥 거기에 좋은거야. 원래 애들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Q: 그럼요. 언제부터 애들을 혼자서 키우신거예요.**

A: 한 2년 좀 넘었나 봐요. 재작년 10월 달.. 만 딱 2년 됐는데...

**Q: 뭐 지난 남편분하고 사별하셨거나 뭐...**

A: 아뇨. 이혼해서...

**Q: 아... 아이는 선생님께서 키우시겠다고..**

A: 네. 아이는 내가 키우고..지금 다시 또 내가 다시 재혼한 상태예요. 재혼한 상태에 지금 남편하고는 또 떨어져 사는데.. 재혼한 분이 남편이 총각이야 그러다보니깐 또 여러 가지로 걸릴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들하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냥.. 지금은 거의 따로 살아요.



**Q:** 그럼 지금 남편 분은 어디 계시는데요? 근처에 여기 가까이 계시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A:** 아뇨. 그냥 거의 헤어진다고 보면 되요. 그니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이혼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나도 다 저기가 없어 그냥 두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왕래 안하고 그냥 거의 사는데 참견 안하고 그런 정도예요.

**Q:** 아.. 그러셨구나

**A:** 생활비나 그런거도 전혀 없고.

**Q:**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A:** 지금 생활은 수급자니까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알바 좀씩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다리 수술을 해서...

**Q:** 예.. 아까 보니 걸음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A:** 예.. 연골이 없어서 내년에 연골 이식도 해야 되고...

**Q:** 저희 큰이모가 그 수술 했는데 되게 아프다던데...

**A:** 네. 조금 힘들어요.

**Q:** 왜 다리를 다치신거예요 지금?

**A:** 일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뭘 위를 상자를 올리려고 하다가 점프를 했는데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냥 인대인 줄 알았는데.. 치료를 잘못했어요 한두 달 동안...

**Q:** 어휴. 어떡해요.

**A:**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골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MRI를 방사선과에서 찍어서 갔더니 거기서 오진을 내린거죠. CT도 아니요 엑스레이도 아니

고 MRI까지 찍어다 왔는데도..

**Q: 너무 속상하겠다.**

A: 돈도 없는데.. 아르바이트 한 달에 24만원 받는데 그거 다 투자해서 좀 빌려서 이렇게 해서 MRI찍어다 왔는데 오진을 내린거예요. 그래서 두 달동안 그냥 저는 인대인줄 알고 치료도 했고 기부스해서 다녔어요.

**Q: 네네.**

A: 근데 물이 차는 거예요. 두달 좀 됐나...

**Q: 너무 아프셨겠어요.**

A: 네. 아프죠. 물 차지. 다니는데 너무 힘들지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인대가 늘어났는데 물이 차는 건가요 그랬더니 자기도 인대가 늘어나면 물이 안 차는거래... 의사선생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큰 병원 가라 소리 안하더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큰 병원 가봐라고 그래서 소견서 써서 가보게 됐는데 여기 선병원... 대전 선병원에 관절센터 유명한데 전재균 과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소견서 상관없이 MRI 딱 보더니 인대 아니고 연골이라는 거예요.

**Q: 어머.. 웬일이야..**

A: 근데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래요. 왜냐면은 연골은 재생이 100% 안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태가 괜찮으면 찢어졌으면 꼬메는 수술을 하면 되게 힘들지만 그게 낫다.

**Q: 음.. 자기걸 계속 쓰는 게 나으니까**

A: 끊어내면 연골을 다시 놓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 2달 동안 2달 동안 인대 줄 알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Q: 이미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A: 음... 완전히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꼬멜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끊어냈다고 하더라구요. 7월 16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도 상태가 안좋아서 몰차서 계속... 무릎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지금 보험이 안돼서 못 가고 있어요. 보험이 안되면 너무 비싸더라구. 일을 하면서 병원에 다니는 거는 그나마 조금 나운데 병원 다니는 거는 지금 조금 덜한데 금액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근데 무릎주사가 3번까지는 보험이 된대요. 근데 3번 이상은 안된대요. 그래서 지금 못가고 있어요.

**Q: 그랬구나...**

A: 별거 아닌데도 너무 제재가 되고...

**Q: 참.. 어제 만난 분도 병원 이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선생님도...**

A: 수술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관을 넣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관을 넣어서 뒤쪽에 끊어내는데... 뒤쪽을 끊어내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식을 해야 된대요. 수술하는데 비용이 연골만 인공연골만 200만원.. 나머지 수술비용, 입원비용은 따로 이제 7월 달까지 하고도.. 연골 넣고도 10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니깐 10년 후에 한 번씩은 그냥... 1년 후에 넣을꺼 그거 해야 되는데 걱정이예요.

**Q: 좀 막막한...**

A: 일을 못하니까.. 일을 저번에 나갔다가 더 부어서 못했어요.

**Q: 무슨 아르바이트 하신 거예요?**

A: 언제?

**Q: 아까 일 조금씩 했었다는거..**

A: 그전에 했던거는 그냥 제가 카운터 원래 조금 했었어요. 그니까 캐셔라고 그러죠 마트 캐셔를 조금 했었는데... 그냥 땀빵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아직 어려서 늦게까지는 못하고... 그거 하다가 그렇게 된거예요. 거의 몸으로 때우는 서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배운거는 카운터 캐서 밖에 없는데.. 다리가 이러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번에 또 횃집에 활어회..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요것만 받는데 있어서 갔는데 사실상 거기는 바쁠 때만 바쁘잖아요. 술 손님들 있으니까 근데 할일은 거의 없는데 아침에 청소를 하는게 나한테는 무리더라고요. 그니까 일반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큰 저기 뭐 쓸고 빗자루 쓸고 티끌레로 닦는건데 평수가 25평 정도 되고 거기를 닦다 보니까 일반인은 그냥 잠깐이에요. 그니까 내 다리로 하니까 이틀하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하다구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픈데 와서 일하겠다고 맘 먹었다고.. 주인도 그냥 좋게 보내주셨는데 딱 데 같았으면 혼나죠.

**Q: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서..**

A: 네. 너무 아프니까... 참아서 될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엄두도 못내구 있어요. 다니는데 조금만 다니면 물이 차서 아프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다녀서라도 좀 더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병원 가도 무릎주사 아니면 할게 없어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Q: 혹시 그럼 부모님이랑은 연락 하세요? 아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지금 다 계시구요?**

A: 예. 우리는 시댁은 거의 이제 왕래 안한지 좀 됐고.. 친정 부모는 다 계셔도 내가 그렇게 속속들이 얘기 안하지만 거의 알다시피 지금 두 번째 재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슴 아파 하지만 거의 저하고는 연락이 안되요. 제가 안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도 속상하시니까 마음속으로는 걱정은 하고 속상해 하시는 거는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알려도 크게 도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Q: 대전에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A: 아뇨. 시골에 사세요.

**Q: 그러시구나**

A: 그니까 저희 아빠가... 음... 그니까 저희 친절은 그렇게 못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잘살지는 않아도 그냥

**Q: 보통수준..**

A: 예. 그러저럭 사시는데... 엄마도 일을 하시고... 아빠도 교육자셨기 때문에 연금 받고 계시고 하는데 흠... 그냥 여러 가지... 부모님들한테는 아직 아무 것도 주신다는 말은 있으셨지만... 그래두 그거는 많이 저기는 안하니까 아버님도 생활비 드시고 엄마도 그렇고...

**Q: 그래도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몸이 안 좋고 힘드시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A: 아뇨. 부모님한테 도움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않아요.

**Q: 전혀...**

A: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고 지금 나 나름대로 찾고 있고.. 나 아직 젊고 한테 다리가 아프다 뿐이지... 애들도 내가 엄마가 일한다고 하면은 재료만 사다 놓으면 먹을 것도 다 해먹고...

**Q: 아.. 어린데..**

A: 개네는 3-4학년 때부터... 큰애 3학년 때부터 밥 다 해먹었어요. 밥만 해놓으면 계란후라이, 라면 끓여서 그니까 갔다 오면 치우지는 않으니까 흔적은 잔뜩 남는데...

**Q: 그래도 기특하네요. 자기 앞가림 다하고..**

A: 네. 지저분한거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먹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미안하고 고맙지..

**Q: 내가 좀 못 챙겨줬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A: 네. 치우지. 이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어차피 아이들  
뭇은 자기가 먹은 거는 치워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너무 어질어 놔도 그니까  
그거 정도는 뭐라고 해도 저기 해줘서 아직까지는..

**Q: 뭐 다른 친인척이나 다른 가족은 오빠나 언니 없으세요?**

A: 없어. 여동생.. 남동생...

**Q: 아.. 동생들하고는 연락하세요?**

A: 연락은 하죠. 근데 남동생은 멀리 살고.. 전주 사는데...

**Q: 아.. 전주 살아요? 저도 전주 3년 살았었는데...**

A: 전주가 고향이에요.

**Q: 아.. 그래요? 저 고등학교 전주에서 나와가지고...**

A: 나이가 어떻게 되요?

**Q: 저요. 31살이요.**

A: 내동생보다 한살 어리네... 동생하고 4살차 이 나는데 내가 사회 나와서 이거 하  
고 하니깐 차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학교 태워다 줬거든요. 고 3때... 제가  
원래 운동선수예요.

**Q: 아.. 진짜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A: 카누... 어깨가 좀.. 운동만 하다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결혼해  
서 애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떼우는 것 밖에 없더라고 운동선수는 그  
게 흠이야...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사회 나와서 내  
가 대학을 갈 저기가 있었지만 대학을 안 가고 난 돈을 벌겠다고 실업팀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만족을 했으니까 지

금도 만족해야지 어떡해.. 그래서 내가 더 힘든가 봐요.

**Q:** 아...

**A:** 저기 대학을 나왔으면 아무래도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운동만 하다가 아무 것도 진짜 몸으로 떼우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Q:** 카누는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A:** 카누는 많이 안하고 운동생활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는데 육상 어쨌든 조금 했어요. 많이는 못하고...

**Q:** 우와.. 저는 운동신경이란 신경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은 신기해서...

**A:** 운동 한 13년 14년 했나.. 운동만.. 선수생활을 그리고 좀 오래 했어요.

**Q:** 아.. 그러시고... 운동선수로 있던 시절에 그럼 결혼을 하신거예요?

**A:** 코치하면서.. 마지막에 코치하면서 했는데 코치하다가도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죠. 코치는 오래 못하고 실업팀 하고 3년 실업팀 한 3년 했나.. 그러면서 고등학교 모교에 코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하다 결혼한다고 그만 두고.. 그리고는 뭐...

**Q:** 남동생들도 다 전주에 있어요? 선생님만 나와 계시고?

**A:** 예.. 남동생은 전주에 있고 여동생은 제주도에 있고..

**Q:** 다들 진짜 멀리.. 떨어져 사시네...

**A:** 예.. 제주도에 뭐 일을 하러 갔다가 제주도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예 거기 눌러 앉았어요. 제주도 간지 한 7, 8년 됐나..

**Q:** 아.. 보고싶거나 그러지 않아요?

A: 자주 통화하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서..

**Q: 자매들끼리는 친하잖아요. 더...**

A: 예..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너무 많고 중학교3학년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동생이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했지 생활은 거의 떨어져 하다 보니까.. 그니까 내가 코치생활하면서 집에서 있었어요. 그때에 애를 태워다 준거야..

**Q: 그렇게 있긴 하더라도. 저희도 4남매인데 음.. 친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지나면서 약간 그런거 있을 때**

A: 그게 고등학교 때 정말..

**Q: 저희도 그때 다 떨어져 산 거예요. 어느날 제가 20살 되던 해 언니랑 오빠들이랑 다 같이 서울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다 재가 저런 애였나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A: 몰라..

**Q: 크던 시절을 같이 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A: 동생들이랑 떨어져 살아가고 부모님하고도 별로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떨어져서 14살이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결혼할 때까지도 잠깐 코치하면서 집에 있었던 것 그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Q: 근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어떠신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A: 되게 좋은 분이시죠 아빠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었고 엄마는 항상 일하시는 분이었고 그니까 우리 엄마네 쪽은 좀 잘 사셔요. 근에 아빠네 쪽은 좀 그래.. 그니까 엄마가 거 집에 시집가서 사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셨다는거 그런게... 그니까 엄마가 나 어렸을 때도 일을 해야 된다는거.. 그니까 할머니가 치



과의사하고 선을 보냈는데 아빠한테 갔대요. 아빠 그때 초등학교 월급이 20만원 그니까 그랬대요. 20만원인가 10만원인가 받고 그때 초등학교 월급이 그랬다더라고 그때 만나서 엄마도 힘들게 살았죠. 지금 초등학교 다니면 반려자료 인기 0순위래요.

**Q: 0순위...**

A: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은 굶어 죽는다고 못 가게 했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갔다고... 그래서 엄마가 고생도 많이 하셔서 잘 저기 하는건 아니고 아빠도 그냥 꾸준히 학교생활 하셨고 엄마도 틈틈이 버시느라..

**Q: 다들 부지런하신가 봐요.**

A: 예. 그냥 놓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Q: 선생님도 뭔가 일을 해야 겠다는..**

A: 그니까 엄마도 이번에 고등학교.. 엄마가 옛날 분이시지만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있지만 시골에서는..

**Q: 많지 않죠.**

A: 엄마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사회복지 야간대학교를 나오셨어요.

**Q: 아.. 그러시구나.**

A: 엄마 지금 그거 하셔요.

**Q: 그럼 뭐..**

A: 사회복지학.. 노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그거하고 장애인복지..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Q: 아.. 그렇구나.. 저도 사회복지학과 나왔잖아요.(하하)**

A: 요번부터인가 3년제로 바뀐다면서요. 야간제가.. 그래서 엄마가 부랴부랴 재작년에 들어가셔서 올해 졸업을 하셨는데..

Q: 대단하시다. 연세도 있으신데..

A: 엄마 지금 60..

Q: 와...

A: 내가 큰딸인거 외에 엄마가 23살에 일찍 낳은 건 아닌데 그래도 60이면 큰딸이 60이면 엄마가 젊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엔 환갑이고..

Q: 저희 엄마도 23살에 아들 낳아서.. 엄마 빠르지 않아? 그러면 나뻐 표준이었어.. 이러거든요.

A: 그럼. 똑같네.. 우리 엄마도 23살에 낳았고...

Q: 그러시구나. 그럼 기초생활 수급은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A: 오면서 바로.. 애들하고 같이. 여기 판암동 오면서..

Q: 판암동은 언제...

A: 딱 2년 된거 같아요.

Q: 어떻게 이걸 알게 됐어요? 제도랑 이런거..

A: 딱 애들하고 나왔는데 모자가정이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모자가정은 안 되고 내가 또 혼인신고가 바로 돼서 이혼을 처음 정확히 이혼한 건 한 6년 됐나..

Q: 음...

A: 31살 때 했나 32살 때 했나 아무튼 그때 해서 아이들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Q: 아...

A: 이혼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 데리고 나왔어요. 떨어져 살면서 이제 엄마가 그 일을 제주도에서 하시거든요

Q: 아...

A: 여동생도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할려고 동생을 원장을 앉히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안 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거기 들어간 지 거의 여동생하고 비슷하고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혼하면서 제가 제주도에 엄마한테 좀 가 있었어요.

Q: 아.. 네..

A: 엄마한테 좀 가 있다가 힘들어서 다시 이제 연고가 대전에 이모들이 좀 많아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신랑을 만났는데 만나서 한 1년 넘게 알고 지내다가 그냥 괜찮겠다 글구 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니까 과거 저기 아이도 있고 다 있는데.. 언젠가는 데리고 오고 싶은데 괜찮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니까 왜 있잖아요. 실제로 피부로 부딪히는 거하고 말하고는 틀리니까 그때는 다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리고 나서 한 3년 좀 넘게 있었나 같이 살고 그랬는데 혼인신고를 했어요. 1년 넘게 딱.. 안 할려다가 살 같이 하고 살아야 책임감도 있고 식도 올려야 하는 부분에 혼인신고 하고 그 후년에 엄마랑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 상견례도 하고 했어요. 상견례도 하고 다음에 2월 달에 결혼을 할려고 했어요. 엄마가 그때 방학 때니까 야간대 다니고 있어서 학교를 못 빠지니까 엄마 방학 때 결혼식을 하자 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9월 달에 온 거예요.

Q: 아...

A: 7월 달에 상견례를 하고 아이들이 9월 달에 그니까 전남편이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겼어요. 근데 엄마가 그 시설에서 키울 수 없어서 엄마가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을 받았다. 근데 몰랐어요

**Q: 아이들이 와 있는지..**

A: 근데 그런 부분에 신랑은 조금 화가 나는 거야 일단은 엄마가 키울 거만 같아도 상의를 일단 해서 엄마가 키울테니 걱정하지마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고 엄마가 못 키우는 거면 못 키워도 일단 우리에게 먼저 어쨌든 상의를 해줬어야 하는 부분에 그런 상의도 없었고.. 나도 내 자식이지만 우리 부모님이지만 그 점에는 서운하기는 해요 일단 엄마가 키우려고 데려왔던 어쨌든.. 나중의 뭇은 내 뭇이거든요. 그니까 엄마한테 받을 거면 내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그게 솔직히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남자는 아닐 수 있거든요. 자기 저기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 딸도 아니고 아들이예요. 그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아니면 아닌데 걸린다고 생각하면 하나 두개가 아닌 거 있잖아요. 왜..

**Q: 그렇죠.**

A: 그런 부분에서 신랑이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시댁에서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하고.. 아이들을 그쪽에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친척들이고 다 모르지만 친척들 그니까 신랑 형제, 누나, 형,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아이도 있고 또 결혼 했어서 이혼해서 다시 살고 그런 부분에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흠이라면 흠인데 어차피 다 뭐 모르고 살면 더 나중에 저기 되니까 다 알리게 돼서 아주버님도 다 알고 뭐 동서끼리도 다 알고 이런 사이인데 그 집안에서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잖아요. 아이들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학교 나갈 거 아니에요. 누구네 아이다 누구네 아이다. 근데 신랑이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구 집안 식구들은 내가 이혼녀고 다시 저기해서 재혼해서 사는 거라고 알지만 동네 주변에서는 그냥 아가씨인줄만.. 내가 지금 다리 다치면서 살이 좀 많이 찌서 그렇지.. 조금 지금보다 통통하니 그랬어요. 똥똥하지는 않고...(하하) 통통하니 예쁘다 하면서 나이도 어려보이네 아가씨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동네에서 되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씨라고 해도 내가 좀 맘이 안 편하지만 그냥 아가씨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한 3년을 근데 아이들이 딱 오면 그거는 아주버님, 형님 들은 다 괜찮다고 해요. 집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엄마가 거기서 그 동네에서 12년을 사셨었어요.

**Q:** 아..

**A:** 그 시어머니가... 그니까 동네에서 12년을 사신 그 동네에서 알게 모르게 남의 집안 구석구석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거의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래서..

**Q:** 음.. 손가락 수까지 다 알겠네요

**A:** 그니까 걸리는거야 내가 인정하는 인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는 저기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양 엄마한테도 서운해서 엄마한테도 한번 퍼부었고 그건 엄마가 잘못된 거는 아냐고 아무리 내 새끼고 엄마 손주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 재가 했다고 근데 그쪽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엄마는 이제 앞뒤 생각 안하고 손자 보고 싶은 마음에 손자.. 왜 그래도 첫 손자잖아요. 제가 큰딸이기 때문에 첫 손자이고... 그리고 남자 손에 키워지는 것보다 여자 손에 키워지는 게 낫다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시댁 쪽을 생각을 가볍게 생각한거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받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한거야. 그래도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원래 우리 엄마가 생각이 좀 트이신 분이거든요. 그니까 좀 너무 트이신 분이어가지고 그 좀..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엄마가 데리고 계시다가 추석 지나고 제가 집을 부라부라 얻어서 나왔어요.

**Q:** 음..

**A:** 그때는 6단지 지금 여기는 4단지인데 6단지 얻어서 나왔는데 6단지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 모자가정 해서.. 내가 혼자인 줄 알고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난 남편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안 살면 일단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러더라고...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우선 6단지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돈 내가 그제 한 일을 그때는 좀 혼자 있으면서 일좀 해서 돈이 좀 신랑 몰래 돈이 좀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얻는데 우와, 넘 비싸더라고.. 아파트 그니까...글쎄 내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는지 왜 싸고 이런 집은 또 싫더라고.. 월세를 더 주더라고 걸뭇이 들었는지 몰라도 비싼 집에 가고 싶은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6단지에 500에 30만원인가 얼마짜리를 얻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달 살았는데

**Q: 생활비까지 다 들어가니까..**

A: 너무 힘든거야. 거기 관리비도 세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나가는 것도 있고 애들한테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너무 잘못 했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여기 지금 남의 집 명의로요. 12월 달에 재계약을 안 해주면 제가 나가야 되요.

**Q: 남의집 명의로면 어떻게..**

A: 그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몰라요. 말 그대로 주민등록만.. 등본을 떼서 만약 여기 명의 계신 분 이름이 없으면 저번에 한번 얘기하시더라고 저기 우리 담당하시는 성함이 맨날 잊어버리는데 그분이 한번더 지금 왜 그... 이분 안사시냐고 그래서 그냥 잠깐 나가 계신다고... 다시 집에 오실거라고 하긴 했는데... 처음에 서류 들어갈 때 동사무소도 등본 들어가잖아요. 그 등본만 여기 주택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좀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Q: 저희가 동에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A: 그분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Q: 그분은 어떻게 아시는 분인 거예요?**

A: 예. 좀 그냥 알게 된... 그분이 살다가 이렇게 떼는데 일이 생겨서 갑자기 가시게

된 바람에 어떻게 저하고 딱 마침... 두 달 살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잠깐이라도 살아라. 근데 위험은 있다. 그니까 만약 알게 되면 위험은 있는데 이제 서로 나도 그렇지만 여기 집 내준 사람도 큰 위험은 있는데 한번 살아봐라... 그래도 너무 힘들니까 살아봐라.. 너무 힘들어서 살았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나두 모르겠다 그러고 이사를 왔어요. 그분이 이제 재계약을 왜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주면 위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 모르겠어요. 안 해주시면 12월 달에 또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바로 신청을 했으면 좋았는데 요번 6월,, 7월 달인가 했어요.

**Q: 그럼 또 기다려야 되네요.**

A: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12월 달에 집을 빼면 한 일 년 정도를 떠난 데 가서 살다가 또 와야 되는데 아휴.. 참...너무 힘들시니까...

**Q: 그전의 시간이 그럼.. 또...**

A: 예... 내가 안 아팠으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사비용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사정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예요.

**Q: 잘 처리가 되어야겠네요.**

A: 일단은 집 문제만 해결되면. 뭘 해서 저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가 걱정이면 또 하나가 걱정이고... 몸이 안 성하니까... 내년엔 이식수술을 해야되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집까지 막 이래 되니까...

**Q: 신경 쓸 게 많으시겠어요.**

A: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막 머리가 아파요.. 당장 나가야 되니까...

**Q: 급여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오세요?**

A: 이번에 좀 많이 깎였더라구요. 엄마가 사회복지사로 가 계시고 아빠가 연금을 타고 계셔가지고... 급여가 원래 50만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30몇 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요번 달부터 그 사회복지사선생님이 그러데요. 좀 줄어들건데 감안하고 계시라고... 친정도 딸한테 뭐 유산상속이 되기 때문에 친정이 잘 살아도 딸한테 그게 된대요.

**Q: 네 그런게 있어요.**

A: 그리고 딸이 4대 보험 다 되도 친정 부모님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냐고.. 그니까 그냥 공짜로 먹는 건 없는 건 아는데 참 힘든 사람한테는 힘들다고.. 알았다고.. 내가 그니까 뭐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그런 때다 줬는데도 그게 3,4개월 밖에 안 되고 또 다시 때다 달라는데 근데 제 담당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좀 까다로워요. 친정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공짜로 먹는 건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힘들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때다 주었는데도... 진단서를 떼어도 3~4개월 된다고... 그래서 다시 진단서 떼어야 되는데... 근데 제 담당 선생님이 까다로워요.

**Q: 큰 병원들은 좀 그래요. 까다로워요.**

A: 까다로워서 저번에 갔다 왔는데 한번 더 의사선생님은 뭐라 하더라고... 아휴...

**Q: 진단서를 또 받으러 가야겠어요.**

A: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가 요번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들..

**Q: 어떻게.. 병원비좀 할 수 있도록...**

A: 음.. 병원비를 처음에 보태주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병원비는 좀...명단에는 올라갔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하신 분들도 많더라구요. 따지



고 보면 그래도 난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인가봐 그래서... 좀 힘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진단서를 좀 끊어오면 제가 2종이었던거ですよ. 의료보험만 1종으로 받을 수 있게.. 그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해서 3, 4개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끝나요. 10월 달에 이제 1종이 끝나고 2종 넘어가면서 급여가 다시 조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진단서를 끊으러 가야 되는데 아휴, 너무 안 끊어줘서... 그리고 내용을 제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두요. 내가 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Q: 그니까 동사무소에서든 이런 내용을..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해와라.. 해올 수 있으면.. 뭐... 기간...**

A: 기간이 무제한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몇 개월 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치료하는 동안에 근로능력이 없고 치료하는 그 거기에 이런 내용이 좀 있고...

**Q: 판정 관련된...**

A: 거의 음... 그니까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수급자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써주시면 안되겠냐... 근로능력에 대해서 써달라. 했는데 근로능력은 뭐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는거야 그거는 선생님이 딱.. 내가 봤을 때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거라 하지만 나는 다리도 오므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좌변기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게 사사롭게 기본적 인거.. 하루 종일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서 하라고 누가 일자리를 줘요? 근로능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그 나름도 지금 나한테는 지금 모르겠어요. 찾으려면 있을래나.. 근데 그때 가서도 거기서도 거의 앉아서 하는 거예요. 카운터만 보는 거예요. 따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회.. 활어회를 뜨는 거 회를 떠서 그런데 가서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식당 그 위에 올라가서 식당 위를 올라가서 먹는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회를 사람들이 딱 이거는 뭐 몇 키로 얼마 그러면 찍어서 계산만 하는 그런 간단한 건데도 아침에 잠깐 청소했다가 다리가...

**Q:** 이런 음식점들이 또.. 우리 나라가 내가 그걸 들어왔다고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기본 플러스 알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게 있으니까..

**A:** 기본적으로 청소니까 그리고 어디가나요 기본적인 청소는 다 있어요. 기본적인 청소는 다 감안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안된다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거의 그냥 쓸고 닦는 것도 한쪽 발 피고 닦는데 그런 부분은 되게 힘들다 그랬더니 막 집안일을 얼마나 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나중에 딱 그러니까 치료는 요하는데 다른 저기는 없고 근로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써서 저기 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니까 동사무소 직원 보여줬더니 이거는 서류 제가 안되는 거라고..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근로능력에 대해서, 치료기간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간.. 내년 7월에 이식해야 되는 부분해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거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전혀 없어서..

**Q:** 처음에는 그러면 수급 받으셔도 그냥 일 하시고 그러셨나요?

**A:** 그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지 얼마 안되서 적응 하느라고 못 했어요.

**Q:** 수급 받으신 다음에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A:** 했죠. 틈틈이..

**Q:** 그냥 아르바이트만?

**A:**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뭐 시간제로 가서 하는 것도 하고..

**Q:** 동에서는 알고 있구요?

**A:** 예. 그니까 아르바이트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오래는 못하고 잠깐잠깐 하는 거.. 그때는 내가 건강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그 있잖아요 왜 요양보호 이런거.. 그거를 권하더라구.. 근데 그거 환자들 돌보는 거잖아요. 내가 환자들 내가 간병인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간병인도 해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지 않을 때 지금 신랑하고 살면서 중대 병원에서 간병인도 하고 그랬는데...

**Q: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는거 하셨어요?**

A: 아니요. 안했어요. 간병인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간병인을 하게 되면 한 달에 70만원 준대요. 한 달에 70만원 주고 나한테 나오는 돈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근데 70만원에 돈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면 더 힘들어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쉬고.. 빨간 거 다 쉬고 하는데 그런 건 좋은데 70만원 가지고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그때 50만원을 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은 100만원까지 맞춰서 생활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더 나왔었거든..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자꾸 권해서 뭘 70만원을 받아도 내가 안 쉬고 하면 돈을 더 준다는데 그냥 이것저것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내가 좀 더 하면 되고..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틈틈이 저녁에 나가는 아르바이트가 좀 돈도 더 주고 했었고 하니까 저녁에는 식당이잖아요. 식당에서 그때 좀 다리를 좀 많이 좀 아팠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데...거기에서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게 되가지고 그니까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다리 다 나갔으면 다시 좀 와달라고 하는데 상태가 이러니까.. 알았다고.. 음...

**Q: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그.. 알게되서 갔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지.. 그때 가면은 왜 동에서 이제 그냥.. 선생님께서 신청하러 가신 거잖아요.**

A: 예.

**Q: 근로능력 판정한다고 뭐 그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서류랑 뭐 어떻게 제출하세요 뭐 이런거.. 뭐.... 동사무소직원이 알려주고.. 준비해오라는..**

A: 예. 했던 것 같아요.

**Q: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A: 상담은 한 거는 기억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상황인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전남편에 대해서는 어떤지.. 지금의 남편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음... 상담을 많이 한건 아

닌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서류... 전남편이랑 지금 남편.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으면 진단서 떼어오라고 했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없었던 거 같아요. 난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이 되면 더 좋은데..

**Q: 음.. 조사하고 바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A: 바로는 안 했구요. 일을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진단서.. 그니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가 보편적으로 진단서밖에 없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다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다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는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연골이 선천적으로 약했던 것 같다고.. 그 약한 게 계속 아팠는데..

**Q: 서있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지니까...**

A: 아팠는데 그게 약해지니까 살짝 뛰는 것만 해도 그것이 그냥 끊어졌어요.

**Q: 우리가 탁 가버렸구나...**

A: 그전에도 무릎은 계속 아팠었어요. 되게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힘들게 생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치료 그거는 아이들 떼놓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받았는데 거기 진단서는 제가 안 끊었어요. 왜냐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그냥.. 무릎에 대한 진단서 조금 끊어다 드리고... 음.. 그때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전남편이 만약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난 전혀 모르거든요. 전남편한테 무슨 서류 받는데 있나 봐요. 그거를 보냈는데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처만 알지 뭐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런거 전혀 모른다.. 아이들한테 전남편이 컸지만 아이들도...

**Q: 아이들의 반응은...**

A: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아이들이 그니까 아빠는 얘기했을 때 표현할 때 잘 안하

고 작은아이가 좀 성격이 좀 활발하면서 좀 나대거든요. 좀.. 뭐라고 할까.. 욕심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뭐 갖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쉽게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작은애가 좀 욕심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욕심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작은 아이가 많이 맞은 것 같더라고.. 아빠는 나 때리는 거 싫어... 이런 부분에 아빠 자체를 싫어하고.. 큰 아이는 반반이었어요. 오면 그냥 만나고 안 오면 말고.. 이러면서.. 아빠가 왜 전화 안하냐고 뭐라 했나 봐요. 그냥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핸드폰 전화 바뀐 뒤로 전화 안오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니가 3년 동안 4년 동안 너 혼자 살았듯이 나 애들 키우면서 고생했다 너도 4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그니까 좀 안 좋은 상태예요. 나한테 전화할 이유는 애들 양육비 줄려고 맘먹었을 때 전화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니까 헤어질 때도 별로 좋게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치중에 좀 폭행에 많이 있어서.. 폭행죄로 신고하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어서 별로 좋게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나도 별로 그렇게 저기 하고 그니까 진단이 좀 세게.. 그니까 머리를 많이 다 뽑아 냈지 이런 신체 부위는 많이 진단을 뭐 거의 손을 안 데고 거의 그때는 머리가 더 길었거든요. 그니까 머리채만 잡고 흔들어서 다른 신체부위를 맞긴 맞아도 입술 터지고 얼굴 터지는 거는 2주까지 진단 나오고. 다른 부위에 어디 손이 가해졌으며 3주까지 나오면 구속인데 2주까지 나와서 구속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폭행죄로 신고하다 보니까 남동생이 이혼하라고... 누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폭행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후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일 년에 한 두 번씩도 맞고.. 아이들 때문에 막막하잖아요. 그때... 서른살 초반이나 20대 후반 때는 아이들 둘 데리고 나가서 내가 살 일이 막막했었으니까... 막막했었으니까 참고 참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제 저기 되고 나서 동생도 몰랐어요. 내가 맞고 사는지 엄마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된 터라... 별로 좋은 감정도 없고 나보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응.. 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치.. 사실은 도망이죠. 그걸로 인한 도망이지만 아이들을 내가 못 데리고 온 게 지금도 한이었는데 지금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게 나

는 너무 좋아요. 그니까 지금의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들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그때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동보호센터.. 사회복지 저기.. 거기 다니는데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요. 정신과 그 치료 받는데 한번 받는데 한 6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니까 우리 큰 아이가 처음에 안 좋아서 작은 애는 원래 성격이 활발해서 좀 숨기는 게 있어도 작은 애는 금방 치료가 될 것 같애 느낌상..

**Q: 네...**

A: 어머니가 근데 큰 아이는 심각했었어요. 말도 안 하고... 작은 애는 말로 다 풀어요. 거짓말도 말로 다 하니까.. ○○야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되지 그러면 잘못 했어요 말거든요. 근데 큰아이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동복지센터.. 그 교회에서 하는 사모님이거든.. 목사님 다 끼고.. 사회복지사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이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해줄려고 했는데 내가 뭐 선생님 판단하기에 ○○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를 해서 3명을 넣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이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거의 소극적 소심.. 거의 나서지도 않고 친구하고 사귀는 것도 귀찮아하고.. 막 이렇게 되게 심한 거예요. 정신과 치료가 지금 빨리 필요한 아이라고.. 그래서 딱 받았는데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Q: 자식이 내가 돌봐주지 못했을 때 그래가지고..**

A: 근데 전남편이 나랑 헤어지면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아이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

**Q: 충격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A: 엄마가 죽었는데.. 오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맡겨지기 전에 엄마 안 죽었다고 얘기 했나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할머니 엄마 진짜 안 죽었다고.. 근데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 나 엄마 죽은 줄 알고 엄마 하늘나라 계신줄 알고

글짓기 엄마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글짓기 했는데 그거 일 등했다고 큰애가 글 더러구요.

**Q: 그랬구나.. 아이쿠...**

A: 그니까 첫 대면을 딱 했는데 아이들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엄마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아이들한테 적응이 안되고..

**Q: 충격일 수도 있으니까...**

A: 지금의 전 남편이 나하고 헤어져서 지내는 것도 다 힘든데..

**Q: 여러 가지고 어린 나이에..**

A: 근데 큰 아이가 전남편 저기서... 여기는 지금 집에서 지가 다 해먹는 것도 전남편이 집에 거의 없고 아이들끼리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애가 2학년 때부터 밥을 해 먹고 다녔던 거예요. 그니까 물이랑은 어떻게 끓여 먹니 그러니까 물은 아빠가 들어와서 한~ 주전자 끓이고 나가면 자기들 그 주전자를 따라서 먹고 빨래도 해서 널고 자기네 다 했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하려면 아무 것도 안해요. 내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빨래를 해주니까 너무 좋고 엄마가 밥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밥을 어떻게 해 먹고 다녀 아.. 형이 계란 후라이를 맨날 태워가지고 탄 거 먹고 다녔다고... 그래서 힘든 데 데려와서..

**Q: 듚적하네요. 형이 동생도 챙기고...**

A: 예.. 그래서 우리 큰애 이제 그렇게 말 안하지 않고..

**Q: 많이 좋아지고..**

A: 많이 좋아져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 저기.. 센터에서 생활하는 거는 처음엔 힘들어 했는데 지금도 다니기는 싫어라 해요. 근데도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좀 듣는 편이고 내가 좀 너무 속상해서 엄마랑 살기 싫어

그러면... 아니 엄마.. 막 그래요.

**Q: 아이구... 애들... 놀렐라.**

A: 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나게 하면 그런 말이 그냥 나와요. 그럼 아니라고.. 엄마도 그런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애들 어렸을 때 부분에 지금 그게 기억이 자꾸 작은 아이가 얘기를 할 때 마다 가슴이 좀.. 아픈데 안할 수는 없죠. 그치만 그 아이들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일상생활 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무슨 뭐를 하나를 물건을 사더라도 어 이거 나 애들이 전주에서 살다 왔거든요. 나 전주에서 살 때 이거 얼마였는데.. 대전 여기는 비싸네... 야..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는 만약 과자 가격이 500원이었으면 여기는 700원이야.. 지금 전수도 700원이야 그러면 그런가.. 그런 부분에 전주생활을 자꾸 떠올리는거예요. 그리고 전주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 떠올리고 물어보고 하면은 그게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 원치 않아도 전학을 왔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다행이네요. 동에서 뭐 그런 판정하고 이럴 때 설명해주는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A: 많이 한 거는 아니었는데..

**Q: 그럼 짧게 한 거예요?**

A: 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하고, 전남편, 지금의 남편.. 내가 근로능력이 있나 없나.. 없으면 병원 진단서 이런 거 떼오라고 했고... 또... 음.. 뭐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능력이나 뭐 그런거 얘기하고... 글썄... 그때 뭐지...

**Q: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없으면.. 혹시 친절하게 다 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A: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에 대해서 서류 그런 거 하고. 수급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거.. 아이들 문제... 뭐 그런...



**Q:** 주변에서 알려져서 수급신청을 하러 갔었고.. 처음부터 뭐 병원 다니시고 이랬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뭐 이제...

**A:** 그때 저기 한거...

**Q:** 주변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거나 뭐 그런거는...

**A:** 그런거 있었죠. 나는 그니까 고거 하나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뭐 장애인이면 더 좋은데 근데 장애인은 될 수가 없으니까..

**Q:** 그렇죠...

**A:** 그런 부분.. 그니까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많이.. 그냥 하면서 서서히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딱 근데 기억이 안나네... 하...

**Q:** 그래도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A:** 예.. 여기 401동인가.. 아 개뻘에 왔구나.. 개가 이것저것 다 얘기해 주고.. 거기 는 제가 큰 애를 그니까 대전에서 낳았어요. 대전에서 낳았고.. 부모님이 반대 하는 결혼을 했죠. 그니까 전남편 하고도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서 전남편이 사업을 IMF걸려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서.. 재산을 많지도 않았는데 거의 좀 돈이 많이 잃었어요. 그때 잃고.. 큰애 낳고 너무 힘들 어가지고 전주에 엄마한테 엄마 집을 들어가면 안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주를 낳아서 작은 아이가 생겼어요. 작은 아이 생겨서 전주에서 낳아서 그래서 전주에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대전에서 큰 아이 낳을 때 그 401동에 사는 아이하고 큰 아이가 똑같아요. 같이.. 옆집에 이렇게 살았었거든. 그래서 연락 계속 되고 있었고 큰애, 작은애가 똑같아요. 개네 큰애하고 우리 작은 애하고.. 개네는 막내까지 있는데 막내는 3, 4, 5학년이고 연년생.. 나는 4학년, 5학년.. 개는 남자만 3, 나는 남자만 2.. 근데 이제 알게 돼서 개뻘에 여기 관암동 4단지 온 거예요. 6단지를 처음에 개 때문에 왔구나..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여기를 오게 됐고.. 그니까 개가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개뻐에 신청을 하러 가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러한데 아이 들밖에 없고 저가 좀 힘들다..

**Q: 몸도 이렇고..**

A: 집세도 많이 나와서 힘든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냐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며칠 뒤 또 와서 상담 하고 서류 떼가지고 와서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Q: 주변에 수급 받으려고 별로 몸도 안 아픈데 좀.. 조건들을 일부러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부풀려서 한 사람 본적 있어요?**

A: 그런 사람들은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느낌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Q: 느낌으로..**

A: 속속들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나도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동에서도 그걸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지.. 그래서 나도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다고는... 그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일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사무소에서 걸고 넘어지지 않고 그니까 뭐든지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뭐든지 무슨 일을 하면 서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Q: 서류에서 딱 나와서...**

A: 일단 그 사람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류를 딱 보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나마 좀 그 사람들을 보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요. 근데 그 윗사람들은 서류로만 보잖아. 그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글더라고..내가 진짜 선생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은데 윗분들은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얘기는 한 것 같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서류가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애. 그니까 생각은 조금 더 거짚으로 하고 싶어도 그 서류 때문에 안된다는거...

Q: 서류로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데 할 수 없으니까...

A: 그니까 거짓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애.

Q: 그러면 혹시 이제 진단서 제출이나 수급받으시고 나서 담당 공무원하고 자주 만나시고 뭐.. 딱 진단서 제출할 때만 주로 만나시나요?

A: 자주 만나보지는 않고 그... 어디지... 보건소에서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검사해주잖아요. 당이랑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주는 거 할 때... 기본적인 뭐...

Q: 안내받을 수 있는 건 자주 연락..

A: 예.. 그런 건 하고..

Q: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 해주거나 몸이 어떻게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나 괜찮아졌는지 그런거...

A: 그런 건 없고 제가 동사무소에 불일이 있어서 갔을 때는 항상 물어봐요.

Q: 찾아갔을 때만..

A: 근데 나한테 와서 어떻게 될 했냐.. 어떻게 잘 지내냐는 없어요.

Q: 그래도 직접 찾아갔을 때 만나면 태도나 뭐 이런거 지지적이고 그래요?

A: 예.. 잘 하고 계시냐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한번쯤은 찾아가 봐야 되는 데 그렇게 못한다..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이라도 나는 아휴 말씀이라도 고맙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대하고 하는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상냥하고 얘기를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예요. 결정권은 어차피 위에서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선생님은 대화하는 거에 표정일지 이런 게 어려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는.. 그 전에 복지사 선생님은 처음 상담했던 분..그분은 언젠가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가신지도 몰라...

**Q: 워낙 이동도 많고 그러셔서..**

A: 근데 사회복지과가 이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쪽이라고 하더라고.. 어느 순간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새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도 괜찮아요. 그때 그분도 괜찮았는데...

**Q: 다행이시다.**

A: 조근조근 얘기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필요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조언도 해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Q: 지금 되게 무릎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지만 내년에 이제 연골이식 수술 하시면 그 이후로는 다시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

A: 해야죠.

**Q: 몸이 좀...**

A: 그니까 지금 연골 넣고 연골 넣고도 많이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꺼 아니고 내꺼 아니고 맞질 않아서 그런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 연골 넣고도 한 2년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걱정은 되는데 없는 거 보다는 나으니까 일단은 지금 해야될 것 같고...

**Q: 그러려면 앞으로 더 건강해야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될 날이 있으시니까...**

A: 응.. 벌어야죠.

**Q: 건강해지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싶으세요?**

A: 일단 어떤.. 했던 건 하고 싶은데 그 다리가 무리가 가는... 카운터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 무리 가는 건 못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것 저것 찾

고 있는게 뭐 아휴.. 어떤 일이나... 아휴.. 그니까 거의 좀 앉아서 카운터 일이죠. 서서 하는 캐셔같은거 말고 앉아서 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든지 앉아서 해도 기본적인 청소는 있어서 청소도 내 다리가 조금 부담이 안갈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Q: 동에서 직업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뭐 그런 안내는 못 받아 보셨어요?**

A: 동사무소에서 얘기했어요. 그니까 그게 뭐지 공인중개 이런 자격증이라던가 그거랑... 컴퓨터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거기서 다 배워주는 건데 그걸 배웠는데 그걸 안 써먹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었어요.

**Q: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좀 서서 하는 일이 생기니까.. 앉아서 하는 일로 해서 하면 좋을텐데..**

A: 예. 그거 요번에 얘기하시더라고..

**Q: 서 있는게 무리가 간다면..**

A: 요번에 얘기하시길래 일단 치료 잘하고 계세요. 길은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Q: 원래 그...선생님 일 해서 한 달에 예전에 캐셔일 해서 벌고 그러면 더 이상 수급을 못 받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계속해서 하시고 싶으신지.. 수급 못 받더라도.. 남아 있고 싶으신지..**

A: 지금은 그 생각 아직 안 해봤는데.. 계속 받을 수는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더 나은 저기를 해야지 그걸 받아고 다 이것저것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글썽 계속.. 일단 지금은 아이들한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Q: 몸이 이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

A: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그때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게 여건이 돼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할 때까지 받고는 싶어요. 지금은...

**Q: 아이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받고 이런 거 알아요? 초등학교 다녀도 요새 애들은 아는데...**

A: 그니까 아직은 이쪽이 좀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왜 우유를.. 엄마 왜 우유를 맨날 먹어야 돼? 응.. 엄마가 돈을 다 내서 그래.. 왜 한꺼번에 돈을 다 냈냐고.. 그니까 모든 게 다 학교에서 지출이 되는 거는 무료다 보니까 큰 아이는 우유를 먹으면 좋아하는데 작은 아이는 설사를 해요. 그런 부분은 싫어하는 거야. 자기 몸이 이상이 오니까.. 그래도 먹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되고 돈 나오고 이런 거는 아직 몰라요.

**Q: 동에 갔을 때에는 뭐.. 처음부터 담당공무원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한다고 하는 눈빛이나 이런 건..**

A: 아니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잘 받아주시는 것 같고...

**Q: 음...**

A: 아니. 내가 그렇게 느낌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 눈빛 이런 건 잘 모르겠고..

**Q: 아니 뭐... 느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A: 느낌으로 뭐 이럴 수 있는데 일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런 느낌 그런 거 받은 적은 그렇게 내가 생각은 들더라고..

**Q: 초반에..**

A: 예. 처음에는.. 그러다가 너무 맘 적으로도...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잘 받아줬다고...

**Q: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A: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Q: 서류가 통과되면..**

A: 그분이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 잘 안하시더라고..

**Q: 진단서를 딱 무릎 그걸로.. 그거는 처음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끊어가신거예요? 선병원 아니고?**

A: 그냥 일반 개인병원.. 나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Q: 근로능력 관련된 얘기 나오고..**

A: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 할 수는 있는데 오랜 기간은 못하고 이런 거 좀 간단하게.. 그런 얘기는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는 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Q: 동에서요?**

A: 아니 동사무소에서 뭐 일 하냐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아르바이트 한 5시간, 6시간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 하는지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좀더 많이 나오시면 좀더 좋은데 직장 들어가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Q: 진단서는 바로 3개월이 나왔나봐요 다니던 병원에서..**

A: 예.. 처음에는 해주셨고..

**Q: 선병원 다니시면서...**

A: 선병원 다니면서 이제 좀 힘들어져 가지고...

**Q: 진짜.. 계속 부어 있어서.. 많이 힘들겠어요.**

A: 지금은 조금 거동 안했더니 여기가 아휴...

**Q: 보통 무릎이 튀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어서... 통증은 어떠세요?**

A: 있어요.. 만져도 있고 여기 뒤에는 서 있어도 땡기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생겼더라고...

**Q: 동에서는 간병 관련 자활사업 이런 거 안내 받으셨는데 그것만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또?**

A: 처음에는 그거 받았구요. 최근에 이제 앉아서 하는 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거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연결을 해주시더라고.. 처음에는 자활 이런 거...

**Q: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가요?**

A: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못해요.

**Q: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 아파서 가능했었던 건가요?**

A: 예. 좀 덜 아팠죠. 지금은 다친 상태고..

**Q: 그땐 무릎이 이런 상태는 아니고.. 약간 적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거고...**

A: 예.

**Q: 그럼 뭐 정부에서 선생님 조금... 자활사업 해서 어떤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많게는 80, 90까지도 벌 수 있는데... 자기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 말고 또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 있으신가요?**



A: 정부에서 바라는 거...

Q: 예.

A: 글썸...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거는 그렇죠 뭐...

Q: 그래도 자활 말고는 자활 사업하는 것보단 그냥 일반 취업시장에 나가고 싶은 거 예요?

A: 아무래도 그렇죠.

Q: 더 돈을 벌 수 있게...

A: 그것만 좀 해주셨으면.. 그니까 글썸 그거를 나가게 되면 수급자에서 다른 혜택은 있어도 돈이 안 나온다는 거.. 그것 때문에도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지만 음... 친정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좀 생각해 주면 안 될까..

Q: 그건 안 되고.. 딱 전산 상에서 바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서류..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나 뭔가 이제 그러한 자료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A: 그러니까 저번에까지만 해도 엄마가 안 들어갔어요. 대학 다녔기 때문에..

Q: 이제 일을 하니까..

A: 요번에 딱 뜨더라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떴는데..

Q: 학생이셨으니까..

A: 요번에 딱 뜨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Q: 선생님은 의지가 있으셔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원래는 수급 받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일을 해야하는데 그니까.. 진단서를 제출해서 일을 안하시는데  
동에서 선생님 사정을 알고 있어서 봐주냐봐요. 우선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고 교육도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식 취업하면 그걸 얘기해 달라  
했었나 봐요.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잘 됐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전담공무원이 선생님한테 혜택, 융통성을 발휘한 것 같아요.

A: 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Q: 원래는 그렇게 되면 선생님 소득 해서 수급지원금이 깎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안 하시고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건 본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

A: 예. 거기 한도 내에서만 해주시는 그동안 고마웠었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근게 이제 병원..

Q: 병원은 가야 되고 급여는 깎인 상태니까..

A: 의료보호도 1종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2종으로 가고...

Q: 더 올라가고..

A: 1종으로 바뀌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2종으로  
되게 되면 그때 1종 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한 200만원  
좀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 하..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동사무소 갔어  
요. 이렇게 200만원 넘게 든대.. 그러면 자기가 명단을 올려서 200만원에 대한  
혜택이.. 보조금 그런 게 그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얼마 나오나봐요. 그니까  
힘들어도 어렵고 한 사람한테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선별해서 동사무소에  
서 나눠주라는 그게 있나봐요. 난 몰랐는데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그 돈이 조  
금 남아 있으면 좀 얼마라도 보탬이 될텐데 만약에 없으면 힘들거니까 자기가  
알아봐서 연락 준다고.. 근데 거기 더 하신 분들이 많아서 벌써 다 나갔다더라  
고..

Q: 예.. 정해진 예산해서 하다 보니..

A: 예.. 그니까 항상 그 예산이 모자라대요. 모자라서 이제..

**Q: 또 이쪽 동구가 노인 세대도 많고.. 어렵고..**

A: 이쪽이 좀 많아.

**Q: 아무래도..**

A: 근데 또 보조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되 서 미안하다고..

**Q: 욕구가 많은 사람은 훨씬 많은데 금액은 제한적이고...**

A: 그 사회복지 선생님은 미안하다고 말 하는데 미안해가지고.. 자기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것만 못하니까..

**Q: 기대를 하게 되는..**

A: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의료보호 1급 그런 걸 이렇게 해서서 하게 돼서 수술비가 제가 그때 갔는데 또 병실이 없는 거예요.

**Q: 음...**

A: 6인실에 가면 1급이면 거의 공짜거든요. 아휴. 병실이 없는거야. 6인실이.. 3인실을 주는 거예요. 3인실을 가니까 4만원씩이 하루에 그래서 8일 있었어요. 병실이 안 나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 조금씩 보험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입원료 그니까 내 보험 들어가는 거는 4만원밖에 안되요. 근데 4만원에 대한 3일 입원료가 3만원씩인가.. 그게 있었어..

**Q: 그나마 다행이었다.**

A: 그래서 그것 해서 미리 돈을 좀 빌렸죠. 친구한테 빌려서 이제 그거 빌려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조금하고.. 왜냐면 병원비로 다 치루면 다른 생활을 못하니까 일단 좀 빌리고 병원비 내서 보험회사 가서 그 돈을 좀 찾아서 친구한테 줬

어요. 다행히도 그게 좀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그니까 보험을 너무 싼걸 들어 왔더니 혜택이 그만큼 반 이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좀 많이 받았을텐데 보험이 그게 참 아쉽더라고.. 그리고 이제 있던 보험 다 해약했어요. 힘들어서... 아이들 오기 전에 내가 4개 정도 들어났었는데.. 글썽 그 보험이 다 들어져 있었으면 300정도 받았을텐데.. 내가 다 넣을 수 있었는데는 몰라도 해약한지 얼마 안됐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해약을 했기 때문에...

**Q: 아... 진짜...**

A: 알리안츠에 수술하는거 그거는 무릎수술이 보장이 200정도 나오는 거였거든요. 아휴,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대한생명 하나 남겨놨는데.. 보험료 제일 안 들어가는 걸로 내놓은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 너무 아깝고.. 우체국 암보험도 입원료는 나오거든요. 그것도 너무 아깝고.. 말하면 뭐해 하면서 친구한테 가서.. 너 진짜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어도 계속 돈 들어가야 되는거라 힘들었지... 근데 해약해서 한 몇 개월 잘 썼지 뭐...

**Q: 음...**

A: 근데 지금은 그 보험 해약할 것도 없고 저기할 것도 없고 해서 좀 힘들긴 한데.. 저번에 한번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든데 도와주면 안 되나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저기는 아닌데.. 엄마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애.. 안 도와주시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애. 내 느낌은 있어요. 맘 적으로 속상하고 힘들 거... 엄마도 마음은 느끼는데 니가 엄마 얘기, 엄마 말, 엄마한테 상의도 안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엄마 나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힘들어.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니 새끼잖아... 아휴.. 이제 좀 서운하면서도 그래 내 새끼니까 엄마 말이 맞지.. 이렇게 됐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물어봤는데 안 도와주신다 하더라고.. 엄마 나 안 도와줘도 돼. 잘 살고 있어.

**Q: 그러면 좀 원망스럽지 않아요?**

A: 원망스럽긴 해도 어차피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 새끼니까. 엄마가 나까지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니까 편하고... 지금 당장 안 도와주셔도 나중에 도와주시겠지. 그냥 내 마음 생각..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다. 나중에 목돈 주실려나...

**Q: (하하)**

A: 나 혼자 생각이야. 그니까.. 안줘도 뭐라 못하는 나혼자 그냥.. 그러면서 위안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Q: 아까 뭐 그 계속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싶다 그러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A: 아직은... 아니 다리가 다 낫고 나서도... 글썄요...

**Q: 좀 약간 두려움이 있나요? 여자 혼자서 헤쳐 나가는데?**

A: 그런게 또 있고... 예전에 다리 다치기 전에는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아휴.. 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리 다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좀 나태해졌다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다리가 완전히 나올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Q: 또 예전처럼 하다 아파질까 걱정..**

A: 내 친구는 나보고 우울증 올까봐 걱정이 된다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 혼자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왜 우울증이 걸리냐고.. 나 엄마라고... 맞아. 너 엄마잖아... 막 이러고.. 친구 뺨에 그리고 나 언니들도 좀 많이 있구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나보고 인덕이 많다고 해요. 항상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나한테는 고맙고 나도 뭐 좋고 잘해주고 그런 건 없는데도 그냥 느껴지는 게 사

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뭐 금전적으로 도움은 안 되도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Q: 위안이 되고..**

A: 위안이 돼서 우울증 가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리 아파서 집에 있으면 힘들텐데.. 그러면 가끔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에 힘들지? 아휴.. 글썄요.. 그니까 다리 정상적으로 될래나.. 만약에 정상적으로 아니어도 80%만 가능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걱정이예요. 그니까 앞으로의 일은 모르잖아요. 계속 걱정하면 안 되는데 잘 될거라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일을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근데...

**Q: 아직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 그게 지금 장담이 안 되서.. 연골 수술 받으신 분들 있는데 그분도 지금도 안 좋다고 하니까...

**Q: 지금은 이제 수급자가 되면은.. 선생님이 아플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한꺼번에 교육급여, 의료, 생계, 급여, 주거..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선생님이 가장 필요한 게 의료쪽.. 의료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무릎 안 좋으니까 병원 좀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보장 된다면..**

A: 그것만 해도...

**Q: 그것만 해도 좋겠어요?**

A: 크게 바라지는 않고 그것만이라도...

**Q: 의지할 수 있으면...**

A: 예. 아이들한테 의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애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감기 잘 안 걸리고... 병원에 1년에 한, 두 번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일단 있

으면 좋았을꺼고... 그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95%는 나한테...

**Q: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A: 예. 그 상황에서 그거 혜택은 해주셨으면 해요.

**Q: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돈을 100만원 벌면 수급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서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의료만 되면...**

A: 예.

**Q: 나가서 딱 조금 일을 해서 더 키워 나가는 쪽으로...**

A: 예.

**Q: 구직활동은 뭐 그래도 조금씩 하셨으니까..**

A: 예. 전혀 안하진 않았어요. 전혀 안할 수 없죠. 정부에서 나오는 돈 50만원 가지고 애들 키우기는... 여기 관리비만 해도 10만원 넘는데.. 임대료, 관리비.. 그니까 많지는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수중에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자면은 10만원, 12만원이 되게 큰 거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따로 내야 되고.. 또 아이들이 항상 하는 거... 그런 거 대부분... 이것저것... 그게 아이들 보험도 요번에 들어났어요.

**Q: 아.. 보험도...**

A: 요번에 나 때문에... 내가 보험을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무릎 수술하고 그래서 안 되요. 아무 것도 안 되요. 너무 속상한거야. 아예 무릎 저기 가기 전에 보험을 들지 그랬냐고 했더니 말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아이들 보험도 이제 하나 들었어요. 예전에 들은 건 전 남편한테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들어갔으면 7, 8년 정도 들어갔었을 텐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이들 저기했을 때 타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 화재보험도 이제 들었어요. 정신적인 그 모든 저기가 여유가 없어... 막... 뭘 해야겠다 해야겠다

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휴... 그냥 무조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그냥 과자라도 더 사주고 싶은 그런 부모마음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으로 막 살다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르바이트 한 시간 더 하는 이런 걸로만 살아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많이 신경 안 썼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안정 찾은지 1년 넘었는데.. 학교생활도 원만하고.. 처음에는 왕따 식으로 당했나봐 큰애가.. 지금은 너 왕따 시키는 애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언제 왕따였어? 다행이다구...

**Q: 다행이네요.**

A: 친구들이 왕따 시킨다고 막 울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없다고...

**Q: 예전에 마트에서 캐시일을 했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애들 오기 전에 아는 언니 가게에...

**Q: 진짜 아는 사람 많으시네.**

A: 동네.. 그냥 동네 마트죠. 그냥... 동네마트.. 작은 마트인데 거기서 그냥 언니 놀러 갔다가 니가 좀 봐라... 봐주다가 그게 되니까 어우.. 너 잘 보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언니랑 좀... 언니 바쁠 때 가서 도와주고 하다가.. 이제 조금 큰데 그니까 언니보다 많이 큰 이런 홈플러스 이런 데는 아니고.. 거기도 동네마트예요. 알바를 한대.. 정직원은 없고... 직원이 아파서 당분간 쓰는 동안만 알바를 쓴대요. 그래서 언니 이거 있는데 나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한번 가봐라 그래서.. 언니가 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용돈 식이었어요. 언니 바쁠 때 마다 봐주는 거였기 때문에 용돈 식이었고 크게 도움이 안됐어서.. 언니 나 그럼 많이 못 도와주는데... 괜찮아. 너 저기 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좀 더 배웠죠. 알바하면서 배우다가 계속 그거 하게 됐는데 이제 큰데는 겁나서 못가고 그러다가 정 직원으로 한번 들어갔었나보다. 탄방동에 있는거. 근데 너무 멀어서... 한 달인가 하고 그만뒀어요



**Q: 서구쪽이죠? 탄방동은...**

A: 그런가.. 여기서 차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까지 가는 거리가 한 시간... 차 한번 환승하고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

**Q: 저도 서울에서 출근하는데 1시간 10분 걸려요. 멀죠.**

A: 근데 멀지는 않아요. 그니까 약간 거리를 있어.. 거리는 있지만 이 차 와서 기다려야 되고 차타고 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내려서 한 5분, 7분 좀.. 천천히 걸으면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곳에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한 달 동안 하는데 아이들하고도 힘들고 저녁에 7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8시가 넘는데 녹초가 되는 거예요. 퇴근 시간 걸려서 오니까.. 한 달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동안 적응하면 괜찮겠다. 그때도 월급이 90이었어요. 90이었는데 내가 놀고 싶은 날 돌려주는 게 평일에 돌아주는 거지.

**Q: 그때 수급 받았는데 그만큼 받고 일한 거예요?**

A: 그니까 계속 했으면 신청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힘들니까 그냥 그만둔 상태로 동사무소는 몰라요. 나도 얘기할 일도 없었고 뭐 한 달 일한 거 가지고 얘기하기도.. 근데 그냥 그러다가도 그냥 넘어가서 그게 다예요.

**Q: 한 달 하셨구나.. 그게 원래 진짜로.. 동에서 알면 이제 제제가.. 죄책감이나 이런거...**

A: 그건 있었는데... 만약 계속 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장 들어가면 얘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속이고 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만두면 내가 하고 있다 라고 동사무소는 계속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아휴.. 그냥 한 달만 하고 그만 두자 한 달만 하고 버티자. 한 열흘 다녔는데 진짜 죽겠더라고 너무 힘들고... 알바 잠깐 잠깐 하다가 거기서 카운터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거기는 9시간씩

하잖아요. 좀 더 하면 연장까지 해서 12시간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든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일이 힘든 것도 조금 힘들었지만 왜 그러냐면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면 일 힘든 건 안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대전 그 직장 들어가면요. 텃세가 무지 심해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리도 좀 아팠고.. 그때도.. 그때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다리도 아팠고.. 텃세도 좀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라고 할까.. 좀 잡았다고 하나.. 군기를 다 잡았는데 언니들이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는 어딜 가든 처음에 사람들이 경계하지 나를 알고 나면 경계를 절대 안하거든. 더 줄려고 하면 쫓지... 한 달 딱 하고 그만 두니까 난리가 났어요.

**Q: 되게 장점이지네...**

A: 나 너무 멀어서 못 다닌다고..

**Q: 그래서 다시 그냥.. 거리만 가까웠어도..**

A: 그쵸. 거치만 가까웠으면.. 근데 거기가 4대 보험이 되는데 일단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수습하잖아요. 어디 가던지 간데.. 그래서 4대 보험을 안 들어가서 동사무소 몰랐을 수도 있어요.

**Q: 아... 그렇겠네요. 그거 하면 동사무소 전산에 바로 쓰는데..**

A: 4대 보험이 언제부터 되냐 물어봤더니 그때 석 달이라고 했던가..

**Q: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될 때...**

A: 그래서 한 달부터 세 달까지가 정직원보다 더 힘들게 일을 시키더라고...

**Q: 음...**

A: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집만 가까웠어도 좀 근데 차 타는 오고 가는 시간이 장난 아니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또 그니까.. 안해 보던 걸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을...

**Q: 그러셨구나...동에서 공인중개사나 컴퓨터 말고 다른 직업훈련으로 뭐 배우고 싶은거 있으세요?**

A: 솔직히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이 없어...

**Q: 그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조금 준비하거나 뭐 그런거..**

A: 아직은 없는데 해야 되거든요. 늦었거든. 나두... 해야 되는데...

**Q: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A: 일단 미래 뭐 미래라는 거는 내가 현재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건데 그거 부분에서 지금 매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특별하게 저기하는 건 없는데..

**Q: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게 준비해주는 게...**

A: 예... 그거 말고는 대학까지 가려는 그거... 한마디로 계획이죠. 그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학까지 보내는 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다른 것도..

**Q: 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A: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아이들한테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게 밑받침이 되어 그 아이들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거기까지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네들이 알아서 해도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못해주면 어떡하나 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Q: 미래를 위해서 뭐 그러면은 준비하거나 투자하는 이런 거는 아까 보 힘 넣은 거 말고...**

A: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니까 뭘 일을 해야 여유랑 뭐랑 돈을 좀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뭘 하겠는데 그니까 심지어는 언니들이 10만 원짜리 계라도 들으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10만 원짜리 목돈 타면 통장에 넣어 놓고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계는 무섭잖아요. 다 아는 언니들이고 우리들끼리 짜서 하자고 해요. 거기도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다 알고 아저씨 뭘 일 하는지도 다 알고 애들도 다 알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언니들인데도 거기 못 들어가니까 언니들이 안쓰러워하지...

**Q: 형편이 안되서...**

A: 음.. 안쓰러워 하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만든 계였어요. 그거는

**Q: 아 선생님이 안되니까 안하고...**

A: 음.. 안되니까 안 해.. 언제든지 너가 되면 해라... 너 땀에 시작하려고 한거였는데 너 아니면 할 필요도 없어. 언니들은 급하게 돈 필요한 언니들이 없거든.. 다 아저씨들이 잘 벌구 자식... 충분히 넉넉히 버시는 분들이예요. 다 건설하는 쪽이라.

**Q: 많이 의지도 되겠어요?**

A: 의지 되죠.

**Q: 도움도 좀 되고...**

A: 어. 많이 되죠. 금전적으로 크게 안 되도 아이들 간식 한 번씩 사줘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김치를 한번 담아줘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너 뭐 먹고 사냐 집에 와서 김치 가져가라 이러니까 항상 고맙지.. 항상 빛이야.. 빛이 너무 많아... 돈 빛이 아니라 완전히...

**Q: 사랑의 빛인데...**

A: 응. 사랑의 빛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Q:** 지금은 몸 좀 그러시니까 한 5년,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A: 제가 지금 저거 한지공예 공방이거든요.

**Q:** 아.. 만드신 거예요?

A: 저쪽에 다 있구나. 그거 지금 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Q:** 손재주가 좋으신가요.

A: 제가 뜨개질 짜끔 어깨 너머로..

**Q:** 전문간데요. 어깨너머는 아니고..

A: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커텐인데.. 커텐 위에 치는거...

**Q:** 아.. 예쁘다.

A: 이것도 안 가르쳐 줘서 누가 해놓은 거 보고.. 근데 똑같애.

**Q:** 와.. 대단하다. 이거 되게 손 아프다던데...

A: 괜찮아요. 요령 있게 하니까...

**Q:** 예쁘네요. 재주가 있으시구나...

A: 이것도 괜찮고 이거 말고 별개 다 있어요. 서랍, 상, 반진고리...

**Q:**윤기만 나게 하면...

A: 마감재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Q:** 튼튼하게 쓸 수 있으니까..

A: 예. 물 닿아도 먼지 나도 괜찮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그런 거 배우고 싶어서 처음엔 좀 했어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Q: 동이나 구청, 문화센터 이런 데서는 저렴하지 않아요?**

A: 근데 이걸 없어요. 이거는 전주에서만...

**Q: 아.. 전지 한지공예..**

A: 그게 유명하잖아요. 대전에는 없어서 되던 안 되던 이걸 배워가지고 와갖고.. 그래서 아는 언니가 그 언니가 가게를 비싼 건 못 얻어주고 창고형 가게 있잖아요. 첨엔 창고를 쓰다 좀 꾸며가지고 돈 좀 나오면 나중에 가게가 될 수 있는.. 그니까 월세도 거의 없고 보증금도 없는데 언니가 얻어줄게 했는데 내가 못 하고 있어.

**Q:앞으로 공방 같은 거 이런 뜨개도 하는 거 하고 싶어요?**

A: 그러면 일단 다리 아픈 데는 도움이 되는게 이거라 생각이 들고.. 그니까 예전에 다리 조금 아팠을 때 그냥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때도 이런데 그냥 관심이 많아요. 그냥 배우고 싶다. 근데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Q: 잘하시는 것 같은데...**

A: 이쁜 거 되게 많은데... 오는 사람마다 족족이 다 가져가네요.

**Q: 아.. 인기 폭발이구나..**

A: 이것도 가져간다고 해서 안 돼 이래서 못 갖고 가게하고. 육각등도 되게 예뻐요. 이것도 탐내는 사람이 많아서 감춰놨어. 그리고 책상도 있고 쌀뒤주도 있고...

**Q: 한지공예로 그것도 해요?**

A: 다 해요. 농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Q: 그런 건 제작기간이 길겠어요.**

A: 좀 기간이 있고. 이런 거 기본 자체도 한 3, 4일 걸려요. 왜냐면... 한지가..

**Q: 재단하고 붙이고...**

A: 말리고.. 물 빼고.. 말리는데 시간이 색깔 빼고 말리고.. 색깔도 한두 번 빼는게 아니라...이게 까만색 한지예요. 전체 물 빼는 것도 3, 4번 빼고.. 한번 빼서 말리고 또 한 3, 4일 걸려요.

**Q: 그렇구나.**

A: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몸으로 안 떼우고 일단 그전에도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Q: 더더욱..**

A: 음..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Q: 음...**

A: 그니까 잘은 못하는데 그냥 해보고는 싶어요.

**Q: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겠구나..**

A: 그니까 뭐 잘 할려고.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건 없어도 이거 뜨개질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다 짚어서 입혔는데...

**Q: 알겠습니다. 암튼 선생님은 동하고 관계가 좋아서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소득한 거 만약에 나중에 걸렸으면..**

A: 좀 안 좋았을텐데.. 그때는 나도 정직원 되는 코스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는 언니 소개로 가서..

**Q: 그나마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나봐.**

A: 그게 3개월이면 자동으로 거기 올라가서 저기가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럼

그때 가도 뭐 저기 안했는데.. 내가 적응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서..

**Q: 선생님도 오래 됐으면 말씀 할려고 했다 하니까..**

A: 왜냐면...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 괜히 막 마음 줄이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그런 거 해가지고..

**Q: 아쌀하게..**

A: 불안하게... 전화 오려나 집에 찾아 오려나 집에 찾아오면 안 되는데... 이런거 나 그런 거 제일 싫거든. 그냥 기면 기고 몸이 좀 이래서 좀 좋아져서 여기 다니게 됐는데 여기 다녀도 크게 도움 안 되는 거니까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신경 써 주세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도 크게 뭐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막 동사무소도 막 무조건 이거는 안 돼.

**Q: 원칙대로 그분도 했으면 갈등도 있었을 텐데...**

A: 그쵸. 많았겠지.. 근데 많이 도움은 아니어도 거의 그쪽으로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예요. 지금도 진단서 이렇게 끊어 오면 다른 분 같으면 계속 진단서만 끊어 온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안 끊어 오고... 서류 이렇게 맨 날 곤란하고.. 그 선생님도 어차피 서류를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짜잘 짜잘 넣으면 그 사람 처리하는 부분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화내고 이런 것도 없고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없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 사갔더니 음료수도 안 받아서 민망하게 들고 왔어. 안 받으시더라고...

**Q: 그때 뭐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A: 아... 어제는 친구... 친구일이에요. 공증 뭐라 그래야 되나. 친구가... 친구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재산이 되 있거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다 재산을 준다는 공증을 서러 간 거예요. 나하고 또 한 친구하고...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 꺼 해주느라고 3시에 들어왔다.



**Q: 친구들이랑...**

A: 그 친구도 초등학교 친구도 오래된 친구니까 서로 모르는 것 없고... 개도 시골에서 올라온 애라. 시어머니랑 넷이 가가지고 공증해주고 늦게 점심 먹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3시 됐더라고요.

**Q: 그랬구나. 마지막으로 수급 받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A: 그런 건 크게 없는 거 같은데... 없는 거 같아요. 뭐 많이 저기 한 것도 없고 그냥 괜찮아. 이정도면... 크게 저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나한테는 동사무소에서 크게 저기한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모르겠네.

**Q: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급자 10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총 14~15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26	남	유	유
2	어머니	64	여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임대아파트에 거주.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림. 산 위에 아파트가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 인터뷰를 직장에서 했기 때문에 집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함. 현재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복지관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매우 가까움.

##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p>조사 시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처음에는 자신은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어머니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며 인터뷰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지만, 실제 조사로 만났을 때에는 성실히 답함.</p> <p>조사대상자는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욕은 충분하나 전문대 졸업 후 현재 대학 편입 준비 중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전까지 수급을 받으려고 함.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독서실 충무를 하면서 편입공부를 하고 있었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지금 일하는 곳이 편입공부를 하기에 여건이 좋아 일하고 있다고 함. 편입하여 졸업 후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 꿈으로, 돈에 한이 맺힌 게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소득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음.</p>

Q: 하루 여섯 시간 매일 근무하세요?

A: 10시까지

Q: 매일 근무하세요?

A: 토요일은 아침부터 5시까지

Q: 일요일은 안하시죠?

A: 네

Q: 아까 전화 드렸을 때 주무시고 계셨던거죠. 죄송해요.

A: 예 잠시... 아닙니다 일어날 때여서...

Q: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거예요?

A: 2월부터...

Q: 그 전에는 다른 일 하셨던 거 있으세요?

A: 뭐 여러 가지... 말해야되요?

Q: 안하셔도 돼요. 여기는 소개 받으셔서 오신거예요?

A: 인터넷에서... 같은 동네니까요.

Q: 동사무소 공무원은 자주 만나세요?

A: 저는... 거의 안 만나요.

Q: 그럼 어머니가 그럼 주로 만나시나요?

A: 별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안가죠...서류 떼야 될 때나 가고.

Q: 그런 경우 직접 가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다 하세요?

A: 제가 갈 때도 있고 어머니께서 가실 때도 있고

**Q: 전화는 자주 안오죠?**

A: 가끔 와요. 집에 없으니까 못보는 것도 있으니까

**Q: 안부를 묻거나 그런 건?**

A: 안 와요. 집에 없으니까 못받는 것도 있으니까

**Q: 선생님은 연령이...**

A: 26

**Q: 그럼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A: 45년생이십니다.

**Q: 그럼 어머니도 혹시 일을 하고 계세요?**

A: 지금은 안하십니다.

**Q: 어디 아프세요?**

A: 많이 아프시죠.

**Q: 실례가 안 되면 어디 아프신지...**

A: 폐도 안 좋고... 골다공증에다가 기관지도... 그런 거 따지면 많죠.

**Q: 기초보장 수급은 언제부터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A: 여기 이사 올 때부터 받은 걸로...

**Q: 이사는 언제 오셨어요?**

A: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니까... 12살 때부터...

**Q: 그럼 이사 오시면서 수급을 시작하신거네요?**

A: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Q: 한 14~5년되셨네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A: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Q: 그땐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어요?**

A: 자질구레한 거 조금씩...

**Q: 그전에는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A: 국가에서 나오는 돈 하고... 그전에는... 삼촌들이 계시거든요... 삼촌들이...조금씩 도움 주셨고...

**Q: 지금 기초보장수급을 조건부로 수급 받으시는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하니까...**

A: 네. 제가 일을 하니까 급여는 안 나와요.

**Q: 돈이 전혀 안 나와요?**

A: 그 전에는 5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니까 돈이 안 나와요. 제가 저번에 대학을 떨어졌어요. 편입준비 때문에. 그 전에는 공부한다고 일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면서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이거는 제 생활하기도 벅찬데.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Q: 전혀 급여가 그러면...**

A: 의료보험 혜택 같은 건 받을 수 있는데 쌀도 다 떨어지대요. 쌀도 저희가 2만원 내고 사야 되요. 혜택은 거의... 그런 건 다 떨어졌어요.

**Q: 복지관에서는 얼마나 받으시는 건가요?**

A: 70만 원정도... 소득이 급여보다 많으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Q: 그런 경우 소득이 더 적으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A: 법이 또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좀 안타깝죠. 제가 이거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Q: 그럼 편입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A: 그래도 다행히... 일하는 게 공부하는거와... 여기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면 되니까...

**Q: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겠네요. 무슨과?**

A: 예 1월 달에. 체육교육과

**Q: 운동 잘하시나봐요. 체육교육과 다시시면... 선생님?**

A: 네. 선생님...

**Q: 꿈이 있으시네요. 체대에 가려고 하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A: 근데 작년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운동을 제가 가르치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르치면서 하니까 제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헬스장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Q: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 같아요. 특기는...**

A: 예전에는 농구 했었는데 키가 안자라서...

**Q: 지금은 어떤 운동하세요?**

A: 지금은 그냥 실기종목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Q: 농구도 잘 하실거 같아요**

A: 농구요? 농구는 뭐... 이때까지 해 왔던거니까. 운동하는거 좋아하니까요 운동 없이는 못사니까...

**Q: 편입해서 2년 학교 다니시고, 임용고사쳐서... 그럼 그때는 수급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거죠? 교사가 되면...**

A: 그렇죠. 교사가 되면... 말이야 누구나 다할수 있는거죠.

**Q: 혹시 그러면 올해 일하시면서 월급이 깎으셨잖아요. 추정소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로 하는거는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고, 돈을 버는 만큼 공제하신 거예요? 소득이 분명하셔서...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안 하셨으면...**

A: 그죠. 다 올라가니까... 제가 여기 일을 안 하고 차라리 노가다라도 하면... 되는데. 근데 공부하는 일이라 방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욕심 때문에 미안하죠. 제가 더 미안하죠.

**Q: 사실 그런 일용직 일을 하시면 얼마나 버시는지 국가에서 모르니까... 소득이 잡히지가 않아서 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안타까워 하셨겠어요.**

A: 70만원이잖아요. 그대로 다 깎였잖아요. 근데 공부하는거랑 딱 떨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돈이 나오는 거나 제가 일을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차이가 한 10만원 나나?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쉬워요. 여기가 좋긴 좋은데 돈만 잘 나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죠.

**Q: 시험 준비 하셔야 되니까 다른 일... 노가다는 하시기가 좀 그렇고...**

A: 그렇죠.

**Q: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네요.**



A: 가끔씩은 반나절만 하고 오고 그러니까...

**Q: 4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며칠 일하십니까?**

A: 6일 동안 일을 하고요. 일요일 하루 쉬고. 빨간 날은 다 쉽니다.

**Q: 쉬는 날은 급여가 그만큼 깎이나요?**

A: 아뇨. 월급으로 받아요.

**Q: 어머니는 전에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아프셔서 일을 안 하시는거죠? 어머니께서 처음에 동사무소에 진단서 같은 거 내셨어요?**

A: 네. 지금도 내세요.

**Q: 3개월에 한번씩...**

A: 그걸 안내면... 안되니까...

**Q: 어머니는 병원 자주 다니시겠어요.**

A: 지금 약 먹는게 일이에요.

**Q: 약을 많이 드시네요....병원가시면 한 달치씩 받아오셔서...?**

A: 약은 종류가 많잖아요. 예.

**Q: 병원은 어디... 한군데만 다니십니까?**

A: 부민병원도 가고 근처에 있는 병원도 가고

**Q: 사실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신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수급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의료급여 때문에 남아계신거예요?**

A: 그게 많이 크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의료혜택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생활하는거죠.

**Q: 만약에 의료급여를 분리해서 수급을 벗어나도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수급을 벗어나시겠어요?**

A: 그런 생각 안해봤는데요. 지금 나갈 돈도 없고

**Q: 지금 계신 집은 월세나 그런 거 내시나요?**

A: 월세는...임대아파트라서 관리비만... 관리비가 많이 나오던데요. 10, 20만 원 정도.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주공아파트 4단지가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싼거 같아요.

**Q: 왜 그렇죠?**

A: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왜 관리비가 더 비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관리비가 더 비싼 거 같아요. 친구 집 구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한 10만 원대 나오던데. 겨울에 나와도 10만 원대 초반 그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더 비싼 거 같아요

**Q: 그러면 한 70만원 벌어서 관리비 20만원 내고 나면... 다른 아르바이트는 할 틈이 없으신거예요?**

A: 주말에 가끔씩...

**Q: 바쁘시네요. 노실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A: 그래도 쪼개서 한번 하면...

**Q: 노가다나 그런 데는 갈 데가 많습니까?**

A: 예. 할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거 해서는 안되니까...

**Q: 그죠.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한거니까... 원래는 다른 학교를 다니셨던 거죠?**

A: 예 경남정보대... 부산에 있는 거...졸업하고...

Q: 학사편입... 원래는 무슨과?

A: 원래도 체육과...

Q: 자활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A: 자활사업이요?

Q: 그게... 기초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따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A: 아... 국가에서 정해주는 일자리..?

Q: 네. 들어보셨어요? 근데 참여하실 마음이 없으신거예요?

A: 네...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Q: 지금은 70만원 월급을 받으시면 다 급여에서 빼잖아요. 근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30%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 자활사업 일자리 중에서 지금하시는 일자리가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A: 근데 지금은 제가 계약직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Q: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자활사업에 있으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A: 마음은 굴뚝같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소득도 똑같고 그러려면... 근데 지금 구해주셔도 못해요. 돈이 좀 적더라도 여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Q: 계약 단위는 1년 단위인가요?

A: 네. 편입시험 끝나고, 2월에 끝나고...

Q: 본인이 희망하면 1년 연장도 가능하고 그런거죠?

A: 그렇죠. 근데 학교에 붙으면 거기 가야되니까...

**Q: 어머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적 없으신거죠?**

A: 네

**Q: 어머니는 근로를 전혀 안하세요?**

A: 네. 아프셔서. 못하죠. 하려고 하시면 제가 못하게 하죠.

**Q: 많이 아프신가봐요.**

A: 그냥... 뭐. 밤마다 주물러드리고 해야되니까...

**Q: 효자인가봐요.**

A: 제가 한이 많이 맺혀서.. 꼭 성공해서 효도를 해야되니까...

**Q: 잘 하실거 같아요. 되실거 같아요.**

A: 말은 다 그렇게 하죠.

**Q: 다른 가족은 없으신거죠? 어머님과 두 분이 사시는거예요?**

A: 따로 사시는 분은...

**Q: 형제분 혹시 없으세요?**

A: 형제는 없어요.

**Q: 지금도 삼촌들이랑 연락은 자주 하세요?**

A: 가끔씩

**Q: 도와주시고 그러신거는...**

A: 그 쪽 환경도 다 어려워서... 가난은 다 맴도는 거 같아요

**Q: 가깝게 계세요?**

A: 좀 멀리... 부산에 있거든요...

**Q: 사실 급여가 깎이는 거 아셨었어요? 일을 하면...**

A: 네. 혹시나 해서 기대를 했는데, 깎이더라구요. 반반이었어요.

**Q: 그거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물어본 적 있으셨어요?**

A: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70만원 받아서 관리비내고, 생활하고, 약값 들어가고 그러면 남는 게 없다. 혼자생활하기도 벅찬데.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 밀쳐야 본전이라 생각해서 한번 말이나 해봤는데... 무작정 따질 수도 없고

**Q: 설명을 잘 해주던가요? 수궁이 되셨나요?**

A: 수입보다 많으면 깎인다고. 예. 어쩔 수 없다고

**Q: 계약하기 전에 급여가 깎이는거 아셨으면 계약 하셨겠어요?**

A: 여기는 공부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복지관이라서 바로 올라가는데, 독서실은 돈이 적더라도 급여가 나오는 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받고 일을 했는데 깎이면 손해잖아요. 좀 더 많이 받고 깎이는 게 좋으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택한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Q: 사람이라면 욕심이 날거 같아요. 지금 80만원 받으셔서 관리비랑 공과금 내실테고, 생활비로 쓰시고, 학원비도(헬스) 쓰시는 거잖아요. 그 외 학교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드는 돈이 있으세요?**

A: 따로 드는 건 없어요. 헬스만...

**Q: 헬스비는 얼마나?**

A: 3만원. 길게 끊으면 더 싸죠. 좋은 데는 아니고...

**Q: 제도에 대해 불만이냐 얘기 같은거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A: 수급자로서요? 나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그 만큼 그렇게. 모르겠어요. 모르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노인분도 계시고 혼자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니까 제가 뭐 불만이 있을 수가. 그 사람들도 수급자 생활하지만 나름 잘 생활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보다 더 잘 사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나라 법을 알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을텐데...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Q: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정보교환을 하고 그러실텐데...**

A: 그렇죠. 근데 대화가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Q: 동네 분들이랑 교류가 없으세요?**

A: 네... 별로...

**Q: 학교 가시는 거 준비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본인 나름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열심히 사시는 건데..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내가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빨리 수급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예를 들면... 학원비 지원을 해준다던가...**

A: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뱅뱅 돌아요... 한번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1년 쉬고 돈을 벌고 다시 학교를 가야되고 방학 때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남들보다 2배는 더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줄수록 빨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Q: 학교에 가시면 등록금이나 그런 게 있으실텐데... 그동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학하시면 대책은 어떻게?**

A: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욕심은 있어요. 무리긴 하지만... 돈을 좀 모은 걸로.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저축을 하면 모자라는

건 대출을 조금 받고... 나중에는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Q: 등록금은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목돈이잖아요. 다른 데 도움 받으실 때는 없으세요?**

A: 일단 여기 일하는 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Q: 저축도 하고 계세요?**

A: 은행에 넣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Q: 다른 빛이 있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A: 예 빛은 없어요.

**Q: 5년이나 10년 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A: 제가 돈 욕심이 많아서요. 돈 버는 거.

**Q: 교사하면 돈 많이 못 벌거 같은데...**

A: 저는 많이 벌 것 같아요. 한이 좀 많이 맺혀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Q: 열심히 잘 사시는 거 같아요.**

A: 더 열심히 해야죠.

**Q: 아버님은... ?**

A: 안계세요. 어머니가 이혼하셔가지고. 안본지는 20년 정도. 원래 동생도 있었어요. 예전엔 이런 얘기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다들 뼈뺏하게 나가니까... 저희 복지관에 다니는 애들이... 많이 뼈뺏어진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벌써부터 담배피고... 안타깝잖아요... 말로는 학원 간다 하고 놀러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

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끼리 놀면 공부가 힘들니까. 공부할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Q: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A: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한데 환경 때문에... 집에도 부모님도 안계시고... 있어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니까 빗더미에 앉아있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을 복지관에 맡겨 놔는데 그래도 복지관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건 핑계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 수급자 11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일반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약 13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60	여	유	유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 내부는 방2개, 복도식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었음. 집이 잘 정돈된 느낌은 아니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재도구가 별로 없었음. 관리비로 보통 월 7~8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동절기에는 12~1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원래는 모자가정으로 생활보호제도 때부터 급여를 받다가 현재는 딸이 출가하고 자활특례로 일을 하면서 수급을 받고 있었음. 추가근로나 추가소득 등은 없다고 하였으며, 힘들지만 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 함. 전체적인 조사의 신뢰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A: (웃음) 참, 녹음하면 그런데 거짓말,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Q: 거짓말 하실 것 있으세요?

A: 거짓말 하는 게 없지만은 그대로 나오는 거, 내가 떨리잖아요, 지금.

Q: 떨리세요? 거짓말 하실 거 없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A: 아니, 떨린다 아이가.

Q: 숨겨놓고 할게요, 숨겨놓고.

A: (웃음) 아이고. 그냥 말만 주고받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해요?

Q: 재밌으신 것 같아요.

A: 진짜로 그러네. 그럼 뭐 물어볼 건데요?

Q: 그럼 제가 여쭙볼까요? 그럼 여쭙볼게요. 어머님, 지금 그럼 여기 댁에는 어머님하고 또 누구, 어떤 분하고 거주하세요? 같이 사시는 분 또 있으세요?

A: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Q: 아, 혼자?

A: 혼자 있어요.

Q: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A: 14년이에요.

Q: 14년, 이 아파트가 처음에 지어진 게?

A: 전 입주할 때 왔거든요.

Q: 아, 새 아파트에 들어오신 거예요? 계속 그럼 이 댁에...

A: 예.

**Q: 아 원래 덕도 부산이셨어요?**

A: 네, 원래 부산이에요.

**Q: 아, 토박이시구나. 사시는 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A: 아, 불편한 건 없고, 뭐 그대로. 국가에서 뭐 그러니까 보조받아 가면서 이래하고, 근데 이제 보조 안하고 복지 활동하고 지금 내가 하고 살아가거든요.

**Q: 아, 그러십니까?**

A: 여 환자들도 보고, 이제 그 청소도 해주고.

**Q: 오전에는 일하러 가시는 거구나.**

A: 복지 회관에.

**Q: 이 앞에 복지회관, 여기.**

A: 복지회관에 복지 대상자거든요. 거기 앞에서 해갖고 이제 같이들 가라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적어 주더라고. 그래서 내 집에 가가지고 가고.

**Q: 아, 일을 하세요?**

A: 예, 일을 합니다. 누구 집에 갔다는 그걸...

**Q: 증명을 하고?**

A: 하고, 빨리 하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Q: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A: 한 집, 네 집도 가고 세 집도 갈 때도 있고.

**Q: 하루에 세집, 네 집 가시는 거예요? 일이 힘드시겠네요?**

A: 오전에 두 번, 뭐 오후에 두 번 이러거든요.

**Q: 뭐, 그럼 청소하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A: 청소하고, 환자들 다 목욕시켜주면 목욕시켜주고. 신발하면 신발함에...

**Q: 힘드실 건데, 그거 괜찮습니까?**

A: 내가 살라고 하니까 좀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거든요.

**Q: 소일거리도 되고 이렇게. 좀 일 안 하시는 것보다 조금 뭐 덜 심심하고 그러니까.**

A: 근데 가만있는 것 보다 운동을 해 갖고 사람들 시중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시고. 이제 장애인들도 또 이제 말을 못 하면 또 적어주면, 그걸 또 나름대로 내가 또 가서 집 살림, 살림하듯이 가서 해주고 그러거든요.

**Q: 어머님 인상이 좋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A: (웃음) 그래서 자꾸 농담을 해서 줘...

**Q: (웃음)진짠데.**

A: 그렇습니다. 줘...

**Q: 인기가 좀 있으세요? (웃음)**

A: 인기 없어 나. 한참 돈, 금전적으로 생각, 돈 생각을 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루 나가거나, 하고 집에가 있으면 온 육신이 다 아프다니까.

**Q: 나가서 일하시는 게 더 좋으신 거죠? 집에 계속 가만히 있으신 것보다?**

A: 근데 65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더라.

Q: 그렇죠. 65세 전에는 안 되죠. 그럼 지금 혹시 연세가 육십 두 살?

A: 나, 만으로 육십이예요.

Q: 아, 만으로 육십이세요? 이제 5년 정도 일 더 하셔야 되네요.

A: 5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돼요.

Q: 근데 몸은 아프신 데는 많이 없으세요?

A: 집에 와서 몸이 아프니까 운동을 하고 다녀야 안 아프지. 내 활동을 하니까.

Q: 특별히 병원 치료 받으시는 건 없으시고요?

A: 좌골 신경통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번...

Q: 그 땐 병원 가시고?

A: 그 때만, 좀 아프면 머리가 막 아프고 하면 한 번 그러고.

Q: 일 하시는 건 좀 재미가 있으세요,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거고, 재밌다 생각하면 재미도 있을 건데.

A: 뭐 기쁜 맘으로 하는 되죠. 그리고 내가 뭐 좋게 함으로써 또 그 사람들이 뭐 좋아라하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안 땡기면 좀 이런 추한 일을 하고 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땡기는데. 근데 사람들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Q: 어머님 그럼 교회 다니시는...

A: 기독교, 네 기독교.

Q: 교회 다니시니까 여러모로.

A: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러 댕겨도 기독교 종교에서 이제 해야지. 이제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은 더 많이 못하게 고통을 덜어 가겠더라고요. 하나님하고 하니까 또.

**Q: 감사하는 마음으로.**

A: 말벗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뭐 딴 생각을 하면 절대 이런 일을 못 해요. 봉사성, 무슨 뭐 진짜 아무나 하듯이, 사랑은 뭐 아무나 하듯이. 뭐 그것도 뭐 다 베풀어야 되는 거.

**Q: 그렇지 않으면 도움 받는 사람도 불편할건데,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A: 그럼, 서로 대화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좀 있지. 뭐 누구 담다 해갖고 작가 혼자 하려고 해갖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속으로는 마 받아주고 나오고, 내가 내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Q: 어머니 하루에 한 네 집, 다섯 집에 가신다고 그러시니까.**

A: 세 집, 적게 가면 세 집 가고.

**Q: 그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집, 한 몇 집씩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님 어머니가 그냥 형편 되는대로 가십니까?**

A: 아니. 적혀오지. 종이에 딱딱 정해져.

**Q: 하루에 몇 집, 어디어디 가라.**

A: 몇 동, 몇 동 가라. 몇 동 집에 할머니가 아프고, 뭐 몇 동 집에 뭐 있고, 뭐 성인들 집에 또 뭐 있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집, 그 가정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Q: 그럼 그 정도면 어머니가 하루에 하실만한 정도의 일은 되는 거네요?**

A: 예.

**Q: 이걸 도저히 하루에 할 수 없는데 뭐 하라 그러는 건 아니고?**

A: 아니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더 우리도 더 시키면 못 하지. 그 복지 식당에, 무료 급식소 식당에,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가사도 그 때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실은 9시부터 가 가지고, 몇 시, 9시부터 가 가지고 2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저는 2시까지 해야 되고. 이제 복지 회관 무료 급식소는 이제 12시에 밥 먹으면 1시에나 1시 반 정도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Q: 그러면 맨 처음에 언제부터 그런 수급을, 국가에서 돈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A: 좀 됐는데요.

**Q: 이사 오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A: 이사, 여기 이사 들어와서 간 게, 저기 연산동에 살다가 이리 왔거든요.

**Q: 그 때부터, 그 전부터? 연산동에서 그럼 지원 받으신 거네요?**

A: 그래 가지고, 저기 이제 방 좀, 방 좀 있는데 여기도 아무도 못 들어오더라고.

**Q: 그렇죠, 경쟁이 있어가지고.**

A: 아무나 못 들어오더라고. 요즘은 이제.

**Q: 14년~5년 이상 되신 거네요?**

A: 여기 14년이니까.

**Q: 더 되신 거죠. 더 오래 되셨죠.**

A: 아.

Q: 아니, 국가에서 돈을 받으신 게, 기초 수급 받으신 게.

A: 된다 하는. 13년인가?

Q: 13년 정도? 여기 오시기 전부터 돈 받으신 거 아니에요?

A: 아니, 아니야. 여기 오시고 나서, 오고 나서

Q: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A: 조금 있다가 모자 가정을 해 가지고.

Q: 아 그때는 아드님이 있으셨어요?

A: 아니, 아들이 없고 딸내미 있었고.

Q: 지금 따님은 어디 계세요?

A: 서울 갔어. 경기도 광명시.

Q: 출가 해가지고?

A: 네.

Q: 손주 분도 계세요?

A: 손주, 외손주 서울 갔으니까.

Q: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세요? 내려옵니까?

A: 서울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Q: 자주 못 오시고?

A: 이제 아, 애기 뭐 데리고 못 내려오잖아.

Q: 애기가 몇 살이에요?



A: 애기가 아직 어리거든요. 서른 이제, 애기가 이제. 완전 나는 나이가 육십이니까. 애들은 나이가 얼마 안 많아요.

**Q: 따님과, 따님 한 분 계시는 거죠?**

A: 예.

**Q: 어머님 그럼 지금 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A: 일 안 하기 전에?

**Q: 네.**

A: 일 안 하기 전에는 집에 놀고, 집에 있었지.

**Q: 그냥 집에 계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일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

A: 2000 몇 년 도. 2002년 도인가?

**Q: 아 한 2~3년 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A: 테레비에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Q: 아. 그럼 원래 일 안하셔도 되는데 일 하신 거예요?**

A: 아니 일이 가지고 있어야지. 일해야지. 나 혼자니깐 진짜, 능력이 없잖아. 어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잖아요. 나이도 있다고 안 받잖아요.

**Q: 맨 처음에 여기 수급자 신청하실 때요. 그때도 그럼 그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수급자 신청 하실 때는 그럼 국가에서 아마.**

A: 안 했지.

**Q: 그때는 그냥.**

A: 수급자 받고서는 나가서 일을 못 하지.

**Q: 그 때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수급 받으신 거.**

A: 수급자 그걸 받고, 받고 그걸로 생활을 했지. 혼자니까 뭐

**Q: 그 때는 그럼 일을 안 하셨으면 그때는 편찮은 데 있으시면...**

A: 그 때는 병원, 병원에 내 다니고.

**Q: 그 때는 그럼 진단서 내셨나 봐요.**

A: 응?

**Q: 진단서를 내셨나 봐요.**

A: 응. 진단서를 끊어 놓고 내 놀아가면서 일하고. 아프니까 못하니까. 그 때 나가서는 일을 못 하니까. 그것이 돈이...

**Q: 깎이지죠?**

A: 깎인 게 아니고. 이름을 모르겠지만, 돈을 더 많이 받아가 그거보고 재산이라, 소득이라, 소득이라 해야 하나?

**Q: 추정 소득.**

A: 소득이라 하더라도. 돈 많이 벌면. 소득이 많으면 바깥으로 나가면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이분이 또 여기에서 받아 갖고 해주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았지.

**Q: 예전에 그럼 병원 다니실 때, 병원 많이 다니실 때는 어디가 많이 편찮으셔서 다니신 거예요?**

A: 신경통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Q: 아, 입원도 하신 거예요?**

A: 뭐뭐 자궁 근종도 있고 치질도 있고. 모든 질병이 큰 병이 아니고 사소한 게 많았었어요. 탁 찌고 뭐 수술하고 그건 안했지만 대개 몸, 육신이 온전하지 않고 몸살이 나가지고 또.

**Q: 일을 못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A: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수술할 지경은 아직까지 안 되니까. 뭐 이제 그래 아프니까 못 간다고 말 하고.

**Q: 그럼 그 때 그 뭐 동사무소에서 진단서 뭐 가져오시라고 안 하던가요?**

A: 나 진단서 냈거든.

**Q: 끊어가지고 내라고?**

A: 병원 가가지고 이제 끊어놓고. 끊어 넣어야만 그게 이제 그런 수급자 거기 구청도 한다대요.

**Q: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던가요? 무슨, 무슨 서류를 챙겨주세요, 이렇게?**

A: 네, 뭐 병원에 가면 치료비, 진료비 영수증하고 진단, 내 진단 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영수증 끊어주대요. 끊어주면 동사무소에 진단서하고 갖다, 넣는 게 치료비하고 갖다, 그걸 보고 일해야 한다던데요. 그럼 여기들은 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다 그거 이야기하고 통과되는 건가본데.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진단서만 나오니까 알아들었지.

**Q: 맨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정보를, 그러니까 누가 여기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알고 그냥 가신 거예요?**

A: 수급자 신청할 때요?

**Q: 처음에 수급자 신청할 때.**

A: 아니요. 여기 와서는, 저기 연산동에 있을 때 동사무소에 막 이렇게, 수급자, 수급권자 얘기들하고 못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여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 쪽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이리 와가지고. 나도 이제 주택공사에 가가지고 서류 넣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Q: 옛날 연산동 동사무소 직원이 이리 연락해가지고.**

A: 예. 이리 연락해가지고, 주택공사 가가지고 이제 요리 금곡동으로 가봐라 해가지고 왔거든요.

**Q: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아파트로 들어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처음 신청할 때는?**

A: 수급신청은 여기 와서 했지.

**Q: 여기 와서, 그건 어머니가 찾아가서 가지고 하셨어요,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A: 아니. 서류 떼어가지고 그래갖고.

**Q: 그럼 알고 계셨네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A: 예. 다 알고. 그리고 또 통보가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데요. 와가지고 내가 이래 했으니깐 동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Q: 어머님 그럼 지금도 그러면 조금씩 이제 뭐 좌골 신경통도 있으시고, 일하기 힘든데. 진단서 끊으면 또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일은 안 하셔도.**

A: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안 할 입장, 평생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Q: 안 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냥.**

A: 안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봉사활동에서는 안 하면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

가 그걸 유의해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Q: 아, 일을 해야지만 급여를 주신다고 하세요?**

A: 네.

**Q: 어머님 만약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예전처럼 진단서를 또 가져가면 또 일을 안 하셔도 보조 받으시는...**

A: 65세, 또 65세까지 하면은 그 돈이 생활비가 생기죠. 그 돈이 일 안하고 몸이 아프니까 그대로 들어오고요, 일한 만큼 그럼 그 돈이 도로 나가니까. 그리 나가니까 그게 문제지. 만 65세까지라고요.

**Q: 그런데 지금도 만약 어머님이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일을 안 하셔도 똑같은 돈이 지금 들어올 텐데. 그보다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까?**

A: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렇게 궂은일을 하는 게 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이 상해도 해야 될 기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해야 된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라예. 만약 진단서 끊어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돈이, 재산이, 소득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것도 지금 해야 될 입장이에요.

**Q: 근데 아파서 진단서를 내시면 그냥 돈을 주잖아요, 국가에서?**

A: 그러니까. 진단서만 마련하면 됩니까?

**Q: 네.**

A: 진단서, 지금은 안 아프고 있으니까.

**Q: 아, 지금은 안 아프시니까?**

A: 지금은 안 아프고 있으니까. 나중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아프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기라예. 내가 만약에 하루 나가갖고 안 나간다 하면 그 대

신에 곱빼기로 더 해줘야하는 기라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 곱빼기로 더 하려면 내가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내가 안 그래요.

**Q: 혹시 그럼 주변에 일 하기 싫으셔 가지고 진단서, 좀 부풀려 내시는 분들 좀 없으세요?**

A: 뭐 그건 나 몰라. 내가 내가, 내 머리가 아픈데 남의 그것을 할 줄 몰라. 그런 사람도 몰라, 있는가 모르지만 난 내가 어찌 살아가는 건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Q: 주변에 이웃 분들이랑은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세요?**

A: 아니, 난 그런 거 없어요.

**Q: 그냥 주로...**

A: 그냥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여기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Q: 교회 가시면 같은 뭐 교우들이라고 하나, 신자, 선도들끼리 좀 교류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A: 대화를 하고, 교회에서도 난 집사 직분을 해 가지고 생명봉사도 하고, 봉사도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Q: 공무원분은 자주 연락하세요? 공무원. 그 금곡동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한번 씩 어머니한테 연락 합니까?**

A: 아, 금곡동 동사무소.

**Q: 어머니한테 연락합니까?**

A: 네, 연락 한 번씩 들어오네요.

**Q: 주로 뭐 무슨 일로?**

A: 그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불편은 없느냐, 어떻게 몸이 좀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고. 이번에는 그런 생계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안 들어가고 내가 이래서 살아간다는 그런 것만 연락 오고, 그 나머지는 연락이 안 와요. 그건 한 번씩 가끔 한 마디 진짜. 해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또 뭐 제도가 어찌 되는가 몰라도, 그런 때만 맨날 연락이 들어오더라고요.

**Q: 그럼 지금 한 달에 급여가 어느 정도...**

A: 그건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한 달에 꼭, 내가 화을 일부터 하니깐 화, 수, 목, 금까지 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30일 있고, 31일 있잖아요. 그러면 4번씩 하면 그 달, 나간 달만치만 돈을 주기 때문에 35만원, 많이 나올 때 35만원? 안 그러면 33만원. 그래 나오지.

**Q: 일당으로 치네요. 빠지시면 또 일감이 바뀌고.**

A: 바뀌고, 없어지고.

**Q: 대신에 또 다음 날 하면...**

A: 다음에 이제 곱빼기 해주면 그 돈을 또 쳐주고 그런 식으로 나온 나오데요. 내가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면 정말. 아직 모자라요. 생활이 모자라니까 하소연 해볼까 싶어. 이제 꼭 메여서 살았는데.

**Q: 관리비는 좀 아까 4단지 관리비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 관리비는 난방 올려줄 때만큼만 조금씩.

**Q: 겨울에 난방?**

A: 12~13만원.

**Q: 겨울에?**

A: 예.

**Q: 여름에, 다른 보통 때는요?**

A: 보통 때는 7~8만원.

**Q: 어머님 그럼 한 5만원 차이 나는데. 어머님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데, 그렇죠? 버는 돈은 똑같은데, 겨울에는 돈이 좀 더 나가고.**

A: 예. 그러면 버는 데에서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충이, 조금 더 주지도 않고,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주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먹는 거고 뭐이고 다른 사람, 이래 가면 난 이래서 살기 때문에 듬뿍 먹으면 뭐해요? 내가 절약해 솔직하게 살아야만 이제 그것을 받아서 살고 또 관리비 주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Q: 따로 그냥 뭐 좀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어도 선뜻 못 쓰시겠다, 이제 돈을.**

A: 듬뿍 못 쓰지요. 듬뿍 못 쓰죠. 그건 내가 사는 것도 사람이 다 틀린 모양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사람 대하는 게 좀 잘 알겠지만 사는 게 다 틀리거든요. 똑같다고 하지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요. 뭐 30 몇 만원 받아갖고 관리비 주고 남은 거 갖고 그걸 갖고 내가 절약, 절약해서 사는 기라요.

**Q: 진짜로 돈이 부족한 달도 있잖아요, 어머님. 갑자기 큰 돈 쓸 일이 있어서 그럴 땐 어떻게하세요?**

A: 큰 돈 쓸 때 되면 이제 교회 가서 빌려가지고 목사님이고 뭐이고 도와주시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나를 여기에다 보내서, 연산동 저기에서 교회 다니거든, 여기 이사 와서. 본 교회가 연산동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한 번씩 왔다가고 가을, 봄 철 되면 대신 나 왔다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



**Q: 집은 겨울에 따뜻하세요?**

A: 지금은 불을 안 올려주니까. 겨울 되면 방이 조금, 난방 올려줄 때는 조금씩 따시고.

**Q: 온수,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요?**

A: 온수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Q: 따님은 광명에서 뭐 좀 어떻게 잘 할머니 좀 도움을 좀 주십니까? 명절이 나...**

A: 자기네들, 자기가 그 아예 안 그래도 살림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4학년이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예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도움을 못 받아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지. 어떻게 서울에서 사니까 전화 오면 겁이 나 가지고. (웃음) 내가 서울로 묻지도 못하니까 받다가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러고 말아 버리거든요.

**Q: 따님은 수급은 안 받으시죠?**

A: 딸내미는 수급 안 받아.

**Q: 그런데 사위는 뭐 직장 생활 하시고?**

A: 사위는 뭐 노동이나 하고 댕기고, 그리고 딸내미는 직장 저기 동사무소 서류 해 주고 옛날 그 뭐 급식이라나, 급사라고 했나 옛날 말로 급사, 그거 하고 있다고.

**Q: 따님은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봐요. 벌써 손주 분이 큰 거보니까.**

A: 서른셋이니까 일찍 했지. 연애 시절에 그래 했으니깐.

**Q: 그럼 혼자 오랫동안 사셨겠네요. 따님이 결혼 일찍 하셔서 가지고. 출가 일찍 하셔서가지고.**

A: 여기 좀 살다가, 같이 있다가 나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주고 이제 서울이니

까 시집에는 저 전라도니까. 그래서 이제.

**Q: 명절에도 좀 오기가 힘들겠다, 그렇죠.**

A: 한 번씩. 가끔 자주 한 번씩, 자주는 못 오죠. 한 번씩 왔다가 그냥 가고.

**Q: 혹시 지금 하는 일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A: 하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게 뭐 있겠나? 난 이걸로서 만족하는 거지.

**Q: 지금 하는 일은 좋으세요?**

A: 아이고, 좋으나 안 좋으나 만족하고 살아야지요.

**Q: 혹시 나라에서 어떤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A: 지원해 준다 하면? 요것만 부족하니까 지원해 준다면 할 수 있지. 아직 60, 아직 70은 안 됐으니까.

**Q: 뭔가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뭔가를, 기술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면?**

A: 배울 수 있는 거요?

**Q: 예, 기술 같은 거.**

A: 지금 기술은 못 배우죠.

**Q: 그건 싫으세요?**

A: 눈이, 눈이...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Q: 아, 수술하셨어요.**

A: 그럼 이게(조사를) 집집마다 안 다녀요?

Q: 다 다니는 건 아니고, 다는 못 다니고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는 못 다니니까.

A: 몇 집만.

Q: 65세가 되시면 이제 일 안 하시고 그냥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때도 건강이 허락하시면 그래도 계속 지금처럼 강하게 힘든 일은 못하더라도. 틈틈이 뭐 일 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A: 그렇죠. 그 때 65세 넘어도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해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해준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무료급식소에 가가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가지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 할 수 있다하면 한다고 하면 해요. 65세 딱 넘으면 오지 마라하면 할 수 없는 거고.

Q: 그래도 하고 싶으면 오세요 그러면 가실 마음은 있으신 거죠?

A: 몰라, 지금 난. 그때 봐야 알지. 지금 이리 하고 있는 거지.

Q: 더 질문 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는 한 번씩 가서 어깨 치료는 받으십니까?

A: 난 한의원에 가 가지고 침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그걸로 세월 보냅니다.

Q: 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병원에는 얼마에 한 번씩 가십니까?

A: 내 이런 일 하다보면 이제 어깨가 힘든 일 하면 어깨가 뭉치면 그 때 되면, 한 번씩 가고 안 그러면...

Q: 아플 때만 가시는 거예요?

A: 예.

Q: 이 근처에 가까운 데 있어요, 병원이? 한의원이?

A: 저 나가야 되는데.

**Q: 걸어서 못 가고.**

A: 구포까지

**Q: 구포까지 가시네. 근처에는 없어요?**

A: 근처에 있는데 내 몸에 맞는, 내 때가 맞아야 되는 거라.

**Q: 구포는 버스타고 다니시고?**

A: 저번에 보건복지에서 오신 분들은 내 보고 다른 데 다 다녀보고 내보고 야마하다 하던데. 야마하다 이러던데, 내보고 물어보고선. 왜 그, 그런 말이 무슨 말이 고 모르겠는데 건강하다 그 소린가?

**Q: 그런 것 같은데요.**

A: 야마한가. 야마한가, 뭐 그런 말을 하대요.

**Q: 그 분들은 건강 상태 많이 물어보셨나 봐요?**

A: 건강도 물어보고 뭐 한 달에 뭐 머리 하는데 머리고, 차비고...다 물어봤어요.

**Q: 정말 꼬치꼬치 다 물어보셨구나?**

A: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을 해주고.

**Q: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최저생계비라고, 어머니가 한 달에 급여 받으시는 거 그 측정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통은 다니면서 얼마, 얼마씩 쓰시더라. 그래서 이제.**

A: 그런 게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은 없느냐 하는데 아무 상관은 없다고 그러대요.

**Q: 좋은 일 하셔서 가지고 어머니들 지출, 돈이 많이 필요하면 생계비 책정되는**

급여가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A: 그 쪽에서요? 그러니까 하고 나간 뒤로 이제 뭐 상품증인가 뭐가,

Q: 네, 저희도 있어요. 저희 드릴 거예요.

A: 아니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래 하고 주고 가더라고.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싫어가지고 내가 해놓고 가니까 내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 이번에는 그때처럼 꼬치꼬치 안 물어보네요.

Q: 또 다른. 우리가 여쭙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일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올라가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는 걸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런 조사는 한 3만 가구씩 하거든요, 전국에. 워낙 많이 하니까.

A: 어떤 집들은 막 많이도 주고 가는 집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그렇게 물어봐갖고 그래 가지고 주고 간다. 특히 들리네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말을 하고 가대요. 그건 뭐 끝이었죠.

Q: 선생님은 이런 거 아쉬운 건 없으십니까? 그런 거 지원받고 하시면서?

A: 난 뭐 아쉬운 그런 거 없어요.

Q: 만족하세요?

A: 왜냐면, 교회에서 좀 힘이 들면 조금 도움 받고 사는 그것만 하고 만족해요.

Q: 만족하세요? 혹시 5년 뒤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5년 뒤 쯤에는?

A: 5년 뒤 같으면, 내가 몇 살이고? 70세 다 된다 아니까.

Q: 만 65, 만 67 정도 되겠네. 만이 아니고 67 정도.

A: 그때 되면 또 몰라, 아까처럼 일하러 오라고 하면 그거 하고. 그건 강요할 수도 없어요. 다 같은 친구들끼리니까.

**Q: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재밌게 잘 해주셔서.**

A: (웃음) 그러니까. 내가 뭐 아이고 나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신기하고 나는 궁금해 가지고. 난 될 그것을 상세하게.

**Q: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 저희는 편한데, 어머니가 느끼시는 이런 것들이 어떨지 몰라서. 편안했지요?**

A: 이러니까 좀 편안하네요.

□ 수급자 12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노인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약 7~8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근로능력유무	근로활동여부
1	본인	65	여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영구임대 아파트여서 전체적인 면적은 좁은 편이지만, 조사자 1인이 거주하기에는 적절한 편이었음. 살림이 잘 정돈되어 있고, 기본적인 가구나 전자제품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음.

- 조사평가

조사의 신뢰도-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기록
전혀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살림의 규모나 모양으로 볼 때 반드시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음.

Q: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A: 3년이요.

Q: 3년. 얼마 안 되셨네요. 그 전에는 어디 다른 데 사셨어요?

A: 나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Q: 아, 그래서 말투가...

A: 나 저 위에 살다가 여기 내려온 지 이제 한 10 한 2년?

Q: 12년 되셨고, 원래 서울에서 사셨어요?

A: 예.

Q: 수급 받기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시작하신지는?

A: 내가 알기로 아마 2000년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Q: 아 그럼 기초보장 제도 처음 생길 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2000년.

A: 아니요, 그 한참 지나서 했는데.

Q: 이게 10월 달부터 생겼걸랑요. 2000년 10월이요, 제도가.

A: 어, 저 정부에서 이렇게 수급자 돈 주는 게요?

Q: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많이 안 주다가, IMF 되면서 이 제도가 2000년 10월에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생활을 주신거네요, 그러면.

A: 아마, 2000년도에서 2001년도면 아마 그 사이일 거예요, 아마.

Q: 그 때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A: 아유, 나는 내가 알고, 내가 신청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뭘 하다가 안 좋아가지고 이 전세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주인이 보니까 안됐고, 내가 좀 척추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 나가지, 척추가 안 좋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주인아저씨가 동사무소 가서 얘기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보시니까. 난 가족이 없거든요.

**Q: 아 혼자 계시는 겁니까? 자제분들도?**

A: 예. 원래 없어요. 저건 우리 저 큰 언니 막내아들.

**Q: 아.**

A: 근데 저 이모 외롭다고. 저렇게 해줘서.

**Q: 조카 분들이지네요.**

A: 예예.

**Q: 성함이 그러면 ○○○?**

A: 예.

**Q: 남자 할아버지...**

A: 다 그래요. 옛날 서울에서 살 때도 서울에서도 이제 뭘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좀 많이 알려졌었죠. 그랬더니 이제 남자인줄 아는데 여자니까 다 이제 말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Q: 그러면 원래 뭐 결혼을 그러면...**

A: 했는데, 그냥 애 안 낳았어요.

**Q: 그러면 서울에서는 일을 하시던 거예요?**

A: 예. 장사했었어요.

**Q:** 그러면 여기 소개 받은 건 동사무소에서 이 아파트를 알려줘서 오신 거예요?

**A:** 예. 이제 동사무소에서 내가 수급 받고 한두 달 되었나,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 달세 보증금 가지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 동사무소 아가씨도 고맙고, 우리 집 주인 아저씨도 고맙고. 난 그 때는 나이가 좀 젊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 아저씨가 이 제도가 나와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 길래 아직 난 젊은데요,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라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Q:** 그럼 그때 동이랑 지금은 다른 동? 그때는 금곡동 아니셨어요?

**A:** 저기요, 구포요.

**Q:** 아, 이사를 오셨네요?

**A:** 예예.

**Q:** 이 쪽 옮긴 뒤로 이 쪽 동사무소 직원들은 좀 친절하세요?

**A:** 예. 다 친절해요. 친절하시고, 난 정부에서 이 제도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일도 못하지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오래 서 있지도 못하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죠. 이러니깐 뭘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Q:** 지금은 척추 디스크 같은 거예요?

**A:** 이제 보문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무서워서 싫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아프면 그냥 물리치료 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라고.

**Q: 치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A: 예. 치료는 이제 병원에 너무 심하게 아프면 받으러 가고, 그냥 웬만하면 안 가요.

**Q: 병원까지 내려가시는 게 가팔라서 이제 어떻게 내려가세요?**

A: 그렇죠.

**Q: 천천히 짚고 가시면서요?**

A: 아니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Q: 저희들도 올라오려면 상당히 가파르던데요.**

A: 예. 내려갈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올라올 때는 좀 힘들어요.

**Q: 지금은 65세 되셔서...**

A: 나 원 나이는 많아요. 근데 호적이,

**Q: 호적이...**

A: 호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제 65세 지났네. 10월 9일이 생일이니까.

**Q: 아, 얼마 전에 생일이셨네요. 처음에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65세 지나기 전까지는 아마 진단서를 계속 준비를 하셨었죠.**

A: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병원만 계속 다니니까, 나는 정형외과만 다니니까 허리 디스크 외에는 별로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원만 꾸준히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떼어줘서.

**Q: 그 진단서 다시 낼 때쯤 되면 공무원이 다시 내시라고 전화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A: 아니. 저기 서면으로 저 연락이 와요.

**Q: 그 통보가 와요? 우편 방식으로?**

A: 예예. 그럼 이제 떼어다 주고.

**Q: 진단서 발급 받는 비용은 얼마나 드세요?**

A: 만 원이요.

**Q: 부담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A: 아이, 그걸 부담된다고 그러면 이거 타 먹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부담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Q: 그럼 혼자 되시고 지금 생계비로 거의 한 20~30만원 나오십니까?**

A: 저기 쌀 나올 때는 27만원, 쌀 안 나올 때는 29만원.

**Q: 좀 적지 않으십니까?**

A: 적죠. 많이 적죠.

**Q: 생활하시는 데...**

A: 예.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건 제대로 못 사먹지. 근데 이제 내가 워낙 절약을 하니까. 전기, 수도 이런 거 대체적으로 절약을 많이 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혼자 살면서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는데 남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절약을 해가며 살아야지. 그것도 한편 감사한데 그거 어떻게, 내가 알아서 절약해요.

**Q: 부족하지 않으세요?**

A: 부족하죠.

**Q: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시고 그럴 때는 누가 도와주시거나 그러세요?**

A: 그런 점은 없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큰돈 필요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웬만한 수술은 병원에서 그냥 해주고.

**Q: 의료보호 1종이시죠?**

A: 네. 1종이라 뭐 그래도 척추 디스크 외에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걸음을 걸으려면 당겨가지고 이제 많이는 못 걷고 ,그래서 그러지 특이하게 뭐 아픈 데는 없어요.

**Q: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건강이?**

A: 예. 다른 데는 다 정상이에요. 진찰받으면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Q: 다행이시네요.**

A: 이제 그런 건 내가 많이 관리를 해요, 집에서.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골다공증도 오고하는데. 뭐 음식 같은 걸 잘 해먹지는 못하지만 건강 섭취하는 쪽으로 많이 반찬을 그 쪽으로 해 먹어요.

**Q: 여기 관리비가 꽤 나오죠?**

A: 어, 임대료가 5만원 돈 나오고.

**Q: 아, 임대료를 내세요?**

A: 예. 임대료가 5만원 돈 나오고, 관리비가 오르기 전까지는 47,100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Q: 아, 10만 원 정도. 거의 10만원 돈이네요. 생활비가 평소에 부족하시겠네요. 그런 거 나가고 나면.**

A: 근데 또 이제 이 달 들어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 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전화도 워낙 내가 안 쓰니까. (웃음)

많이는 안 나와요.

**Q: 겨울 되면 좀 더 나오잖아요.**

A: 네, 이제 더 나와요, 난방 때니까. 어제서부터 땀거든요.

**Q: 조카 분들은 자주 연락하세요?**

A: 아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연락, 지 부모한테 잘 안한대. 조카들이 뭐 이제 내 생일날이나 명절 때나.

**Q: 부산에 친척 분들 좀 계세요?**

A: 없어요.

**Q: 아, 혼자서 계신 거예요?**

A: 예.

**Q: 원래 부모님은 어디 분이세요, 그러면?**

A: 위예요.

**Q: 이북? 서울?**

A: 아니 아니요. 전라도. 근데 이제 나는 태어나기를 전라도에서 안 태어나고,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다가.

**Q: 그럼 부모님들은 다 이미...**

A: 돌아가셨죠.

**Q: 이 근처 혹시 자주 만나시거나 하는 친구 분들도 많으세요?**

A: 서울에는 친구가 많은데 여기는 없어요. 타지이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난 서울에서는 그런 걸 느껴보지를 못 했는데, 여기 텃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Q: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A: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Q: 뭐 어디 다니시거나, 뭐 교회 다니시거나 뭐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A: 어, 그런 거 안 해요. 또 교회 가려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말은 물론 자기들 말로 돈 없어도, 그래도 그건 아니죠. 교회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그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Q: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A: 근데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집에서 왔다갔다 이거 뭐 종이학 접어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들 갖다 드리고.

**Q: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A: 네. 이거 접어서 갖다 드리면 좋아해요.

**Q: 이 동네 노인?**

A: 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요만한 거 좀 앉아서 하다가 누워서도 접을 수 있고 하니까 해서 이제 유리병 사서 거기다 넣어 드리고. 뭐 그게 취미야. 그리고 이제 화초 저런 거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사다가 키우는 재미.

**Q: 대개 깔끔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A: (웃음)

**Q: 서울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장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래 하셨어요?**

A: 예, 오래 했어요.

**Q: 한 2~30년 하셨어요?**

A: 한 20년 했을 거예요.

**Q: 죄송한데 어떤 장사 하셨는지...**

A: 저 식당을 했어요.

**Q: 아 식당을 하셨구나.**

A: 큰 한식집을...근데 어느 한 순간에 잘못 되니까 내리막길을 가더라고요.

**Q: 부산에 오셔서는 식당일 하신 건 없으세요?**

A: 남의 집 살았죠. 남의 집 일 다녔죠.

**Q: 처음에 오셔서는요? 건강 많이 안 좋아지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 일은 못 하셨고?**

A: 못했죠. 예.

**Q: 집에서 부업 같은 것도 안 하셨어요?**

A: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기 저 군인들 입는 군복, 실밥 따는 걸 했는데 그게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폐가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못 하잖아.

**Q: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A: 그거 오래는 안 했어요. 한 1년 했나 그래요.

**Q: 그럼 거의 한 60대 정도까지는 계속 일을 하신 거네요?**

A: 예, 했어요. 했는데 많이 벌었죠, 돈을. 남이 보기에다 그렇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조카가 조금 힘들어서 빚보증을 좀 서줬더니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Q: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A: 나는 원래...예?

**Q: 그런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A: 에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남한테 돈 10원 하나 안 빌려 쓰고 살았던 말이죠. 싫어요 그게. 없으면 내가 나가서 벌면 되는데, 남한테 손 벌리고 산다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깨끗이 빚 없이 조용히 살아요.

**Q: 음식 솜씨 좋으시겠어요.**

A: 근데 지금은 아냐, 안 해 먹은 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지금은 내가 해도 아닌 것 같아. 남들은 이제, 지금은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하는데. 근데 처음에 와서는 좀 괜찮았거든요. 이제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어르신들 드리고.

**Q: 어떻게 아시나 봐요?**

A: 아니, 요 뒤에 공원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Q: 많으시나보죠?**

A: 예, 많아요. 나와서 놀고 계시는 거 보면 안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부침개도 갖다 드리고. 이제 막 고구마도 삶아다 드리고, 감자도 삶아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는 안 했고요. 조금, 이제 조금 해드렸었어요. 이제 맛있다고 했었어요. 서울 아줌마, 서울 김치가 맛있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는 저 음식 잘했어요.

**Q: 진짜 맛있었겠다.**

A: 네, 저 워낙 식당도 큰 집이었고, 이제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김치를 참 잘 담는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냐.

**Q: 근데 너무 혼자 계시면 적적하고 그래서, 어디 좀 기회가 되면 소일이라도 간단하게 근처에서 하거나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A: 그래도 할 일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써 주나요, 안 써주지. 그러니깐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돈 벌고 내가 이 수급 돈을 안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예요. 왜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심정인데, 워낙 몸이 안 이러다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Q: 혹시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으세요? 몸이 좀 덜 아프면?**

A: 그렇죠.

**Q: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A: 어떤 거, 뚜렷하게 나는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이라 딱 건 모르고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장사 같은 건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일거리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도 지금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써줘요?

**Q: 여기 앞에 혹시 복지관 있는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A: 안 가봤어요.

**Q: 아, 그러세요? 그런 데도 다니시고 그럼 좋을 텐데.**

A: 아 근데 거기 뭐 노인대학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그런데 가기가 그러네요. 그래 안 가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수급자래도 돈이 솔찬히 들어가더라고. 한 달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 5만원 돈 깨져야 되겠더라고.

**Q: 복지관 이용하려면요?**

A: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Q: 아마 그게 수급하시는 분들은 교육료 같은 거 안 받으실 텐데.**

A: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별개로. 근데 거기서 어울려서들...

**Q: 어디 가고?**

A: 그러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내가 없다고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 아예 그냥 안 가지 내가.

**Q: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A: 컴퓨터를 좀 배웠으면 하거든. 컴퓨터를 좀 배웠으면 하는데. 밀려가지고. 사람 많이 밀렸다고 그래. 컴퓨터를 배우면 집에서 좀 하고, 인터넷으로 뭐 저기 집에서 장사를 해도 되잖아.

**Q: 아,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잘 하실 것 같아요.**

A: 근데 가서 신청을 했더니 사람이 많이 밀려 있대.

**Q: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A: 예. 기다리고 있어요.

**Q: 몸만 좋으시면 진짜.**

A: 몸만 잃지 않으면, 아유 차라리 허리가 안 아프고 다른 데가 아프다면 참고 일 다니겠어요. 근데 도저히 허리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만 안 아프면, 나가면 내 나이 그렇게 안 봐주니까.

**Q: 젊어 보이세요.**

A: 이제 뭐 세수하고 화장 안 해도 뭐 60대까지는 안 보더라고요, 나가면. 그래서 내가 일을 다닐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허리가 이래 놓으니까.

**Q: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A: 일은 많이 안 했어요. 일은 많이 안 했는데. 옛날에, 그 때 30대 초반인가 한 번 넘어졌었어요.

**Q: 아, 그럼 그 때 치료를 제 때 안 하신 거예요?**

A: 예. 넘어졌는데 여기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아마 여기 뼈가 망가졌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는 통증을 별로 못 느끼니까 그냥 놔두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먹고 아파서 병원 가서 CT 찍고 하니깐 그게 문제가 됐더라고.

**Q: 아이고. CT 예선 잘 안 나와서 수술해도...**

A: 그럼 보문병원에서 정 많이 아프면 수술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난 그냥 이대로 아플래요 이러지.

**Q: 병원은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A: 한 달에 네 번 밖에 못 가잖아요. 그 이외에는 내가 돈을 내고 다녀야 하거든. 그러니까 돈 내고 다닐 형편이 안 되니까 네 번 밖에 못 가요. 지금도 이 어깨가 많이 여기 지금 아프고 안 좋거든. 근데 돈을, 가야 되는데 내가 돈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 이 달에 벌써 다 썼거든.

**Q: 의사가 이렇게 진단서, 사유서 써주시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A: 이제 저 병원만 계속, 이 한 군데 병원만 해 놓으면 한 달에 대, 여섯 번 갈 수는 있는데, 혹시 몰라서요. 만약에 딱 데가 아파가지고 감기라도 걸린다든가 하면, 딱 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 병원은 일반 요금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병원예를 갔었는데 그 어르신이 이 지정 병원을 해 놓고 이제 여기 딱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약 값만 18,000원이 나오더라고요.

**Q: 약값 만요?**

A: 예. 그래서.

**Q: 보험이 안 되는 건가?**

A: 응, 저기 한 군데 지정해 놓으면 안 된대요, 딱 병원에서.

**Q: 다 알아봐야 되네요, 또.**

A: 근데 또 그걸 그 할머니도 몰랐고 나도 몰라서 그랬지 그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이 쪽 병원에 갔으면 그렇게 안 내도 됐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이 병원마냥 그냥 가도 되겠지 싶어서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정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오고, 그냥 견뎌야죠.

**Q: 그래도 대개 동네 어르신들 잘 도와드리고 대개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A: 아유, 이제 나도 그 연세되면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도 있어.

**Q: 처음에 진단서 내고 그럴 때 공무원 선생님이 서류 같은 것도 잘 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A: 몰라요, 나는 복이 있었는지 잘 해줬어요, 아가씨가, 아가씨들이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거 이제 수급권 생활에 들어가는 수급자 맨 처음에 신청할 때 다 쓰라고 저걸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적었어요. 생활비 한 달에 얼마 들어가고 전기 요금, 뭐 이런 거, 그런 거 적고 이제 과일을 얼마치를 먹느냐, 이것도. 그건 내가 못 적었어요. 양심상 그걸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타 먹는 것도 고마운데 과일 먹는 것까지 적어 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적어냈어요.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돈이 그만큼 밖에 안 나오나 지금 그러고 있지만.(웃음) 그래도 고마워요. 딱 사람들은 뭐 적게 나와서 사네, 못 사네 이러 더만. 어르신들 그래 여기 다 가면 앉아서, 어르신들 이거라도 정부에서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드리지.

**Q: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A: 많죠. 적다고.

**Q: 필요하시거나 이런 서비스가 더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거.**

A: 글썄, 내 경우는 병원비만 조금 그렇지, 나머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받을 건 없어요. 근데 병원에 다니는 거.

**Q: 적적하실 때 이렇게 와서 간병 도와주고 이런 거.**

A: 아직은 제가 젊잖아요.

**Q: 그래서 일부러 신청 안 하신 거군요?**

A: 예.

**Q: 알고 계시구요?**

A: 예. 저기 먼저 저 치질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 때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 신청을 했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네.

**Q: 그럼 중증인 경우만?**

A: 응, 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움직이면 안 됐거든. 그래 어떡해. 안 된다는데. 그래 할 수 없이 혼자.

**Q: 고생하셨어요?**

A: 한 열흘 동안은. 움직이면 그거 터지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입원, 이제 수술하는 날짜서부터 5일간 입원했나? 5일간 입원했었는데 딱 건 다 무료이고, 저 입

원실비하고 약값하고 이거해서 21만원 나왔더라고.

**Q: 어떻게, 어떻게 그걸 지출하셨어요? 급여보다...**

A: 21만원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구서는 이제 내가 워낙 짜임새 있게 살다보니까 엄한 돈을 안 쓰잖아요. 어디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근데 내가 어르신들 이런 거 안 사드리고 이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뭐 2만원씩은 저축을 하는데, 이제 나는 성격이 나가서 보면 그냥 그러면 뭐 같은 거 사다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 놓은 거 있었지. 근데 그 병원비 내고나니까 없잖아. (웃음)

**Q: 그러니까요.**

A: 병원비 내고나니까 없어. 뭐 그거 29만원에다가 국민연금.

**Q: 기초노령연금 나오시는구나, 이번에.**

A: 아니.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남의집살이 할 때, 국민연금 하도 동사무소 직원이...

**Q: 아, 연금 부으셨구나.**

A: 그거 하나 하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럼 제일 싼 걸로 하나 넣으라고. 그리고 자동이체 시켜 놓으니까 내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저기 타 가라고 저거가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60세 때서부터...

**Q: 나오죠, 조금씩.**

A: 예. 그때서부터 나왔어요.

**Q: 연금이 좋은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A: 근데 지금 그래요. 아 나는 이거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넣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죠. (웃음)

Q: 다행이세요.

A: 예. 다행이에요.

Q: 주변에 보면 나이는 어린데, 나이는 젊어도 일하기 싫어서 진단서 같은 거 부풀려 갖고 내서 일 안하고 수급 받으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A: 내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고, 여기 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

Q: 다 정직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

A: 예.

Q: 다들 몸이 어디가 불편하시다거나, 병원 다니시거나.

A: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아.

Q: 많으시더라고요.

A: 응 많아.

Q: 혹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 가끔 가다 아프셔 가지고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분들은 어디다 연락을 하세요?

A: 저기 119에서 이 전화 그리 직통으로 가는 전화 다 놓아 주잖아요.

Q: 아 그럼 그걸 눌러가지고 바로?

A: 예. 왜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집집마다 다 그거 놓아 드려요.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있어도 몸이 많이 아플 때 그거 누르면 119에서 오잖아요. 참 그 제도 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119 왔다가요. 하도 병자들만 살다보니까. 근데 나는 이제 허리 척추만 아프지 이 속은 멀쩡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건강해 보이잖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 앞에서 아픈 내색 하



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프면 이렇게 들어가 앉아서 안 나가요, 밖에. 밖에 안 나가고. 좀 괜찮으면 밖에 나가고.

**Q: 혹시 5년 뒤쯤에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A: 5년 뒤에?

**Q: 이른 좀 넘으셨을 때.**

A: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Q: 그럼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하세요? 더 건강 나빠지시지 않고?**

A: 응. 건강만 나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됐지.

**Q: 항상 감사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A: 나는, 남들은 교회 다닌다는데,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것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여기 다니시거든요, 동네에. 난 목사님한테 교회 안 다니고 선하게 살 거예요. 난 교회 안 다니고 선하게 산다 그래. 아 그래서 천당 못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교회 같은 데도요 내가 가서 헌금을 잘 내줘야 사람이 인정받지, 아니면 아니예요.

**Q: 안 내셔도 되는데, 저도 맨날 천 원씩 밖에 안 내는데.**

A: 아이고,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Q: 여기 또.**

A: 그래서 내가 안 나가고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지. 남한테 해롭게 안하고 살면 되는 거지.

**Q: 그런 교회가 생겨야겠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국가나 뭐 저희 들한테.**

A: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타지라 말 잘못했다가 나 쫓겨나거든.

**Q: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A: 워낙 텃새가 심해가지고. 나 진짜 거 참 여기 와서 살면서 그걸 너무 마음에 와 닿게 느꼈기 때문에 말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어느 날은 말을 또, 남 해로운 말은 안하고 살지만. 그렇더라고요.

**Q: 저희 어른들도 서울 살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친척 분들 중에서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A: 예.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사는 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사는 것 같아요.

**Q: 공무원 선생님이 제도 관련해서 지금 있는 그게 제일 나오신 거고? 의료비만?**

A: 예. 의료비만 나는 주면 되고.

**Q: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돼요. 뭐 성함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내용만 전달해서.**

A: 만약에 내가 말했다가 아이고 여기 나가면 나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Q: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A: 그래서 지금 내가 저 덕천동으로 이사 가려고 신청을 해 놓았어요. 여기는 너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Q: 어떤 게 무서우세요?**

A: 사람들이.

**Q: 덕천동은 거기도 임대 아파트나 있나보죠?**

A: 네, 거기도 있어요. 그랬더니, 올 봄에 신청을 했는데 4년을 기다리래요.

**Q: 아유, 꽤 기다리네요.**

A: 예. 근데 모르지.

**Q: 이사를 가고 싶으신 거죠?**

A: 네, 이사 가고 싶어요. 내가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곡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 민원처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몇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잘 살아요. 남편도 있고 아 진짜 돈도 풍족한 사람이야, 근데 생활 수급자더라고요.

**Q: 혹시 법적으로 이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A: 아니에요.

**Q: 이혼도 아닌 데도요?**

A: 예. 그래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저기 수전동에서 살았는데 동사무소 아가씨가 거길 다녔나 봐요. 그 아가씨가 만들어줬다데. 그래 가지고 이리 오게도 만들어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엄마가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 집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참 속만 썩여, 애를 먹이고 다녀요. 근데 이 할머니 이렇게 구부러졌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아들하고 같이 안 살아요. 게다가 아들이 결혼 생활도 엉망이라서 와이프하고도 헤어지고 혼자 돌아다니고, 손녀딸, 손자하고 셋을 데리고 이 할머니가 사는데 생활 수급자를 만들었더니만 동사무소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생활 수급자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풍족하게 잘 사는 집은 조사 한 번 안하고 해주고, 짝소리 못하고 있으면서 근데 진짜 정작 쥐야할 집은 그렇게 막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네요.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수급을 끊어 놓더라고요.

**Q: 그럼 지금은 못 받고 계시고요?**

A: 아뇨. 지금은 아들이 애들 데리고 외국으로 가 버렸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수급자가 되었지. 그때는 너무 살기 힘들셨거든.

**Q: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네, 그때.**

A: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옆에서 보기에 참 화나더라고. 내가 저기 서울만 같았어도 가만 안 놔뒀어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만 같았어도 내가 동사무소 전화해서 가만 안 놔뒀어요. 그런데 타지인데 내가 어떤 할 말이 있어 못하지. 그래서 참 타지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내가 서울에서만 그랬더라도 진짜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뒀어요. 나 영업할 때도 워낙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뭐 위생 과에서건 어디에도 손을 못 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날. 근데 또 그렇잖아요. 이웃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또 막 옆에 서들 그거. 근데 진짜 그랬다가는 공무원들 나한테 막 못하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타지만 아니었어도 그 직원 안 좋았을 거야.

**Q: 그런 경우도 있구나.**

A: 근데 그런 집에 몇 집 있어. 내가.

**Q: 알긴 아세요?**

A: 그럼.

**Q: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네요? 알면서 그냥.**

A: 응, 알아도 내가 말을 못 하는 건, 괜히 사는 동안에 안 좋을까봐 말을 못 하는 거지. 참 화나지,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저런 집이 저렇게 부잣집이 저런 집을 줄 걸 저런 집 끊고. 없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나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Q: 다른 또 훨씬 힘든 사람?**

A: 응. 힘든 사람 한 집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집도 있고 한테 저기 놔두고서는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유 그 집하나 비어서 없는 사람 주면 얼마나 좋냐고, 내 얘기는. 그래서 어유 또 이거 또 동사무소 직원들 앞에서 이거 트집 잡는 거.

**Q: 어유 이거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상관없어요.**

A: 난 전화가 자꾸 오고해서. 이거 뭐가. 이 전화가 못된 전화 자꾸 오잖아요.

**Q: 아, 사기 전화?**

A: 응. 그러니까 나는 오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당신네들 사기를 치고 싶으면 자기들보다 더 부자사람한테 사기 쳐, 나 생활수급자거든. 전화 안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하지 마시오. 그럼 막 그 말도 끝나기도 전에 자기네가 먼저 끊어 버려요. 나는 꼭 전화가 오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난 생활 수급자인데 내가 사기 당할게 뭐가 있냐,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라 내가 이러지. 다른 건 불만은 없고, 그거.

**Q: 의료비.**

A: 의료비는 불만이라기보다 조금 더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거고, 정부도 재정난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말만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걸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좀 있는 사람은 좀...

**Q: 안 줄 수 있도록.**

A: 끊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난 많이 보거든. 그런 사람들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 아파트에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그 사람들 시샘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Q: 그 혜택을 좀 가난하신 분들에게 드려야 된다고, 철저하게 해서...**

A: 응. 이 좀 조사를 완강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좀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Q: 그렇죠.**

A: 진짜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좀 해줬으면 하고, 난 그래요, 지금도. 내가 조금만 몸이 조금만 건강해지면 나는 이거 받고 싶지 않다고.

**Q: 에이.**

A: 내가 지금 우리 저 조카 놈이 미안하지, 이모, 내가 막내 이모거든. 우리가 형제간이 많아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 내가 막내 이모인데, 막내 이모를 갖다, 혼자 사는 막내 이모를 갖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저도 이제, 지가 잘 사면 저거 하겠지만 아직 힘들거든요.

**Q: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A: 나는 자꾸 전화가 오고해서 이거 무슨...

**Q: 사기인줄?**

A: 응.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Q: 저희 연구소요? 바로 안 갈 텐데 그게.**

A: 아니 맨 처음에 온 전화번호가 355에 8005대.

**Q: 아 맞아요.**

A: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더라고요.

**Q: 보사연이라고.**

A: 아 그렇구나.